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

서 문

2004년, 우리는 ‘Dynamic Busan’ 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선도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시민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슬기롭게 발휘할 때 더욱 빛난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산 슬로건을 내실있고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의미 있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시화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태풍 매미의 재해를 능동적으로 극복한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저력은 외형적 성과에 걸맞는 내실을 굳건히 할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부산을 빛낸 인물을 발굴하여 선열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여, 시민 모두의 울곧고 건전한 시민정신의 지주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해 12월에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03년부터 추진해 온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발굴 사업 중 민족운동, 종교·사회활동분야와 학술·언론·교육분야의 인물을 선정하여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물질문명에 매몰되어 가는 인간의 참모습을 되찾고 인간과 자연, 물질문명과 울곧은 정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의 참모습을 가꾸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모아 주신 선정위원님들과 집필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 6.

부 산 광 역 시 장 *하남식*

발 간 사

부산시가 지난해,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을 펴낸 데 이어 이번에 그에 이은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을 간행하게 된 것을 4백만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경사스럽게 생각합니다. 釜山을 빛낸 人物 선정위원회는 公募와 조사 등을 통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숙의를 하고, 다시 추가 조사와 시민공개 검증 등 엄정한 심의 끝에 2003년 12월 독립투사 金甲 선생 등 36분의 인물과 ‘부산 항일학생의거’ 등 6개 사건을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인물들은 20세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민족운동과 종교·사회활동, 학술·교육·언론분야에서의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인물들을 선정하면서 위원들은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에 거듭 숙연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장 부산은 지금 유럽·아시아 대륙과 오대양을 잇는 관문으로 산업, 무역 분야에서는 물론 문화면에서도 세계에 우뚝 선 대도시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부산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가 외세에 주권을 강탈당하고 국토를 강점 당한 고난과 불운의 시대에 이번에 선정된 인물들과 같은 분들의 일신을 아끼지 않은 분투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분들의 애국, 애향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산시가 36분의 先賢과 6개 사건을 선정하여 그 분들의 공헌을 기리는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을 간행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발간이 부산의 정신사를 뚜렷하게 정립하고 이 고장의 밝고 힘찬 내일을 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자료의 검증과 조사, 집필, 편집에 애쓰신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 6.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장

김임서

차 례

- 서 문 /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 발간사 /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장 김임식

I. 민족운동, 종교·사회활동

○ 민족운동

1. 김 갑(金 甲) / 9
2. 김명규(金明奎) / 17
3. 김법린(金法麟) / 24
4. 김병태(金餅泰) / 33
5. 박영출(朴英出) / 41
6. 박재혁(朴載赫) / 49
7. 박차정(朴次貞) / 58
8. 안희제(安熙濟) / 65
9. 양한나(梁漢那) / 72
10. 윤현진(尹顯振) / 80
11. 이봉우(李鳳雨) / 88
12. 장건상(張建相) / 96
13. 최천택(崔天澤) / 103
14. 한형석(韓亨錫) / 110
15. 한흥교(韓興敎) / 118
16. 구포지역 항일민족운동 / 126
 - 윤정은(尹正殷)
17. 기장지역 항일민족운동 / 134
 - 구수암(具壽巖)
 - 김도엽(金度燁)
18. 동래고보 항일학생운동 / 143

차 례

19. 범어사 항일의거 / 157
 - 김상헌(金祥憲)
20. 부산진 일신여학교 항일학생운동 / 168
 - 홍재문(洪在文)
21. 부산항일학생의거 / 178
 - 김선갑(金銑甲)

○ 종교·사회활동

1. 경허(鏡虛) / 191
2. 동산(東山) / 199
3. 매견시(Mackenzie Man of Mission) / 207
4. 소재건(Aloysius Schwartz) / 213
5. 이종률(李鍾律) / 221
6. 장기려(張起呂) / 230
7. 한상동(韓相東) / 237

II. 학술·언론·교육

1. 박원표(朴元杓) / 247
2. 박필채(朴苾彩) / 256
3. 손진태(孫晉泰) / 264
4. 우장춘(禹長春) / 274
5. 윤인구(尹仁駒) / 283
6. 조명기(趙明基) / 290
7. 정중환(丁仲煥) / 297
8. 최한복(崔漢福) / 303

집필위원 명단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I . 민족운동, 종교·사회활동

▣ 민족운동

▣ 종교·사회활동

□ 민족운동

1. 김 갑(金 甲)
2. 김명규(金明奎)
3. 김법린(金法麟)
4. 김병태(金餅泰)
5. 박영출(朴英出)
6. 박재혁(朴載赫)
7. 박차정(朴次貞)
8. 안희제(安熙濟)
9. 양한나(梁漢拿)
10. 윤현진(尹顯振)
11. 이봉우(李鳳雨)
12. 장건상(張建相)
13. 최천택(崔天澤)
14. 한형석(韓亨錫)
15. 한흥교(韓興敎)
16. 구포지역 항일민족운동
 - 윤정은(尹正殷)
17. 기장지역 항일민족운동
 - 구수암(具壽巖)
 - 김도엽(金度燁)
18. 동래고보 항일학생운동
19. 범어사 항일의거
 - 김상헌(金祥憲)
20. 부산진일신여학교 항일학생운동
 - 홍재문(洪在文)
21. 부산항일학생의거
 - 김선갑(金銑甲)

1. 김갑(金甲)

본명은 김진원(金璿源)이다. 1889년 1월 7일, 경남 동래군 읍내면 원리(院里) 1039번지에서 출생하여 중국으로 망명하기까지 살았다. 어려서 천연두를 앓아 얼굴에 얽은 자국이 있었다. 1906년 4월 사립 동래 개양(開陽)학교(이 학교는 1907년 12월 동명(東明)학교로 개편되었다)에 입학하여 1910년 3월에 졸업(동명학교 2회)하였다. 사하면 구평리(舊平里) 조주사(趙主事) 집의 조금이(趙今伊)와 결혼하여 딸 미리(美理)를 낳았다. 졸업 후 농사를 지으며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에 참여하였다. 대동청년단은 1909년 10월에 안희제를 비롯한 청년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영남 지역 최초의 비밀결사단체였다.

1917년 5월 20일 북경(北京)대학 입학의 목적으로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갔다. 상해는 중국의 관문이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열강이 진출하여 각각 조계지를 갖고 있던 국제도시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해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어 프랑스조계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고, 상해는 중국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김갑은 곧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였다. 동제사는 1912년 7월에 신규식이 주도하여 결성한 상해 최초의 독립운동단체로서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독립운동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신규식을 비롯하여 동제사를 이끈 핵심



중국의 국제도시 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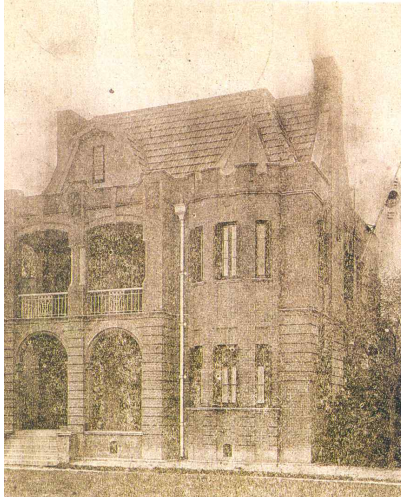
3·1 운동 직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운 곳.

인물 가운데는 민족종교인 대종교(大宗教)의 신자가 많았다. 그도 대종교에 입교하여 참정(參政), 지교(知教), 상교(尙教) 등을 역임하면서 독립정신 고취에 노력하였다. 대종교의 총본사(總本司)가 국내에서 만주로 옮겨오자 김갑은 상해에 서도본사(西道本司)를 설치하였다.

그가 상해에 도착한 직후인 1917년 7월에는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제의하였다. 그 2년 뒤인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조선의 독립을 안팎에 선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구를 설립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으로 드러난 전 민족의 독립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고,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지휘할 최고 지도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무원(國務院)과 의정원(議政院)으로 구성되었다. 대의기관인 의정원은 출신 지역별로 선임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1919년)

김갑은 경상도 의원이었다. 1919년 4월 22일 국무원 각 부 차장제를 폐지하고 위원제를 채택했을 때 김갑은 교통부 위원에 선임되어 초기 임시정부 업무 수행에 공헌하였다. 또한 1919년 7월 8일 의정원 내에 상임위원회가 조직되자 김갑은 군무(軍務)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이사(理事)에 올랐다. 8월 28일에는 법제위원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일제 경찰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으로 일제 침략기관의 파괴와 침략 원흉 응징 등 암살, 파괴 활동을 맹렬하게 전개하였다. 일제 경찰은 김갑이 임시정부의 요인이라는 사실보다 의열단 단원이라는 사실에 더 주목하여 감시의 눈초리를 곤두세웠다.

일제 경찰은 이동휘, 신채호, 장건상 등과 함께 김갑을 ‘무력파(武力派)’, 곧 무장투쟁노선을 가진 인물로 분류하고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 안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운동노선,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실력양성운동노선,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투쟁노선 등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 노선이 대립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이 임시정부 수립 직전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을 위임통치해 줄 것을 청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 대립은 견잡을 수 없는 내분으로 치달았다. 신채호를 비롯한 무장투쟁파들은 “이완용은 있는 정부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정부조차 팔아먹은 자”라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북경으로 이동하여 반임시정부 활동을 펼쳤다.

북경에는 신채호, 신숙, 박용만 등 임시정부의 외교독립운동노선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1921년 4월 17일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하고 만주지역의 독립군들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는 무장투쟁노선을 주장하였다. 김갑은 국내 노동당(勞動黨)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신채호, 김원봉, 이극로, 장건상 등과 함께 성토문과 선언서를 공포하여 각지로 보내었다. 이 글 속에서 그는 “방관자의 눈에는 조선은 멸망하였다고 보이나 조선인의 심중(心中)에는 영원히 독립한 조선이 있고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우리 조선에 대해 무례를 가한다면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라도 혈전(血戰)함은 조선민족의 정신이다. 만일 이 정신이 없이 친일자(親日者) 친미자(親美者) 친로자(親露者) 친영자(親英者)들이 각각

그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을 원한다면 조선민족은 세세생생(世生生) 노예의 한길을 윤희하게 된다”며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비난하고 아울러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부정하였다. 이들은 그 대신 1919년 4월 23일 국내에서 국민대회 명의로 선포된 한성정부(漢城政府)의 법통을 잇는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을 수립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최고기관으로 받들고, 그 아래에 각지의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고, 지휘계통을 통일하여 ‘대조선국민군’으로 편성하여 군사통일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이상룡(李相龍)을 수반으로 하는 조각인선까지 마쳤다. 이때 김갑은 재무총장(財務總長)에 선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급하고 걱정적인 조치는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컸다. 그것은 한편으로 임시정부의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군단의 통합운동을 촉진하였다.

이승만이 상해에 머물지 않고 미국에서 지낸 것도 임시정부 침체의 한 요인이었다. 그는 성화에 못이겨 1920년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상해에 부임하긴 했지만 임시정부의 갈등을 더 심화시킨 채 태평양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 아래 하와이로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태평양회의(1921. 11. 11~1922. 2. 6)에 한국 대표단은 참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태평양에서 일본의 세력 강화와 국제정세의 안정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외교독립노선에 입각하여 외교 활동에 치중했던 임시정부의 권위는 다시 크게 실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3년 1월, 임시정부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고수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김갑은 국내 13도 총간부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국민대표회의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 선서문 및 선언서 수정위원으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이름에 걸맞게 개혁하자는 개조파와 임시정부를 없애고 신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로 양분되어 결렬되고 말았다. 개조파의 간부로 활동했던 김갑은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 고수파와 협조하여 임시정부를 개조하는 길로 나아갔다.

1924년 4월 국무총리가 노백린에서 이동녕으로 경질되었다. 이동녕은 국무위원 가운데 내무총장 김구, 외무총장 조소앙, 재무총장 이시영만 유임케 하고 나머지 부서에는 새로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차장만 임명하여 차장이 총장의 임무를 대리케 하였다. 이때 김갑은 법무총장 대리 차장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 신년 축하식(1921년 1월 1일) 임시의정원 요인들.

한편 의정원에서는 그해 6월 대통령 유고안(有故案)을 통과하였다. 나아가 9월 10일자로 국무총리 이동녕이 대통령 직무대리로 취임하였다. 1924년 11월에는 이동녕이 사임하고 12월에 임시 대통령대리 국무총리로 박은식이 취임하였다. 이때 김갑은 노동총판(勞動總辦)으로 입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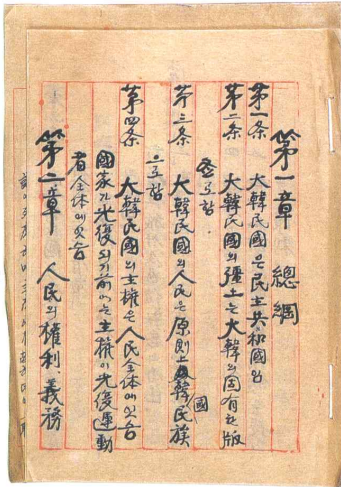
1925년 3월 23일 의정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임하는 한편, 그 달 30일에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인 국무령제(國務領制)를 채택하였다. 그 동안의 정국 혼란이 대통령제의 헌법과 이승만의 독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26년 12월 10일 김구가 국무령에 당선되자 김갑은 국무위원

에 선임되었다. 김갑은 1927년 1월 15일 임시정부 약헌기초위원(約憲起草委員)에 피선되어 개헌 작업에 참여하였다. 1927년 4월 11일부터 발효한 새 약헌(신헌법)은 국무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제2조)고 규정하고 나아가 국무위원회가 중요한 명령을 발할 때는 의정원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구조에서 정부의 위치를 약화시켰다. 국무회의에서 호선(互選)하는 주석(主席)은 수반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의장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2조 단서에 “광복운동자가 대단결한 정당이 완성될 때는 최고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련과 중국의 통치형태인 이당치국(以黨治國) 체제를 지향하였다. 이는 당시 대두하고 있었던 민족유일당(民族唯一黨) 운동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김갑은 상해 재류 독립운동가들이 조직한 상해교민단 의사회 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27년 2월 23일에는 상해교민단이 운영하는 인성학교(仁成學校) 진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독립정신을 고취, 격려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초안(1944년)

1927년 8월 19일 의정원회의에서 이동녕을 주석국무위원으로 추대하고 김갑을 재무부장에 임명하였다(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오영선, 군무부장 김철). 재무부장에 임명된 김갑은 임시정부 사옥을 관리하며 상주하였다. 이 당시 임시정부의 재정상황은 집세 조차 제때 지불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으므로 재무부장인 김갑은 임시정부

유지비 마련에 늘 부심하여야 했다. 일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권총 네 자루를 가지고 있었으나 극심한 경제적 곤경 탓에 그마저 두 자루를 팔고 나머지 두 자루만을 김갑이 보관하고 있었다.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독립운동이 침체하고, 국내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 타협주의 세력과 자치론자들이 출현하는 한편 대중운동이 성장하고 사회주의운동이 급격히 부상하였다. 또한 국공합작(國共合作)에 바탕을 둔 중국 국민혁명이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이념과 노선, 활동 지역을 달리하는 모든 국내외 세력을 하나로 통일하여 민족해방운동의 구심체로서 민족 유일 정당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였다.

1926년 10월 16일에 민족유일당 북경축성회가 결성되고 이어서 1927년 4월 11일 상해축성회가 창립되었다. 임정 요인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와 조선공산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해축성회는 좌우연합 조직체의 면모가 뚜렷하였다. 김갑은 상해축성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광주(廣州), 무한(武漢) 남경(南京)에서 잇따라 축성회가 조직되자 1927년 11월에는 5개 축성회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 관내축성회연합회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1927년 국공합작의 결렬로 인한 국공대결과 중소대결, 좌파의 국제주의 매몰, 우파 일부의 반공주의 몰입은 민족유일당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좌우 분리와 대립을 낳았다.

결국 1929년 10월 26일에 다섯 축성회 가운데 가장 중추적 조직이었던 상해축성회가 자진 해체를 선언하고 좌파연합체인 유호(留滬)한국독립운동자동맹을 결성하였다.

이에 맞서 김갑은 이동녕, 안창호 등과 함께 임시정부와 홍사단을 중심으로 1930년 1월 25일에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이당치국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유일당이 되었다.

1933년 3월 14일, 김갑은 상해 프랑스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 광제의원(廣濟醫院)에서 44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임시정부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이귀원

2. 김명규(金明奎)

김명규는 1895년 6월 3일 동래에서 출생하여 청장년기를 밀양에서 보냈다. 호(號)는 야은(野隱)이다. 1912년 밀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진주농업학교로 진학했다. 진주농업학교를 졸업할 무렵 동래에 와 있었는데 이때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 3·1독립운동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뒤 헌병경찰제도를 통해 혹독



한 무단통치를 실시한 데 대해 전민족이 떨쳐 일어난 항쟁이었다. 일제는 무단통치를 하면서 항일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투옥하고, 일체의 결사(結社)와 언론활동을 금지시켰다. 교육정책에서도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제하고 고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였다. 게다가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광산, 철도,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이권을 독점 경영하였다. 그 결과 몇몇 예속자본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토착자본가들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 농민들 역시 대다수가 소작농(小作農)과 화전민(火田民) 등으로 전락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본과 만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엄혹한 식민지 상황 속에서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들어서면서 끝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윌슨대통령은 1918년 1월 14개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원칙을 파리강화회의(講和會議)에 제출하였다. 그 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곧 세계 피압박민족에게 독립의식을 고취

시키는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그 결과 국내외의 항일독립운동가들과 청년학생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편승하여 조선의 독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승하(昇遐)하면서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毒殺說)이 유포되자 민심 또한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 1919년 동경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2·8독립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2·8독립선언은 국내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으며, 급기야 천도교의 손병희를 중심으로 기독교, 불교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임을 갖고 3·1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대개 재경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귀향하면서 전국 각지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는 장날을 기하여 3·1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다.

부산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1일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날 시위는 함안의 의거와 함께 경남 최초의 3·1독립운동이었다. 이후 3월 13일 동래고보 학생의거, 3월 18일 동래 범어사 학생의거, 3월 29일 구포장터의거, 4월 5일 기장의거, 4월 8일 정관 좌천의거 등이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김명규는 3월 13일 동래고보 학생의거의 주동인물이었던 엄진영(嚴進永)과 복천동에 같이 살면서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 결과 동래고보생들의 3·13일 독립시위에 김명규는 적극 가담하여 3월 13일 장날의 시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함께 하고 격려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3월 13일 동래만세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면, 1917년 동래사립고등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곽상훈(郭尙勳)이 3·1독립 선언문과 격문을 갖고 3월 3일 동래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곽상훈은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곽상훈은 선언문과 격문을 동래에 가지고 올 때 군경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선언문과 격문을 모두 창호지(窓戶紙)에 베긴 후, 가위로 가늘게 잘라 노끈을 꼬아 당시 축구화로 사용하였던 미투리의 끈을 만들어 신에 꿰어 가지고 내려 왔던 것이다.

한편 곽상훈의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이갑성(李甲成) 또한 연희전문학교 학생 김모(金某)를 부산지방에 파견하였다. 이때 이갑성은 김모에게 ‘부산에는 부산상업학교와 일신학교가 있고 동래에는 동래고보가 있으니 이 세 학교가 3·1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할 수 있도록 현지 학생들과 접촉할 것’을 부탁하였다. 김모(金某)는 3월 3일 직접 동래고보를 방문하고 부산상업학교와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동래고보에서 책임지고 연락하여 대대적인 학생의거를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상경하였다. 이때 동래시위를 부탁 받은 학생은 4학년 급장이었던 김인호(金仁浩)의 3, 4명이었다. 이들은 같은 4학년 졸업반 급우인 엄진영(嚴進永), 김귀룡(金貴龍), 고영건(高永建) 등과 모의하고 각 학급의 연락을 위해 3학년 추규영(秋圭映)의 5명과 2학년 박종관(朴鍾寬), 이수렬(李守烈), 임명조(林命祚) 등을 비밀리에 모아 전학생이 총궐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궐기 시기와 준비사항,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장소와 사람을 달리하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소 엄진영과 교분이 있었던 김명규가 적극 가담했던 것이다.

한편 동래에 온 곽상훈은 모교의 교사이자 은사인 이환(李環) 선생을 찾아가 자신이 동래에 온 목적을 말하고 먼저 동래청년들(대부분 동명학교 사립 동래고보 출신)을 규합하여 서울과 똑같이 33인의 인사로서 독립선언문에 서명 날인하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이환 선생은 곽상훈에게 ‘자네는 일본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니 가만히 들어 앉아 있고 내가 직접 나서 사람들을 규합하겠다’고 하면서 시위 준비에 열중하였다.

이 무렵 앞서 살펴본 동래고보 4학년 김인호(金仁浩) 중심의 학생모임은, 곽상훈 선배가 이환 선생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곽상훈과 이환선생을 만나게 된다. 거기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거사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두 분께 전달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각각 준비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당시 동래고보에는 김병규(金秉圭, 해방후 경남도지사 역임)선생이 지리를 담당하면서 몰래 한국사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민족의 독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재학생들은 동래읍 칠산동 학소대(鶴巢臺) 근처에 산재해 있는 학생들 집과 복천동의 엄진영 집 사랑채, 오종식(吳宗植, 2학년)집 사랑채, 그리고 수안동에 있던 이한주(李漢周), 정호중, 백정기(白正基, 2학년) 등의 하숙방을 전전하면서 모의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시위는 3월 13일(음력 2월 12일) 동래 장날[場日] 정오 때 하기로 최종 결정을 보았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하숙방, 학교의 구석진 창고 등지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는 학교 근처 서원(書院)에 살고 있던 박달용(朴達鎔)의 거처에서 학교등사판을 가져다 서진령, 엄진영, 김인호 등이 교대로 원지를 긁어 500매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동자들은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는 2개의 큰 기치와 수 백매의 태극기 및 “오왕약살(吾王藥殺)”이라고 크게 쓴 수백 매의 뼈라를 준비하였다.

마침내 3월 13일 거사 당일 학생들은 선언서와 태극기를 각자 품속에 숨겨서 나오기도 하고 일부는 부인네들이 감추어 운반하기도 하였다. 이 사이 장터로 통하는 길목마다 학생들은 지켜 서서 믿을 만한 장꾼들에게 선언서를 배부하였다. 이미 학생들 대부분은 장꾼들 틈에 섞여 서성거리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사립 동래고보 학생 40명은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2개의 분대로 나뉘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제1대는 동래군청 앞에 있는

망미루(望美樓)로 모여 들었고 제2대는 동래남문(구 대동병원 자리)으로 모여 들었다. 이때 제1대의 지휘는 엄진영이 맡았고, 제2대의 지휘는 김귀룡이 담당하였다. 이들이 지휘를 하였던 것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거사 장소로 망미루와 남문을 택한 것은 그 곳이 장날 장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2시가 되자 엄진영은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려고 하였다. 그 순간 이미 학생들이 모여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순식간에 뛰어 와서 엄진영과 김귀룡을 덮치려 하자 두 사람은 먼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주위에 모였던 40여 명의 학생들과 장꾼들도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동시에 “대한국독립만세”라고 쓰여진 2개의 기치가 세워지고 독립선언서와 “오왕약살”이라고 쓴 수백매의 삐라가 뿌려져 장시(場市)는 삼시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였다.

이날 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했던 만큼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시위를 주동한 김인호와 엄진영 등 24명은 1919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최고 1년 6월에서 최저 4개월을 언도받았다. 김명규 역시 시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4월 30일 징역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선고로 받았다. 당시 동래시위의 배후 역할을 하였던 곽상훈 역시 서울로 피신하여 상해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체포되었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풀려 나온 김명규는 계속해서 항일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의열단 창립 핵심단원이었던 황상규(黃尙奎)와 서울에서 연결되어, 그의 지령을 받고 국내 각 지방 부호들에게 독립자금의 헌납을 종용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때부터 김명규는 의열단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9일 밤 만주 길림성에서 ‘정의(正義)의 사

(事)를 맹렬(猛烈)히 실행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조직이었다. 창립 당시 황상규와 김원봉(金元鳳), 김대지(金大池), 윤세주(尹世胄), 이종암(李鐘岩) 등을 비롯한 전체 13명은 종래까지의 미온적이고 온건했던 투쟁방법을 거부하고 일제에 대해 암살과 파괴·테러와 같은 직접적 투쟁방법으로 독립운동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창단 직후 ‘공약 10조’와 ‘5파괴’, ‘7가살(可殺)’이라는 행동목표를 독립운동의 지침으로 채택하였다.

공약 10조는 ①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②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하기로 함. ③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 함. ④ 단의(團義)에 선(先)히 하고 단원의 의(義)에 급히 함. ⑤ 의백(義伯) 1인을 선출하여 단체를 대표함. ⑥ 하시(何時) 하지(何地)에서나 매월 1차씩 사정을 보고함. ⑦ 하시 하지에서나 매 초회(招會)에 필응함. ⑧ 피사(被死)치 아니하여 단의에 진(盡)함. ⑨ 1이 9를 위하여 9가 1을 위하여 헌신함. ⑩ 단의에 배반한 자는 처살(處殺)함 등이었다.

이와 같이 의열단은 조국독립을 위해 과감한 투쟁과 적극적인 희생정신을 강조하였으며 암살대상으로는 조선총독 이하 고관·군부수뇌·친일파거두·밀정·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등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접적인 투쟁대상으로 조선총독부·동양척식주식회사·매일신보사·각 경찰서, 기타 일제의 중요기관을 선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폭파를 의도했다. 초기 의열단의 대표적 활동은 밀양·진영폭탄반입사건,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밀양경찰서 폭탄사건, 동경 니주바시(二重橋)폭탄투척 사건,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폭탄투척 의거 등을 들 수 있다. 김명규가 의열단의 정식단원이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20년 12월 의열단의 중심인물이었던 황상규와 연락하면서 군자금 마련을 위해 적극 활동한 것을 보면 의열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즉 김명규는 1920년 12월 길림

무관학교(吉林武官學校) 설립기금 조달을 위하여 신의주에서 파송된 김로봉(金盧鳳)과 함께 창녕(昌寧) 부호 하경석(河慶錫) 집에 침입하여 거금인 3천원을 성금으로 낼 것을 강요하였다. 하경석이 이에 응하지 않게 되자 150원을 강탈하여 서울의 황상규에게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김명규는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명규는 1920년 12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7년의 선고를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김명규는 1929년 동아일보 밀양지국 기자와 밀양기자단 이사를 역임하였다. 이 당시 황상규가 신간회 밀양지회장으로 활동한 것을 감안하면 김명규는 황상규와 함께 비타협 민족운동노선을 견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1945년 8·15 조국광복을 맞은 뒤 김명규는 밀양 부북과 하남 등의 수리조합이사를 역임하였고 1956년 3·1절 때 밀양읍장으로부터 독립유공 표창을 받았다. 김명규는 1977년 2월 10일 사망하였는데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 승

3. 김법린(金法麟)



범산(梵山) 김법린(이명 法允)은 1899년 음력 8월 23일 경북 영천군 신령면 치산리 김녕 김씨 집안에서 부친 김형상(金炯相)과 모친 김악이(金岳伊)의 외동 아들로 태어났다. 동네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1912년 신령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이 가난하여 인근 팔공산 은해사(銀海寺)로 출가하여 불교에 귀의하였다.

이후 동래 범어사 명정(明正)학교 보습과를 졸업한 후,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불교경전을 수학하고, 1916년 이 강원 사교과(四教科)를 졸업하였다. 김법린은 이런 인연으로 그의 출신을 범어사로 전적(轉籍)하여 여기서 비구계를 받았다.

그후 서울의 휘문고보에 진학하였다가 졸업을 1년 앞둔 1918년에 불교계의 권유로 불교중앙학림(현 동국대학교)에 편입하여 독립운동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재경 교남학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유심회’라는 학생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하던 중 역사적인 3·1운동을 맞이하게 된다. ‘유심회’는 불교 교리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까지도 연구하는 모임이었는데, ‘유심’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였으며, 만해 한용운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김법린은 1919년 2월 28일 밤 10시 한용운의 자택 유심사(惟心社)에서 김상헌(金尙憲), 백성욱(白性郁), 김규현, 신상완(申尙琬) 등의 불교 청년학생들과 함께 한용운으로부터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중앙학림의 동지들과 함께 인사동의

범어사 불교 중앙포교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들은 승려와 신도들을 만세운동에 동원하여 서울의거에 참가한 후 각자 분담된 지역사찰로 내려가 지방의거를 주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김법린은 김상헌과 더불어 범어사 명정학교와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한 인연으로 범어사의 만세운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상헌은 1893년 2월 양산 동면 금사리에서 태어나 범어사에 출가하여 불가에 귀의한 사람으로, 범어사 지방학림과 서울 불교중앙학림을 졸업하였으며, 김법린과는 중앙학림 재학시절부터 이후 독립운동 전선에서 함께 투쟁한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였다.

김법린은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서울 시내에 배포하고,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서 낭독식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내 시위에 동참하였다. 3월 2일 밤 김법린은 김상헌과 함께 일제의 삼엄한 경계를 벗어나 경부선 기차에 몸을 실었고, 물금역에 내려 양산과 동래의 경계인 금정산 고당재를 넘어 범어사 청련암에 3월 4일 도착하였다. 그는 범어사의 원로 승려인 오성월, 이담해, 김경산 등을 만나 서울의 만세운동을 알렸다. 김법린은 범어사 중견 승려인 유석규(劉碩規), 김상호 등과 함께 범어사의 불교전문강원과 지방학림, 명정학교의 학인들을 규합하여 범어사가 중심이 되어 3월 18일 동래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결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시위에 이용할 태극기, 선언서, 격문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32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3월 18일과 19일 동래시장을 중심으로 범어사 학생들의 역사적인 의거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허영호, 김봉환, 차상명, 김한기, 이영우, 황원석 등 3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법린은 범어사 의거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후 의거에는 참가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만세운동 주동자를 체포하기 위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거세어지자 국내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임시정부에 알리고 지원을 얻기 위해 신상완, 백성욱, 김대용(金大鎔) 등과 함께 1919년 4월 상해로 갔다. 이때 그는 불교학교인 중앙학림 내에 설치된 항일비밀결사 한국민단본부의 대표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김법린은 독립운동의 심장부 상해에서 목숨을 걸고 맹활약하는 망명 지사들의 투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임시정부의 특파원 자격으로 김대용과 1919년 5월 경 국내에 파견되었다. 그는 상해의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외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의 불교계 동지들에게 전해주었다.

이후 김법린은 김상헌, 김대용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 안동현(安東縣) 육도구(六道溝)에 동광상점(東光商店)이라는 쌀 가게를 내고 그곳을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하여 상해와 국내를 연결하는 비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그는 해외 독립운동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김상헌, 김상호, 신상완, 백성욱, 김봉신 등과 함께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하였다. 김법린은 상점 밀실에서 『압강일보』 뒷면에 독립신문과 임정 소식을 실어,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혼자 타는 작은배로 신의주로 건너와 우체통에 넣고 다시 압록강 기슭 진강산의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안동현으로 돌아오는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였다. 김법린으로부터 전해진 해외 소식은 신문으로 만들어져 서울과 지방에 배부되었는데 해외 소식과 국제정세에 어두운 국내 지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법린은 1919년 6월 한국 독립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라는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국내에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이무렵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승려의 비밀결사를 지향한 의용승군을 조직하려고 했는데, 김법린은 신상완, 김상헌 등과 함께 국내로 잠입하여 범어사, 석왕사 등지에 거점인 기밀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 움직임은

1920년 4월 6일 그 운동의 중심인물인 신상완이 서울에서 체포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김법린은 일제의 감시와 체포를 피해 다시 상해로 왔다.

김법린은 이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공부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진로를 고민하던 중 남경의 금릉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의 길로 들어섰다. 이 무렵에 그는 일제의 체포와 감시를 피할 목적으로 이름을 법윤(法允)에서 법린으로 고쳐 불렀다. 그는 대학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면서 미국 유학을 생각하였으나 곧 단념하였고, 당시 유능한 중국 청년들을 선발하여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던 국민당 지도자 왕조명이 주도한 유법검학회(留法儉學會)의 후원을 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김법린은 1920년 10월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도착하여 청소부를 하면서 불어를 배웠고, 파리의 동포를 규합하여 한인친목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1923년 11월 파리대학교(소르본대) 철학과에 입학하여 1926년 7월 3년 만에 졸업하고, 그해 11월 파리대학원에 입학하여 근세철학을 연구하였다.

이 무렵 김법린은 불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27년 2월 10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 대회의 조선대표로 참석할 수 있었다. 김법린은 이극로(李克魯), 이의경(李儀景 : 일명 이미륵), 황우일(黃祐日), 신문기자 허헌(許憲) 등과 함께 조선대표로 참가하여, 세계 각국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피압박민족 반제국주의대회에 조선대표로 참가한 김법린의 활약상을 보도한 동아일보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여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 대회는 아시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아시아민족회를 열고 위원 4명을 선정했는데, 김법린은 중국, 인도, 시리아 대표와 함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회가 끝난 후 프랑스로 돌아와 있던 김법린은 다시 1927년 12월 9일~11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피압박민족대회의 간부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실정을 보고함으로써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그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김법린은 프랑스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 그의 귀국은 당시 불교계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1927년 3월 16일 각황사에서 개최된 재단법인 교무원 평의원 총회는 황운곡(黃雲谷)의 발의로 귀국여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활동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동지인 김상호는 전국 사찰을 돌며 그의 귀국 여비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는 이 무렵에 불교계를 위해 일해 달라는 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결국 김법린은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시베리아를 거쳐 1928년 1월 14일 고국을 떠난지 8년 만에 귀국하였다.

김법린은 한달 뒤인 1928년 2월 14일 귀국 후 최초의 강연을, 소년시절 처음으로 민족의 역사와 현실을 자각케 해주었던 범어사에서 가졌다. 이후 김법린은 경성불교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하였고, 일본에서 보육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조양유치원의 주임 보모로 있던 박덕순(朴德純) 여사와 1929년 2월에 결혼하여 5남 4녀를 두었다.

김법린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불교유신운동과 불교청년운동,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 개최, 만당(卍黨) 결사 등 당시 불교계 혁신운동의 중심에서 맹활약하였다. 또한 그는 불교혁신 운동 뿐만 아니라 조선어학회가 주관하는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준비위원으로 참가하여 조선어 보급과 문맹퇴치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그는 불교를 혁신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선봉에 나설 방도를 모색하던 차에 1930년 5월 김상호(金尙昊), 이용조(李龍祚), 조학유(曹學乳) 등과 만나 불교계 비밀결사인 만당을 받기하고, 박창두(朴昌斗), 허영호(許永鎬), 김범부, 최범술, 조은택 등의 청년 승려들을 규합하여 '만당'을 창당했다.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 한용운을 만당의 당수로 추대하고, 정치와 종교 분리, 불교행정 확립, 불교대중화를 강령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만당 결성 이후 김법린은 일본에 유학가 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범어와 인도철학을 공부하는 향학열을 불태웠다. 여기서 그는 1930년 8월에 만당의 동경지부 책임을 맡아, 최범술, 허영호, 장도환 등의 만당 당원과 함께 활동했다. 김법린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조선불교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 이것은 비밀결사인 만당을 은폐하기 위해 내세운 표면단체였다. 김법린은 1931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조선불교청년동맹 동경지부장에 선출되어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1932년 3월에 귀국한 김법린은 그해 7월 만해 한용운 선생이 발간하고 있던 잡지 『불교』의 주간을 맡아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사상 고취에 힘썼다. 그는 이 잡지에 '정교분립론'을 발표하여 조선불교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정치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불교의 독립을 주장했다.

김법린은 이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거세어지자 가족을 이끌고 최범술이 주지로 있던 사천 다솔사로 피신했다. 당시 다솔사에는 한용운과 김범부·김동리 형제도와 있었으며, 비밀결사인 만당의 본거지였다. 그는 다솔사에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김법린은 다솔사에서 2년을 보내고, 해인사 불교전문강원에서 1년 반을 강의한 후, 1936년 1월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으로 왔다. 1919년 범어사 의거를 주도한 후 18년 만에 돌아왔던 것이다. 그

는 여기서 허영호를 비롯한 청년 승려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의 제자 김태근(85세, 현재 울산거주)은 그가 학생들과 숙식을 같이하면서 주로 영어와 역사를 가르쳤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였으며, 제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부지런히 갈고 닦아 독립운동에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회고하였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에 이르는 동안 일제는 중일 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고, 그들의 침략전쟁에 조선인을 내몰았다. 이때 김법린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를 보냈다. 1938년 11월 비밀결사 만당이 일제에 발각되어 동지들이 구속되고 조직이 해체된 이른바 ‘만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도 진주경찰서에 체포되어 3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김법린은 1939년 다시 범어사로 돌아와 4년 동안 불교전문강원에서 강의하다가 1942년에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함남 홍원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그가 원장으로 있던 범어사 금정 불교전문강원(현 금정중학교)은 강제 폐교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1945년 1월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출옥해,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범어사에서 요양하며 독립 투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범어사에서 해방을 맞이한 김법린은 곽상훈, 김범부 등과 함께 8·15에서 이름을 따온 ‘일오구락부’를 결성하여 건국 방책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수립 운동에 뛰어들 준비를 하였다. 또 일제시기 불교계 혁신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그는 곧 조선불교 중앙총무원장에 추대되어 조선불교 재건의 임무를 맡았다.

김법린은 미군정 장관 하지를 만나 일본인 승려들이 머물렀던 사찰을 종단에서 인수할 수 있게끔 협의하는 등 불교혁신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46년 이후 민주의원과 과도입법의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해방정국의 정부수립 운동에 투신하였다. 또한 그는 동국대학교 교수 및 이사장에 선출되어 교육계에 몸담기도 하였다.

김법린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감찰위원회 위원, 고등고시위원, 고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제3대 문교부장관에 임명되었다가 1954년 한글간소화 문제로 문교부장관을 사임하였다. 1953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으며, 1954년에는 부산 동래에서 제3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정치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1959년에는 초대 원자력원장을 맡았고, 1962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63년에는 동국대학교 총장이 되어 학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김법린은 이처럼 불교 혁신운동, 정치운동, 교육운동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1964년 3월 14일 심장마비로 순직하였다. 향년 66세였다. 그는 세속을 떠났던 승려의 신분이었으면서도 불교만을 고집하지 않았



김법린의 묘소 서울 우이동 오른쪽부터 부인 박순덕(朴德純) 여사, 이은상(李殷相), 한 사람 건너 장남 인홍(仁鴻)

다. 불교 대중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불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주장은 불교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한 부분으로서 민족 구성원들에게 항일 독립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민족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에 온 몸을 던졌고, 해방 후에는 정치활동과 교육활동에 주력하는 등 물이 흐르듯 막힘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그의 삶의 자취는 불교적 인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

생철학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불교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행정승으로서, 또 학생들의 항일 민족 독립의식 고취에 몰두하였던 독립운동가·교육자로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하유식

4. 김병태(金餅泰)

김병태(이명은 김빈-金斌, 金彬, 조국동-曹國棟, 趙國棟, 趙國東)는 1899년 1월 14일 부산 좌천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코흘리개 시절에 정공단(鄭公壇) 옆에 있던 서당 육영재(育英齋)에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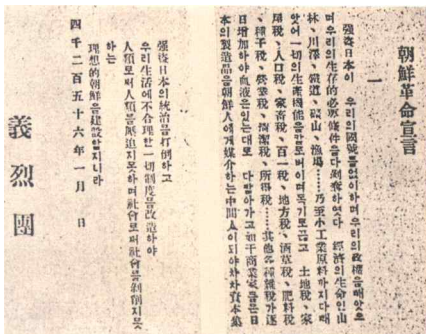
나라를 빼앗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울 수 없게 되자 부산상업학교 학생인 최천택, 박재혁, 박홍규와 함께 현채(玄采)가 엮은 『동국역사(東國歷史)』를 몰래 등사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나아가 이들 외에 오택, 왕치덕, 김인태 등을 끌어들여 비밀결사단체 ‘구세단(救世團)’을 결성하였다. 밀양에 있던 김원봉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한다.

구세단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일본 강산(岡山) 금광(金光)중학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스무살 나던 1918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上海)의 프랑스조계에 살면서 민족해방운동에 몸을 담았다. 당시 상해는 중국 관내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지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의열단은 김원봉이 주도하여 1919년 11월 10일 중국 길림(吉林)에서 창립되었으나 곧 본부를 북경(北京)으로, 나아가 1923년에는 상해로 옮겼다. ‘정의(正義)로운 일을 맹렬(猛烈)히 실행’하자(공약 제1조)는 취지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 취지는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한다」는 공약 제2조로 부연되었다. 공약 제3조에는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구축왜노(驅逐倭奴 : 왜놈을 몰아낸다는 뜻), 광복조국(光復祖國), 타파계급(打破階級), 평균지권(平均地權 : 토지소유권을 균등하게 한다는 뜻)을 주요 이념으로 삼았다. 의열단에서는 일곱 부류의

암살대상으로 조선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수뇌, 대만총독, 매국적(賣國賊), 친일파 거두, 적의 밀정,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 대지주와 자본가)을, 다섯 가지 파괴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왜적 중요기관을 꼽았다. 즉 일제의 통치, 수탈, 선전, 폭압 기구들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식민 통치의 수뇌와 민족반역자를 계속해서 암살 응징함으로써, 일제 식민 통치에 타격을 가하여 마침내 일제 스스로 식민 지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거나 이로써 대중을 각성시켜 대대적인 항일 폭동을 격발하여 일제를 타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열단의 무력투쟁 노선에 따라 처음으로 성공시킨 투탄 공격 거사가 1920년 9월 14일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었다. 육영재 시절의 죽마고우이자 구세단의 동지였던 박재혁은 중국 땅에서 김병태를 다시 만나 함께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일단 부산으로 돌아온 그는 김병태가 상해에서 부산으로 보낸 자금을 받고 다시 상해로 가서 의열단의 지시를 받은 뒤 부산경찰서로 들어가 경찰서장 하시모토(橋本)의 면전에서 폭탄을 터트렸던 것이다.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집필한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초판원문 일부(1923년 1월)

이후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 상해 황포탄(黃浦灘)에서의 일본군 수뇌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저격 사건, 동경(東京) 이중교(二重橋) 폭탄 투척 사건,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 폭탄 투척 사건 등 의열단이 전개한

투쟁은 1920년대 전반기 내내 국내 신문 지면을 장식하여 민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당시 일제는 의열단의 무력투쟁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으며 의열단을 박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암살, 파괴운동으로는 조국 독립을 성취하기 어렵고, 역시 “민중의 일대 무장투쟁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의열단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1925년 8월 중순에 손문이 이끌던 중국 국민혁명정부의 수도 광주(廣州)로 내려갔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발맞추어 지하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의열단을 중국국민당과 같은 대중적 혁명정당 체제로 개편하였다.

의열단원들은 1926년 초부터 황포군관학교(黃浦軍官學校)와 중산(中山大學 : 중국국민당의 청년엘리트 당원 양성기관)에 입학하여 군사기술과 정치이론을 익혔다. 황포군관학교는 국민혁명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중앙군사정치학교였으나, 광주 근교 황포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황포군관학교로 불렸다. 소련의 원조와 중국공산당의 협력을 얻어 운영되었던 황포군관학교는 국공합작의 상징이었다.

의열단원들이 광주로 와서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한 것은 중국 국민혁명이 승리하면 만주지역을 주무대로 한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에 호조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군사, 정치 간부로서 소양을 함양하여 무장투쟁의 기반을 닦기 위함이었다.

당시 광주는 연소(連蘇), 용공(容共), 부조공농(扶助工農)의 3대 정책에 기반을 둔 국공합작(國共合作) 아래 제국주의와 군벌을 반대하여 불타오르던 중국 국민혁명의 진원지요 근거지이었다. ‘중국혁명이 조국 해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 항일운동가들이 무렵 광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김병태는 1927년 2월에 개교한 황포군관학교 무한분교(武漢分校 : 무한중앙정치군사학교로 불렸다) 정치과에 입학하였다. 무한분

교는 본교와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였는데, 200여 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입교하였다.

김병태는 황포군관학교 무한분교를 다니면서 의열단 무한지부를 건설하였다. 무한지부는 의열단 본부(광주)의 지시에 따라 호북성(湖北省)에 재류하는 한국인의 통일기관으로서 유약한국혁명청년회(留鄂韓國革命青年會)를 결성하였다. ‘약(鄂)’은 무한이 속한 호북성(湖北省)의 별칭이다. 유약청년회는 “우리는 한국의 민족혁명과 사회혁명의 완성을 꾀한다” “우리는 세계 혁명 군중과 연합하여 세계혁명을 완성한다”는 두 항의 강령을 내걸고 결성되었다. 아울러 결의안에서는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의 협동전선 완성에 노력한다”, “국내외 각지의 한국 혁명단체와 연락한다”, “중국국민당과 연락하여 국제자본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운동에 직접 참가한다”, “세계의 피압박 민족 및 피압박 계급 해방전선에 참가한다”, “한국혁명 이론 및 방략에 대해 연구함과 함께 정치상 군사상 모든 혁명 훈련에 노력한다”고 명시하였다.



중국국민혁명군 산둥(山東)의 제남성(濟南城)에 입성

의열단은 민족유일당운동에도 참가하였다. 1927년 5월 의열단은 ‘독립당 축성운동 선언’을 발표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민족유일당을 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단원은 각지의 축성회에 가입하여 민족유일당 운동에 진력하도록 하고, 민족유일당이 결성되면 의열단을 해체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발맞추어 의열단 무한지부는 민족유일당 무한축성회 결성을 주도하였다.

이렇듯 김병태는 중국 국민혁명 이념에 공명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한·중 양 민족의 연대를 지향하여 중국 국민혁명에 참가하면서도 한국인 독자의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27년 4월에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켜 좌파를 대대적으로 체포, 처형하였다. 의열단원을 포함한 한인 학생들도 탄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 해 무한정부마저 좌파에 등을 돌림으로써 국공합작이 붕괴하였다. 그와 동시에 무한분교도 폐교되었다.

국민당에게 배신을 당한 중국공산당은 무장봉기로 맞섰다. 특히 1927년 12월 11일 광주봉기에는 의열단 무한지부의 일부 단원이 무한분교 한인 입교생 및 유약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극소수만이 생존하는 큰 희생을 치렀다. 게다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은 대일 타협 노선을 걸음으로써 우리나라 민족해방세력은 한동안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국민혁명운동에 참가하면서 가졌던 희망-국민혁명 승리 이후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 대일무장투쟁을 전개한다는-은 스러지고 말았다.

김병태가 상해로 돌아온 1927년 말, 의열단원은 약 20명뿐이었던 것으로 일제 관헌은 파악하였다. 그러나 고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국민당의 반대파 숙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일제는 1928년 봄부터 도처에서 한인 운동가들을 공산당원으로 몰아 검거되게 하는 탄압을 저질렀다. 1928년 2월 28일에 김병태도 한구(漢口)에서 다른 의열단원 9명과 함께 일본영사관 특무경찰의 간계로 무한공안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박건웅이 임시정부의 석방탄원서를 받아와 교섭한 결과, 체포된 지 여섯 달이 지난 8월 말에 가서야 가까스로 석방되었다.

의열단은 1928년 10월 상해에서 제3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활동 방향을 재정립하여 국내의 노동, 농민운동으로 활동의 중심을 옮기기로 하였다. 1929년 봄에는 본거지도 북경으로 옮겨

레닌주의정치학교를 설립하고 중국과 조선에서 온 청년들을 훈련시켜 조선 국내에 파견했다. 졸업생들은 국내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과 1932년 1월 28일 상해사변이 발발함으로써 정세가 급변하였다. 다시금 한·중 연대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본격화되는 일제의 중국 침략으로 중국 민족의 반일 의식과 항일 운동이 치솟아올랐다. 의열단은 다시 중국 국민당 정부와 연대를 맺고 그 지원을 받아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결집,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래서 1932년 초에 본부를 국민정부의 수도인 남경으로 옮기고 재빨리 장개석 국민정부와 연대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중국정부의 원조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 약칭 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김병태는 이 학교의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1935년까지 만 3년 동안 국내와 만주에서 온 우리나라 청년들을 혁명의 간부로 양성하였다. 처음 이 학교는 남경 교외 탕산(湯山)에 설립되었으나 일제의 추적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강소성(江蘇省) 강녕현(康寧縣) 강녕진(康寧鎭)으로, 다시 강녕현 상방진(上方鎭)으로 교사(校舍)를 이전하는 고충을 겪었다. 그 졸업생들은 국내, 만주, 그리고 중국 관내 각지에 파견되어 민족해방운동에 종사하였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피검되었고, 피검되지 않은 사람들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결성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의 핵심 간부, 나아가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의 주요 성원이 되었다.

한편, 의열단은 1930년대 민족유일당 결성 운동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1932년 10월 25일 상해에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혁명당, 의열단, 광복동지회 5개 단체 연합체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이 결성되었다. 1934년 3월 1일 중국 남경에서 한국대일전

선통일동맹 제2차 대표자 대회가 개최되자 김병태는 의열단 대표로 참석하여 민족 유일당을 건설한다는 결의를 이끌어내었다. 마침내 1935년 7월 한국독립운동 단체들이 총결집하여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을 창당하였다. 그것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이었다. 김병태는 민족혁명당의 간부로 활동하는 한편, 1936년 이후 김원봉의 비서로서 중국측에 보내는 문서 집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군이 전 중국을 차지하려고 1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공격해 들어왔다.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는 초전부터 일본군에게 밀려 상해를 잃고 수도 남경마저 함락되었다. 일본군은 이듬해에는 화북 지방을 거의 빼앗고 양자강 깊숙이 쳐들어가 국민당의 거점인 무한 지방마저 장악해 버렸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협력하게 되었다. 민족혁명당으로서는 전 중국이 항일을 위해 나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민족혁명당은 국내외 각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펼쳐 일어나 항일 전쟁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중국 각지에서 이 호소에 응하여 청년들이 남경에 집결하였다. 민족혁명당은 이렇게 모여든 청년 100여 명을 모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에 입학시켰다. 이들이 6개월간의 군사, 정치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자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였다. 조선의용대는 중국의



조선의용대 창립기념사진

지원을 받아 성장시켜서 만주를 거쳐 국내로 진공할 독립군이였다.

1941년부터 항일에 소극적인 국민당 통치구역의 전황이 소강 상태에 빠진 반면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과 팔로군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조선의용대 지휘부는 1940년 말 의용대의 대부분을 화북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41년 봄 조선의용대 대원 80%가 화북 연안으로 들어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었다. 그들은 이후 그 곳에서 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었다. 김병태를 비롯한 잔류 의용대원들은 의용대 본부를 광서성(廣西省)의 계림(桂林)에서 중경(重慶)으로 옮겼다.

1941년 5월 김원봉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무시해 오던 그간의 태도를 버리고 임정 참가를 선언했다. 조선의용대 잔류 부대원들은 1942년 5월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한국광복군 영국군에 배속되기 위해 인도 방면으로 파견되는 한국광복군의 1대

광복군에 편입한 김병태는 1945년 3월 왕영재(王英哉) 등과 함께 인도(印度) 파견 공작 요원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광복을 맞아 귀국한 김원봉이 1946년 8월 민족혁명당을 재편하자 김병태는 중국 상해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다가 중국 남경에서 병으로 서거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이귀원

5. 박영출(朴英出)

박영출은 1908년 3월 20일 동래군 기장면 동부리 170번지에서 밀양 박씨 집안 박인표(朴仁杓)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자(字)는 현출(炫出), 호는 정인(町仁)이다.



그의 부친 박인표는 만석군으로 불릴 정도로 기장 제일의 대지주였다. 박인표는 1910년대 경남지역에서 전개된 비밀결사 조선국권회복단·대동청년단·대한광복회 등과 연결되어 있던 기장 ‘광복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 광복회는 권은해(權銀海)의 부친 권상준(權商俊), 명정의숙의 박세현(朴世現), 백산상회의 안희제 등 기장과 동래, 양산 인근지역의 유지와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는데, 박인표는 부산에서 고려상회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고려상회는 원래 김정훈(金正勳)이 경영하던 것을 1917년 12월에 박인표와 백연(白淵) 김두봉(金斗奉), 최태현, 김진원(金晉源) 등이 인수하여 합자회사로 경영한 것인데, 곡물과 면포, 해륙산물을 매매하여 군자금을 모아 나라 밖으로 보냈다. 또한 박인표는 1910년에 기장에 세워진 민족학당 명정의숙(明貞義塾)을 건립하는데도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1918년에 설립되었던 동래은행의 대주주로도 참여하였다.

박영출의 모친은 언양 김씨로, 1919년 동경에서 2·8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정부 수립후 초대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춘재(春齋) 김철수(金喆壽)의 막내 동생이었다. 숙부 박공표(朴孔杓 : 이명(李明) 朴日馨)는 기장 3·1운동의 주동자 7인 가운데 한 명으로, 해방 후

경남 민전 의장을 지낸 김동산(金東山)의 사위였으며, 기장기독교청년회 여자야학 교사, 동래청년연맹 상무, 신간회 동래지회 간사,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경남도지부 선전부장, 경남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 역임한 인물로 일제시기부터 해방 전후 시기까지 기장을 대표하는 사회운동가였다. 또한 박영출의 숙모 오경원(吳庚元)은 1919년 4월 8일 수백명의 군중이 참가한 기장지역 3·1운동 주동자이며, 이후 기장 여자야학과 여자청년회를 주도한 기장의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였다. 박영출의 5촌 당숙 박맹표(朴孟杓) 또한 기장의 대지주로서, 기장 지역의 사회운동을 후원



박영출의 숙부 박맹표의 집 기장읍 대라리

하였으며, 일제의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 인물이었다.

박영출은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두 살 적은 김소애(金小愛)와 1928년 21세의 나이에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그의 장인은 동래에서 손꼽히는 부자 김봉

상(金鳳翔)이었으며, 그의 손위 동서는 동래지역 청년연맹 결성과 청년운동 노선의 사회주의화에 기여한 사상단체 혁파회(革波會) 회원이었던 김용규(金容圭)였다.

이 같은 집안 배경에서 자란 박영출은 천품이 강직하고 총명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부친과 숙부, 그리고 외숙부의 가르침 아래에서 곧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였다. 그는 어려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외모도 준수하고 운동도 잘하는 팔방미인이었다. 그는 기장공립보통학교에 다닐 때 숙부 박공표를 비롯한 기장 사람들이 전개한 3·1만세 시위운동을 목격하였다. 기장의 3·1운동은 1910년대 ‘광복회’라는 비밀결사조직을 중

심으로 전개된 기장지역의 민족해방운동과 지역 주민들의 항일의식이 표출된 것이었다. 박영출은 이러한 민족적인 집안 분위기와 항일의식이 높았던 기장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립의식과 일제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웠다.

박영출은 3·1운동 1년 뒤인 1920년 3월에 기장공립보통학교(현 기장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 다음 해인 1921년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의 민족 독립의식은 동래고보에 진학하여 조선 민족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형성되었고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동래까지 기차 통학을 하면서 기장 학우회의 회장을 맡아 학생들의 단결을 도모하며 향토애와 민족애를 길러나갔다. 이후 동맹휴학과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발휘되었던 지도력은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편, 그의 집은 그가 15세 되던 무렵에 가세가 기울어져 동래로 이사하였다. 기장 최고 대지주였던 집안의 몰락은 ‘광복회’와 고려상회, 그리고 동래은행 경영에 참여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한 부친의 경력과 관련이 있는 듯하며, 1920년 11월 17일 부친 박인표의 사망 이후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영출은 1925년 7월 동래고보 재학 중 학생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때 5학년이 재학중이었으며, 전교 학생회장과 학급 급장직을 맡고 있었다. 1925년 4월 오오다[大田信之] 교장이 부임해 와서 우리말 교내 사용을 억압하고 여러 가지 학생 조직을 만들어 식민지 교육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당시 한문을 담당하던 이희보 선생의 억압적인 교육방침과 이에 앞서 학교측에서 부당하게 학생 3명을 퇴학시킨 일 등이 학생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박영출을 비롯한 김석암, 최지택, 김익수, 박길문, 김대봉 등 동래고보 학생 300여 명은 일본인 교장의 배척과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7월 6일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학교측에서는 불량분자 몇명이 동맹휴학을 선동하였다고 하면서 주동자 박영출을 비롯한 학생 234명에게 정학처분을 내렸다. 학부형들은 조사위원 9명을 선정하여 학교의 방침과 학생들의 주장을 세밀히 조사한 후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학부모와 학교측의 교섭 끝에 정학처분 234명 가운데 220명은 복교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퇴학당하거나 자퇴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1925년 7월 동맹휴학을 주도한 박영출은 더욱더 엄격해진 학교측의 감시 때문에 학생 조직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926년 2월 이른바 ‘장산 촛불 시위사건’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당직 사감 마쓰다[松田]가 기숙사생 이모 학생에게 ‘조선인은 거지 근성이 많다’고 하며 크게 꾸짖자, 이에 분개한 학생들이 장산 계곡에 모여 촛불을 켜고 일본인 교사 배척운동을 펼쳐 4학년 이하 전교생이 동맹휴학에 들어간 사건이다.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박영출은 학교측에서 주동 학생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려 하자, 스스로 주동자임을 자처하였고 결국 졸업을 1개월 앞두고 퇴학당하고 말았다.

그후 박영출은 1927년 생물학을 공부할 목적으로 일본 야마구찌[山口]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30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여기서 생물의 생성, 진화, 발전 이론을 자신이 직접 발생적으로 연구해보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학업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제 공황의 여파로 비교적 다액을 요구하는 생물학 연구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생물학 공부를 중단하였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굵직굵직한 공산주의 검거사건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영출은 점차 맑스주의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하였다. 이들 서적의 독서를 통하여 그는 종래 해결하지 못한 생물 내지 인류의 생존적 본래의

목적을 맑스주의 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생물학에서 경제학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30년 경도(京都)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박영출은 새로운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1934년 3월 대학 졸업을 전후한 시기에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박영출은 잠시 귀국해 있던 1931년 5월 박길문(朴吉文), 최정해(崔貞海) 등 5명의 유학생과 함께 동래 수안동 광장에서 일제의 탄압과 식민지 정책을 규탄하는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서 박영출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정책의 진상과 야만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이에 놀란 일제 경찰은 청중들을 강압적으로 해산시켰고, 박영출은 청중과 합세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다. 이른바 유학생 귀국강연회 사건인데, 박영출은 이것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또한 그는 대학 졸업을 1년 앞둔 1933년 2월에 공산주의 운동을 원조하였다는 혐의로 검거되어 그 해 5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영출은 고달픈 일본 유학 생활 속에서도 일제의 조선 지배와 탄압에 곳곳하게 맞서 독립 투쟁의 의지를 더욱더 불태웠다.

1934년 봄에 귀국한 박영출은 외숙부 김철수의 감화를 받아 뜻을 같이 하는 젊은 독립투사 10명으로 구성된 조선광복청년회라는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한다. 그는 “자연은 인간을 자유와 행복으로 조성하는데 일제는 조선인을 사악과 노예와 불행을 조성한다”고 호소하며 자유주의 교육을 제창하고, 일제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하여 서울 일원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또 한때 신문잡지사 기자가 되려고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영출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울산 출신의 이관술(李觀述)을 1934년 5월 서울에서 만나,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활동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1934년 10월에는 이관술의 주선으로 1930년대 서울의 혁명적 노동운동과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재건그룹 운동을 주도하고, ‘당대 최고의 혁명가’ 혹은 ‘30년대 좌익운동의 신화’로 평가되는 이재유(李載裕)를 만나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박영출은 이재유와 이관술에 버금가는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재건그룹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노동운동 부문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성재건그룹 노동운동을 총괄하던 박영출은 1935년 3월 신당동 아지트에서 잠복해 있던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이재유, 이관술 등과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비밀결사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였는데, 박영출은 일제 경찰의 야만적 고문에 항쟁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한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29세였다. 그는 1936년 7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인행(李仁行), 김순진, 공성희, 박진홍(朴鎭洪), 심계월, 허화정, 김만기, 권오상, 김윤희 등과 함께 첫 공판을 받았다.

박영출은 ‘학교 내에 손을 뻗쳐 학생운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학생층에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증거물로 압수된 171개조로 된 「학교 내의 활동 기준」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그는 조선의 교육제도가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일본 자본가의 증복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생은 학문을 연구하는 동시에 학교 내의 자치를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학문연구의 자유 및 언론, 집회, 조직의 자유를 얻어야 조선 고유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재유에게 이야기하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영출은 또 ‘조선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기는 이재유, 이관술과 조선의 객관적 정세에 대해 이야기 한 일은 있으나 조선의 공산화만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그는 모든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공산제사회의 실현을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민족 특유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조선의 독립과 함께 사유재산제를 부인하여 공산제사회를 수립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박영출은 1936년 7월 30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동지 10명 가운데 공성희(孔成檜)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나머지 9명은 최고 4년부터 최하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영출은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과 옥고의 여독으로 1938년 8월 31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그의 묘소는 기장읍 연화리 연화봉 자락에 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공적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 잊지 않기 위해 1984년 10월 그의 무덤 옆에 추모 비석을 건립하였다.

동래고등학교는 1978년 3월 20일 모교에서 졸업식을 열어 미망인 김소에 여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전달했다. 실로 52년 만에 받은 졸업장이었다.

이처럼 박영출은 31년의 짧은 삶을 불꽃처럼 살다 갔다. 죽는 날까지 그의 머



묘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연화봉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릿속에는 민족의 독립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염원이 가득 했으리라. 그는 공산주의 사상을 습득하여 혁명을 꿈꾼 공산주의자이면서도, 민족의 독립과 민족 문화의 발전을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실천하려 한 민족적 청년 운동가로서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하유식

6. 박재혁(朴載赫)

1920년 9월 13일 하오 2시, 용두산 아래에 있는 부산경찰서.

경찰서장 하시모토[橋本秀平]에게 면회를 청하는 중국인이 있었다. 얼마 전에 세칭 ‘밀양폭탄사건’이 있었던지라 경찰서장은 잔뜩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고서적을 좋아하던 하시모토는 진귀한 중국 고서를 가지고 왔다는 고서적 상인을 별다른 의심 없이 서장실로 불러 들였다.



이윽고 중절모를 쓰고 2층의 서장실에 들어선 중국인 상인은 제법 묵직한 보통이를 펼치고 고서를 꺼내 경찰서장 하시모토에게 건넨다. 중국 상인이 이런 저런 설명을 곁들여 상술을 펼치자, 하시모토는 고서를 이리 저리 뒤적이며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바로 그때, 중국 상인이 고서 밑에서 전단을 꺼내어 하시모토에게 던지며 유창한 일본어로 꾸짖어 소리쳤다.

“나는 상해에서 온 의열단원이다. 네놈들이 우리 동지들을 잡아 우리 계획을 깨트린 까닭에 우리는 너를 죽이는 것이다.”

이어서 전단과 함께 서적 아래 숨긴 폭탄을 들어 하시모토를 향해 던졌다. 폭탄이 떨어진 경찰서장실은 책상과 집기가 부서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중상을 입은 하시모토는 혼절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숨졌다.

훗날 ‘부산경찰서폭탄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조선인 비밀결사의 의열단(義烈團)의 항일투쟁이었고,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던져 절명케 한 고서 상인은 바로 부산 출신의 의열단 단원인 박재혁

이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10일 중국 길림성(吉林省)에서 김원봉을 단장으로 결성된 항일 단체로서, 암살과 파괴를 투쟁 방법으로 삼고 있었다. 즉 조선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수뇌, 대만총독, 매국노, 친일파, 밀정, 반민족적 귀족 및 대지주를 암살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기타 왜적의 중요기관 등을 파괴 대상으로 선정하여, 1929년 해체할 때까지 수십건의 암살 파괴 투쟁을 감행함으로써 ‘의열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일제와 친일 주구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던 것이다.

1920년 3월 의열단은 다량의 폭탄과 총포를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일제 기관의 파괴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일제 경찰에 탐지되어 황상규, 광재기 등 십 수명의 단원 및 동지가 체포되고 말았다. 이것이 세간에서 말하는 ‘밀양폭탄사건’이다. ‘밀양폭탄사건’이 있는 후 김원봉은 의열단원 체포에 앞장섰던 부산경찰서를 응징하기 위하여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를 암살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박재혁의 ‘부산경찰서폭탄사건’이었던 것이다.

박재혁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에서 박광선과 이치수의 외아들로 1895년 5월 17일에 태어났다. 부산진보통학교(현재 부산진초등학교)를 거쳐 부산공립상업학교(현재 부산상업고등학교)를 다녔다. 부산공립상업학교는 부산진일신여학교(현재 동래여자고등학교), 동래고등보통학교(현재 동래고등학교)와 더불어 조선인 학교로는 부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설립된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이들 학교들은 비록 일본이나 서양 학문을 수입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민족의식은 자못 강렬하였다.

부산공립상업학교 시절 박재혁은 이미 강한 민족의식을 지닌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산공립상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2년, 박재혁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최천택, 김병태, 박흥규와

함께 우리 나라 역사를 서술한 서적, 즉 『동국역사』를 등사기로 찍어 부산상고, 동래고보, 부산진일신여학교 등 시내 주요 학교와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직후로서 조선의 학문 서적을 강탈하고, 특히 조선 역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탄압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때 우리 나라 역사서를 배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일제 통치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널리 배포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강점 초기에 있었던 『동국역사』의 배포 사건은 부산의 학생 및 청년층에 상당한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이듬해인 1913년 박재혁은 최천택을 중심으로 김병태, 박흥규, 왕치덕, 조영상, 오택 등과 더불어 구세단을 결성하였다. ‘구세단(救世團)’이란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 나라를 구하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이들은 구세단 단보를 발행하여 부산·경남 일대의 항일 애국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계기로 동지를 규합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강점 초기에 친일단체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 단체를 탄압하였으므로 일제에 항거하는 한국인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1909년 백산 안희제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의 청년 지식인들이 결성한 ‘대동청년단’을 비롯하여, 1915년에 결성된 ‘조선국권회복단’과 같은 것은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그에 비해 구세단은 소규모 결사였지만 부산에서는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첫 세대들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부산의 청년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구세단 활동으로 인해 박재혁 등 구세단의 주요 인물들은 일제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이후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는 요시찰 인물이 되어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재혁은 일제의 야수적 폭력성을 경험하면서 강렬한 민족의식에



오택의사와 함께

눈뜨게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를 계기로 최천택, 오택과는 어릴 적 우정을 나누던 친구에서, 목숨을 건 항일투쟁의 여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평생의 동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5년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한 박재혁은 일단 항일투쟁을 접고 생업에 몰두하였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간 홀어머니와 어린 누이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박재혁은 부산가스전기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도 하고, 이를 그만두고 경부선을 통해 경상북도 왜관을 왕래하며 상업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중국행에서 박재혁은 그의 이름을 항일독립투쟁사에 아로새기게 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업 활동은 그 특성상 각처의 인심이나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박재혁이 활동 범위로 하는 중국 등지는 한국인 항일 투사들의 주요 무대였다. 박재혁은 1917년 중국으로 가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이듬해에 귀국하고, 다시 1919년에 상하이[上海]로 가서 중국 각지와 싱가포르 등지를 돌아다니며 상업 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의열단과 조우한 것도 이 즈음이었던 듯하다. 해외에서 항일 투사들의 우국충정을 접하고 국내에서는 3·1운동으로 분출한 한국인의 저항 의지를 목도하면서, 청년 박재혁은 가슴속에 뜨거운 불두덩이가 솟아오르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부산상업학교 졸업 이후 잠자고 있던 민족

적 투지가 다시금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바로 이 즈음이었다.

이에 앞서 박재혁은 1920년 3월 무렵에 중국에서 귀국하였는데, 이 시기는 ‘밀양폭탄사건’이 실행되기 시작한 때이다.

밀양의 의거가 실패로 끝난 후 김원봉은 새로운 투쟁을 실천하기 위하여 박재혁을 선택하고 결단을 요청하였다. 일찍이 홀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의지를 접은 바 있는 박재혁은 또다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나, 결국 가슴속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독립운동의 한길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하였다.

이 과정에는 부산상업학교 시절에 함께 구세단 활동을 하였던 김병태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병태는 중국으로 가서 의열단에 입단한 후 의열단 활동은 물론, 김원봉이 창당한 민족혁명당에서 김원봉의 비서로 활약하고,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하는 등 줄곧 김원봉과 행동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1920년 8월 상하이에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입단하고 거사 의지를 다진 박재혁이 다음달인 9월에 국내로 잠입하여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할 때, 이를 도와 결행케 한 것도 다름아닌 김병태였다.

무척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일단 결심한 이상, 박재혁은 자신의 용기와 경험을 총동원하여 거사를 계획하였다. 시가지 한복판에서, 그것도 부산경찰서의 서장을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조차 어려운 일이었던 만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략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일제의 눈을 피해 입국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이를 위해 박재혁은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는 육로를 택하지 않고, 중국 남해안에서 일본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배편을 이용하였다.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은 편리하지만 일본 경찰과 밀

정의 감시를 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나가사키에 도착한 박재혁은 예정했던 시모노세키 [下關]를 경유하는 경로를 변경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관부연락선은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탓에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삼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박재혁은 나가사키에서 대마도(對馬島)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코스를 선택하는 기지를 발휘하게 된다. 변경된 일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봉합엽서를 통해 내막을 알렸다. 여기에도 감시를 피하기 위한 갖가지 은유와 암호가 동원되었다. 나가사키를 떠나기 직전인 9월 4일, 박재혁이 상하이에 있는 동지에게 보낸 엽서에는 당시 독립 투사들이 흔히 사용하였음직한 기밀 사항의 전달 요령이 잘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昨日安着長崎。商況甚如意。此諸君惠念之澤矣。秋初涼風。
心身快活。可期許多收益。不可期再見君顏。別有商路。
比前益好。研究則可知也。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어제 나가사키에 잘 도착했습니다. 장사는 뜻대로 잘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염려 덕택입니다. 초가을 바람이 서늘하고 몸과 마음도 산뜻합니다. 수익이 많을 듯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별도로 거래의 길이 있는데, 이전에 비해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편지 중에 상황(商況)이니, 수익(收益), 상로(商路)와 같은 표현은 혹여 이 편지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거사를 상업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게다가 평범한 듯 보이는 편지의 끝에는 한자들을 나열한 독특한 암호가 붙어 있다.

熱落仙他地末古 大馬渡路徐看多

평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이 문장은 실은, 한자를 우리 식으로 그냥 읽으면 된다. 즉

“연락선 타지 말고 대마도로서 간다.”

한국인이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감쪽같이 부산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부산경찰서장에게 접근하는 것은 더욱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서적 상인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시모토가 중국 고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미리 알아두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을 떠나기 전에 다량의 고서적을 구입하여 행장을 꾸리는 치밀함도 발휘하였다. 중국인으로 위장한 것 역시 일본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물론 김병태를 비롯한 의열단원과 논의한 결과이지만, 동아시아 일대를 무대로 한 박재혁의 활동경험이 활용되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역업에 종사하느라 능숙해진 중국어와 일본어 역시 박재혁이 이번 임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자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무도 모르게 부산으로 돌아온 박재혁은 그의 오랜 지우이자 동지인 최천택, 오택 등 부산 지역 민족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박재혁은 일제가 건설한 도시 부산의 한 가운데서, 그 통치의 심장에 해당하는 부산경찰서장을 처단하는 거사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재혁의 거사에 일제는 경악했다. 불과 몇 달 전 미수에 그친 ‘밀양폭탄사건’에 이어, 다시 의열단의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오사카 [大阪]의 주요 일간지들은 사건이 벌어진 도시가 지난 300여 년간 왜관이 있던 곳이며 일본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도시인 부산이라는 점에 대한 일본 사회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또한

거사의 주인공인 박재혁이 부산 출신으로, 일본식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는 데서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회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박재혁의 거사는 일제 통치자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고, 한국인에게는 폭력적 통치 아래서도 꺾이지 않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폭탄을 투척하는 과정에서 박재혁 역시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때문에 박재혁은 현장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최천택을 비롯하여 박재혁의 거사를 도왔던 부산의 청년계도 곤욕을 치렀는데, 특히 박재혁이 중국에서 들여온 폭탄을 숨겨주었던 오택(최천택이라는 이야기도 있음)은 박재혁과 함께 대구에서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박재혁의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김원봉은 자신의 특별한 당부가 살아 돌아올 수도 있었던 박재혁을 죽게 만들었다며 장탄식을 했다고 한다. 김원봉은 부산경찰서장을 죽이되, 그냥 죽이지 말고 반드시 의열단의 복수임을 밝히고 죄를 추궁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박재혁은 처음부터 거사를 성사시키는 데 마음이 있었을 뿐 이미 생사를 초월했던 듯하다. 애초에 부산경찰서의 서장실에서, 서장의 지척에서 거사를 꾀한 것 자체가 대담함과 더불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헌신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면서 상하이의 동지에게 띄운 서신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엽서에서 박재혁은 “不可期再見君顏”(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하여, 거사를 앞둔 비장한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폭탄으로 인한 상처와 혹독한 고문, 부산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경성고등법원으로 이어진 재판의 끝에서, 예상대로 박재혁은 사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조차 박재혁을

굴복시키지는 못하였다. 도리어 박재혁은 “왜놈의 손에 욕되게 죽지 않겠다”며 단식을 감행하여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결국 박재혁은 단식으로 인해 1921년 5월 11일, 27세(만 25세)의 나이로 대구 감옥에



박재혁의사 동상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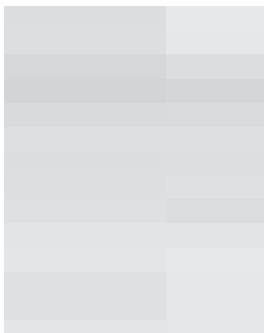
서 순국하였다. 박재혁의 죽음은 일제의 총칼조차 어찌지 못한 조선 젊은이의 기백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었다.

온몸을 던져 역사와 맞섰던 의로운 청년의 기개는 오늘날 그의 모교인 부산진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청룡동의 범어사와 초읍의 어린이대공원 등지에 박재혁열사기념비로 조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열사의 바램이 한갓 기념비와 훈장이 아님을 생각하면, 열사의 죽음이 던지는 교훈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도 요원한 민족사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한국사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선미

7. 박차정(朴次貞)



부산(釜山)은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역사적으로 양국 교류의 관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에는 일제의 한국진출을 위한 교두보였다. 1910년,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일제의 문화재 파괴, 민속행사의 금지, 토지 약탈, 민족자본의 성장 저지 등 일제의 식민지수탈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산지역민의 항일의식도 촉발, 강화되었다. 더구나 1930년대 이후로는 일제의 무모한 전쟁시도가 이어지면서 한국, 특히 부산이 병참기지의 역할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의 침략상을 예리하게 목격한 부산지역민은 어느 지역민보다 민족자주독립의식이 고양되어 일제강점기 전반을 통해 중단 없는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부산지역민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소략하다. 그 일례로 2003년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공훈록에 등록된 부산지역의 인물 130여 명 중 여성은 6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민족해방운동사의 올바른 역사상을 복원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의 서훈이 추서된 부산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朴次貞)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해방운동가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차정에 대한 기록이 불확실하지만 일제의 기록과 신문기사에 산견되는 자료, 가족들의 증언 일부를 참고하여 그의 민족해방운동을 재구성하였다.

출생과 성장

박차정은 일제가 한국의 국권 피탈 음모를 본격화한 1910년 5월 8일 경남 동래 복천동 417번지(현재 복천동 319)에서 박용한(朴容翰)과 김맹련(金孟蓮)의 3남2녀중 넷째로 출생하였다. 민족해방운동시에는 박철애(朴哲愛), 임철애(林哲愛), 임철산(林哲山) 등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의 부친 박용한은 한말 동래지역의 신식학교인 개양학교(開揚學校)와 서울의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를 졸업한 후 순종조에 탁지부 주사를 역임한 신지식인으로 일제강점 후인 1918년 1월,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순국자결한 애국지사였다. 남편의 사망 후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5남매를 훌륭히 키운 모친 김맹달은 김두봉(金斗奉)과 사촌, 김두전(金斗全, 일명 金若水)과는 육촌지간이며, 1920년대 기장·동래지역의 이름난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자였던 박일형(朴日馨)과는 고종사촌지간이었다. 이런 가계를 볼 때 박차정은 어린 시절부터 민족자주의식과 평등주의의 세례를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그녀가 민족의식에 눈을 떠 처음으로 조직체에 참여한 것은 1924년 「동래기독교소년회」의 가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가족이 1918년 동래성결교회의 교인이었던 박차정은 1925년 장로교 계열의 동래일신여학교 고등부에 입학하여 1929년 3월에 졸업을 했다. 당시 일신여학교는 부산지역 여성교육의 산실로서 항일여성운동을 선도한 구심체였으며, 특히 당대의 동래지역에서는 항일청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라 박차정의 항일 의식은 더욱 견고해져 갔다.

이러한 의식은 일신여학교의 동맹휴교 주도 뿐 아니라 교지

(校誌)인 『일신(日新)』 2집에 발표한 소설 「철야(徹夜)」, 시 「개구리」, 수필 「흐르는 세월」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자전적 단편소설 「철야」는 일제하 우리민족의 고난을 상징화하면서도 해방을 기필코 달성하고 말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사회고발 성격의 글이다. 그녀는 위와 같은 글로 문학적 기질을 인정받아 문단의 등단을 권유받기도 했으나 결국 민족해방을 위한 여전사의 길을 택했다.

근우회에서의 활동

박차정이 1920년대 후반 동래지역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본격적으로 주도한 것은 근우회 동래지회로 사료된다. 동회는 1921년 5월 설립된 「동래여자청년회」가 사회주의 성향을 띤 여성들의 주도로 자진 해체됨으로써 설립을 보게 되었다. 동래여자청년회는 1927년 5월 당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연대한 민족운동단체인 「근우회」가 창립되자, 이에 호응하기 위해 1928년 4월 20일 동래유치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자진해산함과 동시에 조선여성의 단일동맹인 근우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동년 5월 19일 권복해(權福海), 김수선(金水先) 등을 설치준비위원으로 하여 근우회 동래지회가 창립되었다. 동회는 창립목적에서 반제반봉건을 궁극적 과제로 삼고 여성의 정치의식 계발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동회는 1931년 해체될 때까지 여성교양운동과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단체의 창립회원 명단에는 박차정의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확실하다. 창립당시 학생의 신분이었던 탓에 전면에서 나서지 못했던 그녀의 이름이 보도된 것은 일신여학교 졸업 이후인 1929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근우회 2차 전국대회부터이다. 동년 7월 30일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임된 박차

정은 근우회의 핵심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그녀가 근우회 동래지회의 핵심인물이며, 실질적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녀는 1929년 서울여학생시위, 1930년 1월 15일 이화·숙명·배화·동덕여고보·근화·실천·정신·태화여학교·여자미술학교·경성여자상업·경성보육학교 등 11개 여학교 연합시위 등을 지도하다가 2차에 걸쳐 일경에 피검되었다.

한편 1930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벌어진 부산조선방직파업의 주도인물에도 박차정이 관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시기는 박차정이 서울학생시위에 적극개입하고 그 문제로 피검과 석방을 거듭하던 때라 조선방직파업을 주도할 만한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았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

2차에 걸친 구금과 고문으로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박차정은, 중국에서 의열단(義烈團)활동을 하고 있던 둘째 오빠 박문호(朴文昊)의 연락을 받고 북경으로 탈출한다. 박문호는 당시 의열단의 「조선공산당재건동맹(朝鮮共產黨再建同盟)」의 중앙위원이었는데, 1929년 10월에 조직된 이 동맹의 7인 중앙위원 명단에 박차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에는 박차정이 국내활동에 전념하던 시기였고 중국에 도착해 의열단에 합류한 것은 1930년 3월~4월경이다. 그는 당시 김원봉의 주도 하에 설립된 레닌주의정치학교의 운영과 교육에 깊이 관여하였고 결국 1931년 3월에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학교는 자금난과 만주사변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고, 박차정 부부는 1932년부터 남경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항일투쟁노선을 재정비하게 된다.

그 결과 국민당 정부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 하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이하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김원봉이 교장을

말마 총 3기에 걸쳐 125명에 이르는 청년투사를 양성하였다.

박차정은 이곳 간부학교에서 임철애, 임철산 등의 가명을 쓰면서 여자교관으로 활동한 것 같다. 당시 간부학교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는 교가, 전기가(戰旗歌), 3·1가, 추도가, 군가 등이었는데 그 작사 작곡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마 박차정의 문학적 소질과 적극적 성격으로 보아 교가를 작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경조선부인회조직

1930년초 세계공황의 여파로 파쇼체제가 본격화되자 약소국가 내에서는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의 통일전선운동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1932년 11월 상해에서 의열단을 비롯한 4개 단체가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 이하 통일동맹)」을 구축, 중국관내 한국인 민족해방운동가들의 연대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통일동맹은 각 단체간의 연락기구에 불과했기에 이를 탈피, 실질적인 전선체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결국 1935년 6월 20일의열단을 비롯한 9개 단체가 예비회담을 개최, 논의를 거듭한 끝에 7월 5일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 이하 민혁명당)」을 창당하였다. 민혁명당은 김구의 한국국민당이 참여치 않았고, 조소앙 계열이 창당 직후 탈퇴하여 한국독립당을 재건하는 등의 한계를 보이기는 했으나 만주와 국내의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대거 참여하여 상당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일부가 간부학교에 입교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박차정은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민혁명당이 창당되자 부녀부주임의 직함을 가지고 동당의 활동을 벌였다. 그녀는 1936년 7월 16일 이청천 장군의 부인 이성실(李聖實)과 함께 민혁명당 남경조선부인회를 결성, 부녀자 규합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동회의 활동상은

구체적 기록이 없어 상술할 수 없으나 창립선언문을 통해 박차정의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민족해방운동과 부녀해방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전국의 부녀자가 단결, 무장하여 민족혁명전선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조선부녀의 해방을 위해서는 남녀차별을 없애고 각국 부녀해방운동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박차정은 민혁명 가족부인의 단결과 훈련에 노력하면서 『앞날』이라는 잡지에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기고했던 것 같다.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

1937년 7월 11일 노구교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관내에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두 갈래로 체제를 통합·정비하였다. 그 하나는 김구의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이고 다른 하나는 1937년 11월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족통일전선연맹(이하 민족전선)」이다. 민족전선은 우선 대내적인 사상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민족전선』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박차정은 한구에 머물면서 만국부녀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등 국제적인 모임에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장사에 있던 임시정부에 특사로 파견되어 대(對)일본라디오 방송을 하였으며 안창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였다. 이외에도 그녀는 임철애 등의 가명으로 『조선민족전선』에 「경고일본적혁명대중」, 「조선부녀여부녀운동」 등의 글을 기재했다.

민족전선은 기관지를 계속 발행하는 한편 일본에 의해 한구가 공격받게 되자 중국군사위원회와 협의하여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이하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박차정은 주로 본부에서 활동하면서 국민당지구 한인과 중경의 민족전선계 한인부녀자를 교육, 의용대로 포섭시키는 성과를 거두면서 대원확보 및 의용대

후원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 활동은 민족전선을 통해 직접 후원하는 방식과 기관지 『조선의용대통신』과 「조선의용대」를 통한 선전활동을 이용했다. 그 결과 「재중경조선부녀회」와 「재중경소년단」이 조직되었고, 특히 미주지역에 「조선의용대후원회」가 결성되어 그 위상을 높였다. 이 가운데 의용대 역시 조직을 확대·개편하였는데 박차정은 부녀복무단장으로 활동했다. 부녀복무단은 전선의 의용대원을 방문하여 물품과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단이나 표어, 팜플렛 등을 살포하는 선무활동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정열적으로 활동하던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관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1944년 5월 27일 향년 34세로 순사했다고 한다. 그녀는 건강이 악화되어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국해방을 위한 열정을 시와 소설로 표현하였으나 그 작품들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차정의 유해는 현재 김원봉의 고향인 경남 밀양 감전동에 안치되어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조국의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위해 매진하였던 그녀의 삶은 진정한 민족주의자와 민주주의 혁명가로서의 귀감이 된다 할 것이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8. 안희제(安熙濟)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는 일제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활동한 민족해방운동가이다. 국내에서의 활동은 의신·창남·구명학교의 설립과 대동청년단 결성 및 백산상회의 설립·기미육영회조직·중외일보를 통한 언론투쟁·협동조합운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고, 국외에서는 민족해방운동기지 개척을 위한 발해 농장의 경영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만년에는 대중교를 통한 민족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 위와 같은 활동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10년대 대표적 민족해방운동인 대동청년당운동이다. 대동청년단은 1909년 10월 결성된 뒤 광복을 맞이하는 1945년 까지 해체되지 않고 활동한 민족해방운동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대동청년단은 192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단지 일제에 의해 노출되지 않고, 그 단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이 크고 작은 민족해방운동사건에 연루되고 있을 뿐, 대동청년단 명의를 뚜렷한 발자취는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동청년단은 한국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안희제의 대동청년단운동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동단체의 성격상 관련된 구체적 기록을 남길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희제 본인도 자서전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생의 단 한순간도 민족해방의 대의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만 매진했던 안희제의 삶은, 동생 안국

제(安國濟)가 순한문체로 기록한 일대기인 《백산공가상급유사약록(白山公家狀及遺事略錄)》과 백산의 시가 수록된 《남유록(南遊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생애와 민족해방운동

안희제는 1885년(고종22)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설피)에서 안발(安鑷)과 창녕(昌寧) 성씨(成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태약(泰若), 호는 백산(白山), 본관은 강진이다. 그의 가계는 소지주 향반에 속하며, 안향(安珦)의 후예로 청유(淸儒)의 집안이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령을 중심으로 곽재우(郭再祐)와 더불어 의병운동에서 큰 공을 세운 안기종(安起宗)은 그의 직계 선조이다. 그는 소년시절에 고향에서 족형 안익제에게 한학을 수학하고, 1905년 을사늑약의 소식을 접한 후 상경하여 1906년 사립 흥화학교에 다녔고, 1907년 진성전문학교 경제과에 입학했다가 1908년 동교의 교주 이종호의 배척운동에 가담하여 퇴학당하고 양정의숙 경제과로 전학하였다. 이 시기 안희제는 신학문을 통한 자주독립사상에 고취되어 보성·양정학우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지사들과 교류하면서 민족해방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고향인 의령군에 의신학교(1907)와 창남학교(1908), 동래 구포에 윤상은(尹相殷)과 함께 구명학교(1907)를 설립하여 교육계몽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1908년 3월에 조직된 교남교육회에 참가하여 평의원으로 선출된 후 영남 각지를 순회하면서 강연회 등을 통한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과 계몽활동을 통해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주춧돌을 키워나가던 그는 1909년 10월 서상일(徐相一), 김동삼(金東三), 남형우(南亨祐), 박중화(朴重華), 윤세복(尹世復) 등과 영남지역 청년민족주의자의 결집체인 비밀 결사단체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려 했다. 이때 설립된 동단체는 이후 민족해방운동사

의 중요한 족적을 남기게 된다. 대동청년단은 그 단규와 회원명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은 비밀결사로 그 흔적을 완벽히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부산·영남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에 충실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그들을 민족해방운동의 전위로 양성했으며 특히 이극로(李克魯), 신성모(申性模) 등은 이후의 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부산·영남지역의 민족자본가들을 설득해 백산상회를 운영하며 상해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마련하고 연통제를 시행할 때에 주축이 되었던 인물들도 동단체의 단원들이었다. 더불어 이들은 의열단과 연계하여 밀양 및 진영사건이나 1923년의 의열단폭탄암살음모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는 의열단사건의 연루자인 장건상(張建相) 등이 대동청년단원이며, 안희제 본인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선인경부 황옥을 포섭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양정의숙을 졸업한 해인 1910년 당시에는 국권이 완전히 강점당하여 국내에서 그 뜻을 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국외로 망명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방략을 구상하면서 3년간의 세월을 보냈다. 1911년 봄 안희제는 일본으로 견학을 간가는 소문을 퍼뜨리고는 두만강을 건너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6개월간 머물면서 인창호(安昌浩), 이갑(李甲), 신채호(申采浩) 등 민족지도자들과 조국광복의 계획을 의논한 후 1912년 정월 다시 모스크바로 가서 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고향의 친구 최병찬(崔秉瓚)이 폐병에 걸려 그를 봉천으로 입원시킨 다음 만주로 나와 그곳의 해방단체를 방문한 후 1914년 9월에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귀국 후 고향 전답을 팔아 1914~1915년 경 초량 객주인 이유석(李有石), 추한식(秋翰植)과 더불어 부산 동광동에 백산상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동회사를 확대 개편하여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방운동자금을 조달하다가 조선국권회복단사건(일명 안일암사건)으로 백산은 일시 일경에 체포되고, 회사는 일경의

감시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안희제는 1919년 8월 백산무역주식회사 외에 자본금 10만원으로 송대관(宋大觀), 김종범(金種範) 등과 조선주 및 누룩을 제조 판매하는 조선주조주식회사를 부산 수정동에 설립 운영하였으며, 동회사는 1928년 백산무역주식회사가 해산된 다음해에 역시 해산되었다. 1916년 5월에 설립된 경남 인쇄주식회사의 설립에도 관여하는 등 부산지역의 기업설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26년 4월에서 1928년 3월까지 부산상업회의소 부회두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안희제는 1927년 1월경 조선인의 경제적 파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기관으로 《경제운동》이란 월간잡지를 창간하려고 시도했다. 이처럼 안희제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주도하고 실천하였다. 한편 그는 1919년 11월 백산상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산 및 인근지방 유지들을 발기인으로 참가시켜 장차 해방운동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미육영회를 조직하여 국내 및 국외에 유학시킬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희제는 1919년 12월 부산예월회를 조직하여 민족자본가들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발기인으로 각 학교의 설립 및 확장운동, 교육산업개선 청원운동, 조선인 자본가를 위한 특수금융기관 설치운동 등에 진력하는 등 부산지역의 사회운동과 민족자본육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는 언론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1920년 봄 동아일보 발기인에 참여했으며, 동아일보 부산지국장을 1921년 6월까지 역임함과 동시에 1920년대 부산지역 민족운동의 구심체였던 부산청년회를 지원하고 재무부 간사로도 활동하였다. 이처럼 안희제는 1920년대 전반의 부산지역 문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후 1928년 활동무대를 서울로 옮겨 당시 기미육영회를 통해 일본에 유학한 전진한(錢鎭漢)을 비롯한 이시목(李時穆), 함상훈(咸常勳) 등이 이끌었던 협동조합운동사에 참가하고, 동사의 본부와 각 지방 협동조

합과의 연락기관으로 1928년 4월 경성에서 설립된 협동조합경리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활동했으며, 자력사라는 잡지사도 경영하면서, 《자력(自力)》이라는 월간 잡지를 발행하였다. 안희제가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한 것은 1920년대 전반기 실력양성운동을 민족자립경제 건설과 근로 대중의 실력양성으로 연결하고자 했던 그의 민족해방운동 노선(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이 한 단계 더 심화된 것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운동이 1927년의 신간회운동과 연관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자신의 특기인 경제운동을 통해 정치운동인 신간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사는 조선의 민족운동이 협동조합이라는 경제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926년 5월 재일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조직한 것으로 1928년 4월 본부를 동경에서 서울로 이전,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일제의 거둬들인 탄압으로 1931년 무력 해산되어 버렸다. 또한 그는 1921년 11월 25일 이우식(李祐植)을 비롯한 여러 유지들과 함께 《시대일보》를 인수하고 《중외일보》로 개칭하여 경영하다가 필화사건으로 총독부로부터 무기정간처분을 받은 후 1929년 9월 1일 복간하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로서는 최초로 조석간 4면씩 하루에 8면을 발행하는 의욕을 보였다. 이로서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리다가 결국 재력 부족으로 1931년 6월 19일 중간호를 낸 후 중외일보는 중단되었다. 그 후 노정일(盧正一)이 이를 인수 《중앙일보》로 개제하여 발행할 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대중교에서의 활동

안희제는 1930년대 미증유의 대수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전조선수재구조회」를 조직하여 수재민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한 후 국내에서의 활동을 청산하고 1931년 그가

평소에 구상해 오던 국외해방운동 기지개척을 실행하고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발해의 고도인 동경성에서 발해농장 경영에 착수하였다. 그는 경북 봉화 금정광산 개발로 많은 돈을 번 김태원(金台原)의 도움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개간하여 조선의 남부지방 실농민 3백여호를 이곳으로 옮겨 자작농제를 시행하여 정착시킨 후 발해 보통학교도 설립하여 교장이 되고 이들에게 민족정신과 자주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발해농장은 표면적으로는 농지 개간 사업을 하는 농장이었으나 사실은 국외해방운동 기지였다. 1934년 안희제는 민족종교인 대종교 총본사가 이곳 동경성으로 옮겨지자, 동교의3세 교주 윤세복을 비롯한 간부들을 대동청년단에 가입시키는 한편 대종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리게 된다. 즉 그는 1933년 3월 15일 대종교 영계를 지수하고, 1935년 1월 15일 동교의 참교에 피선, 1936년 6월 23일 지교와 경의원 부원장, 대종교 서적간행회 회장으로 특임되어 《홍익규제(弘範規制)》, 《신단실기(神壇實記)》 등 8가지의 책을 편찬했으며, 또 해마다 4차례 교보도 간행했다. 1941년 정월 상교로 승질되고 총본사 전장을 맡게 된 그는 1942년 4월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 귀향했다가 그해 발해 고도지에 천전 건축이 추진될 때 주비회 총무부장을 맡아 동분서주하면서 대종교 교세의 확장운동에 진력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대종교의 활동이 민족의식 고취와 해방운동세력 확장으로 연결될 것에 위협을 느껴 1942년 11월 19일 국내외의 대종교 간부들을 체포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당시 21명의 대종교 간부가 체포된 소위 임오교변이 발발하고 그 중 10명이 순국하였다. 안희제도 일경에 의해 투옥되고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1943년 8월 4일(음력) 병보석으로 출감된 뒤 동생 안영제가 그곳 영안현에서 경영하던 영제의원에서 3시간만에 59세를 일기로 순국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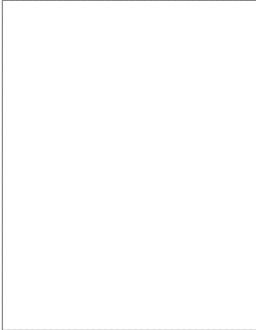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희제는 1900년대부터 1940년대

까지 항일구국으로 일관된 삶을 살면서 한국인의 민족자주해방 정신과 자력갱생정신의 함양에 역점을 두고, 본인은 민족자립경제노선을 충실히 실천하였다. 특히 안희제의 대동청년단 운동은 대한제국 말기에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하에서 형성된 국권회복운동의 방략인 실력양성론이 가진 한계를 국권상실 후 해외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조국광복운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민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백산 안희제의 해방운동방략은 경제와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론만을 고집하지 않고 정치투쟁, 무장항쟁을 병행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으로 일관한 민족해방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9. 양한나(梁漢那)



양한나는 1892년 부산 동구에서 양덕유와 한영신의 셋째 딸로 출생했다. 본래 이름은 귀념(貴念)으로, ‘한나’라는 이름은 안창호가 지어 준 것이라고 한다. 일찍이 양한나는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는데, 이때 독립운동가의 뒷바라지에 여력같은 추진력을 보이는 그녀에게, 안창호는 한라산 같은 굳은 의지를 지닌 사람이

이 되라는 뜻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다.

양한나의 아버지 양덕유(梁德有)는 부산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인물에 속했다. 어머니 한영신 또한 교회연합회장과 경남여전도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여성 지도자였다. 이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근대적인 문물에 매우 개방적이었으며,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0남매나 되는 자식 가운데 대부분이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정치 사회 분야에 많은 지도급 인사들을 배출하였다.

평생 동안 왕성한 사회 활동을 보여 준 양한나는 물론이고, 8·15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경남본부의 결성에 참여하고 뒤에 미군정기 초대 한국인 부산시장을 지낸 양성봉은 양한나의 하나뿐인 남동생이고, 8대와 9대 YWCA 회장을 역임한 양봉옥 역시 양한나의 친동생이다.

어린 시절 양한나의 모습은 알려주는 자료가 없어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을 볼 때 일찍부터 여성으로서의 자의

식이 무척 강한 성장기를 보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양한나는 1913년 3월에 좌천동의 부산진일신여학교(현재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 학교가 배출한 세 명의 1회 졸업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양한나가 1911년에 일신여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부산YWCA50년사》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일신여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 1913년이기 때문이다).

1895년 개교한 부산진일신여학교는 부산공립상업학교(현재 부산상업고등학교), 동래고등보통학교(현재 동래고등학교)와 더불어 부산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설립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다. 비록 나이 스물을 넘기기는 했지만, 부산 최초의 여학교인 부산진일신여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양한나가 부산의 근대 여성으로는 첫 세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직후 양한나는 마산으로 가서 의신(義信)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마산시 대방동에 위치한 의신학교는 마산창신학교에서 여학교를 분리한 것으로서, 일신여학교와 마찬가지로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설립한 근대적인 여성 교육 기관이다. 마산 의신학교는 반일적 민족주의가 매우 강한 학교였다고 한다.

마산 의신학교의 교사 생활을 시작으로 양한나는 이후 평생토록 이어졌던 정력적인 사회 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일설에는 의신학교 시절 양한나가 항일 동맹휴학에 관여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의신학교의 항일 정서가 매우 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의신학교에서 양한나는 대략 1917년 무렵까지 근무하였다. 의신학교를 그만 두고 난 뒤 양한나는 단신으로 도일(渡日)하여 요코하마[橫濱]신학교에 진학하였다.

이 때 양한나의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이미 결혼 적령기를 넘긴 여성이 다시 배움의 길로, 그것도 다른 나라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라 할지라도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을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는 모습에서, 훗날 헌신적인 독립 투사요, 거침없는 여성운동가로 활약을 펼치게 될 양한나의 모습이 엿보였다.

일본 유학을 마친 양한나는 이번에는 다시 중국으로 갔다. 1919년 3·1운동을 전후한 즈음이었다. 중국으로 가게 된 동기는 잘 알 수 없지만, 양한나는 이곳에서 이후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안창호와 만나게 된다.

당시 안창호는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내무총장과 노동국 총관을 역임하면서, 한성과 노령 및 상하이의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던 임시정부를 성공적으로 통합해 내고, 임시정부의 체제를 정비하는 등, 초기 임시정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특히 상하이 시절 안창호는 주체적 인격체로서 여성의 자각과 독립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안창호와의 만남은 양한나를 크게 고무시켰으며 양한나에게 평생의 나침반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후 양한나는 양친 부모와 함께 안창호를 평생토록 마음의 아버지로 여겼으며, 안창호 역시 이런 양한나를 무척 아껴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이후 양한나는 수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때로는 임시정부에 자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임시정부의 문서를 국내에 있는 독립 지사에게 전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생 복장을 하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전달했다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상대가 안창호였다고 적시하는 등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제 경찰에 일시 구속된 경우도 있으나, 정식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한 번은 양한나가 임시정부의 서류를 몸에

휴대하고 일본 나가사키[長崎]를 거쳐 부산으로 입국하던 중 일본 경찰의 의심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 양한나는 오히려 “의심이 들거든 한번 보시오” 라고 대담하게 응수하여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일제에게 요시찰 인물로 낙인이 찍혀 시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러가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것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임시정부 초기는 상하이와 한반도 사이에 연통제(聯通制)가 활발하던 시기였던 만큼, 양한나의 임시정부 활동은 아마도 연통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통제란 임시정부가 국내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독립 정신을 고취하고 각지의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조직한 교통 연락 방법이자, 지방 행정체제였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하여 임시정부의 경상 세입을 삼는 한편 동포와 정부의 연결을 강화하려 한 것이었다.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만큼 적극적으로, 양한나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안창호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에 초의 동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양한나의 모교인 부산진일신여학교나 첫 근무지였던 마산 의신학교가 모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렬하였다는 것을 통해,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요코하마신학교 유학 시절에 일본 사회에 만연해 있던 조선인 차별을 절감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1922년 무렵 임시정부의 연통제가 와해되면서 양한나는 일단 임시정부 관련 활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한나는 YWCA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운동에 몰두하면서 한편으로 유아교육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923년 무렵 양한나는 모교인 동래일신여학교(현 동래여자고등학교)의 청년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서울의 YWCA연합회 활동

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한편으로 양한나는 1924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유치과를 마치고 약 2년여 동안 이화여전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양한나의 인생은 유아 교육과 여성운동이라는 것들 양 날개로 진행되었다.

1928년 양한나는 호주의 선교재단이 통영에 설립한 진명학교에 부설 진명유치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1935년까지 양한나는 진명유치원을 통해 자신의 교육관을 실천에 옮기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 결과 진명유치원의 운영은 성공적이었고, 이것은 양한나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 진명유치원의 경험은 노년에 접어든 양한나가 마지막 생을 바친, 고아와 불우한 여성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자매여숙의 운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1936년 즈음 양한나는 45세라는 늦은 나이로 결혼을 하였다. 그간 독립운동과 사회 활동에 매진하느라 저만치 밀쳐 두었던 결혼이었다. 어떻게 보면 양한나는 애초부터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 충실하는 현모양처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같다. 그런 양한나에게 “이제는 평범한 여성의 삶을 살 것”을 권유한 것이 중매를 섰던 이들의 얘기로 미루어 보아, 양한나는 결혼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과 일정하게 타협을 한 셈이었다.

양한나의 결혼 상대는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의 전(前)남편이었던 김우영(金雨英)이었다. 김우영은 원래 변호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만주 안동의 일본영사관 부영사, 중추원 참의, 충청남도 산업부장과 같은 고관을 지냈던 탓에 친일파라는 지적을 받아 1948년 국회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우영은 부영사 시절인 1923년에 의열단의 폭탄이 만주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간단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였다. 이런 일들이 감안이 되어 김우영은 반민특위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것이다.

8·15 이후 양한나는 여성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게 된다.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되던 당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이 유달리 강렬했던 양한나는, 이것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칠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듯하다.

먼저 양한나는 여성 범죄자를 전담하기 위한 여자 경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자경찰서 창설을 주장,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1946년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었고, 초대 서울여자경찰서 서장에는 양한나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여자경찰서장 활동은 뜻밖의 암초에 걸려 좌초하고 말았다. 양한나는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수도청장 장택상과 시국관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때때로 대립하거나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양한나는 경찰서장 직위에서 해직되고 말았다. 비록 표면적인 사유는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한 폭행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장택상과의 불화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여자경찰서도 폐지되고 말았다. 여자경찰서는 폐지되었지만, 양한나가 제기하였던 여경의 필요성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뒤에 여자경찰서는 경찰서 여성계로 축소되어 보존하게 되었다.

여자경찰서 활동이 마무리된 후 양한나는 부산으로 왔다. 이후 양한나의 활동은 사회복지사업과 YWCA의 지역 조직을 건설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일제시기부터 오랫동안 YWC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양한나는 부산에 정착하게 되면서 부산 YWCA를 조직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1946년 7월 1일 부산 YWCA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양한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1946년 무렵 양한나는 서구 아미동 2가에 오갈 데 없는 고아 55명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일 부산 최초의 사회복지단체인 자매여숙(姉妹女塾)의 단초가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부산에서는 전쟁 고아들과 월남한 여성들의 생계형 윤락 행위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평소 어린이와 여성 문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던 양

초창기의 자매여숙 1953년 경,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28

한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손수 거두기 시작하였다. 거리를 가다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보면, 눈에 띄는대로 하나씩 둘씩 데리고 오는 식이었다. 자연스럽게 수용 인원이 부쩍부쩍 늘어나게 되었다. 수용 인원이 많아지면서 1952년 정식으로 자매여숙을 설립하고 이듬해에는 괴정동으로 이전하였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금달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이 즈음이었다. 금달네는 정신 이상 여성이었는데, 광복동 대로에서 나신으로 몰 남성의 희롱 거리가 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양한나가 즉석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금달네를 감싸 시발택시에 태워 자매여숙으로 데려 갔다는 것이다. 이 금달네 이야기는 당시 장안의 화제 거리가 되었고, 양한나의 성가를 한껏 높여 주기도 했다.

이 시기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매여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스스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경비는 대부분 양한나의 섭외 역량에 의존하여 확보 되었으므로 경영은 무척 어려웠다. 특히 수용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비 부담은 더욱 커졌고, 양한나는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동분서주해야 했다. 그나마 수용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곤궁함 속에서도 자매

여숙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자리잡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양한나의 헌신적 노력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자매여숙을 운영하면서 양한나는 자기 것이라고는 가지지 않는 무소유로 스스로를 비웠으며, 대신 불우한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채웠던 것이다.



1960년대 초 자매여숙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245, 지금의 자매정신요양원 자리로 이전

이후 고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한나는 점차 고아원을 정리하고 정신 이상 여성들의 재활을 돕는 사업에 집중하였다. 1976년 양한나의 작고 이후 그의 유업은 귀애하던 동생 양봉옥의 아들인 우창웅 장로와 그 아내 윤애리나 원장에게 이어져, 사회복지법인 자매정신요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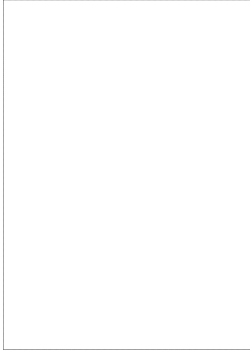


묘지와 묘비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부산진 교회 부활동산

불우한 여성들의 진정한 벗이자, 실천하는 사랑으로 일관했던 양한나의 평생은 말년에 그녀가 거주하던 작은 공간(지금은 양한나홀로 조성)과 자매정신요양원의 입구에 있는 양한나 여사 추모비로 남아, 구호성 사랑으로 가득한 오늘날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선미

10. 윤현진(尹顯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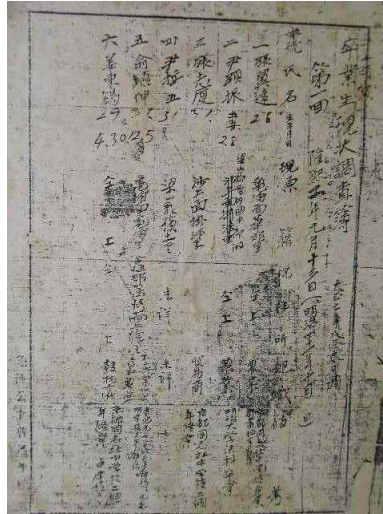
우산 윤현진의 흔적을 찾으러 그의 모교인 구포초등학교를 찾았다.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올리면서 부산 어디에도 현진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않다. 교감선생님은 나를 역사관으로 안내했다. 초등학교에 무슨 역사관일까 생각했다. 공간은 그다지 넓지않았지만, 100년간의 전통을 간직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물어났다. 선생님의 안내로 현진의 흔적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1회 졸업생 명부, 현진의 장례식 사진 등등. 청산유수같은 말과 글로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흔적을 모으고 가리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역사가 아닐까.

右山 윤현진은 1892년 9월 16일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에서 출생했다. 부친 윤필은은 동래부사, 경상우도 관찰사, 동래부 감리를 지냈다. 필은의 형제이자 현진의 숙부는 한말에 고성군수, 일제강점기 울산군수를 지낸 윤명은과 한말 감리서 주사, 구포초등학교 설립, 구포(경남)은행을 설립 운영한 윤상은, 구포지역의 근대화운동에 노력한 윤영은이다. 이들의 부친이자 현진의 할아버지 윤홍석(1943~1902년)은 동래부사와 사천군수를 지냈다. 현진은 한말 관료집안에서 태어났다.

현진은 양산의 晩惺濟書塾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1908년 숙부 윤상은이 세운 구포구명학교에 입학하여 1회로 졸업하였다. 한말 민족의 몰락을 눈앞에 둔 선각자들 가운데는 조선인이 실력을 키워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해야 한다는 부류가 있었다. 그 한 방법이 학교설립이었다. 부산에서도 1895년 개성학교(현 부산상고),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를 비롯하여 근대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다. 구포의 윤상은은 물산객주로 부친의 친구였던 장우석의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 1907년 구포 구명학교를 설립하였다. 1909년 대동청년단을 조직한 안희제가 경상도 일원에서 학교 설립에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안희제가 부산지역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구명학교 교장을 맡으면서였다. 그는 1911년부터 윤상은이 세운 구포저축주식회사 주주(10주)로 참여하였다. 안희제가 구포를 통해 부산 지역의 민족운동을 위한 세력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무렵 현진과 안희제의 인연이 맺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구명학교를 졸업한 현진은 1909년 중국의 남경, 북경, 상해 등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1912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유학하여 조선유학생학우회 총무로 일했다. 학우회는 1913년 가을 여러 지역별 유학생 단체를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이 회의 중요 임원은 회장 신익희, 총무 윤현진, 평의원의장 김효석, 평의원 백남훈, 장덕수, 김영수, 재정부장 노익근, 지육부장 차남진, 간사부장 김명식이었다. 학우회는 기관지로 1914년 4월부터 『學之光』을 발간하였다. 윤현진은 1915년 학지광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學之光』에 ‘學之光第五號에 축하’(1915년 5월)이라는 글을 투고하였다. 이 글에서 현진은 재일조선유학생과 학지광의 역할을

구포구명학교 2번에 현진의 이름이 1회 졸업생 명부 있다. 1918년 졸업생을 정리한 명부인데, 그의 학력을 명치대학 법과 졸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학지광을 식민지 출신 유학생들이 지닌 고민을 해소할 ‘청량신선한 무한복음’에 비유하였다. 나아가 조선의 신문화와 학문을 육성시킬 도구로 생각하였다. 현진이 졸업한 후에도 『학지광』과 인연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부 윤상은이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 현진은 1915년 경 일본에서 金綴洙와 비밀결사를 만들었고, 1916년 초에도 김철수, 정노식, 장덕수 및 중국인들과 新亞同盟團을 결성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진의 귀국은 1916년으로 봐야할 것이다. 『學之光』 제10호(卒業生祝賀號, 1916년 9월)에 정리된 졸업생 기부금 명단에 현진이 포함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명학교 생활과 일본 유학을 통해 현진은 민족주의의식이 강화되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실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것이 유학 후 대동청년단 활동이었다. 한말 계몽단체들은 점차 조선의 식민지화가 노골화되는 1910년을 전후하여 비밀결사운동으로 전환하였다. 1909년 백산 안희제를 중심으로 영남지역 지식인들이 조직한 대동청년단이 대표적이었다. 안희제는 한일합방과 신민회 사건으로 망명생활을 했는데, 1911년 모스크바와 만주를 거쳐 1914년 귀국하였다. 그 기간동안 그는 만주와 러시아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만나 독립자금 조달과 인재육성, 국내와 국외의 연락책임 등을 논의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이때 조선국권회복단과 백산상회가 조직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인사들이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16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현진도 이즈음 대동청년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동청년단은 국내 독립운동의 거점과 자금조달을 위해 상업회사를 조직하였다. 1910년대 중반 이후 1차세계대전의 경기를 타고 부산의 상업은 발달하였다. 특히 경남의 지주들은 이 시기

부산으로 활동공간을 옮기고 경제활동에 종사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백산무역주식회사였다. 이 회사는 백산이 만주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1914년 무렵 백산상회로 출발해 1919년 백산무역주식회사로 성장하였다.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대부분이 대동청년단원인 것으로 봐 양자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백산무역주식회사는 독립운동을 위한 국내의 거점이었고, 수익금은 독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백산무역주식회사는 대구, 서울, 원산, 안동, 봉천에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두고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였다. 현진이 직접 이 회사와 관련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형인 顯泰가 400주를 보유하면서 취체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 현진형제와 백산무역주식회사의 관계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진은 1919년 당시 경남은행(구포은행의 후신) 마산지점장을 맡고있었다. 구포은행을 설립한 사람이 숙부인 윤상은이었고, 경남은행으로 바뀌면서 세력을 잃었던 윤상은이 1917년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윤상은의 경영능력으로 하동, 마산에 지점이 개설되었다. 현진이 마산지점장을 맡은 것이 단순한 윤상은의 조카이고, 개인적인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상은의 회고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독립자금 제공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윤상은이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일본 유학길에 오른 적이 있다. 경남은행이 독립자금을 조달했던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진과 관련된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본점(초량소재) 1919년 울산 윤현진이 경남은행 마산지점장으로 근무했다.

현진이 구포은행과 관련있는 시기는 1912년 무렵 구포은행 전신인 구포저축주식회사의 주식 32주를 보유하면서부터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현진이 일본 유학시기였던 점에서 직접적으로 구포은행과 관련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의 형인 현태가 구포저축주식회사 설립 때 30주(뒤에 32주)를 보유했다가 현진이 보유하는 시기부터는 주식이 없다. 아마도 현태의 주식이 현진에게로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12년 구포저축주식회사가 구포은행으로 변신하면서 현진은 주식을 150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형에게 이름을 빌려준 때문이었던 것 같다. 유학 후 현진은 경남은행에 근무하면서 해외 독립자금 조달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진이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 사건은 1919년 3.1운동이었다. 당시 현진은 경남은행 마산지점장이었다. 이 당시 현진의 활동을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마산의 만세운동과 관련해 상해로 망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동청년단원의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대동청년단은 만세운동의 지방확산에 매진했다. 마산 주변의 진동, 진북, 진전 즉 삼진의거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만세운동이었다. 이를 주도한 변상태는 대동청년단원이었다. 이 사건이 마산의 3.1운동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그는 3.1운동 이후 4월 10일 경 울산의 민족주의자 김홍조와 함께 상해에 나타났다.

상해임시정부가 명실상부한 통합 정부로서 역할을 하기 전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는 다양한 정부형태가 존재하였다. 러시아 지역에 이동휘가 회장으로 있던 ‘老兵會’는 1919년 2월 ‘대한국민의회’(노령정부)(3. 21.)로 재편되었다. 이 단체는 3월 27일 일본에 선전포고하면서 정부 각료를 선임하였다. 이때 윤현진(탁지총장), 남형우(사법총장)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리고 간도에서 임시대한공화정부(3. 29.)가 조직되었는데, 각료가 노령정부와

비교할 때 남형우(산업총장)의 부서가 변경된 것 외에는 동일하다. 남형우는 고령출신으로 대동청년단원이면서 3.1운동 당시 대구에서 검거되었다가 석방된 후 부산에서 독립운동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뒤 상해임시정부에서도 현진과 함께 이름을 올려놓는다. 이 내용은 3.1운동에서부터 4월 10일경 상해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 현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3.1운동 후 만주에서 정부수립활동을 하다가 상해로 이동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진이 간도와 러시아지역을 거쳐 상해로 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홍조와 함께 곧바로 상해로 왔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주지역 단체가 국내 비밀단체인 대동청년단, 백산상회와 서로 연락하면서 현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을 내걸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현진의 행적과 관련해 주의를 해야할 부분이다.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진의 활동도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임시정부 설립과정에서 조직을 정부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현진은 신익희 등과 더불어 정부수립론을 주장했고, 다수의 찬성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현진의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자료는 『國事日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현진의 활동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의 프랑스 조계 내 사무실에서 출발한 임시정부는 13일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하고 조선 8도와 해외 3지역을 포함한 11개의 지방의원을 선거하였다. 여기에 현진은 김창숙, 류경환, 김정묵, 백남규, 김갑 등과 함께 경상도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각 부서별로 위원제를 채택했는데 현진은 신익희 등과 함께 내무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7월 8일 제2회 임시의정원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진은 재무위원장과 외무위원회 이사로 당선되었다. 8월 5일 국민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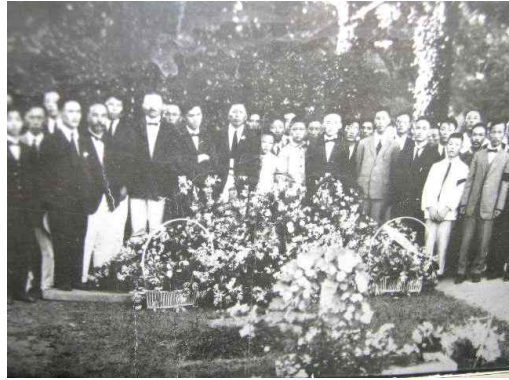
으로 정부의 부서를 위원제에서 차장제로 변경하자 현진은 재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1921년 3월 22일까지 재임하였다. 현진이 재무차장을 맡기까지는 도산 안창호의 계속된 설득때문이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현진은 항상 재정확보에 애를 썼다. 『國事日誌』에는 안창호와 현진이 재정을 조달할 다양한 묘안을 구상했던 흔적이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회사를 설립해 주금(株金)을 확보하고, 회사를 운영해 자금을 조달하자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진의 자금조달은 국내에 의존하였다.

현진이 재무차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자금 조달 배경과 관련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진은 중국으로 건너오기 전 백산상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경남은행의 마산지점장으로 지낼만큼 부산과 경남의 경제계 인사와 인맥이 강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의 형 현대가 버티고 있었다. 현대는 백산의 활동과 궤를 같이했다. 1915년 조선국권회복단이 조직될 때 단원으로 참여했고, 백산무역주식회사 설립 때에는 400주를 보유해 전무취체역으로 회사경영에 직접참여하였다. 그리고 1919년 경에는 양산의 지주들과 함께 一金商會를 경영했고, 1920년 초에는 역시 양산에서 宜春商行을 운영하였다. 현대의 적극적인 회사활동은 동생 현진의 독립자금 조달과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의 자금조달과 현진-현대와의 관련은 黃任性的 경찰심문조서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황임성은 부산 경남으로 잠입하여 자주 윤현태를 만나 자금을 조달받았으며, 또 이는 중국에 있던 윤현진의 소개로 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현진은 1920년 孫貞道 金澈 金立 金九 金淳愛 등과 함께 上海에서 義勇團을 조직하였다. 의용단은 국내 조직을 만들어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조직은 전국적

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부산에서도 姜永祚(예수敎人) 朴甲善(예수敎人) 女信徒 朴德述 외 10명이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원조할 목적으로 선전과 군자금모집을 하던 중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윤현진 장례식 중양에 안창호, 김구, 여운형이 젊은 독립운동가의 넋을 기리고 있다

2여년간 임시정부 활동을 하던 현진은 1921년 9월 19일 별세하였다. 그는 죽기전 「獨立하지 못하면 我骨을 故山에 묻지 말며 我子女를 嫁치 말라」고 遺言하였다. 장례는 임시정부의 국장으로 치러졌고, 안창호, 김구, 여운형 등이 참석해 애도했다. 뒤늦게 도착한 현대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현진의 묘소에 ‘윤현진 묻음’이라 쓴 비석을 세웠다.

일제 강점기 민족이 위기에 빠졌으나, 위기로부터 목숨과 맞바꾸어 민족을 구하려던 사람들은 적었다. 우산 윤현진은 민족독립이라는 삶의 목표를 정해, 어린시절 유학생할, 귀국 후 경남은행 근무, 3.1운동 이후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이 과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살았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차철욱

11. 이봉우(李鳳雨)

이봉우는 1873년 7월 15일 부산 좌천동에서 출생하였다. 호(號)는 백단(白坦). 본관은 경주(慶州). 이명(異名)은 봉우(奉雨)이다. 이봉우는 정작 독립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신학문과 일본어를 이수하여 한말 궁내부기사(宮內府技師)로 재직하였다. 이 무렵 이봉우는 이승만(李承晩)을 비롯한 우국지사들과 교유하면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출하기 위한 국정(國政)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이봉우가 궁내부기사로 있을 무렵 국내외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일본은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면서 한일의정서(1904.2)와 한일협약(1904.8)을 체결하고 마침내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통해서 통감정치를 실시하였다. 이봉우는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분개하여 관직을 그만 두게 된다. 이후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를 봉양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자신의 고민을 부친 이종만(李鍾晩)과 상의하였다. 이때 부친은 이봉우에게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든지 지원하겠다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이에 이봉우는 1908년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연길현 합마당(哈蟆塘)에 정착하였다. 이후 이봉우는 인재양성을 위해 동포들이 거주하는 여러 곳에 민족학교와 강습소 등을 설립하여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 당시 만주에 살고 있던 동포들은 대개 한반도에서 살기 어려워 만주로 이주해 온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신식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학교설립에는

많은 경제적 문제들이 뒤따랐으며 정치, 행정적으로 중국인 관리들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또한 많았다. 이봉우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부친 이종만(李鍾晩)의 경제적 지원과 종교단체들의 지원에 힘입어 여러 학교들을 설립하였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1910년 김약연(金躍淵) 등과 협력하여 화룡현(和龍縣) 장재촌(長財村)에 명동중학교(明東中學校)를 세운 이후 1912년 화룡현(和龍縣) 자동(滋洞)에 김윤승(金允承) 등과 정동중학교(正東中學校)를, 같은 해 화룡현(和龍縣) 와룡동(臥龍洞)에 창동중학교(昌東中學校)와 화룡현(和龍縣) 소영장(小營子)에 길동중학교(吉東中學校)를 각각 설립 운영하였다. 이들 학교 가운데 정동중학교와 명동중학교는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만주독립군들에 대한 대대적 보복전이었던 간도토벌 때 소실되었다. 이 중 명동중학교는 곧 재건되어 1925년까지 존속하였는데, 이들 학교들은 1920년대 만주지역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한편 이봉우는 1914년 북간도 장재촌(長財村)에서 이동휘(李東輝)·구춘선(具春先)·마진(馬晋) 등이 조직한 국민회(國民會)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대 후반 북간도지역에서 그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점은, 1918년 음력 11월 만주·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선언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세계체제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진 선언으로 1919년 3·1선언보다 1년 앞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흔히들 1918년 무오년에 선포되었다고 하여 '무오 독립선언서'라고도 한다. 이 선언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昂)으로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이고 민주주의 자립국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한일합병은 일본이 우리나라

를 무력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로 병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영토, 즉 한토(韓土)를 지키기 위하여 무력의 사용도 불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2천만 동포들에게는 국민된 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심하여 육탄혈전, 즉 맨몸으로라도 결사적으로 항쟁하여 독립을 되찾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독립선언서에 대표자로 서명한 사람은 김교헌(金敎獻)·신규식(申圭植)·박은식(朴殷植)·안창호(安昌浩)·김동삼(金東三)·이시영(李始榮)·이동녕(李東寧)·신채호(申采浩)·유동열(柳東說)·이동휘(李東輝)·김좌진(金佐鎭)·김규식(金奎植)·이승만(李承晩)·황상규(黃尙奎) 등으로 당시 해외에 나가 있던 한국의 저명인사가 거의 망라되어 있었다. 이들 명단에 이봉우 역시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그 만큼 1910년대 후반 북간도 지역에서 이봉우의 위상이 높았다.

이후 이봉우는 1919년 3월 13일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에서 일어난 독립선언식과 관련하여 만세시위 군중에 대한 중국군의 발포에 대해 구춘선·강봉우(姜鳳雨)·고용환(高容煥)·강구우(姜九禹)·박승필(朴昇弼) 등과 함께 중국관헌에 배상책임을 따지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이봉우는 용정촌의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길림성 북간도 지역의 연길(延吉)·화룡(和龍)·왕청(汪淸) 3현의 교민 대표들을 결집하여 간도국민회(間島國民會)를 결성하였다. 간도국민회는 구춘선(具春先)·강구만(姜九萬) 중심의 동간도국민회(東間島國民會)와 이명순(李明淳)·박관일(朴觀一) 중심의 훈춘국민회(琿春國民會) 등이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로 회원은 약 8,000명이었다. 근거지는 왕청현의 지인향(志仁鄉)이었는데, 회장은 구춘선, 고문에 김규찬(金圭燦), 총무는 한상우(韓相愚) 등이었다. 이봉우는 간도국민회의 회장 구춘선과 함께 항상 행동을 같이 하였는데,

이로 볼 때 1910년 명동중학교 설립에 함께 참여했던 김약연을 비롯해 구춘선, 김영학(金永學) 등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1914년 결성한 연변교민회(延邊僑民會)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봉우는 1919년 4월 대한독립기성총회(大韓獨立期成總會)의 의사부원(議事部員)으로서 구춘선·마진·유예균(劉禮均)·최원일(崔元一)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대한독립기성총회는 북간도지역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화를 목표로 결성되었다. 조직은 회장(1명), 부회장(1명), 각 지역 대표의 의사부원(15명), 재무부(3명), 교섭부(2명), 편집부(3명), 통신부(3명), 경위부(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봉우는 합마당(合蟆塘) 대표의 의사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대한독립기성총회는 조선국민보(朝鮮國民報)란 기관지를 발행할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후 이 조직은 앞서 본 간도국민회에 통합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919년 4월 상해임시정부가 결성되자 간도국민회는 상해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휘하에서 각 독립군 군대들을 지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간도국민회는 대한독립군의 사령부를 구성하였는데 이에 1919년 8월 홍범도(洪範圖) 지휘의 200명으로 구성된 대한독립군과 최진동(崔振東)·이태범(李泰範) 등이 이끈 도독부군(都督府軍) 300여 명, 안무(安武)가 영도한 국민회군 등이 간도국민회 휘하 대한독립군에 편입하였다. 끝이어 간도국민회의 대한독립군은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한독립군의 사령관에 최진동, 부관(副官)에 안무(安武), 연대장에 홍범도, 제1중대장에 이천오(李千五), 제2중대장에 강상모(姜尙模), 제3중대장에 강시범(姜時範), 제4중대장에 조권식(曹權植) 등을 임명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운영된 대한독립군은 1919년부터 1920년 사이 일제와 맞서 치열한 항일전투를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 전투가 1920년 6월 봉오동과 9월 청산리 전투였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한 대한독립군의 기념 사진

일본군은 한국독립군을 궤멸시키기 위해 대대적 토벌작전을 단행하였다. 이에 한국독립군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노령(露嶺)지역으로 이주하여, 1921년 6월 한국독립군의 주력부대들이 자유시(알렉세예프스크)에 도착하게 된다. 자유

시에서 집결한 한인 독립군 부대는 단일의 부대가 아니고 러시아 출생 한인 2세들의 이르크츠크파계열의 군대, 간도에서 활동한 대한독립군,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을 근거지로 초기 사회주의운동을 이끌고 있던 이동휘(李東輝)계열의 사할린의용대 등, 3계열의 한인 독립군 부대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각 독립군 부대는 한인 독립군 부대 전체의 군통수권을 두고 서로 세력다툼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유시사변(自由市事變)이다. 이 사건으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되었는데 사건의 전모는 대략 다음과 같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이후 일본군 추격을 피해서 노령(露嶺)으로 이동하던 대한독립군은 밀산(密山)에서 독립군을 통합·재편성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지리적으로 더욱 안전한 연해주(延海州)의 이만(달네레첸스크)에 집결하였다. 이때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의 문창범(文昌範)과 자유대대(自由大隊)의 오하묵(吳夏默) 등은 자유시에 군대주둔지를 마련하여 한인 독립군에게 집결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1921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 간도지역 독립부대인 최진동(崔振東) 등의 총군부(總軍府), 안무(安武) 등의 국민회군(國民會軍), 홍범도(洪範圖) 등의 독립

군, 서일(徐一) 등의 군정서(軍政署), 노령지역의 의병대인 김표드로의 이만군, 최니콜라이의 다반군, 임표(林彪)·고명수(高明秀)의 이항(尼港)군, 자유대대, 박그리콜리의 독립단군 등이 집결하였다.

그런데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독립군대 중 자유대대와 이항군 사이에 독립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즉, 이항군을 이끌었던 박일리아는 군통수권 장악을 위해 극동공화국 원동부(遠東部) 내의 한인부를 찾아가 이항군대는 자유대대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통고했다. 상해파(上海派)의 이동휘계인 박애(朴愛) 등이 장악했던 극동공화국 한인부에서는 극동공화국 군부와 교섭하여 박창은(朴昌殷)을 총사령관, 그레고리에프를 참모부장으로 지정하여 자유시로 보내는 동시에 이항군대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하고 자유시에 집결한 모든 한인무력을 그 관할 아래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르쿠츠크파에 속했던 자유대대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끝까지 불응하면서 이항군대에 맞서 오하목·최고려 등을 이르쿠츠크에 있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에 보내 자유시 한인부대의 군통수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섭했다.

이를 받아들인 동양비서부는 임시고려군정회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갈란다라시윌린, 부사령관에 오하목, 군정위원에 김하석·채성룡을 임명하였다. 1921년 6월 6일 자유시에 도착한 갈란다라시윌린은 7일 자유시의 전부대를 소집하여 자신이 고려군정의회의 총사령관임을 선포하고, 8일 이항군의 지휘자인 박일리아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자유시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박일리아는 이를 거부하였지만 홍범도·안무의 군대는 이 결정을 수용하였다. 여기에 1921년 6월 27일 사할린의용대 연대장 그레고리에프도 투항하자, 갈란다라시윌린은 사할린의용대의 무장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 28일 자유시수비대 제29연대에서 파견된 군대가 사할린의용대에 접근했고, 이후 제29연대 대장은 사할린의용대 본부에 들어가 복종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사할린의용대가 불응

하자 공격명령을 내려 무장해제를 단행했다. 이렇듯 자유시사변은 사할린의용군이 러시아 적군의 포위와 집중공격에 쓰러진 참변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 간의 대립투쟁이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전투 끝에 무장해제를 당한 사할린의용대는 전사자·도망자를 제외한 864명 전원이 포로가 되었다. 자유시사변은 한인 독립군 600여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면서 독립군 사이에 씻을 수 없는 반목과 상처를 남긴 사건이 되었다.

자유시사변이 일어나자, 만주지역 11개(간도국민회, 군민단, 광복단, 신민단, 농민회, 공의단(公義團), 태극단, 농무회, 의민단, 청년독립단, 야단野團)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민족 자체의 분열에 의해 발생한 참사라는 것을 성토했고 국내외 관계기관에도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이때 이봉우는 구춘선과 함께 간도국민회 대표로서 참가하고 있었다. 이봉우는 자유시참변이 있고 난 뒤 난립한 재만 독립단체들의 통합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항일운동단체의 통일적 규합을 위해 상해임시정부로 가는 도중 1921년 9월 23일 연길현 다두구(茶頭溝) 근처에서 일본관헌에 의해 흉탄에 맞고 순국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49세였다. 그의 부인 역시 남편을 따라 만주로 망명한 후 조국광복운동에 숨은 공이 컸다. 장남 성신(誠信)은 부친 이봉우의 유지를 받들어 부친 사후 가족들과 같이 국내에 일시 귀국하여 가장으로서 집안을 돌보다가 1927년 5월 다시 만주로 이주하였는데 해방 후 부친의 묘소가 있는 연길현 노두구(老頭溝)에서 별세하였다. 2남 상필(相弼)은 1919년 3월 13일 연길현 국자가(局子街) 3·1운동과 관련하여 일본영사관원의 심한 고문으로 순사하였고, 3남 상준(相俊)은 1920년 간도 용정에서 학생독립운동 관계로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었다가 석방되자 곧바로 중국 광둥으로 가서 광

동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후 재학 중 독립학도군에 입대하여 항일전투를 하다가 1927년 3월 전사하였다. 4남 상봉(相鳳) 역시 1921년 봄 부산에서 셋째형 상준(相俊)의 편지를 받고 광동군관 학교 입학하여 재학하였으나 셋째형 상준과 함께 1927년 3월 항일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처럼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우리고장의 보기 드문 항일운동가 집안이었다. 이봉우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 승

12. 장건상(張建相)



장건상은 자본주의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되어 민족적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한 1883년 12월 19일 경북 칠곡에서 부유한 지주 장운원(張雲遠)의 네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세에 장건상은 한살 아래인 부산 초량의 이감찰(李監察)의 외동딸인 이찬성(李贊成)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두었다. 아들 지갑(志甲)은 장건상을 일경에 밀고한 죄책감으로 해방 이후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1967년 일본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첫째 딸 수원(守遠)은 지금까지 생사불명이며, 둘째 딸 수양(守養)은 남경의 금릉대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장건상을 측근에서 보필하였고 현재 부산에서 살고 있다.

장건상의 이름을 일부 사료에서는 건상(健相)으로 기록해 놓았으나 건상(建相)의 오기인 것 같고, 민족해방운동 시에는 명상(明相)이란 가명을 쓰기도 했으며, 호는 소해(宵海)이다.

장건상의 부친은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 근교의 좌천마을로 이사했으며 장건상은 근교의 좌천재(佐川齋)에서 12년간 수학하였다. 그 후 장건상은 영국 선교사 엔젤의 주선으로 당시 부산에 세워진 장로교 영어 강습소에 들어가 1년간 영어공부를 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장건상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경하여 한성순보 주필인 장지연의 주선으로 공립 영어학교에 입학하여 1년간 수학했다. 그러나 이 곳

에서는 그의 의도와는 달리 신학문보다는 한문에 치중하였으므로 곧 중퇴하고 미국인 선교사 게일 밑에서 영어공부를 하였다. 게일과의 이러한 인연은 훗날 장건상이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건상은 러일전쟁이 종식될 무렵 일제의 한국 내정 간섭이 노골화되자 국권회복을 위해 실력을 배양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우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부모의 뜻과는 배치되어 부모의 재정적 배려는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장건상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장건상은 유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본에 도착하였고 장차 고국의 국권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사력의 강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일본 해군병학교에 입학코자 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아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이 당시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천주교 유학생 50명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코자 했으나 거부당하자 민족차별 대우에 분개하여 혈서로써 항거한 사건도 있었다.

장건상은 와세다 대학에서 1년간 수학하여 비록 근대적 학문과 사상에 접할 수는 있었으나 군사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아쉬워하던 차에 박영효의 주선으로 주일미공사 이스트레이크 집에서 한인 유학생 50여명과 더불어 기초적인 군사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당국의 압력으로 한인들의 군사훈련교육은 중단되어 버렸다. 그러자 장건상은 2년여의 일본 유학을 청산하고 부산집으로 귀향했다. 장건상은 고국에 돌아온지 1년 여 만에 배움의 열정을 식히지 못해 부모를 줄기차게 설득한 결과 드디어 미국유학 길에 오를 수가 있었다. 장건상은 일본 통감부를 통한 정상적인 유학길은 포기하고 시베리아 육로로 미국을 건너가는 험난한 대장정의 길을 택했다. 1908년 3월 장건상은 지참금 2백원과 게일 목사가 써준 미국대학 추천장을 가지고 부

산을 떠나 청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한인거류민단장이었던 유성춘(柳成春)과 의병대장 유인석(柳麟錫) 등의 도움으로 모스크바를 거쳐 피터스버크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이범진(李範晉), 이위중(李韋鍾) 부자의 도움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을 경유하여 천신만고 끝에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도 여권이 없어 미국 이민관리국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마침 이상설(李相高)의 신원보증으로 추방은 면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역경을 겪은 장건상은 드디어 게일 목사의 추천장으로 발프레스 예비학교를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학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장건상은 4년간을 거의 고학으로 공부하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동부주립대학인 동대학을 졸업하므로써 당시에는 보기 드문 엘리트로 성장하였다.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장건상의 생애 중 일제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활동한 기간은 편의상 4단계로 나누어 조명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장건상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 곧 흥사단(興土團)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중국에 건너가 직접 항일전선에 참여할 결심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1917년 당시 상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신규식(申圭植)과 연락이 되어 드디어 상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당시 34세였던 장건상은 상해의 민족해방운동단체인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주로 한국으로부터 망명해 오는 인사들의 길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때 장건상이 안내한 인물 가운데는 의열단의 중심인물인 김원봉(金元鳳)과 훗날 좌익의 거물이 된 김두봉(金斗奉)도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행하면서 민족해방운동가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진 경험은 이후 민족통일전선 구축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다. 그러다가 1919년에 들어 그의 운동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즉, 이후로는 장건상이 항일민족해방운동가로 한국 민족해방운동사에 일정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거족적인 국내의 3·1운동을 전후하여 상해는 한국 민족해방운동의 거점이 되어 약 1천명에 가까운 운동가들이 운집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들 힘의 결집으로 1919년 3월에 프랑스 조계의 보창로(寶昌路) 329호 건물에 대한독립 임시 사무소가 문을 열고, 임시정부수립이 추진되자 장건상은 한인 거류민단의 국민대회 준비위원으로 활약함으로써, 같은 해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가 수립되는데 산파역을 담당하였다. 그 공로로 동 22일의 임시의정원회의에서 의원으로 선출되고 외무부위원에 피선되어 임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또 7월 1일에 대한적십자회가 상해에서 창립되자 상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장건상은 의열단이 만주 길림에서 비밀리에 창단되자 우선 후원자로 참여하다가 후에 기밀부, 실행부로 구분·운영되는 동조직의 기밀부 요직을 맡아 깊이 개입하였다. 예컨대 1920년 2월 장건상은 임정의교차장이라는 신분을 활용하여 의열단원인 이성우(李成宇) 등에게 신임장을 보내어 그들이 중국에서 폭탄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었다.

그런데 장건상은 1920년 말경에는 당시 상해임정요인들 사이에 갈등이 노골화되고, 민족해방운동자금의 고갈로 임정의 활동이 침체해지자 상해를 떠나 북경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1921년 5월경에 운동노선을 둘러싼 내분과 정책 수립의 부진 등으로 그 활동이 미약하던 임정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던 소위 창조파(創造派)의 일원으로서 김립(金立) 등과 「조선공화정부」를 조직하고 외무총장으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한편 장건상은 같은 해 8월경 당시 소련의 이르크츠크를 거점

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 임정에 반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서는 민중을 토대로 한 완전한 조직과 정치적·경제적 배경이 급선무라고 제창한 고려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이 당은 러시아 혁명 후 레닌이 제창한 약소민족해방운동에 지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장건상은 이르크츠크 고려공산당의 이념과 목표를 충분히 숙지하고 당에 가입했다기보다는 민족해방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당을 선택한 것 같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장건상은 당대회에서 7인 정치부 일원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인터내셔널 3차대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레닌을 만나 민족해방운동자금을 요청했으며, 그것을 계기로 코민테론과 이르크츠크 고려공산당 사이에 연락 업무 뿐만 아니라 북경을 비롯한 화북, 만주 등지의 여러 민족해방운동 단체간의 연락도 담당하였다. 예컨대 1921년 11월부터 22년 4월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극동피압박민족회의(FCITFE)에 관련된 민족해방운동자 간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장건상도 한국의 참가대표 52인 중 일원으로 선발되어 참석하였다고 전해진다.

1923년에는 북경에서 김성숙(金星淑)과 더불어 급진적인 잡지인 『혁명』을 격월로 발간하여 약소민족의 설움과 항일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국내외의 젊은 독자층에게 상당한 반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1923년 국내외의 지역대표자들이 「국민대표회」를 구성할 당시 시베리아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상해로 돌아왔으며, 그후 「군사통일회」 조직을 발기하기도 했다. 1924년에는 임정의 외교총장으로 있으면서 의열단의 이종암(李種岩) 등이 비밀 임무를 가지고 입국하는데 제반 여건을 주선해 주었다.

1926년 10월 28일에는 다시 북경에서 「한국유일민족해방당 축성회」의 취지문을 발표하고 7인 집행위원의 일원으로서 남지나

(南支那)에 특파되어 민족해방운동단체의 단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장건상은 192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원으로서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인의 사주를 받는 장작림(張作霖)의 중국경찰에 중국인민을 선동하여 중국의 평화와 국헌을 문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북경 감옥에서 28년까지 복역하였다.

1928년 가을부터 상해의 자택에서 다시 체포되었던 1937년 4월까지 장건상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기록이 분명치 않다. 단지, 의열단의 고문으로서 폭탄의 국내 반입 등 의열단의 대일 테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건들은 나타난다. 그리고 193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장건상은 「반제동맹」이란 급진적 단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 1930년 한때 북경의 화북대학에서 영어를 강의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이후 이어지는 활동을 위한 준비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장건상은 1937년 4월경에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상해 일본영사관에 구금되었다가 1937년 여름에 본국으로 압송되어 부산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그 후 1년 반 동안 전국의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전전하면서 항일투쟁의 전력을 조사받는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끝내 일경은 장건상을 기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자 기소유예로 풀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 장건상의 건강은 몹시 악화되었으나 풀려난 지 1년쯤 지나 건강이 회복되자 장건상은 다시 부산을 탈출하여 41년 12월경에 중경에서 옛 동지들과 재회하였다. 장건상의 탈출에 대해 동지들 간에 다소 오해도 있었으나 오해가 풀리자 임정의 의정원으로 임정에 참여하여 학무부장, 노동부장 등의 요직을 맡으면서 소임을 다했다.

특히 임정 주석인 김구의 특별 요청에 의해 연안에 파견되어 한국민족해방운동자들의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그곳에서

8·15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임정의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환국하여 민족분열방지와 독재타도를 위해 정당 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정쟁의 와중에서 고통만 겪다가 민족해방운동 유공자로서 충분한 대접 한 번 받지 못한 채 74년 5월 14일 91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서거하였다.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86년에 장건상에게 대통령장이 추서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장건상의 전 생애를 통한 평가는 좀 더 풍부한 사료의 발굴과 사료에 근거한 치밀한 분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민족해방운동사의 차원에서 볼 때 장건상은 일제에 대해 철저한 비타협 불복종으로 일관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민족주의자이자 민족해방운동가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민족해방의 대의 앞에 좌우익의 활동을 포용하고 아우르고자 했던 장건상의 노력은 더욱 높이 칭송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장건상의 민족주의적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한민족역사의 변혁과 창조를 위한 에너르기 창출의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13. 최천택(崔天澤)

최천택은 1896년 6월 부산 좌천동에서 출생하였다. 호(號)는 소정(蘇庭). 최천택은 식민지시기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운동과 이승만독재에 맞선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적극 앞장섰던 우리 고장 출신의 대표적 민족민주운동가였다.



조선시대 일본과 상호교린을 위한 중요 장소였던 부산은 개항과 함께 이중의 도시공간으로 자리잡는다. 즉 일본을 통한 ‘근대’와의 만남이 한반도에서 맨 먼저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그 만큼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탄압 또한 혹독한 곳이었다. 최천택(崔天澤)은 이러한 근대성과 식민지성이 교차하는 부산에서 일제의 정치적 탄압과 식민지적 수탈에 맞서 한 평생을 민족운동에 헌신한 우리고장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다. 최천택은 청일전쟁과 을사의병 등 계속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1896년 6월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서 최차구(崔此球)의 2대 독자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해운대와 가야 등지에 상당한 전답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최천택에게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킨 것은 집안의 독립투사였던 당숙 최상훈(崔尙勳)과 숙모 변봉금(卞鳳今)의 영향 때문이었다.

소정보다 28세 연장인 당숙 최상훈은 1919년 무장투쟁 단체인 북간도의군부파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10여년을 헌신한 인물로 시베리아 치타에서 일본 밀정에게 암살되었다. 숙모인 변봉금은 남편 최상훈이 독립운동에 뛰어들 뒤 소식

이 끊기자 만주 심양에서 독립투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그녀는 이후 서울로 돌아와 하숙업을 하였는데, 3·1운동 당시 쟁쟁한 활동을 하였던 김상덕(金尙德), 윤자영(尹滋英), 강홍렬(姜弘烈), 박희창(朴喜昌), 김법린(金法麟) 등이 변봉금 여사의 하숙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하였다..

소정의 생애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부산진의 유지들이 운영하던 육영재(育英齋)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육영재의 후신인 사립육영학교(1908년 개칭)에서 신식교육을 받은 뒤 20세가 되어 부산공립상업학교(현 부산상고 전신)를 졸업(4회)했던 1915년까지의 시기이다.

소정은 부산공립상업학교 2학년 때인 1912년 당시 금서였던 『동국역사(東國歷史)』를 절친한 학우들(박재혁朴載赫, 김병태金鉉泰, 김홍규金興奎)과 운독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몰래 돌린 것이 발각되어 10여일간 구속되었다. 이때부터 소정은 부산경찰서의 요시찰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학우들(박재혁, 김병태, 김인태金仁泰, 김영주金永柱, 장지형張志亨, 오택吳鐸, 김홍규) 대부분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소모임의 형태로 조직적 강고성을 나뉠대로 지니고 있었다. 이에 『동국역사(東國歷史)』 사건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와해되지 않은 채 이듬해인 1913년 구세단(救世團)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소정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구세단은 조직 결성의 목적을 ‘모든 항일투사의 국내연락’과 유사시 항일 ‘비밀결사대’로 전환하는데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세단은 등사판으로 만든 잡지를 매월 한 번씩 경남 일원의 선진적인 청년들에게 보내고 자체 조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련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구세단은 활동 반 년 만에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소정을 비롯하여 조직의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재혁, 김인태, 오택, 김홍규 등이 검거된다. 이후 구세단은 자

체 조직을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검거된 동지들이 석방되는데, 소정은 이 일로 부산공립상업학교를 1년 늦게 졸업(1915년)할 수밖에 없었다.

졸업 후 구세단 사건으로 조심스럽게 운신하던 소정은 1917년 북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을 하던 황병길(黃丙吉, 1920년 6월 사망)과 접촉하기 위해 이전의 구세단 단원이었던 김병태와 장지형을 북만주에 파견하여 해외무장운동 단체와 연계를 맺기도 하였다. 소정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독립운동가로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당숙 최상훈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소정의 생애 중 활동 제2기는 1919년 3·1운동 이후 각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한 청년단체의 청년회운동에 참여했던 시기이다.

부산지역 3·1운동 당시 소정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구세단 동지로서 상해에 있던 김인태(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한 김규식의 수행원)로부터 1919년 2월 22일 일본 문사(門司)로 급히 오라는 전보를 받고 일본에 건너간 소정은 '3월 1일을 기해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니 빨리 구세단 조직을 강화하여 쫓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김인태의 주문을 받고 곧바로 귀국하였다. 국내에 돌아온 소정은 장건상의 조카인 장지형에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시국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은 울산, 경주, 포항의 동지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부산을 떠난다. 대구에서 3·1운동을 맞은 그는 곧 서울로 올라가 동지인 김동산, 강홍렬, 박희창 등과 회합하여 3·1운동의 경과를 설명 듣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온다.

이때 부산공립상업학교 2회 후배 백용수(白龍水)와 함께 재차 모의하여 서울에서 지하신문으로 발행되던 『독립신문』을 등사해 집집마다 뿌리면서 3·1운동을 재선동했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동래의 3·1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동래고보생 김인호

(金仁浩)의 증언처럼 소정은 부산지역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배후에서 만세운동에 깊이 관여’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 최천택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20년 의열단원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사건일 것이다. 부산공립상업학교 동기동창 오택(오재영, 신간회부산지회 조사부장)과 함께 의형제 결의를 맺은 박재혁이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단장 김원봉으로부터 폭탄을 넘겨받고 부산에 들어와 폭탄 투척 하루 전까지 소정과 지내다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이었다. 검거된 박재혁이 끝까지 단독범이라고 우긴 탓에 소정은 1920년 10월 16일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정은 이후 구세단조직 때 밀양의 김원봉과 맺은 인연 때문인지 1920년 12월 의열단 최수봉(崔壽鳳)의 밀양경찰서 폭탄사건, 1923년 강홍렬(1949년 반민특위 경남지부장)의 의열단 군자금모집사건에 각각 연루되어 일본 경찰로부터 혹독한 취조에 시달렸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정 자신이 직접 의열단원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열단과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연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소정은 1921년 8월, 당시 일본에 건너가기 위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유랑노동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백산상회의 안희제(安熙濟)와 김철수(金喆壽, 해방후 경남도지사) 등과 주택구제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하여 도항민(渡航民)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1924년에는 김국태(金局泰)와 함께 『시대일보』 부산지국을 설치해 언론운동을 전개했는데, 친일종교단체인 보천교(普天敎)에서 1925년 『시대일보』를 인수하려 하자 전국 지국의 단결을 촉발시켜 결국 무산시켰다.

한편 3·1운동 이후 국내의 민족운동이 청년회 조직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으로 바뀌자 부산에서도 1920년 말 7곳(부산진, 초량, 고관, 영주동, 영도, 부민동, 곡정)의 청년단체들이 하나로 연합

하여 부산청년회를 조직하였다.

부산청년회는 부산지역운동의 중심체였는데, 소정은 그 산하단체 중 핵심단체였던 부산진구락부의 지도적 인물로 활약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본가들이 전후(戰後) 경제공황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청년회운동 또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1925년경에는 휴면 상태에 놓였다. 민족자본가 중심의 초기 청년회운동의 약화는 곧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출현을 가져왔다. 1919년 3·1운동을 전후로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운동은 1922년 이후 급성장하여 1923년 봄이 되면 청년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는다. 1920년대 전반기 국내 사회주의운동의 양대세력은 서울파와 화요파였는데, 1924년 조선청년동맹이 결성되어 지방대회를 추진하자 경남에서도 두 파가 영향력을 미쳤다.

이 때 부산에서는 서울파의 부산청년연맹과 화요파의 부산부청년연맹이 각각 병립했다. 소정은 노건상 그룹의 부산청년연맹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927년 부산청년동맹으로 통합된 이후 그는 30세가 넘는 나이 때문에 활동공간을 신간회로 옮겼다. 이때 그는 불운하게도 관제 청년회 간부 응징사건으로 검거되어 오른쪽 눈을 잃는다.

신간회는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통일전선체로서 1927년 2월 조직되었는데 신간회 부산지회는 그해 7월 결성되었다. 소정은 부산지회의 상무간사로서 활동하면서, 1928년에는 부산보통학교 일본인 교사의 여학생 능욕사건에 대한 규탄대회에 앞장섰다. 이후, 1929년 2월 신간회 부산지회 회장이 되어 지회의 일을 관장했는데,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부산 제2 상업학교생들과 접촉하며 시위를 확산시키려 했다. 소정은 이후 신간회 해소론이 등장할 때까지 신간회 부산지회의 회보발간, 신간회 경남연합회 발기 문제 등을 추진했다.

한편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

서 폭압정치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사상적 전환을 강요했다. 그러나 소정은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고, 다음에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도 독립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불태웠다.

그 결과 소정은 1941년 장건상 해외탈출사건과 소설가 김동리의 형인 김범부(金凡夫)의 해인사사건에 연루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풀려났다.

소정에게서 정치적 활동의 제3기는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9일부터 예비검속 상태에 있다가 해방을 맞은 그는 8월 17일 건국준비위원회 경남도지부 결성에 참가하여 기획부장으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에 앞장섰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으로 좌우대립이 전개되자 소정은 김철수(金喆壽)와 함께 반탁 입장에 앞장서 1946년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 경남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소정은 자신의 정치노선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는 듯하다.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좌우익의 옛 친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1948년 여름 일제강점기 신간회를 통해 알고 지냈던 강재은(姜在殷)과 함께 민주중보의 사장에 취임하여 사회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1950년 5월 2대 제헌의원선거 때는 부산 동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혁신성향의 장건상 선거본부의 사무장을 맡아, 이승만이 지지한 김국태를 압도적 표차로 낙선시키고 장건상을 국회에 입성시켰다. 이를 계기로 소정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눈에 가지처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좌익계로 분류되어 해방직후 경남 민전위원장이었던 김동산(金東山)과 함께 육군 특무대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때 친구 김동산을 잃게 되었다. 특무대에서 몸을 상한 소정은 이후 뚜렷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을 사수하다 순절한 정발

(鄭撥) 장군을 모신 정공단(鄭公壇)을 개수하고 봉제(奉祭)하면서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지켜보게 된다.

1960년 4월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면서 많은 혁신세력들이 정치운동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정치이념적 차이 때문에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동맹 등으로 사분오열 분열된 채 7·29 총선을 맞이했다. 소정은 이 선거에서 장건상과 함께 혁신동지총연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동구 을에 출마했다. 결과는 혁신계의 난립으로 민주당 이종린(李鍾麟)에게 패배했다. 낙선의 좌절감이 채 가시기 전에 소정은 1961년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서면 육군형무소에 수 개월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 형무소에서 후유증 때문인지 1961년 11월 좌천동 자택에서 파란 많은 생을 마감했다.

소정 최천택은 한말 부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부산을 떠나지 않고 한평생 부산에 살면서 부산지역 민족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항일운동에 그치지 않고 해방이후 왜곡된 정치체제에 맞서 반독재민주운동에 헌신한 우리고장 출신의 진정한 토박이 민족민주운동가였다. 비록 그에게서 조직가나 혁명가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현대 격변기 우리고장에서 한 평생을 울곧게 산 대표적 인물임에 틀림없다. 소정 최천택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2003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애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 승

14. 한형석(韓亨錫)



태극기와 조국의 흙 부친 한홍교님이 선생에게 건네준

먼구름 한형석(韓亨錫) 선생은 부산 동래(東萊) 교동에서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병탄(併呑)한 1910년 2월 21일 동해(東海) 한홍교(韓興敎)님과 이인옥 여사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당시 선생의 할아버지인 한규용(韓奎容)님은 담뱃대

공장을 경영하면서 약간의 농사를 지어 다소 여유 있는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선생의 할아버지는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창간호부터 최종호까지 보관해 둘 정도로 신조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1904년 5남 1녀 중의 장남인 아버지 한홍교님의 상투를 손수 잘랐다고 한다.

이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태어난 선생은 1915년 5월 어머니와 삼촌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당시 부친인 한홍교님은 일본에서 오까야마(岡山)의전을 나온 뒤 중국의 혁명지도자 손문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신익희 선생 등과 상해동제사(上海同濟社) 등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부산항에서 시모노세끼(下關)를 거쳐 상해에 도착한 후 선생의 가족은 중국에서 생활한지 근 1년만에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거짓전보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제의 감시를 못 견뎌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선생은 형을 길잡이로 이번에는 배편이 아닌 기차편으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아버지는 북경(北京)

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선생은 9세때 소학교에 입학하고 국민당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선생의 나이 17세 때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귀국하자 중국에 홀로 남게되었다. 당시 부친은 선생에게 태극기와 고향에서 가져온 흙 한줌을 건네줌과 동시에 부업을 계승할 것을 종용하였다. 1928년 7월 베이징 노하(潞河)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북경의 천단(天壇)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상해로 갔다. 상해에서 일주일만에 임시정부요인인 조성환(曹成煥) 선생을 우연히 만났다. 조성환선생은 선생에게 음악적 재질을 살려 '예술구국'을 당부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 상해 신화(新華)예술대학 예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무훈중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934년 선생은 첫 작품인 「신혁명군가」를 작곡했는데 이 군가는 중국의 전군에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1937년에는 나라 잃은 폴란드 음악가의 해방운동을 그린 「리나」라는 첫 가곡을 만들어 시나리오, 작곡, 연출, 주연까지 맡아 공연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선생은 국민군 정치부 공작대장으로 중국군에 입대했다. 이후 선생은 중국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전시공작 간부훈련단 제4단 음악교관으로 발령 받아 중령의 계급까지 진급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참모부를 설치하고, 군사특과단의 파견계획이 진행될 무렵인 1939년 10월에 중경(重慶)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결성되었다. 선생은 광복군의 전신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 조국의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한국청년공작대의 활동은 처음부터 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30여명으로 출발한 이 공작대원 중에는 중국의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군관이 12명에 달했다. 나머지 대원들도 대개 학식이

있고 중국의 군사기관에서 복무 또는 일본·상해·만주 등지에서 유학, 또는 독립운동에 종사하던 청년지사들이었다.

이 공작대의 의의와 임무에 대해서 전지공작대의 기관지 『한국 청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함께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으며, 중국의 항일전 승리는 곧 한국의 해방을 의미하는 만큼, 한국 청년들은 중국의 항일전을 한국의 해방전쟁으로 알고 참가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작 실천상에 있어서의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항일한국청년을 중국과 한국 양대 민족의 공동항일진영으로 집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85년 가을 지리산 정상에 선 선생

선생은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에서 예술조장으로 임명되어 군가를 작곡하기도 하고 항일의식을 담은 극본을 만들어 공연하는 등 맹활약을 벌였다. 즉 1939년 10월 19, 20일경 중경 대량자 청년회관에서 공연을 벌이기도 하고, 군가

인 ‘한국행진곡(韓國行進曲)’, ‘항전가곡(抗戰歌曲)’을 작곡하였다. 1940년 5월 20일부터 10일간 서안(西安) 남원문 가설극장 등지에서 연극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 가극 「아리랑」 등을 공연하여 군민(軍民)을 위안하고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국경의 밤」은 압록강변, 한국과 중국의 국경에서 엄동설한 폭풍이 몰아치고 백설이 흩날리는 밤, 일본군의 수비가 엄중한

철조망 방어 진지를 한국과 중국의 두 나라 의용군이 뚫고 들어가 적을 섬멸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한 용사」는 전지공작대의 한사람인 박동운이 일찍이 일본군 통역으로 있는 동안 계교를 내어 많은 중국 유격대 포로들을 놓아주고, 나중에는 유격대장을 풀어준과 동시에 기밀문서와 무기들을 가지고 탈출하여 나온 사실을 극화한 것이다. 이 극에는 본인인 박동운이 직접 헌병대 통역원으로 나오고 전지공작대장 나월한이 일본 헌병 대장으로 분장 출연하여 열연을 펼쳐 실재를 방불하게 하였다.

「아리랑」은 우리민요 아리랑의 애원조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40년 전 금수강산 한국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태어난 목동과 시골처녀(村女)가 아리랑 산하에서 순진 난만한 애정의 노래를 즐기는데서 출발한다. 그 아리랑 산하에 적국의 일장기가 꽃힘을 보고, 이들 부부는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서한다. 고국강산을 떠나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에 가담 활동하는 중 수십년 전의 그 고향으로 들어가서 아리랑 산 위에 적의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꽂기 위하여 부부 모두 적의 포화 속에 혈전 감투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골처녀의 심승연과 예술조장인 선생이 직접 목동으로 출연하여 열연하였다. 이 가극에는 ‘봄이 왔네’, ‘목가’, ‘아리랑’, ‘한국행진곡’ 등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다.

가극 「아리랑」은 각본, 작곡, 무대감독, 해설, 악단총지휘, 바이올린 연주, 남자 주인공 역할 등 1인 7역을 한형석 선생 혼자서 맡았던 작품이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1940년 5월 22일부터 중국 서안(西安) 실험극장에서 열흘간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중국 각지에서 30여 차례 공연하였다. 전시(戰時)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안(西安)의 『서북문화일보』, 『서경일보』, 『공상일보』 등을 통해 큰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즉 음악사적으로도 가극 ‘아리랑’은 완성



광복군 활동당시에 찍은 사진
아랫줄 맨 오른쪽이
철기 이범석 장군
이고 윗줄 맨 왼쪽
이 한형석 선생.

된 가극 형태를 갖춰 당시 초기 단계에 있던 중국 가극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공연을 통해 모은 수입금 중 4천원으로 중국군의 군복을 지어 제공하여 일선 장병들을 감격하게 하였다.

선생은 1940년 중국 중앙 전시간부훈련 제4단 특과

총대학원대 한청반(中央戰時幹部訓練 第四團 特科總大學員隊韓靑班)에서 교관을 역임하였다.

1941년 1월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되었으며, 선생은 『광복군가집 1,2집』을 발간하고 ‘국기가(國旗歌)’, ‘광복군 제2지대가’, ‘압록강행진곡’, ‘조국행진곡’ 등 항일 가곡을 작곡하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국기가> 작사 이범석

우리 국기 높이 날리는 곳에
삼천만의 정성 쇠같이 뭉쳐
맹세하네 굳게 태극기 앞에
빛내라고 깊게 배달의 역사

<광복군 2지대가> 작사 이해평

총 어깨 매고 피 가슴에 뒀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 놈을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광복군 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앞으로 끝까지 전진
우리 조국 독립을 위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조국행진곡> 신덕영 작사

팔도 강산 올리며
태극기 펄펄 날려서
조국독립 찾는 날 눈앞에 멀지 않았다.
백두산은 높이 압록강은 깊이
우리들 바라보고 있고,
지하에서 쉬시는 선열들
우리만 바라보시겠네.
험한 길 가시밭길을
헤치고 넘고 또 넘어
조국 찾는 영광 길
힘차게 빨리 나가자

<압록강 행진곡>

우리는 한국혁명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광복군
악마의 원수 물리치자.
나가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조국 우리 나라 지옥이 돼서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한테 밟힌 꽃 포기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이외에도 선생은 가극 「한국의 한용사」, 「동포들은 우리들을 기다린다」, 와 아동가무극 「다음세대(下一代)」, 「꼬마산양(小山羊)」, 「귀무」, 중국어 가사로 된 가극 「낙월행진곡」, 「신중국만세」 등을 창작하였다.

1944년 10월 선생은 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작곡 및 가극 활동으로 침체된 항일정신을 고취하고 광복군과 중국군 연합전선을 한층 견고히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국 희극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선생은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자 중국 국립산둥대학에서 예술과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1948년 귀국하였다. 귀국한 뒤에도 선생의 나라 사랑에서 비롯된 예술혼은 마르지 않았다.

선생은 1950년 부산문화극장장을 맡았다. 1953년에는 부산 중구 부민동에 전쟁중에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 자유아동극장·색동야학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는 명작동화를 각색한 연극을 2년간 500여 회나 공연해 1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료로 관람하였다. 색동야학원에서는 매일 80~90명의 걸식 부랑아동을 보호하고 가르쳤다. 선생의 이 같은 활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아동극장을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았던 활동의 연장선상이었다.

부산민속보존협회 이사를 지내며 ‘동래들놀이’ 전승에 관계하던 선생은 ‘탈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다. 1969년에 완성된 「순절도」 임진왜란 당시 송상현 동래부사의 순절을 다룬 6과장의 이 작품은 ‘출전기’, ‘진혼곡’, ‘수심가’ 등의 엄숙한 노래들과 긴박한 상황을 재연한 대사, 무대장치까지 다듬어 책으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공연되지 못하였다.

또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었던 선생은 이충무공의 충절을 흠모해 ‘충무공 추모 서예전’을 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림에 조예가 깊어 ‘일요화가회’에서 그림전을 열기도 했으며, 윤이상 작곡에 선생의 기획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낙동강’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듯 선생은 ‘예술구국’ 치열하게 실천한 ‘큰선비’요 다재 다능한 예술가이자 전인(全人)이었다.

1955년부터 20여 년을 부산대학교 문리대교수로 재직하면서 1963년에는 한국연극협회 부산시지부 초대지부장을 맡기도 하였다. 선생은 1963년에 대통령 표창,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추서되었다. 1996년 6월 14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부산 서구 부민동 자유아동극장을 운영할 당시 한형석(맨 왼쪽) 선생과 부친 한홍교(왼쪽에서 세 번째) 선생.

한편 이범석 장군이 선생의 사람됨을 높이사 정부 예술분야의 고위직책을 강권했지만 ‘광복군의 활동으로 요직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극구 사양한 것이라든지, 임종을 앞두고도 ‘매국노가 매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에는 가지 않겠다’며 한사코 거부했던 사실들은 선생의 올곧음은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 동아대학교 전임연구원 박철규

15. 한흥교(韓興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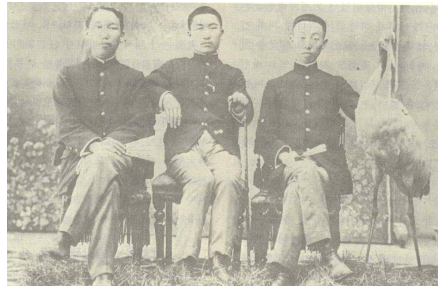
1911년 10월 24일 일본 요코하마[橫濱]항에는 중국 상해로 가는 춘일환(春日丸)이 뱃고동을 울리며 긴 여정을 알리고 있었다. 춘일환의 왁자지껄한 선실에는 26세 가량의 작은 체구를 가진 조선인 청년이 불안한 듯 앉아 있었다. 그러나 청년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꿈이었고, 춘일환의 뱃고동은 청년의 파란만장하고 기나긴 독립투쟁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흥교(韓興敎)는 1885년 부산 동래 교동(校洞, 지금의 명륜동)에서 담뱃대 공장을 경영하던 한규용(韓奎容)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한흥교가 태어나던 을유년(乙酉年)은 흉년이 들어 끼니조차 잇기 힘들었다. 모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어린 아기는 체질이 매우 허약해졌고, 7살 때까지 온갖 질병에 시달렸다. 그러나 인근에 소문이 날만큼 명석하여 13~14세 때에는 사서삼경(四書三經)과 통감(通鑑)을 통달하고 한시를 지을 정도였다.

한흥교는 동래 지역 신학문의 진원지였던 개양학교와 삼락학교(동래고등학교의 전신)에서 근대 학문을 접하였으며, 이 지역의 민족주의 성향 또한 자연스레 그에게 스며들었다. 한흥교는 1904년 삼락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인의 사고와 활동범주를 속박하던 상투를 잘라 집으로 보내고 일본 오사카[大阪]로 가는 50톤의 작은 기선에 몸을 실었다.

오사카에 도착한 한흥교는 도쿄[東京]로 가서 동경 正則 중학

과 영어학교에 입학하였다. 2년 간의 중학교정을 마친 뒤 한흥교는 대학에서 전공할 학문분야를 두고 갈등하였다. 일본의 조선강점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엘리트로 가는 최우선 코스인 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는



일본 오가야마 의학전문학교 시절 학우들과 함께
(오른쪽이 한흥교)

것이 얼마나 유용할지 의문이었고, 일본의 침략을 합리적으로 포장하는 법학이나 정치학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혼란과 회의에 빠졌다. 결국 한흥교는 과학, 그 중에서도 병든 자를 구해내는 인술을 배우면 일본에게 고개 숙여야 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가야마[岡山]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다. 4년 뒤의 전을 졸업하던 해인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의 운명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우적거리자 한흥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1년 남짓 내과생리학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나 조국이라는 커다란 고향을 빼앗아간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나라 잃은 백성으로 무기력하게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가 늘 가슴 한켠에 맴돌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 무렵 손문(孫文)이 이끄는 1차 혁명이 중국대륙을 휩쓸 때 마침, 일본에 유학 중이던 많은 중국인 의학도들이 혁명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고향에서 병원설립 자금을 마련해 놓고 여비를 보내오자 한흥교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혁명의 불꽃 속으로 뛰어드느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흥교는 상해로 가는 춘일환(春日丸)을 택했다.

손문이 이끄는 중국혁명에는 중국 혁명을 도와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면 중국도 조선의 독립을 도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혁명에 뛰어든 조선청년이 많았고, 한홍교도 그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요코하마[橫濱]에서 나가사키[長崎]로, 다시 나가사키에서 상해로 갔다. 상해에 도착한 한홍교는 상해적십자사에서 대원 3명과 간호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상해 적십자사 전적(前敵 : 一線이라는 뜻) 구호대에 편성되었다. 구호대에 편성된 며칠 뒤 한홍교는 대원 중의 한사람인 도주(陶鑄)의 소개로 중국 혁명의 지도자인 손문을 만나게 된다. 손문은 영국에서 돌아와 황흥(黃興) 장군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다. 손문을 만나 굳은 악수를 교환한 뒤, 서로의 조국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며, 다가올 미래에 조선 독립을 도와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다.

한홍교가 속한 상해 적십자 구호대가 처음 간 곳은 소주(蘇州)였다. 그러나 소주는 이미 민병(民兵)들에 의해 점령된 뒤여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나서 바로 남경(南京)으로 갔다. 남경에서는 매일같이 밀려드는 수백명의 부상병들을 밤새워 치료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다. 게다가 의무대장으로 있던 장지신(蔣志新)이 절강성(浙江省) 군의관으로 전출되자 부대장이었던 한홍교가 대장으로 승격되어 지휘감독까지 담당해야 했다. 남경에서 2개월쯤 지났을 때, 마침 남경에 주둔하고 있던 황흥 장군은 한홍교의 헌신적인 치료에 감사하며 은 500냥을 상금으로 주었다. 또한 여기서 독립당의 지도자인 신규식(申圭植)과 조성환(曹成煥)과 조우하였다. 그들은 남경 혁명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하러 왔다가 진중(陣中)에 조선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홍교를 찾아와 조국의 독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 만남을 계기로 한홍교는 이후 신규식 등과 동계사(同濟社)에 참여하게 된다.

그 뒤 한홍교가 이끄는 적십자 구호대는 혁명군과 함께 무창(武昌), 한구(漢口), 낙양(洛陽) 등지를 전전하면서 의료활동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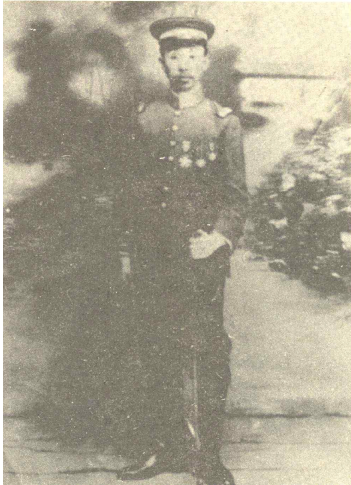
속하였다. 낙양에서 서안(西安)으로 가는 도중에는 비적에게 잡혀 3일만에 풀려난 적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적십자대원들이 더 이상의 행군을 거부하자, 할 수 없이 회의를 거쳐 서안행을 포기하고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상해로 돌아온 적십자대원들은 각자 고향으로 흩어졌고, 혼자 된 한흥교는 장지신의 도움으로 상해 적십자사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장지신은 훗날 중화민국의 총통이 되는 장개석(蔣介石)과는 가까운 친척으로, 한흥교가 어려울 때마다 힘과 위안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결의 형제를 맺을 정도로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상해에서 상해 적십자병원장의 요청으로 남경분원에서 근무하다가 항주의전(杭州醫專) 교수를 거쳐 북경의전(北京醫專)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김규식(金奎植)과 유동열(柳東悅)을 만나게 된다. 이 때 유동열이 유명준(劉英俊)을 보내 엽총과 권총 한자루씩을 보관하였는데, 이것이 학교측에 발각되어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다.

그 해 여름 다시 상해로 돌아온 한흥교는 신규식(申圭植), 조성환(曹星煥)을 통해 신채호(申采浩)·조소앙(趙素昂)·신석우(申錫雨)·박찬익(朴贊翊)·신무(申武) 등을 만나게 된다. 독립을 갈망해 왔던 한흥교는 1912년 이들과 함께 동제사(同濟社 : 동주공제 - 同舟共濟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피안에 도달하자 - 를 표방하면서 청년교육, 박달학원 설립, 군사교육을 강조하였다)를 조직하였다. 또한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중국과의 결속을 돈독히 하고자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에 참여하여 중국인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그러나 직장이 없고 외국인이라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생활 또한 어려웠다. 대판의전(大阪醫專) 손무침의 도움으로 육군 3등 군의정(군소령)에 임명되어 북경의 열하위술(熱河衛戍)



중국혁명군 군의관 소령시절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무고한 밀고로 말미암아 상해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1914년 상해로 다시 돌아온 한홍교는 천동동계의원(天東同濟醫院)을 개업했다. 한국인 동지들의 소개와 중국 국민당 요인들의 도움으로 병원 운영이 안정을 찾아가던 즈음, 중국에서 3차 혁명이 일어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고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된다.

병원폐업으로 허탈해 있던 한홍교의 손을 잡아 준 것은 결의 형제를 맺은 장지신이었다. 장지신은 한홍교를 그의 고향 절강성(浙江省) 가흥(嘉興)으로 데려가 장씨의 빈민 구호를 위해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진료소 일을 맡겼다. 한홍교는 진료소에서 나오는 적지 않은 수입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입이었지만, 한홍교 혼자 몸이었기에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었다.

부산 동래에 있던 그의 부인과 원석(元錫), 형석(亨錫) 두 아들을 한홍교의 동생 정교(正敎)가 데리고 나타난 것은 1915년 10월 중순경이었다. 가족들의 생계와 맞물려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의 자유로움이 예전만 못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두 아들에게 한국식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 큰 고민이었다.

그러던 1916년 3월, 고향에 있는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홍교는 가족과 함께 귀국한다. 고향에 돌아온 한홍교는 부친과 가족들의 권유로 동래에 살고 있는 석천(昔泉) 오종식(吳宗植)의 사랑채를 빌어 대동병원(大同病院)을 개업하였다. 그러나 빼앗긴 조국에서의 생활은 자유롭지 못했다. 한홍교의 주위에 늘

일본 경찰의 감시가 잇따랐고, 사흘이 멀다하고 경찰에 불려다녀야 했다. 결국 1년 6개월 간의 생활을 뒤로하고 한흥교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다시금 찾은 중국에서 한흥교는 중국 재정부 인쇄국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한흥교는 중국 경사(京師) 전염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신문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2~3명의 동지들과 『중외통신사(中外通信社)』와 『신광신보사(晨光新報社)』를 만들어 한글과 한문으로 중외통신과 신광신보를 간행하여 국내는 물론 러시아와 구미 각지로 발송하였다. 또한 『앞잡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한생(恨生)’이라는 필명으로 일본의 침략성과 민족독립의 타당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즈음 한흥교는 상해 임시정부와 의열단의 북경주재대표로도 활약하였다. 중외통신사를 경영하던 그는 국내외에서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통신이나 서류의 전달을 담당하였다. 북경에 비밀리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두 아들이 분담하여 독립선언문과 기관지를 직접 배달하기도 하고, 그 후 5, 6년 동안 집합통지와 비밀연락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그의 맏아들에게, 안희제(安熙濟)에게 전하는 편지 1통을 주면서 심부름시킨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어 중국으로 돌아갈 때 안희제에게서 받은 편지 1통에는 거액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던 김갑(金甲)에게 보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국내의 연락책으로도 활발히 활동한 탓에 한흥교의 가족은 지겹도록 이사를 다녀야 될 정도였다.

한흥교가 두 번째로 조국 땅을 밟은 것은 1927년이였다. 그의 삶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부친이 별세하였기 때문이었다. 귀국 직전 한흥교는 학업문제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차남

형석을 중국에 남겨두고 왔다. 떠나올 때 낡은 태극기와 고향에서 가져온 한줌의 흙을 차남 형석에게 꼭 쥐어 주면서 나라와 고향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그 태극기와 한줌의 흙은 아들 형석을 항일가극인으로서는 독립운동에 매진하게끔 하였다.

2차 귀국 후 한홍교는 주위의 권유로 대동병원을 운영하면서 가계를 돌보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동래 지역의 민족·사회운동에 관여하였다. 당시 동래 지역의 사회운동은 청년운동가들의 계속되는 검거로 침체위기에 빠져있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의 여론 기관으로 출현한 것이 1930년에 결성된 경오구락부(庚午俱樂部)였다. 한홍교는 “종래 극도로 소격(疏隔)되어 있던 동 읍내 중년층과 청년층의 가능한 정도까지의 연락을 짓고 아울러 지방 발전의 충실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조직된 경오구락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시기 그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무리지만, 중국에서의 그의 이력, 경오구락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신간회 동래지회원인 한우교와 형제인 점, 병원장이라는 직함 등을 고려하면 동래의 민족사회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여하튼 한홍교는 1932년 만주를 거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번에는 북경 천진(天津) 등지로 돌아다니며 한중연합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그가 해방을 맞은 것은 임시정부와 한독당(韓獨黨)의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 대표로 있을 때였다. 1946년 5월 한홍교는 태원지구에 있던 3백명의 동포들과 함께 조국 땅을 밟았다. 한홍교는 고향 동래로 돌아와 얼마 동안 쉬다가 마산도립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뒤 이승만의 독재에 회의를 품고 정치에 뜻을 두어 진보당 초대 경남위원장 등을 지내다가 1967년 8월 82세로 타계하였다.

26세에 춘일환을 앓던 작은 체구의 허약한 청년을 씬 없는 ‘독립’의 길로 이끈 것은 조국을 향한 애뜻한 사랑이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자아낼 만큼 극적이거나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등 화려하진 않았지만, 부상당한 독립운동가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서 그들을 치료하였고, 음으로 양으로 뒷바라지하였다. 한흥교는 묵묵히 독립운동을 지원한 든든한 내조자였다.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하고,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요즘 시대에 뒤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삶을 보여준 한흥교 같은 이가 그립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강정원

16. 구포지역 항일민족운동

항일운동의 지역·사회적 배경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

체적으로 현대교육을 받은 청년들로서 비밀결사 등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일본민족을 약탈자로 멸시하던 한국민족의 사상이 항일독립운동의 바탕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헌병경찰제를 통한 한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한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항일운동을 탄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민들은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개념조차 민족간에서 교류치 못하도록 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통치하에서 당시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한국민들의 동향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소 중의 하나가 교회였다. 조선총독부도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집회까지 간섭할 수는 없었다. 종교 탄압에

의한 선교사들과의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열강들로부터의 비난을 가능한 피하려는 의도에서 였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학교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 특히 지방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장터는 총독 통치하의 한국민들의 동향과 총독부의 한국민에 대한 탄압 그리고 국내외의 정세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정보는 모두 이러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회·학교·장터에서 전단을 뿌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행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의 항일운동에는 학생과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부산과 같은 항구도시는 타 지역으로부터 교역을 위한 인구가 집중될 수 있었고 선교사들의 종교활동과 신문화에 영향된 교육기관의 활동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여 항일독립의식이 강하였다.

부산·동래지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서 개항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을 직접 경험하여 항일의식이 강렬하였던 지역이기에 이 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부산지역에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구포와 같은 지역도 동래지역에 못지 않게 항일의식이 강렬하였다.

구포지역의 자연적인 환경은 남으로 부산항, 북으로는 양산, 서로는 김해 그리고 동으로는 동래에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충지역으로서 경상지역 교역의 중심지로 번성하였던 곳이며 그 규모면에서도 경상지역에서 손꼽히는 시장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하여 한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었고 여기서 조선총독부의 한국 통치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민의 항일운동의 경향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어 이 지역이 경상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구포장터의 항일독립운동

서울을 중심으로 한 1919년 3월 1일의 3·1민족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도 이러한 교회나, 학교 그리고 장터와 같은 한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통하여 전파되었다. 이를 계기로 항일독립운동이 전국 각지로 파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래지역이나 구포지역에서의 항일운동도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13일 학생과 기독교인들을 주동으로 하는 동래지역 군중의 시위가 발단이 되어 그 후 구포, 기장 등지에서 항일독립시위가 전개되었다.

3월 중순 구포지역 출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양봉근(楊奉根)이 고향 구포에 와서 평소 지면이 있던 구포면 서기 임봉래(林鳳來)와 접촉하여 서울의 3월 1일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고 구포에서도 항일독립의거를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던 것이 곧 구포 독립의거의 직접적인 시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양봉근은 다음 날 구포지역 청년 윤경(尹涇)과 류기호(柳基護)를 만나 거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구포주민들의 거사에 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는 3월 27-8일까지 비밀리에 진행되어 임봉래를 중심으로 윤경, 류기호, 김옥겸(金玉兼), 김윤길(金潤吉), 허정(許楨), 김용이(金用伊), 최종호(崔宗鎬), 유진영(兪鎭榮), 윤대근(尹大根), 박영초(朴永初), 이수연(李守連) 등이 구포장날인 3월 29일 구포시장에서 거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수백장과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쓴 프랭카드를 만들어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3월 29일 구포장날 아침 일찍 비밀리에 박덕홍(朴德弘),

손진태(孫晉泰), 김장학(金章鶴), 이몽석(李夢石), 양대용(梁大溶), 김영길(金永吉), 정치호(鄭致浩), 권용학(權龍鶴), 안화중(安華重), 허희중(許希中) 김윤길(金潤吉) 등 구포지역의 청년유지들에게 준비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여 정오(正午)를 기하여 구포시장에 모인 한국민을 대상으로 독립시위를 거행하였다. 특히 박덕홍과 안화중은 시위대의 전면에 나서서 장터의 상인과 한국민들에게 시장의 철시를 호소하여 항일독립시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김윤길 등은 구포면 사무소에서 면장(面長) 윤영태(尹永台)에게 한국민족으로서 민족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신도 조선사람인데 왜 시위운동에 가담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참가하라”고 강박하여 당시 총독부 통치하의 한국행정의 관리들의 친일적인 행위를 지탄하면서 애국심을 호소하고 있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약탈하는 행위를 직접 경험한 부산·경상도 지역민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저항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여 이로 인한 피해의식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구포장터의 독립시위는 그만큼 강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진압하기 위해 부산지역으로부터 군경의 차출을 지원 받아야 할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항일시위가 강열하여 군경(軍警)의 발포(發砲)로 다수의 사상자를 속출하였다.

약 1,000여명의 한국 독립시위대가 경찰관서를 습격함으로써 이에 대해 부산으로부터 일본 군경을 지원 받아 진압하는 과정에서 쌍방에 사상자가 속출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시위대의 규모와 시위가 적극적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구포지역의 시위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지역 한국민의 항일 독립시위에 관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의 일본군사령관은 이 시위의 근저에는 신학문을 습득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있음과 부산·경상도지역의 한국

민들이 이에 가세하여 그 세력이 급증하고 있어 이웃 일본 군경을 지원 받아 진압할 정도라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구포지역 항일독립시위의 규모와 시위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크고 강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군경은 진압과정에서 이 시위를 주도하였던 김옥겸(金玉兼) 등 11명을 체포하여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구포지역 한국민 시위의 양상을 돌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구포시위에 가담하였던 임봉래(林鳳來), 허정(許楨), 변봉엽(邊奉燁), 윤정은(尹正殷) 등의 구포지역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구포지역 시위로 구금된 한국민을 석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강두조(姜斗兆), 강석이(姜碩伊), 김달수(金達洙), 김덕원(金德元), 김용이(金用伊), 노원필(盧源弼), 도우황(都宇黃), 박도백(朴道伯), 박석오(朴碩五), 박영초(朴永初), 박용수(朴龍水), 백인봉(白仁鳳), 신성집(申性執), 윤경봉(尹敬奉), 윤대근(尹大根), 윤장수(尹章守), 조해규(趙海奎), 진유관(陳有寬), 허치옥(許致玉) 등과 합세하고 이들은 1200여명의 구포상인과 한국민을 지휘하여 일본순사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애국동지 석방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 내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민을 구출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원 증강된 일본군경의 발포로 강제 해산되는 과정에서 쌍방간에 다수의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일본 헌병 2명과 일본경찰 1명 그리고 한국경찰 1명 등 4명의 부상자와 구포시위 한국인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구포시장터의 독립시위는 구포지역 거주 한국인 뿐만 아니라 구포시장터에 모인 동래 양산 김해 등지의 한국민들도 처음에는 시위행위에 단순 참여하였으나 일본군경의 탄압과정을 목격한 후부터 민족적인 의분으로 적극적인 시위가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거주지로 귀환하여 이러한 구포지역의 시위상

황과 일본군경들의 잔혹한 탄압과정을 전달함으로써 부산과 경상도 전 지역에서 한국민들의 항일독립운동을 촉진시켜 한국민들의 독립 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구포시장터의 항일독립시위 운동으로 일본의 군경에 검거되어 부산감옥으로 이관 투옥된 후 재판에 회부된 주동인물은 42명으로 처음 이 시위를 계획하여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강석이(姜碩伊), 김옥겸(金玉兼), 권용학(權龍鶴), 김장학(金章鶴), 김영길(金永吉), 김달수(金達洙), 김덕원(金德元), 김윤길(金潤吉), 김용이(金用伊), 강두조(姜斗兆), 노원필(盧源弼), 노원길(盧源吉), 도우황(都宇黃), 류기호(柳基護), 류치호(柳致浩), 백인봉(白仁鳳), 박용수(朴龍水), 변봉엽(卞奉燁), 박덕홍(朴德弘), 박도백(朴道伯), 박석오(朴碩五), 박영초(朴永初), 손진태(孫晉泰), 신성집(申性執), 이몽석(李夢石), 양대용(梁大容), 윤경(尹涇), 안화중(安華重), 윤정은(尹正殷), 윤경봉(尹敬奉), 윤장수(尹章守), 임봉래(林鳳來), 유진영(俞鎭榮), 윤대근(尹大根), 조해규(趙海奎), 조한봉(趙漢鳳), 진유관(陳有寬), 정태길(鄭泰吉), 최종호(崔宗鎬), 허희중(許希中), 허정(許楨), 허치옥(許致玉)

이들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유진영(俞鎭榮), 최종호(崔宗鎬), 노원길(盧源吉) 등은 소(訴)를 면하게 되었고 조한봉(趙漢鳳), 정태길(鄭泰吉)은 방면되었지만 나머지 37명은 8월 7일의 결심공판에서 4개월에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일제는 시위로 인한 폭력, 재물손괴를 그 이유로 하였지만 사실 한국민의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항일독립운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과중한 실형을 부과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형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윤정은(尹正殷)이 1년 3개월 징역이 가장 무거운 형기였고 김달수(金達洙), 김옥겸(金玉兼), 임봉래(林鳳來), 박영초(朴永初), 허치옥(許致玉)에게 각각 1년, 진유관(陳有寬)에게 10월 그리고 박덕홍(朴德弘), 유진영(俞鎭榮), 윤

경봉(尹敬奉)에게 각각 8월의 징역, 노원필(盧源弼), 양대용(梁大容), 윤장수(尹章守)에게 각각 4월의 징역과 도우황(都宇黃), 정치호(鄭致浩)에게 각각 2월의 징역을 부과되었으며 그 외는 기록상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형기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구포지역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에게 부과한 형기와 다를 바 없는 형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중에서 윤정은(尹正殷)은 본명이 윤길은(尹吉殷)이었으나 취조받는 과정에서 길(吉)자를 일제에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의미로 바를 정(正)자로 고쳐 진술함으로써 인하여 개명된 것이며 당시 68세의 고령인데도 가장 많은 형기를 언도 받아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부산·동래지역 항일독립운동을 발발시킨 계층은 대체적으로 신문물을 습득한 학생들이었지만 구포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이를 주도하였던 대부분은 20·30대 연령의 구포지역 청년들로서 농민·상인·노동자의 신분이었다.

구포장터 항일시위의 의의

부산지역은 일본과 열강들의 신문물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일찍 근대적인 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을 장려할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련을 경험한 부산지역은 항일의식이 강열할 수밖에 없었다.

구포지역 역시 이러한 의식이 강열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항일독립운동의 주동자가 학생인데 비하여 이 지역은 구포지역 출신 학생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도화선이 제공되기는 하였지만 시위운동의 주류는 20·30대의 농민·상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청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일반 청년들은 학생들에 비하여 이론적인 무장은 부족할지 모르나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오히려 더욱 강열하고 독립에 대한 열의도 강력하였다. 그만큼 조선총독부의 탄압도 강경하여 쌍방간에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에도 이를 계기로 4월 3일 부산진에서 어민들과 학생들에 의한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여 농민·상인·노동자 중심의 구포지역 항일독립시위는 인근 지역의 한국민에게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독립시위에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하듯 구포지역은 자연적인 교통요지로서의 위치로 대규모의 상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항일독립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는 이후 이 지역 출신자들의 항일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여 조선총독부가 당시 경남지역의 한국민에 대한 민족운동 동향을 기록하였던 『고등경찰관계적요(경상남도)』에서도 구포지역의 강력한 항일독립의식에 관해 우려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윤정은(尹正殷, 1852 ~ 1920)

윤정은은 1919년 9월 구포장터 항일독립운동에 62세의 노령으로 앞장서서 이끌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폭발한 3·1 항일독립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당시 구포 출신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재학중이던 양봉근이 구포에 내려와 독립선언서를 전하면서 촉발된 구포장터 항일독립운동에서 노령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시위를 이끌다. 이 시위 현장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8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최고형인 1년 3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20년 1월 19일 가혹한 옥고를 견디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의 항일독립활동의 공훈을 기리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동의대학교 교수 강창석

17. 기장지역 항일민족운동



3·1 운동 기념비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기장군은 1914년 동래군 기장면이 되었다가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군이 없어질 때 그 일부 지역은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머지 6개면(기장, 철마, 일광, 장안, 정관, 서생면)은 양산군에 편입되었다. 그 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기장군으로 부활됨과 동시에 1995년 3월 1일 부산시에 편입된 지역이다.

1910년에 일본은 ‘한일합방’을 선포하고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를 실시하였다. 한국민의 저항을 억압하고자 일제는 억압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을 통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민족의 자주성을 박탈하고, 무력에 의한 억압과 착취는 일제 침략에 맞서온 민족의 저항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와 중국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자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확대해 나갔다. 부산은 바로 그 관문에 위치하였으므로 개항이후 최초로 일본인이 침략한 곳이자 한국침략의 근거지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일본의 침략을 경험하였고, 일본의 직접적인 세력권 아래에서 고통을 받았다. 일본인 거주자의 증가와 일본자본과 지배영역의 확대는 한국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식민지 통치구조에 반대하는

반일운동은 부산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세계의 재편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의 영향과 더불어 나타난 ‘민족자결주의’의 조류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어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국내에도 영향을 끼쳐 국내에서는 민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가 마련되었다. 고종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고, 이어 독립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으며, 평화적인 만세시위에 대해 일본 경찰은 무력으로 탄압하고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10년간 일본의 식민정책에 대한 민족의 불안이 쌓여있었고, 또한 독립열망도 고조되었으므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은 규모나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며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던 것이다.

부산지역의 3·1운동은 3월 2, 3일경 고종 인산에 참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3월 11일 부산진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에서 가장 먼저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13일에는 동래고보 학생이 중심이 된 수천 민중의 봉기가 있었으며, 인근 지역인 양산과 밀양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19일에는 범어사의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학생과 군중이 합류하여 시위를 벌였다.

기장읍 만세운동

당시 동래군(현 기장군) 가운데 큰 읍이었던 기장지역에도 서울과 부산에서의 독립운동 시위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3월 13일 해질 무렵 김수문(金守文)이라는 마부가 동래에서 주워온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서재선(徐再先)이 받아가지고 남문 앞 축구장에 나타났다. 이 곳에 모인 김도엽(金度燁) 권철암(權鐵巖)

구수암(具壽巖) 김수룡(金壽龍) 최기복(崔基福) 이택규(李澤奎) 박공표(朴孔杓) 등 7명은 이 독립선언서를 보고 난 뒤 기장에서든 만세 시위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거사일을 4월 5일 기장 장날로 정하고, 그 날 오전 11시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만들기 위하여 비밀리에 기장면(현 기장읍) 사무소 서기인 최창용(崔昌鎔)을 만나 교섭하였다. 3월 28일 최창용으로부터 면사무소에 비치된 등사판과 등사원지를 빌려 독립선언서 40여 매를 등사하고, 김도엽이 “양심발원(良心發原) 인도적 자유민족(人道的 自由民族)”이라고 혈서한 큰 기와 ‘조선 독립만세’, ‘조선독립단’이라고 쓴 대형 기도 만들어 만세시위를 준비를 하였다.

4월 5일 김도엽을 비롯한 7명은 기장읍 장터에 모인 군중들에게 준비한 독립선언문을 배부하고, 100여명의 시위 군중들과 함께 준비한 큰 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일본 경찰들은 공포를 쏘면서 위협하였으나, 시위행진은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본서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무장 경관 약 20명, 수비대와 헌병 30여명의 응원부대가 출동하여 전 시가를 포위하고 공포를 쏘면서 탄압하자 시위 군중은 부득이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6시에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김도엽, 구수암, 권철암, 김수룡 등 전원이 체포되어 주재소에서 고문 취조를 당하고 오후 7시경 노끈으로 결박된 몸으로 대변포까지 도보로 가서 발동선에 태워 밤 11시 반경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중에는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대여하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던 최창용과 시위의 당일 인근 부락의 군중을 동원하여 달려온 장봉기(張琫起), 최학림(崔鶴林)도 끼여 있었다.

이와 같이 주동 인물들이 투옥된 뒤에도 군중의 시위는 이어졌다.

4월 8일 밤 10시에는 노동자와 부인 등 70여 명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 군경은 시위를 제지, 해산하기 위해 발포를 하였다. 일본 군경의 무력 탄압으로 시위대는 해산 당하였으나 군중들의 항쟁의식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4월 10일은 역시 기장 장날이었는데, 오전 9시경 기장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학생 약 50명이 집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좌천 장안면에서는 약 500명의 군중이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일본 경찰들이 발포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독립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열기는 일본 경찰의 위협과 발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이날 밤 9시경에는 1천 여명의 군중이 다시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하였고, 시위는 밤을 새워 계속되었다. 일본경찰들은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 노력을 하였으나 제지가 어렵게되자 11일 새벽 1시 무차별 발포를 하여 시위군중을 해산시켰다.

이처럼 4월 5일부터 기장읍에서 발생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8일, 10일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쳐 정관 좌천 일광 등지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기장읍 만세운동을 주동하여 투옥된 인물들은 최고 2년 6개월부터 최하 8개월의 징역 언도를 받았는데, 김도엽 권철암 구수암 김수룡 이택규 최기복 최창용 오기원 장봉기 등은 공소하여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서대문, 대구, 부산감옥에서 각각 복역하였다. 그 중 구수암은 옥중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다음해(1920년) 봄에 집행정지로 출옥하였으나, 그 해 여름에 20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검거된 주동자들과 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이름	생몰연대	당시 나이	형량	복역한 감옥	주소	공훈
金度燁	1899-1937	21세	2년 6월	서대문감옥	기장군 기장읍 대나리	애국장(1992)
金壽龍	1900-1973	20세	2년	서대문감옥	기장군 기장읍 교리	대통령표창(1986), 애족장(1990)
具壽巖	1901-1920	20세	1년 6월	대구감옥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애국장(1992)
權鐵巖	1901-1936	19세	1년 6월	대구감옥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대통령표창(1986), 애족장(1990)
李澤奎	1899-	21세	1년 6월	대구감옥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崔基福	1901-1991	19세	1년 6월	대구감옥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대통령표창(1980), 애족장(1990)
崔昌鎔	1898-1980	22세	1년 6월	대구 감옥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대통령표창(1982), 애족장(1990)
吳基元	1897-1940	21세	8월	대구감옥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건국포장(1992)
張琫起	1902-?	19세	8월	대구감옥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대통령표창(1992)
崔鶴林		20세	6월, 2년 징유	부산지법원	기장군 일광면 월전리	
朴孔杓		21세	3월, 2년 징유	부산지법원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 구수암(具壽巖, 1901. 2. 1 ~ 1920. 5. 1)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기장군 기장읍에서 마부인 김수문(金守文)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입수한 권철암·김도엽·김수룡·최기복·이택규·최창용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아 기장면사무소 서기인 최창용으로부터 등사기를 빌려 독립

선언서 400여 매를 등사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 기와 태극기를 만들었다. 또한 동지들과 혈서로 ‘양심발원(良心發源)’ ‘인도적 자유민족(人道的 自由民族)’ 이라고 쓴 큰 기를 준비하였다가 기장을 장날을 이용하여 장터에 모인 군중에게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1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같은 해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6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았다.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병보석되었으나 1920년 5월 1일 나이 20세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김도엽(金度燁, 1899. 7. 29 ~ 1937. 10. 6)

기장군 기장을 대라리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기장군 기장에서 마부인 김수문(金守文)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입수한 권철암·구수암·김수룡·최기복·이택규·최창용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기장면사무소 서기인 최창용으로부터 등사기를 빌려 독립선언서를 400여매 인쇄하였으며, ‘양심발원(良心發源), 인도적 자유민족(人道的 自由民族)’이라고 혈서한 기와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기장을 장날을 이용,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1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해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6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3·1운동 후에도 항일투쟁으로 두 번이나 투옥되었으며, 필경에는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작고하고 말았다. 1930년 6월 10일 박용선(朴容善)과 함께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여 항일활동을 펴다가 평남 평양(平壤)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2원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일광 의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서 망건을 만들어 생활하던 박영준(朴英俊)은 기장 장날이었던 4월 5일 제조한 망건을 기장 장으로 팔러 갔다. 그 날 오전 11시경 김도엽 권철암 구수암 김수룡 최기복 이택규 박공표 등의 청년들이 나타나 시장 한복판에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단’이라고 쓴 큰 기를 세운 다음 독립선언서를 장꾼들에게 배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이에 장꾼들이 호응하여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박영준도 시위행진에 가담하였다. 기장읍 시위운동이 해산된 뒤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이천리)으로 돌아온 박영준은 마을 주민들에게 기장 장에서 전해들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봉기 소식(3·1독립운동)과 직접 보았던 기장 의거를 상세하게 얘기하고 얻어 온 독립운동서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마을 유지들에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의거에 발맞추어 의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영준과 마을 유지들은 4월 11일로 거사 날짜를 정하였다. 4월 11일 저녁 7시경에 마을 청년 50여 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쳐 부르면서 주변 마을을 누비었고, 이에 호응한 마을 주민들이 시위대에 가담하였다. 이들의 시위는 밤새 이어져서 아침이 되자 기장에서의 시위를 진압한 헌병과 경찰대가 시위 정보를 듣고 출동하여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고 박영준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박영준은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이 판결을 받고 불복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죄로 역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43년 58세로 병사하였다.

1985년 일광면에서는 칠암리에 박영준의 의거를 기린 기념비를 세웠다.

정관 좌천시장 만세운동(장안의거)

이 운동이 일어난 장소는 장안면 좌천리 장터이지만 주요 인물들이 주로 정관 사람들이므로 정관의거 또는 좌천시장 만세운동이라고도 한다.

1919년 4월 5일 기장읍 만세운동 후 인근의 농민과 장꾼들의 항일 저항의식은 높아갔다. 이러한 가운데 기장읍 교리 김수룡(기장읍 만세시위운동의 주동자)으로부터 독립선언문을 입수한 오해환이 그것을 오진환(吳進煥), 김종복(金鍾復) 등에게 전달하면서 만세운동이 준비되기 시작되었다. 오해환(吳海煥)은 오진환(辛斗星) 김윤희(金允熙) 정지모(鄭智謨) 박일봉(朴一鳳) 등 면내의 유지들과 함께 김종복의 사랑방을 밀회 장소로 정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4월 8일 장안면 좌천 장날에 거사를 도모하기로 결의하였다.

거사에 앞서 이들은 목욕재개하고 조룡산 산마루와 용산암에서 대한독립만세와 의거 성공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지낸 다음 결사구국을 맹세하였다고 한다.

4월 8일 좌천 장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5-6백명의 농민들이 장꾼을 가장하여 시장으로 모여들었고, 오전 7시경에 신두성 김윤희 정지모 오진환 등 주동인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자 주위의 군중들이 일제히 호응하여 합

세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좌천시장에서 울산으로 통하는 거리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놀란 일본경찰들은 총검으로 무장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무차별 발포를 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오진환 등 50여명이 좌천주재소로 연행되자 시위군중들은 주재소를 2중 3중으로 포위하여 투석전을 벌리며 석방을 요구하여 연행자 전원을 구출하기도 하였다.

의거에 가담하였던 신두성 김윤희 정지모 등은 검거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이들은 1919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윤희는 1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된 뒤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으로 2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정지모도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었으며, 석방 후 고문의 여독으로 곧 사망하였다. 신두성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였고, 오진환은 일경의 눈을 피하여 상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박일봉은 국내에서 피신하여 전전하다가 한 많은 일생을 마쳤다.

1979년에 3.1운동 60주년을 기념하여 정관면에서는 정관초등학교 교정에 기념비를 세워 그 분들의 의거에 참여한 분들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최경숙

18. 동래고보 항일학생운동

이른바 학생운동이란 민족적·사회적 모순에 저항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일제 시기의 항일학생운동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총화인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여 민족적 교육이념을 견지하고



항일운동기념탑

부산시 동래구
동래고등학교 내

사회적 모순의 개선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당시의 사회운동에 대한 이념적 기반과 그것을 지도할 인재를 제공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담당했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근대적 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개항 이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학교들이 표방했던 교육 방침이 민족자주와 구국정신의 함양에 있었던 것과 관련이 깊다. 이후 학생들이 조직적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경이다. 물론 미진한 점은 있었지만 각급 학교에서 학생조직이 발달하고 그들이 주동이 된 전국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일정한 사회적 조직력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상은 취약했지만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인 점은 특기할 만하며, 그러한 성장을 통해서 3·1운동 당시 전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부산 지역에서의 항일학생운동 역시 그런 성격을 강하게 띠었는데 특히 동래고보(이하 동고)는 일제 전시기에 걸쳐 항일학생운동의 중심에서 있었다.

3·1운동 시기의 민족해방운동

1919년 고종의 인산일을 앞두고 마침내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발생하자 여기에 참가했던 지방인사들이 독립선언서를 품고 귀향하면서 서울의 시위는 지방에 알려졌다. 이 중 동태에 3·1운동 선언문과 격문을 전달한 이는 동고 1회로 1917년 졸업한 곽상훈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곽상훈, 윤병인, 이병호 등이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에 재학했다. 이들은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광경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곽상훈은 선언문과 격문을 동태에 가져오면서 군경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선언문과 격문을 모두 창호지에 베끼고, 가위로 가늘게 잘라 노끈을 꼬아 당시 축구화로 사용했던 미투리의 끈을 만들어 신에 꿰어 가지고 내려 왔다.

한편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동고 1학년 최익수는 곽상훈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문을 일반인 박성해를 시켜 부산상업학교(이하 부상)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김수홍을 시켜 일신학교(동태여고 전신)에서 김태곤으로 하여금 선언문과 벽보를 인쇄하게 했다. 그리고 문복숙, 김복선 등 두 학생을 시켜 그들이 재학중인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참가를 독려하게 하고, 태극기 5천 장을 만들게 했다.

그 밖에 부산진 보통학교 교사 홍재문과 연락하여 부산진 보통학교 학생들을 의거에 참가하게 했다. 그리고 일반인 유유진, 백용수 두 사람을 시켜 부산 지역 청년단체 및 유지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리하여 부산의 3·1운동은 3월 8일을 기해 표면화되고 마침내 영주동, 초량동, 좌천동에 태극기와 벽보가 붙었다. 3월 11일 오후 9시경에는 좌천동에 있는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다음날 3월 12일 오후 2시경에는 부산진보통학교의 최고 학년이었던 4학년생들이 홍재문 교사의 인솔아래 시위를 전개했다. 이것이 부산의 3·1운동의 신호탄이었으며 주

동은 앞서 말한 최익수였다. 그는 이로 인하여 8개월의 형을 받아 부산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한편 동래에 온 곽상훈의 움직임과 별도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이갑성은 연희전문학교 학생 김 아무개를 부산에 파견했는데 이때 이 전언을 부탁받은 학생은 4학년 급장이었던 김인호 외 3·4명이었다. 이에 졸업반 4학년생이었던 엄진영, 김귀룡, 고영건 등은 추규영, 박종관 등 2·3학년과 비밀리에 모여 전학생의 총궐기를 결의했다. 궐기 시기와 준비사항, 실행방법은 수시로 장소와 사람을 달리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곽상훈이 이환 자택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곽상훈·이환을 만나 거기서 두 사람이 청년들 중심의 거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듣는 한편 자신들도 시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각각 준비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마침내 3월 13일 거사 당일 학생들은 선언서와 태극기를 각자 숨겨서 나오기로 하고 일부는 부인들이 감추어 운반했다. 그동안 장터로 통하는 길목에 배치되어 장꾼들에게 선언서를 배부했다. 이미 학생들 대부분은 장꾼들 틈에 섞여 서성거리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동고생 40명은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두 분대로 나누어서 행동을 개시했다. 제1대는 동래군청 앞에 있는 망미루로 모였고 제2대는 동래남문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제1대의 지휘는 엄진영이 맡았고, 제2대의 지휘는 김귀룡이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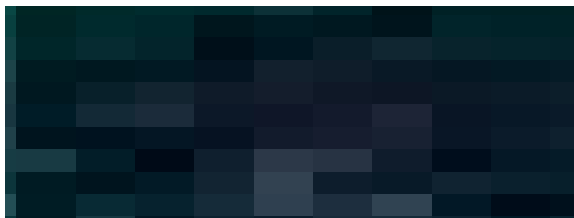
이들이 지휘 했던 것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거사 장소로 망미루와 남문을 택한 것은 그 곳 장날에 장꾼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2시가 되자 엄진영은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려고 했다. 그 순간 이미 학생들이 모여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과 헌병들이 순식간에 엄진영과

김귀룡을 덮치려 하자 두 사람은 먼저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만세’를 선창했다. 주위에 모였던 40여 명의 학생들과 장꾼들도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동시에 ‘대한 독립만세’라고 쓰여진 2개의 깃발이 세워지고 독립선언서와 ‘오왕독살’이라고 쓴 수백 매의 삐라가 뿌려져 장시는 삼시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장날에 나온 범어사 승려들과 장꾼들 수천 명도 삼시간에 학생들의 만세소리에 호응했다. 이렇게 수천 명이 만세를 부르고 뛰는 바람에 하늘과 땅은 온통 먼지가 쌓이고, 모였던 사람 대부분 길로 빠져 나가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시위는 일제의 폭압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제국주의의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한민족과 부산지역민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다가 검거된 김인호·엄진영 등 24명은 동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최고 1년 6월에서 최저 4개월을 언도 받았으며, 배후 참모역할을 한 광상훈은 이후 서울에서 체포령이 내리자 상해로 망명하려다 서울에서 체포되었다.

한편 학생시위는 4월 22일 공판 이후 이튿날에도 계속 전개되어 동고 졸업생과 재학생들도 일어났다. 재학생 손지수 외 1명은 졸업생 및 2학년 이상의 학생들과 같이 4월 23일 식수기념일에 거사하기로 하고 각자 태극기를 만들면서 준비하다가 일제당국에 의해 탐지되어 10명이 검거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어쨌든 4월 22일 형량을 받은 학생들 중 엄진영과 김귀룡은 책임자였으므로 1년 6월의 중형을 받았고 그 다음은 1년, 나머지는 8월의 형량을 각각 받았다. 형이 가벼운 경우는 대개가 연령이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감된 학생들은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는 동안 심한 고문에 시달렸고 폐쇄적이고 비위생적인 형무소 생활 탓에 발병하는 이가 많았다. 복역한 지 8개월이 될 무렵 김인호가 발병하여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뒤이어 김성조 또한 병을 얻어

중태였으므로 역시 병보석으로 출옥했다. 그러나 김성조는 이미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되었고, 이후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김성조 장례 때 학교에서는 이광욱 교사가 앞장서서 조기와 만장을 들고 전교생이 동래에서 만덕고개를 넘어서 장지로 갔는데, 구포가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조객이 모여든 장례식이었다. 이때 일본 경찰은 김성조가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수감되어 병보석 중에 죽었으니 옥사와 다름없으므로 군중들이 모여 재차 시위를 할까 두려워하여 조객이 모여드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나 일제가 그럴수록 조객은 더욱더 불어나 1천여 명이나 되고 만장과 조기는 수백을 헤아렸다. 동고 학생들은 붉은 글을 쓴 만장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만덕 쪽 장지를 향해 상렬을 따랐다. 복역자 중 김귀룡 역시 옥중에서 병을 얻어 그것이 고질병이 되어 평생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떴다.

한편 시일이 지나 수감 중이던 학생들도 형기를 마치고 복교를 허락받았으나 태반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실의에 빠져 자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3학년 중 등교하는 학생은 4·5명에 불과하여 학교 당국은 학교 운영상 부득이 3학년을 2학년에 합쳤다. 이 때문에 1920년도 동고 졸업생은 배출되지 못했다. 이후 4학년으로서 복역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졸업장을 수여했다.



동래고등학교 구교사 전경

1920년대 흑조회와 동맹휴학투쟁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1920년대로 이어져 부산 시내의 각급학

교와 연대한 동맹휴학을 통해 항일학생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당시의 학생운동은 3·1운동 당시에 나타난 민중의 폭발적 역량에 대한 새로운 신뢰와 새로이 유입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하에 각종 사회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이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서회 등이었다. 이를 통해 동맹휴학의 자연 발생성이 극복되고 동맹휴학에 앞서 투쟁지도부가 만들어지며 그들의 의식적인 지도 아래 동맹휴학이 전개되는 것이 전조선적인 현상이었다. 동고와 부산제2상업고등학교(이하 부2상)의 투쟁지도부는 흑조회의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이들은 동고의 박인호, 최두해 등과 부2상에 다니던 김규직, 양정욱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동래독서회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학생 중심 독서회 활동만으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경의 감시를 받게 되자 핵심 멤버만을 중심으로 한 비밀조직인 흑조회로 재창단하게 되었다. 이때 동고와 부2상은 독자의 조직을 각기 만들기로 하였는데 양교의 독서회 조직명칭이 같은 것으로 보아 리더들의 유대가 긴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뒤 부2상의 흑조회는 1928년 6월 전조선에 걸친 맹휴에 즈음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당했는데 그 중 흑조회 회원인 양정욱 또한 퇴학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후 양정욱은 전학을 위해 일본에 갔으나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귀국했다. 그렇지만 관부연락선에서 고등계 형사의 검문을 받고, 소지한 수첩에서 흑조회 관계 메모가 발각, 이것이 단서가 되어 부2상 흑조회 소속 9명의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부2상의 흑조회 조직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동고 흑조회는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여 14회 이봉호, 15회 장세무, 이상기, 장지완, 정예영, 이동우, 구자옥, 손연순 등에게 이어 10여년 동안 계속되었다. 양 교의 이러한 흑조회는 아래에서 살펴 볼

1928년 함흥고보 맹휴에 대한 연대 맹휴로서 양 교가 그 해 6월에 맹휴를 단행할 때 견인차 역할을 했다

동고에서는 또한 동맹휴학에 있어 단순한 학내 교육여건의 개선 요구를 뛰어넘는 민족운동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 동맹휴학에서는 “조선어를 교수용어로, 조선역사, 지리교수, 학우회 자치권 획득, 식민지교육반대, 조선인 본위의 교육확립” 등의 구호가 보편적으로 제기되었다.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라는 구호는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던 일상적 불만을 구체화한 것이자 식민지교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동고의 1925년 대맹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20년대 중반 이후 동맹휴학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동맹휴학 기간이 장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학생운동과 국외학생운동, 그리고 각 지역 학생운동의 사이의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산 지역에서 29년 광주학생의거에 대한 연대 동맹휴학이 발생했을 때 동고가 부산과 동일한 시기에 동맹휴학을 단행한데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동고의 동맹휴학 또한 당시 국내 학생운동의 전반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결국 일제 하 동고의 역사는 동래지역 3·1운동의 주도를 시발로 1925년 동맹휴학, 1926년 장산 촛불의거와 동맹휴학, 1927년 동맹휴학, 1928년 동맹휴학 등 매년 이어지는 동맹휴학을 통한 항일 운동의 기억으로 점철되었다.

1930년대 항일학생운동

3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은 각 학교의 독서회, 연구회, 동맹과 같은 소규모 정예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발한 것이 동고의 반제동맹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31년 12월 2학기에 4학년생 14명이 반제국주의동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피검된 사건으로 김명돌, 이치우 등이 관련되었다.

이 조직은 1931년 7월초부터 비밀 회합을 거듭한 끝에 7월 중순경 동래읍 서천교 부근에서 동래소년동맹간부였던 이치우, 김응찬, 권동수, 김명돌 및 성달덕 등이 중심으로 56명이 모여 적기회를 조직하고 산하 연락부, 서무부, 직접행동부, 조직선전부, 출판부, 재정부를 두었는데 출판에 이치후, 재정에 김명돌, 조직선전에 권동수를 책임자로 각각 선정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첫 사업으로 7월 20일 적색뉴스 창간호를 인쇄하여 회원에게 배부했다. 이후 성달덕의 오오사까 진출에 따라 일단 조직을 해체했으나 9월초에 다시 적기회의 강령을 답습하여 결사의 명칭을 반제전위동맹으로 고치고 계속하여 기관지를 인쇄 배부했다. 특히 김명돌은 재학중인 동고내에 반제전위동맹의 세포기관으로 동래고등보통학교사회과학연구회, 동래고등보통학교 적색스포츠팀, 수영무산청년회를 조직했다. 반제전위동맹은 1931년 11월 러시아 혁명기념에 즈음하여 부산비밀결사·불세비키사·안영달 등이 작성한 ‘노농러시아 혁명 일을 시위하고 기념하자’라는 제목의 격문 1,500매를 부산부내에 살포했다. 이밖에 적색뉴스의 발행을 통해 제국주의전쟁 절대반대, 일본제국주의 타도, 소비에트 동맹 방위를 표방하고 조선민족의 완전한 독립, 일본제국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속박 해탈, 전세계 무산자계급의 소비에트와의 연합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맹렬한 활동을 벌였다. 나아가 이들은 1932년 새해 연두사업으로 노동자를 선동하여 총파업을 감행하고자 1931년 12월 25일 반전격문 1,300장을 만들어 이듬해인 1932년 1월 1일 부산부내 부산지구헌병대와 부산의 중요 공장지대에 일본공산당의 이름으로 ‘혁명적 병사제군에게’, ‘일본제국주의 강도와 최후적 투쟁하자’는 제목의 반전격문을 살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각되어 1932년 1월 11일부터 조직원들이 구속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김명돌, 권동수, 김응찬 등은 재판에서

2년 6월의 언도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 반제전위동맹에 참가했던 이규대와 이중희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이 경성제대반제부의 하부조직이 탄로나면서 검거된 것으로 언급하였다. 경성제대반제부는 1931년 4월 경성제대 법과 신현중이 조규찬 등과 더불어 경성제대 1, 2, 3학년에 재학중인 독서회 소속 학생들을 규합하여 결성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이후 경성치과의전, 제이고보, 경신학교, 법학전문, 기독교청년학관 등에 조직 공작을 벌여 경성제대반제부의 하부선을 꾸리고 마침내 이들을 망라하여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출판노동조합을 지도하면서 지하출판물로서 성대독서회 뉴스, 반제학생신문, 기타 반전격문을 인쇄 살포했다. 성대반제부 사건의 관계인원은 50명이었는데 그 중 19명이 예심종결 4개월 만인 1932년 7월 4일부터 공판이 시작되어 그 해 11월 24일 19명이 징역 2~3년에서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동고 반제전위동맹은 경성제대반제부의 경남지부로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이후 이어지는 동맹휴학의 전통은 이 당시에도 계속 이어지며 일제에 대한 저항을 뚜렷이 했으며 이외에도 1937년 동래고보 조선어연구회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1937년 미나미(南次郎) 총독의 부임 후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의 허울 속에서 조선어교육이 폐지되자 한글의 앞날을 걱정한 동고생들은 허웅을 중심으로 1936년 동래고보 조선어연구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사립동래고보 시절 동고에 근무한 적이 있는 최현배가 지은 『중등말본』을 각각 한 권씩 구입하여 회원들끼리 윤�독했으며 주로 강의는 허웅이 담당했다. 그리고 5학년 9명은 하급생 한 명씩 맡아서 가르쳤다. 모임 장소는 주로 하숙집이었고, 그곳을 전전하면서도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다. 이들은 모임을 갖고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애국가를 먼저 부른 다음에 시작했다. 이 모임은 15회가 졸업하고 그 뒤 1938년에 이르러 일제의 감시가

날로 심해져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뿌려진 우리 글에 대한 연구는 8·15해방이 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해방 정국에 우리 글의 불모지였던 부산에 한글문학회를 조직하여 방방곡곡에 한글강습소를 설치하여 한글교육의 제1선에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한글에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졌던 허웅은 일본의 허다한 명문대학의 진학을 포기하고 최현배가 있던 연희전문으로 진학하여 현대 한글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한글과 국학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허웅과 동고의 조선어연구회는 그 뒤 남기명 등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쳐 1943년 조선독립당사건의 사상적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1940년대 항일학생운동

동래고보의 1940년대 항일학생운동은, 1940년 11월 23일 부산, 마산, 진주 인근지역 학생들이 모인 '제2회 경남학도전력증강 국방대회'에서의 부정심판을 계기로 발생한 '부산항일학생의거'로부터 시작한다. 이 의거의 근저에는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항일의식과 그것을 조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운동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의 영향하에 1943년과 1944년 '조선독립당'과 '순국당' 결성·추진 운동이 있었음을 돌이켜 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중요한 의의를 지닌 '부산항일학생의거'는 따로 한 장을 구성하여 설명했기에 여기에서는 '조선독립당'과 '순국당' 결성·추진운동을 중심으로 1940년대 항일학생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독립당'은 1940년 부산항일학생의거에 참가한 동래중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학생조직이다. 이 조직은 1940년 겨울 당시 동래중학교 학생이었던 양중모, 김병현, 남기명, 김일규, 김진훈 등이 중심이 되어 독서회를 조직한 데서 시작되었다. 독서회의 출범을 가져오게 된 것은 당시 그들의 은사였던 허현의

영향 때문이었다. 독서회에서 활동한 이들은 1941년 겨울 등화관제 아래서 김일규 자택에서 조국에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고 과거의 독서회를 ‘조선독립당’이라 개칭했다. 이후 1942년 초봄 남기명 자택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강령을 채택하였고 이관수, 문인갑, 백기호, 김영찬 등과 함께 ‘조선독립당’을 발족했다.

이들은 모임에서 임시정부에 관한 책, 우리 문화에 관한 책, 과거 각 민족의 독립투쟁의 역사 기록 그리고 일본인 서점 박문당에서 판매했던 <월간 러시아> 등의 서적을 수집·회람하고 토론도 했다. 그 중 특이한 역사 기록은 폴란드가 제정 러시아를 상대로 싸웠던 항쟁사나 제1차 대전 때 전쟁의 동기가 되었던 세르비아의 19세 상업학교 학생 푸린치푸의 거사 상황 등이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비밀 회합을 거듭하면서 부서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1943년 봄 졸업과 동시에 행동범위를 넓히면서 연락암호를 정하는 등 실제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당원은 여러 곳으로 침투 활약하고, 서울 휘문중학교에서 전학온 박정기에 의해 연결된 비밀 결사인 ‘자일회’와 ‘순국당’과 유대를 가지면서 기회를 보아 항일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려 했다.

그러다가 1944년 8월 1일 당원 7명(문인갑, 김영찬 제외)은 양중모 집에서 모여 2, 3일 간에 걸쳐 그 동안의 활동보고와 정세 분석을 하면서 시기를 보아 민심을 교란하고 일본군 탄약고를 폭파하여 내란을 일으키며 이를 위해 먼저 군용열차가 구포를 통과할 때 폭파하기로 했다. 만약 거사가 실패할 때는 모두 일본군에 입대하여 연합군에 투항한 후 중국에서 다시 회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할 즈음 ‘순국당’ 당원인 차병곤을 위시한 당원들이 부산 북부서에 검거되고 차병곤과 관련을 가진 사실을 기록한 차병곤 일기장이 발각되어 ‘순국당’ 당원의

체포와 아울러 조선독립당원도 44년 8월 모두 검거되었다. 이 때 김영찬과 백기호는 석방되고 나머지 8명은 8월 25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검찰청으로 송청되었다. 이때 김진훈은 혹독한 고문으로 병을 얻어 1945년 4월에 옥사했다. 그후 1945년 8월 초순부터 검사 구류 1년 만기가 되면서 담당 검사들은 조사를 시작했으나 조사 도중에 8·15를 맞이하여 8월 16일 저녁 8시에 조선독립당원들이 출옥되고 8월 18일에는 순국당원이 출감했다.

한편 ‘순국당’은 1943년 봄부터 만주에서 귀국한 차병곤과 부산진초등학교 동창인 박정오, 신정호 등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다. 차병곤은 내외종간이었던 ‘조선독립당’ 이관수의 영향을 받아 배일의식을 함양했고, 곧바로 친구들에게 그 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또래의 학생동지를 규합, 조직체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차병곤, 박정오, 신정호, 김수성, 전창호, 정오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박정오와 이웃이었던 김인자(당시 향고녀 3학년) 자택에 있던 『조선 역사』, 『조선명인집(사진판)』, 『세계사상전집』 등을 운독하였다.

또한 차병곤은 동래 쪽에도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하여 배광진(동래중학 3년), 배봉수 등 3인은 자주 만나서 전쟁 정세와 정보를 교환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항일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배봉수와 배광진은 다시 오석제, 박진웅, 박지홍 등과 함께 하여 외연을 넓혔고 1944년 5월 1일, 신정호의 자택에서 ‘순국당’을 결성했다. 이날 모임에는 차병곤, 박정오, 신정호, 배봉수, 배광진, 남정기, 전창호, 윤창석, 김수성, 정오연, 김진옥, 박태곤, 아사모토(朝本:창씨명) 등 13인이 참석했으며 결사 항일투쟁에 참가한다는 뜻에서 ‘순국당’이라고 당명을 정했다. 강령과 행동목표는 조선독립당과 동일했는데 이는 ‘조선독립당’의 이관수가 차병곤, 박정오등을 통해 ‘조선독립당’의 세포당으로서 ‘순국당’을 조직했기 때문이다.

‘순국당’의 강령은 민족독립·주권회복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이며 행동목표는 ① 고이소(小磯) 총독 암살 ② 일본군 시설의 파괴 ③ 일인 집단거주지(현 광복동, 남포동)에 대한 방화④ 은행습격 ⑤ 공습시 산불놓기 등으로 결의하고 행동목표를 기입한 지면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자필로 쓰고 혈서로 연서하여 일인들이 신성시하는 가미다나(神棚) 속에 보관해 두었다. 당시의 회의록과 강령은 전창호가 보관하고 있다가 1944년 7월 31일 ‘순국당’원 검거선봉이 불자 동년 7월 30일 이를 소각했다.

이렇게 결성된 ‘순국당’은 1944년 5월 상순 영도다리 난간에 “대한독립만세” 벽보 부착, 5월 하순 진해 근교의 군용철교 폭파 계획 시도, 일본군 강제 징집시 연합군 투항, 총독암살 계획, 도만(渡滿) 후 독립군 합류 시도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계획이었던 독립군 합류 계획 때, 윤창석의 부친이 그를 막기 위해 자기 매제인 북부경찰서 고등계 형사 김종관에게 윤창석의 가출을 알린 것을 계기로 ‘순국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마침내 1944년 8월 1일 부산과 동래에 있던 모든 당원이 북부서에 피검되고 혹독한 고문을 겪은 후,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 치안유지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1945년 8월 1일 지검에서 주동자 차병곤, 박정오, 신정호 등 3인은 기소되고 김수성, 김진옥, 남정기, 박태권, 전창호, 배봉수, 윤창석, 아사모토(朝本) 등 8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출감되었으나 이들도 곧 귀가 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역을 비롯하여 일반 기결수와 함께 부두작업에 투입되었다가 8·15해방을 맞이했다. 또한 기소 회부되었던 차병곤, 박정오, 신정호 등도 8월 18일 기각 처분되어 석방되었다. 이상 ‘순국당’의 수사과정에서 또한 조선독립당의 실체가 드러나 검거되었다.

이 과정에서 1945년 봄에 정오연은 장질부사로 옥사했으며 배광진도 이어서 병보석으로 나왔으나 수일만에 사망했다. 차병곤도

석방 한 달도 못되어 병사했다. 차병곤의 영결식은 경남건국준비위원회에서 사회장으로 결정, 부산진교회 주관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민주중보 1945년 9월 21일자 사회면에 “민족해방의 용사 ‘순국당’ 단장 차병곤군 영결식”이란 3단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는 “영결식에 유족 당원 동지 경남장로회 조선소년대 부산진치안대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장지 좌천동 공동묘지로 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관수 역시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51년 사망했다. 이 밖에 김진옥외 3명(신정오, 박태권, 아사모토)는 그 당시의 혹독한 옥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수를 다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으며 13명 중 생존자는 6명 뿐이었다. 해방후 배봉수는 동래중학교에 복교했고 박정오, 윤창석은 시험을 쳐서 동래 중학교에 입학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동고를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항일 학생운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일제 전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던 동고의 학생운동은 1930년대 후반까지 학생운동은 사회주의 이론연구 비밀독서회와 각종 계몽운동을 추진하는 비밀결사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양자간에 실질적인 결합이 힘들기도 했으나 1940년 이후 무렵부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 이념적 차이를 불문하고 반일의 기치 아래 여기에 찬동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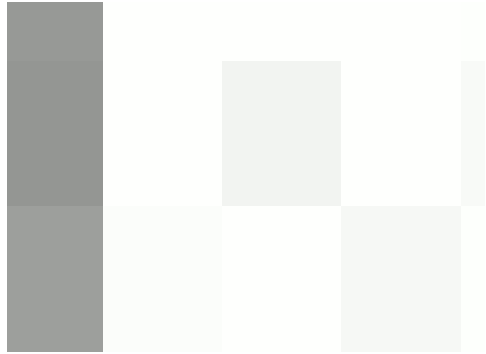
물론 이 시기 학생운동은 고립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이었고, 대부분 실행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계획 단계에서 와해되는 한계를 지녔다. 하지만 이런 민족해방운동의 경험은 해방공간에서 새로운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의 주요한 밑거름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일제시기 간단없이 이어졌던 동고의 항일학생운동의 역사는, 일개 학교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운동사의 빛나는 전통으로 이어져 오늘날에도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19. 범어사 항일의거

교육 종교 중심의 민족운동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강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 일제의 강압적 무장통치 속에서, 민족의 독립운동은 개화되지 못하고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맥을 이어 내적인 성장만을 해 나



가고 있었다. 즉 각계 각층의 민족 구성원들은 모두 자기의 현실과도 관련하여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희망하고 그 것을 준비해 나갔는데, 특히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던 공간 속에서 교육과 종교 운동이 그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919년 3·1운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립을 염원하였던 민족의 강한 힘이 넘쳐 나왔던 민족독립의 대 연합 전선 운동으로 역시 그 중심에 교육과 종교가 놓여 있었다.

부산 경남 지역의 3·1운동은 이러한 전체적 성격과 그 맥을 같이 하였으며, 범어사의 3·1 민족운동은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 민족운동으로서 당시 3·1운동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중요 사건이었다.

범어사의 인재 양성

범어사는 동래의 금정산에 자리 잡은 조계종의 중요 본사로서,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영남 불교의 중심 축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근대에 접어들면서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관련하여 1908년 금어암에 보통학교과정의 사립 명정학교(明正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1923년 현 청룡국민학교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근대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것으로 실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었다. 그리고 불교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과정(3년)의 지방학림(地方學林)을 설립하였다. 범어사 내의 학교들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한 졸업생들을 서울의 불교 중앙학림으로 유학을 보내는 등 지역의 인재양성과 불교계의 인재양성이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잘 하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인재양성을 통해 나름대로의 민족운동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었던 범어사는 부산 경남 민족운동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종교적 기반과 당시 전체 한국 불교의 민족운동과의 관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범어사 3월 민족운동의 발단

1919년의 3·1운동은 이른바 33인으로 대표되는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33인 민족대표의 역할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민중이 주체가 되는 본격적 민족운동으로서 전개된 것은 지식인과 청년학생 또한 지역의 종교지도자들의 중간적 역할 때문이었다. 당시 33인은 독립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을 끝내고 만족하였으나, 학생층들과 청년 종교지도자들이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범어사의 3월 민족운동에서도 이러한 중간적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범어사의 3월 민족운동의 발단은 1919년 2월 하순 불교계의 대표 한용운(한용운 : 41세, 불교 중앙학림 교수이면서 강원도

백담사 승려)이 갑자기 범어사에 내려와 주지 오성월(吳星月) 스님을 비롯하여 이담해(李潭海) 오이산(吳梨山)을 만나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비롯되었다. 한용운은 2월을 전후한 시기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3·1운동에 관한 지방 불교계의 참여를 타진하고, 이에 참여할 인사들을 구하고 지원을 부탁하고자 범어사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역시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1910년 상황에서 민족운동 진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범어사의 경우 인재양성을 위해 근대학교인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기에 한용운이 3·1운동에 참여할 인재를 구하고 지원을 부탁하러 내려 온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범어사 측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였다. 주지 오성월과 이담해 오이산 등은 범어사 관련의 김법린(金法麟) 김영규(金永奎) 차상명(車相明)과 지방학림 대표 김상기(金相琦), 그리고 명정학교 대표 김한기(金漢琦, 명정학교 졸업 후 동래고보 입학) 등 7명의 대표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리에서 오성월 이담해 오이산은 이들에게 앞으로 있을 서울의 3·1운동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7명이 범어사 대표로서 서울 3·1운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바로 서울로 갔는데, 3·1운동에 참여하여 만세를 부르고 나서 각자 흩어져 범어사로 내려와 모이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에는 범어사 출신으로 범어사 지방학림을 졸업하고 서울 불교 중앙학림에 재학하고 있던 김상헌(金祥憲)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중앙학림의 학생들의 모임인 惟心會라는 모임에 참여하였는데, 이 모임은 한용운의 지도 하에 불교교리를 탐구하고 민족사상을 공부하였던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심회가 발간하고 있었던 잡지 <<유심>>의 편집 실무를 맡는 등 서울 불교 학생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한용운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백용성(해인사 소속)과 3·1

독립선언서에 33인 민족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서명하였고 3·1민족운동 불교계 조직을 맡아 3월 1일 이전에 벌써 주요 대사찰을 다녀왔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 불교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상헌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용운을 도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불교계가 학생대표들을 선발하였는데 김상헌을 필두로 범어사는 김법린, 통도사는 오택언(吳澤彦), 합천 해인사는 김봉신(金奉信), 대구 동화사는 김대용(金大鎔), 그 외 김규현(金圭鉉) 백성나(白性那) 정병헌(鄭秉憲) 박민오(朴敏悟) 신상원(申尙遠) 등 10인을 선정하였다. 이 들 학생 대표들은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각종 교별 학생 대표들과 수 만명의 애국 동포들을 동원하는데 분주하였고, 또 맹렬한 독립 만세 시위에 앞장섰으며, 서울 의거 후 잇따라 각 지방의거를 지도 연락하는 책임도 지고 있었다.

즉 동래 범어사는 김상헌, 김법린이 지도 연락하기로 하였고, 양산 통도사는 오택언, 합천 해인사는 김봉신, 대구 동화사는 김대용 등이 그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어사에서 3월 민족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범어사 자체가 인재를 양성하여 이미 민족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과, 또한 조선의 불교계가 3·1민족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 3월 민족운동의 전개

<의거 준비, 밀고로 의거의 위기>

불교계의 학생 대표들이었던 김상헌과 김법린은 서울에서의 3·1 의거에서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이를 지방에 지도하고 연락하기 위하여 3월 4일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범어사로 돌아와 상황을 전하고 시위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한편 범어사의 대표로 2월 말 경에 서울에 갔던 김법린 외 대표들이 서울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각자 일본 헌병을 피해 가면서 귀향하였는데, 이 때는 이미 부산지역에서 일신학교와 동래고보 등의 학생의거가 있던 후였다. 서울에서 돌아 온 학생대표들은 범어사에서도 다른 지방과 호응하는 한국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그 운동 방법으로서 지방학림과 명정학교의 생도들을 집결하여 동래를 습격하고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범어사의 학생들에게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을 설명하고 이번 기회에 범어사의 학생들도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거사를 도모하도록 권유하자고 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3월 18일 동래 읍 장날로 약정하였다.

김영규 차상명 김봉환(金奉煥)(이상 3인은 범어사의 승려) 김상기 김한기 등 5명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3월 17일 저녁 범어사 내에서 개최된 명정학교·지방학림 양교 졸업생 환송회 석상에서 그 자리에 모인 30-4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이야말로 꼭 독립시위운동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대로 거사의 목적과 방법을 이야기하여 즉석에서 이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이근우·김해관·오시권 신종기·양수근·윤상은 등 지방학림의 생도, 김영식·박재삼 등 명정학교의 생도, 김재호·임영환 등 범어사 승려 등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 이들 학생들과 승려들은 3월 18일 의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때 이미 허영호(許永鎬)가 독립선언서 1,000매를 준비하였고, 주동자들이 태극기도 큰 것 1개와 작은 것 1,000개를 준비하였다. 허영호는 집이 동래읍 장터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

3월 17일 저녁, 졸업생 환송회에서 김영규의 축사가 끝나고, 그의 선창으로 독립만세를 높이 외친 후,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40명의 학생들이 야음을 틈타 18일 거사를 위해 먼저 동래 읍으로

향하였다. 특히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범어사에서 도로로 동래로 가지 않고 선리 뒷산과 동래 향교 뒷산을 넘어 동래 읍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18일 새벽 한시가 조금 넘어 동래읍 복천동에 있는 불교 포교당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공복을 채우기 위해 곶감을 사와 막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일본 군인과 경찰 20명이 급습하였다. 군인과 경찰들은 김영규·차상명·김상기·김한기 등을 호명하여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으며, 나머지 학생들과 참여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같이 경찰의 급습으로 강제 해산 당하게 된 것은 명정학교 학생인 오계운(吳啓運)이 자기의 선생인 나카무라라는 일본인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이었다.

강제로 해산을 당한 범어사의 학생 등 참여자들은 일단 그 곳을 물러났으나, 다시 의거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을 다 잡아가지 않고 해산시킨 것은 일본군경이 주동자만 체포하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 때문이었던 것 같다.

<3월 18일 밤 의거>

3월 18일 밤, 이근우(李根雨)·김해관(金海管)·김재호(金在浩)·박재삼(朴在森)·신종기(申鍾驥)·윤상은(尹相殷)·박영환(朴永煥) 외 40여명의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의 학생들은 동래읍 서문 부근에서부터 운동을 전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동래시장을 거쳐 남문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전개하고 각자 돌아갔다. 이 같이 범어사의 학생들이 초기의 주동자들이 불러 갔는데도 다시 새로운 주도층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한 것은 사실상 다른 경우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 점은 참여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민족의식이 강하였던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범어사의 민족교육이 상당한 성과를 갖고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그리고 이날 밤 다시 참여자들은 비밀 모의를 갖고 19일에는 보다 더 큰 의거를 단행 할 것을 약속하였다.

<3월 19일 의거>

3월 19일 아침 윤상은·허영호·이영우(李永雨)·황학동(黃鶴東) 등은 먼저 허영호가 작성 한 <한번 죽어서 자유를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一死莫如得自由)> 라는 독립사상을 고취한 격문을 수백매 만들어(범어사에서 200매 짚을 써서 만들었다고 함) 동래 시장에서 군중들에게 미리 배부하고 이 날 저녁에 있을 시위에 대비하였다.

19일 오후 5시경 이근우·양수근(梁壽根)·김영식(金永植)·오시권(吳時勸)·황만우(黃滿宇)를 비롯한 수 십명의 양교 학생들은 동래 시장 남문 부근으로부터 시위를 전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연호 고창하면서 동래경찰서 앞으로 돌진하였다.

한편 19일 오후 6시경에는, 김해관·김재호·최응권(崔應勸)을 비롯한 수 십명의 다른 학생들이 별도로 동래 시장에 집합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잇따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범어사의 3월 의거는 몇 몇의 주동자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된 것이 아니고 참여자 한사람 한사람이 다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동자와 참여자들의 검거>

이렇게 범어사의 의거가 끈질기게 지속되자, 일제는 강력히 시위를 진압하고 주동 인물의 검거를 시작하였다.

범어사 의거와 관련하여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

성명	형량	출신지	포상 여부
김봉환(25세)	징역 2년	경남 양산	
차상명(25세)	징역 2년	부산 동래	대통령 표창(1977), 애족장(1990)
김영규(22세)	징역 2년	부산 동래	대통령 표창(1977), 애족장(1990)
김상기(25세)	징역 1년	경남 양산	대통령 표창(1983), 애족장(1990)
김한기(23세)	징역 1년	부산 동래	대통령 표창(1986), 애족장(1990)
정성언(28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대통령 표창(1993)
김해관(26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양수근(22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대통령 표창(1997)
이근우(20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허영호(20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애족장(1990)
최응권(21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박정국(23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대통령 표창(1992)
박재삼(18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 동래	
김영식(16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남 울주	
윤상은(25세)	징역 6월	부산 동래	
신종기(23세)	징역 6월	경남 울주	
김재호(20세)	징역 6월	경북 경주	대통령 표창(1993)
오시권(19세)	징역 6월	경남 함안	
박영환(27세)	징역 6월	경북 영천	
손태연	징역 6월	부산 동래	
김충념(23세)	징역 6월	경남 울주	
황학동	징역 6월	경남 울산	
오병준(23세)	징역 6월	경남 울주	
김상환(22세)	징역 6월	경남 양산	

성명	형량	출신지	포상 여부
이영우(21세)	징역 6월	경남 양산	
박영주	징역 6월	경남 양산	
지용준(26세)	징역 6월	경남 양산	대통령 표창(1992)
양춘도	징역 6월	경남 양산	
손군호(19세)	징역 6월	경남 양산	
황만우(22세)	징역 6월	경남 양산	대통령 표창(1999)
오항상(22세)	징역 6월	경남 창녕	
김태준(20세)	징역 6월	함남 배화	
박창두(20세)	징역 6월	함남 배화	
이달실(20세)	징역 6월	함남 배화	

위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34명이 검거되어 6개월 내지 2년을 언도받아 부산과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 외 오점술·양태문·강성안·우석규·배석이·이재훈·안경한 등 7명은 형기를 알 수 없다. 관련자는 범어사의 오성월·오이산·이담해 등과 김상헌과 김법린을 포함하여 43명에 이르렀다.

한편 김상헌은 3월 4일 범어사에 독립선언서를 전하고 범어사에서도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을 중심으로 독립시위를 전개할 것을 의논하고 다시 상경하였다. 이 때 김법린과 김대용이 해외소식을 알리기 위해 「혁신공보(革新公報)」란 신문을 발간하여 각 지방에 배포하기로 하자, 김상호와 더불어 지방으로 다니며 국내의 정보 수집과 국외 소식의 전달 활동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919년 8월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철원애국단을 조직하고 함경남도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 노동총판인 안창호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발각되어 1920년 5월 체포되었고, 1921년 3월 경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언도 받았다.

김법린은 4월 한국민단본부의 대표로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 정부에 참가하였다가 5월 다시 국내로 돌아 왔는데,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외의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에 전달하였다.

범어사의 3월 민족운동은 학생과 불교계의 중간지도자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된 의거로, 3·1 만세운동이 진정한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크게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 이는 3·1 운동의 일정 단계에서 학생들과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었던 것으로, 특히 인재양성을 통하여 당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범어사가 민족운동의 진원지이었음을 보여주었다.

● 김상헌(金祥憲, 1893 ~ 1945)

김상헌은 범어사 지방학림(地方學林)을 마치고 서울의 불교중앙학림에 진학하여 만해 한용운(韓龍雲)이 지도하던 유심회(惟心會)에 가입하여 민족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19년 2월 말 한용운으로부터 유심회 간부들과 함께 3·1운동의 계획을 전달받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탑골의 독립시위에 참가하고 지방사찰의 독립시위를 독려하기 위해 김상헌은 범어사로 내려왔다.

범어사로 내려온 김상헌은 서울의 상황과 정세를 상세하게 전하고 범어사에서도 명정학교와 지방학림을 중심으로 독립시위 계획을 숙의하여, 범어사 항일독립의거를 촉발시켰다.

서울로 돌아 온 김상헌은 김법린과 김대용이 해외소식을 알리기 위해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간하여 각 지방에 배포하기로 하자, 김상헌은 김상호와 함께 지방으로 다니며 국내의 정보 수집과 국외활동의 소식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1919년 8월에는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다시 서울에 돌아와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을 조직하고 함경도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 노동총관인 안창호에게 송금하는 등 항일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항일운동이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1920년 5월 체포되어, 1921년 3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상헌은 출옥 후 승적이 있던 동래의 범어사로 돌아와 승려의 훈육에 힘썼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포상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신라대학교 교수 이승희

20. 부산진 일신여학교 항일학생운동



일신 여학교 구교사 전경

한국민족해방운동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여성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소략하다. 이는 해당 여성운동가의 숫자가 적은 탓도 있겠으나 여성운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모자랐던 탓도 크다. 우리 부산지역의 민족해방 운동사를 살펴보아도 2003년 현

재까지 국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이가 박차정 등을 포함해 6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실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동래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이자 해방 전 부산지역 근대여성교육의 산실인 부산진일신여학교(이하 일신여학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큰 것이라고 하겠다.

일신여학교의 개교

1876년 개항 이후 부산에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선교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일환으로 교육사업 역시 열정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식 여자학교가 일신여학교이다. 이 학교는 1890년 9월 호주 멜버른에서 결성된 장로교여자선교연합회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창립자는 멘지스양으로 페리양과 한국인 교사의 도움을 받아 좌천동의 한 초가에서 소녀들을 모아 1895년 주간학교를 개교한 것이 그 출발이다. 초대 교장은 멘지스양으로 개교 당시에는 수업연한 3개년의 소학과과

설치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신여학교는 남학교와 더불어 운영되었는데 1900년 앵겔목사가 부임하여 남학교를 담당하였다. 멘지스양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일신여학교를 중심으로 추구한 바는 초창기의 다른 선교계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역자 양성과 복음전파였으나, 일신여학교가 창립된 1895년은 우리나라 신학제가 처음 시작하던 때로서 소학교의 교육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멘지스양이 초대 교장을 역임한 뒤, 앵겔 목사가 1902년 취임하였다. 그는 초창기 학교 발전에 매우 큰 공을 세웠다. 일신여학교는 그후 장로교의 신도가 늘어남에 따라 교세가 확장되어 1905년 좌천동 신축교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학교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09년 8월 학부대신 이재곤의 인가를 받아 수업연한 3년의 고등과를 병치하였다. 이 고등과는 후에 동래학원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동래여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되었으며 초등과는 일제 치하 중엽에 폐지되었다.

1910년 10월에는 데이비스양이 교무주임으로 부임하였는데, 그녀는 1914년 12월 8일 일신여학교의 4대 교장이 되어 구산학원으로 그 경영을 옮겨줄 때까지 가장 장기간 학교발전의 주동역할을 했다. 또한 1915년 8월 7일에는 학칙개정에 의해 수업연한 3개년이었던 소학교를 4개년으로 늘리고 고등과를 4개년으로 증설했다.

일신여학교의 항일학생운동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초기 단계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각종 억압 기구를 설치하고, 각 분야에 걸친 폭압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민주적 정치 훈련 기회를 박탈하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을 차단하는가 하면 모든 반일적인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식민지 법제를 구축했다. 총독부의 지배 아래 강요된 각종

약법은 일체의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를 빼앗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며 민중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우리 민족을 식민지 종속민으로 길들이기 위한 이데올로기 통제에도 주력했는데 그 정점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식민지 교육체제였다. 교육기관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급하는 한편, 그것을 매개로 진행된 식민지 교육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말살시키는 이른바 우민화와 황민화를 목표로 했다. 일제는 한 손에는 교육척어,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폭력지배를 유지하면서 ‘인민이 문명 진보함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한편, 1911년 공포된 <조선교육령>에서 보듯이 교육정책의 중심을 ‘충량한 신민의 육성’에 두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동화와 차별에 철저를 기하고 일본어의 보급과 천황제 사상의 주입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작 자주적 근대화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었던 과학분야 연구와 교수활동, 대학 설치 등은 ‘유용한 지식’과 ‘온전한 덕성’을 겸비해야 할 ‘제국신민’에게는 불필요하다고 하여 금지시키고 최소한 식민지 지배기구 유지에 필요한 기능교육만 유지시켰다.

그러나 이나마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근대문화의 보급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일정하게 기여해온 민족적 사립학교를 탄압하고 이들을 식민지 교육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다. 1911년에 제정되어 191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 의해 치안과 안정이라는 잣대로 사립학교의 존립여부를 판가름하게 했고, 교원채용, 교과과정, 교과서, 수업내용 등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를 가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재원을 박탈하여 1908년에 3,000여 개에 달하던 사립학교가 1910년에는 2,000여 개로 줄었고, 1919년에는 69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

일제는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식민지 교육체제를

정비하여 본국으로부터 많은 일본인 교사를 불러들이는 한편, 전 조선 각지에 있던 사립학교를 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하여 공교육 이름으로 교육기구를 독점했다. 또한 보통학교에서는 보통교육보다는 농업 등의 실업교육을 중시했고, 공립이라고는 하나 학교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역 주민에게서 강제 징수하여 운영했다. 식민지 공교육에서는 조선의 역사와 지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보통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의 3/5을 일본어 교육에 충당했다.

이렇듯 민족 교육에 대한 탄압과 교육 조건에 대한 일제의 왜곡은 학생들의 격렬한 반감과 저항을 초래했다. 특히나 개항기부터 일제의 조선침략과정을 생생히 체험하고 그로 인한 모순을 목도했던 부산지역의 학생들은 그 저항의 정도가 더욱 완강하였다. 이들은 대동청년단이나 조선국권회복단 등의 부산지역 내 독립운동단체와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국적 학생운동단체로서는 송죽회 등과 연관이 있었다. 이는 3·1운동 당시 시위를 지도하거나 참여한, 영도 사립옥성학교 교사였던 정인찬과 백산 안희제의 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인찬은 학생들의 시위를 지도했으며, 안희제 역시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작성 배포했다. 한때 고려상회를 합자경영한 김진원과 김두봉도 운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그 뒤 일제의 추적으로 중국에 망명했다.

부산 지역의 항일학생운동은 이러한 비밀결사운동과의 연계와 이전의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을 바탕으로 하여,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부르주아의 조직적 기반과 인맥을 통해 노동자, 상인 등 광범위한 계층의 일반 대중과 연대 속에서 폭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신여학교도 다르지 않았다. 일신여학교의 학생들은 3월 2, 3일경 서울로부터의 3·1운동 소식을 듣고, 준비를 서둘렀다. 이때 일신여학교 측에서는 학생 이명시가 연락을 담당했으며, 주경애, 박시연 교사등이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하던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하는 한편, 동료교사들을 규합했다. 또한 졸업시험을 며칠 앞둔 고등과 4학년 학생들에게도 쫓기를 권유하자 3월 10일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혼수감으로 준비한 옥양목으로 태극기 100여 장을 만들었다. 3월 11일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마친 고등과 학생 김응수, 송명진, 김반수, 김순이, 김란출, 박정수, 심순의, 김봉애, 김복선, 김신복, 이명시 등 11명은 주경애, 박시연 교사와 더불어 오후 9시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를 나와 좌천동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일본측의 기록에 따르면 동교 교장인 데이비스와 동료 여교사 호킹이 "부르시오, 만세를 부르시오!"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학생들은 대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고, 서울의 3·1운동에 대해 듣던 민중들은 여기에 호응하여 학생들과 합류, 시위 민중 수백 명은 감격에 넘쳐 힘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의 시위는 밤이 늦은 11시까지 계속되었으나, 일본 군경이 대거 출동하여 여학생 전원과 주경애, 박시연 두 여교사를 검거 부산진 주재소로 연행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높은 의기는 옥중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일경들은 여학생들의 뺨을 치고 구둣발로 차는 등 만행과 횡포를 부리며 문초를 했다. 그들의 한결같은 문초는 주동자를 밝히려는 것이었지만 학생들은 “주동자는 없고 우리들이 모두 주동자이다.”라며 저항했다. 이에 일경들은 육설과 협박을 거듭하며 횡포를 부리자 참다못한 여학생 김응수가 “세 살 먹은 아이도 제 밥을 빼앗으면 돌려달라고 운다.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돌려달라고 시위하는데 무엇이 나쁘냐?”고 격렬히 항의하였다. 이에 일경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이런 년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위협을 할 정도였다.

이같이 무자비한 문초 끝에 결국 관련자들은 부산감옥에 수감되어 1919년 4월 26일 여학생들은 징역 6월을, 여교사 주경애, 박시연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언도 받았다. 이 의거에서 학생이 아닌 박연(16세)과 미곡상 박두천도 학생들과 합류하여 만세시위를 계속하다 각각 징역 6월,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일신여학교는 20일 동안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운동은 졸업식 거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주경애, 박시연 교사의 출옥한 후에야 졸업식을 거행할 정도였다.

한편 이 당시 일신여학교 시위를 함께 모의하고 참가하였다가 검거되었던 여교사 임말이와 여학생 임땅이는 그의 형부였던 형사에게 모의사실 전모를 이야기하고 그 대가로서 무사히 석방되어 학교로 등교하였다. 이에 11명의 여학생은 6개월의 고초를 겪고 출옥한 후 전교생의 도움을 받아 이들 두 배신자의 추방을 학교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전교생은 그 두 배신자를 학교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전교생이 등교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후에 10일간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궁지에 몰린 학교당국은 부득이 이 두 사람을 설득하여 자퇴시키고 이 사건을 수습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그 당시의 학생 특히, 여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국심과 투지가 어떠한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여학생은 모두가 16세 전후의 나이 어린 소녀들이었고 또 일제의 침략세력이 가장 깊이 뿌리박은 부산에서 용감히 시위항쟁을 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도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일신여학교의 항일학생운동은 당시 부산·경남 지방에서 벌어진 3·1운동의 효시로서 이후 각 지역 만세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일신여학교 출신의 여성 운동가

이러한 일신여학교의 역사적 전통은 박차정, 공덕귀, 박순천 등으로 이어져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근대적 여성지식인의 산실이자 부산지역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친일부역배로 전락하기도 했다.

우선 여성민족해방운동가의 대표적 인물인 박차정의 행적을 일신여학교 시절과 관련해 살펴보자. 박차정이 민족의식에 눈을 떠 처음으로 조직체에 참여한 것은 1924년 「동래기독교소년회」의 가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가족이 1918년 동래성결교회의 교인이었던 박차정은 1925년 장로교 계열의 동래일신여학교 고등부에 입학하여 1929년 3월에 졸업을 한다. 당시 일신여학교는 부산지역 여성교육의 산실이며 항일여성운동을 선도한 구심체였으며, 특히 당대의 동래지역에서는 항일청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라 박차정의 항일의식은 더욱 견고해져 갔다.

이러한 의식은 일신여학교의 동맹휴교 주도 뿐 아니라 교지(校誌)인 《일신(日新)》2집에 발표한 소설 〈철야(徹夜)〉, 시 〈개구리〉, 수필 〈흐르는 세월〉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자전적 단편소설 〈철야〉는 일제하 우리민족의 고난을 상징화하면서도 해방을 기필코 달성하고 말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사회고발 성격의 글이다. 그녀는 위와 같은 글로 문학적 기질을 인정받아 문단의 등단을 권유받기도 했으나 결국 민족해방을 위한 여전사의 길을 택했다. 이후 박차정은 남편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 업무에 깊이 관여하며 민족해방운동의 길로 매진했고, 이러한 그녀의 의지는 1932년 10월 남경에서 개설된 조선정치군사간부학교의 교가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또한 일신여학교 출신으로,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사회운동가였던 공덕귀는 제 2공화국 시절 짧은 영부인 생활을 지내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물러난 뒤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그녀는 환갑도 훨씬 넘은 나이에 1974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초대 인권위원장을 맡아 인권운동에 앞장섰으며, 구속자가족협의회 회장, YH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동분서주하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활발한 사회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일신여학교 출신으로 역사의 영욕을 같이 한 인물로는 박순천을 들 수 있다. 가정에서는 한 남자의 부인이며 7남매의 어머니로서 여성계에서는 대표적인 지식인 여성으로 정계에서는 치마를 두른 야당 투사로서 기억되고 있는 박순천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남긴 인물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박순천은 1898년 9월 19일 경남 동래의 기장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명련이었다.

1917년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뒤에 마산에 있던 의신여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이던 이갑성과 연결되어 마산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 일주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때부터 일경을 피해 도피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때 순천택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이 그뒤 박순천으로 세인의 입에 굳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독일 유학을 떠나 1926년 일본여자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한 그녀는 대학 3학년 재학 당시 같은 동경 유학생이던 변희용과 결혼하였다.

대학을 마치고 시집인 경북 고령군으로 돌아와서는 남편과 더불어 야학을 일으키고 12년 동안 농촌 계몽 사업에 이바지했다. 그후 일제의 황민화 운동이 노골화되면서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신사를 짓기 시작하던 1936년 박순천 일가는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이때부터 박순천은 극도의 생활고 속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1940년 지금의 중앙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가정의숙의 설립을 위하여 현해탄을 건넜다. 경성가정의숙은 이 왕가의 소유 건물이었기 때문에 동경에서 박순천은 이우공을 만나 여학교 설립의 뜻을 밝히고 그의 집을

빌리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그해 10월 10일 신입생 37명으로 여성 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경성가정의숙이 황신덕을 교장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학교가 문을 여는 바로 그때부터 박순천은 해방까지 수년을 교원 또는 부교장 때로는 서무직의 일을 맡아 보며 경성가정의숙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여성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성가정의숙에 참여하면서부터 그 목적과는 반대로 이때부터 박순천의 행적에는 중대한 변화가 생겨났다. 일제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여성을 위해 구국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아니라 이 시절부터 친일 행위에 동조하는 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명 시절 박순천의 활동은 민족적이었고 높이 평가할 만 했지만 여성 교육자로 유명해지고 나서부터의 활동은 점차 친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로부터 박순천의 행적은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제자를 정신대로 보냈다는 비판을 들을 만큼 반민족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우익정치가로서 때로는 이승만 정권에 협력하기도 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에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의해 이승만과 결별한 후, 자유당 정권과 투쟁하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해온 그녀의 공헌과 행적들이 쉽게 폄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박순천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과 근대 또는 민주주의와 반공 사이의 혼란이란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극명하게 표현한 가장 대표적 인물일 지도 모른다. 일신여학교 출신의 여성운동가 중 마지막으로 거론했던 박순천의 행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역사적 인물이 될 듯 하다.

• 홍재문(洪在文, 1897 ~ 1958)

홍재문은 경성공업전문학교(京城工業專門學校)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와 부산공립보통학교(釜山公立普通學校) 교사로 재직하였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을 뒤흔들 당시 부산진 일신여학교 항일학생운동이 일제의 군경에 의해 탄압되어, 일경에 구금된 여학생들이 감옥에서 참혹한 형벌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4학년 배수원(裴守元)과 항일의거를 모의하고 인근의 기독교인(基督教人)들과 항민(港民)들 수백명의 도움으로 거사를 결행하였다.

1919년 4월 3일 오후 2시 30분 경, 홍재문은 ‘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좌천동 거리에 세우고 수백명 군중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며 항일시위를 결행하였다. 그러나 즉시 출동한 일경에 의해 시위 군중은 강제로 해산당하였다. 그 후 홍재문은 임시정부와 연결되어 국내에서 독립자금 모금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독립자금을 모아 중국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로 보냈다. 이러한 홍재문의 활동이 일경에 탐지되어 1921년 체포되었다.

홍재문은 일경에 구금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7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홍재문은 옥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잃는 아픔도 함께 겪었다. 홍재문은 옥고를 치른 후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상해로 건너가 독립단체의 지하활동을 계속하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부산에서 정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의 항일운동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21. 부산항일학생의거 (소위 「노다이」 사건)



부산항일학생의거
터 표석

부산시 서구 구덕
운동장 앞

일제하 항일학생운동은 3·1 운동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식민지시대 민족운동의 한 축으로서 전개되었다. 특히 192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의 독서회 형식을 통한 소모임이 확산되고 유학생들을 통해 새로운 사상조류를 받아들이면서 항

일의식 또한 한층 강화되고 과학화되었다. 즉 이전까지의 다분히 정서적 반일·항일 운동이 아니라 뚜렷한 철학적 기반을 지니고 사회과학적 분석 위에서 운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3·1운동 이후 급성장한 노농운동 등의 민중 운동과 청년운동 등 부문운동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운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항일학생운동은 일본인 교사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교육조건을 개선하는 학내투쟁으로부터 민족고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문화운동, 사회모순을 직면하여 개선을 추구했던 사회정치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항일학생운동사에 있어 이렇게 축적된 역량이 폭발한 것은 두 번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광주항일학생의거이고 또다른 하나는 부산항일학생의거(소위 노다이 사건)라 할 것이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식민통치안정을 위해 일본경찰과 경찰의 보조기관인 경방단원을 크게 증원시켰다. 특히 일제의 침략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각종의 동원령도 내렸다. 즉, 1938년의 <국가총동원법>과 <육군

특별지원병령>, 1941년의 <사상범예방구금령>, 1943년에는 <해군특별지원병제도>, 나아가 1944년도부터는 <징병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일제의 전시체제 강화는 급기야 조선의 학생들로 하여금 군사교련 훈련의 강화를 낳고 1940년 11월 23일 발생한 부산항일학생의거 역시 일제의 학생들에 대한 군사집체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일제는 1940년 11월 23일 부산, 마산, 진주 인근지역 학생들을 모집하여 제2회 경남학도전력증강 국방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21일 학생들을 동군(부산이상, 부산중학교 일본인중학교, 부산일상 일본인 학교)과 서군(동래중학교, 마산중학교 일본인 학교, 진주농업학교)으로 편성하여 동군은 구포역에서 서군은 진영역에서 각각 하차하여 양군 모두 김해방면 특히 한림정에서 조우전을 벌이는 모의 전투훈련을 했다. 그러나 일제는 훈련과정과 보급품 부분에서 조선 학생들에 대해 편파적 민족차별을 함으로써 조선학생들로 하여금 이 미 불만을 품게 했다.

사실 제1회 경남학도전력증강 국방대회는 조선인 학교인 동래중학이 우승을 했다. 이에 경남전역의 일본인 학교 군사교관들은 당황하여 제2회 대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인학교를 우승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꾸몄다. 그 예로서 40년 여름의 소위 근로봉사 작업(각 학교마다 매 여름 방학 중 1주일씩 근로동원하는 것)시 어느 날 작업으로부터 늦게 숙사에 들어와 저녁 밥이 점심때의 식은 밥이었기에 학생들이 여기에 항의했다. 이에 당시 교감이었던 요시카와(吉川)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고 그날 밤에 고역을 맡게 하여 등산로를 우회 행군시켜 일본인 학생들보다 체력을 더 소모하게 했다. 그 이유는 이 훈련이 끝나서 다음날이 바로 제2회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제는 제2회 대회에서 일본인 학교가 우승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자행했다.

어쨌든 이들 동안의 야영 훈련을 마친 동군과 서군은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전력증강 국방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참가한 학교는 진주중학, 마산중학, 동래중학, 부산중학(일본인 학교), 부산제2상, 부산제1상(일본인 학교), 진주농고, 울산농고 등의 5년제 중학과 여학교로는 동래고녀, 부산향고녀, 부산고녀(일본인 학교), 삼도고녀(일본인 학교) 등이었으며 3년제 을중 학교는 김해농고, 밀양농잠, 마산상업, 통영수고, 입정상업, 초량상업 등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대회과정은 물론이고 대회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조선학생에 대해 부당한 처우와 판정을 내렸다. 전년도 제1회 대회에서 우승한 동래중학교가 당연히 우승기를 가지고 입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교인 부산중학을 맨 먼저 입장시키고 그 다음 마산중학, 세 번째로 동래중학을 입장시켰다. 이때부터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일단 본 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제의 동래중학에 대한 편파적 경기운영은 대회 동안 계속되었다. 경기가 시작하자 달리기 등의 개인 종목을 먼저 하고 단체 경기로 옮겨갔다. 그런데 작년도 우승팀이었던 동래 중학교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 선두를 달리기 시작하자, 이에 당황한 일본인 심판관은 노골적으로 동래중학이 1등만 하면 반칙이라고 때를 쓰기 시작했다. 턱걸이에서 동래중학 선수 한 학생이 20여 회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딴 학교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구실 아래 힘이 빠진 동래중 선수에게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재 경기에 임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또 넓이뛰기 경기에서는 제일 많이 뛰는 동래중 선수로 하여금 줄을 밟았다고 하여 실격시키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동래중의 성적을 불리하게 했다.

동래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경기에 임하여 담가운반 경기에서는 동래중이 1등을, 부산중이 3등을 했고 중량물 들기에서는 진주농고 선수가 105번을 들어 1등을, 동래중의 박근준 선수는 95번을 들어 2등을 차지했다. 이밖에 씨름경기에서는 부산 제1상 주장과 동래중 주장 표재철(유도초단)이 대결하여 2등을 차지했다. 이 같은 승전에 따라 동래중과 부산중과의 점수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다. 여기에 당황한 일본인 심판관은 더욱 악랄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곧 행군경주에서 지방 학교인 2조의 시간을 잘못 재었다고 하면서 1조부터 다시 하도록 했다. 그 때 동래중 선수들은 재 시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영장 쪽에 숨어 재 시합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동래중 배속장교의 열화같은 독촉에 하는 수 없이 재 시합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경기 도중 동래중 선수가 넘어짐으로서 결국 부산중과 동래중과의 점수 차는 줄어들게 되었다. 심판관들은 여기에 더욱 고무되어 노골적 부정을 감행했다. 아예 오후에는 점수판에 점수도 기입하지 않았으며 각 학교의 총점수도 발표하지 않고 단지 범범만 일삼으면서 얼버무렸다. 그렇지만 동래중 학생들은 실제 점수를 계산했다. ‘줄당기기’에서는 동래중이 이겼는데도 패했다고 발표하여 동래중 학생을 흥분시켰다. 일본인 심판관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마다 동래중 영어 교사 김영근은 본부석에 달려가 항의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무슨 종목이든 동래중이 이기고 부산중이 지면 트집을 잡아 재 시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복장이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점수를 감점하는 등 대회 규칙에도 없는 야비한 수단을 예사로 사용했다.

그 한 예로 동래중의 총 점수 끝이 0.5로 끝났는데 당시 대회 경기 종목 점수는 모두 1점, 3점, 5점, 10점, 20점등으로 끝 점수가 0.5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중의

점수가 이렇게 된 데는 복장이 나쁘다. 단추가 안 잠겼다. 각반이 풀렸다는 등 트집을 잡아 억지로 일본인 심판관이 점수를 깎아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따라서 마지막 종목 1개 분대 장거리 구보행군에서 동래중이 우승하거나 만일에 실격하더라도 총점에서 0.5점 차로 부산중을 제압하고 당당히 우승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만의 채점집계가 아니라 참가한 도내 전교사들은 물론 전학생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장거리 구보 최종경기에서 동래중이 당당히 1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모의에 의해 심판관들은 심판장 노다이의 지령에 따라 복장검사에 있어 심판관들이 자기 손으로 단추 혹은 각반을 건드려 풀어놓는 등 형용할 수 없는 야비한 수단으로 트집을 잡고 복장미비란 구실을 달아 실격을 선언하고 2위였던 당시 일본인 학교 부산중을 1위라고 선언했다. 여기에 동래중 학생들은 또다시 항의했으나 역시 일축 당했다.

이때부터 동래중학생들은 분통을 참지 못해 우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실격되더라도 총점에서 동래중의 우승이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심판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폐회식이 거행되기 직전 총점결과가 부산중이 1위란 말이 들리게 되자 김영근 교사로 하여금 심판장에게 집계의 착오를 지적하고 동래중학의 우승을 인정하여야만 된다고 항의했다. 여기에 노다이는 “심판의 판정은 신성하고 절대 불가하므로 판정을 따르라” 고 하며 김 교사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에 참고 참던 울분이 폭발하여 함성을 울리며 반항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폐회식에 들어가 식순에 따라 노다이가 부산중학 우승을 선언하려고 했다. 그 부당함을 항의할 도리는 없었던 것이다. 폐회식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가운데 진행되어 일본국가를 합창할 때였다. 일제에 대한 평소에 숨어 있던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장내를 흐르는 일본국가에 맞추어 동래중 학생들은 욱설이 된 가사로서 응수했다. 흔히 철없는 아

이들이 하는 욕설이 일본국가의 곡조에 어찌면 그렇게 잘 어울렸는지 모른다. 분함과 초조감과 슬픔으로 교차된 억제할 수 없는 정열의 화염은 참고 또 참아온 민족의 울부짓음이 되어 저물어 가는 구덕산 기슭은 울음바다로 바꾸어갔다. 이때부터 같은 피를 이은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도 동족의 이러한 억울함을 방관하지 않고 동래중 학생들과 밀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폐회선언이 되자 동래중학생들과 부산제2상생들은 “일본놈을 때려라! 죽여라! 노다이를 죽여라!” 등 폭언과 함께 소지했던 총기로써 일본인 학생은 물론 일본인 교사들을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여 어두운 공설운동장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경관들이 칼을 빼들고 제지하니 닥치는 대로 칼을 뺏어 부셔 버리고 치안이 뇌사상태가 되었다. 한편 동래중의 한패는 재빨리 운동장 입구를 막고 주변 노다이를 찾았으나 운동장 뒷담을 뛰어 넘어 도망했다.

흥분한 동래중학생들은 심판을 맡았던 일본인 배속 장교를 찾아가서 부정을 항의하고 일본말로 욕설을 퍼부었다. 카요 일본인 교사가 노다이를 두둔하다가 폭행을 당했고 사태가 점점 험악해졌다. 이 때 부산제2상이 합류하여 모오리(毛利)라는 제2상 교사가 두들겨 맞고 동래중학생에게 밟히었다. 이에 3학년 김재한, 강우중, 4학년 김영진 등이 검거되었다. 사태가 점점 심상치 않은 것을 예감한 동래중 김영근과 허현 교사는 학생들을 집합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동래중 일본인 교사들은 모두 잠적했다. 또 타교의 일본인 교사들은 자기 학교 학생들이 동래중의 움직임에 합류할까 두려워 학생들을 데리고 빠져나가느라고 바쁜 걸음을 쳤다. 동래중학생들도 간신히 줄을 지어 겨우 운동장 문을 나가니 이때가 오후 7시 무렵이었다. 동래중학생들은 운동장 밖에 나가 정렬하여 총을 멘 학생을 앞세우고 행진해 나갔다.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김영근, 허현 교사만이 목이 메어지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학생들을 인솔했다. 부산제2상도 행동을 같이 했다. 보수동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민요와 황성옛터 등을 불렀다. 보수동을 지나면서 일본인 집이 많아지자 항일구호는 더욱 고조되었다. 마침 이 날은 일본인의 축제일이라서 집집마다 등불을 밝게 켜 놓은 것을 부취 버리기도 하고 “일본인은 물러가라!” 고 외치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집안으로 도망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때 학생들의 행렬에 동행하고 있던 김영근, 허현 두 교사는 ‘부산제2상과 줄을 분리하라고 외쳤으나’ 학생들은 막무가내였다.

한편 운동장 폐회식 때부터 형사와 헌병은 학생들의 뒤를 따르면서 행동을 감시했다. 보수동 네거리에 와서 부산제2상은 대청동 쪽으로 내려가고 동래중은 부평동 쪽으로 내려갔다. 남선전기(현재의 한국전력 부산지사) 아래 쪽 네거리에서 학생들을 일단 정지시키고 서부 부산 지방의 학생들을 귀가시키던 김영근은 “지금까지는 제군들의 행동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지마는 이제부터는 제군들이 하는 행동은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여기서 서부 부산지역학생은 귀가하고 동래에 갈 학생은 전차를 타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서부 부산지역학생들 중에 하급생은 돌아가고 충을 가지고 동래에 갈 일부가 전차를 타기 위해 남아 있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전차를 타기 어렵다고 생각한 하급생들과 4, 5학년의 대부분 학생들은 부평동을 지나 현재의 광복동 거리로 나와 창선동 파출소 부근에서 동래행 전차를 기다렸다. 동행하던 김영근은 빨리 동래에 돌아 갈 것을 종용했다. 이때 학생들 속에서 “노다이 집으로 가자” 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때 부산제2상 학생은 대청동으로 내려갔으므로 보이지 않고 전차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또 이동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중앙동을 지나 옛 부산일보사 뒤까지 왔다.

부산제2상 학생들은 먼저 대청동을 내려와서 동래중생과 합류

했다. 이때 총을 가진 학생들과 일부 하급생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서 동래 가는 전차를 탔고, 주력부대인 4, 5학년 및 영주동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영주동 쪽으로 가는 산길을 걸어갔다. 이때 추유복이 구 부산일보사 뒤 다와라(俵)재목점 모퉁이에서 영주동 길을 인도해 주었다. 김영근, 허현 교사는 길을 막고 있었고 남장수는 붙들려 곧 바로 집으로 갔다. 길을 막던 두 교사의 마음은 제자들이 다칠 것을 염려한 스승으로서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어쨌든 모여든 200여 명의 학생들은 영주터널 오른쪽에 위치한 노다이 집에 8시경에 도착하여 돌 세례를 퍼부었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이 돌아갈 10시 무렵 부산헌병대는 각 경찰서에 긴급지령을 내려 귀가하는 학생들을 그날 밤 대거 연행했다. 당일 귀가 도중에 검거된 학생들은 지금의 중부산서(당시 남부산서), 동부산서(당시 북부산서), 영도서 등 각 서의 유치장은 물론 심지어 경남도청의 무덕전까지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튿날에는 양 교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학업은 고사하고 학교는 취조장으로 변했고 매일 수십 명씩 양 교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연행된 학생들은 손가락에 막대끼우기, 물먹이기, 코에 고추가루 넣기, 비행기 태우기 등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 당시 일경에 검거된 학생 수는 약 200명에 달하며 주모자로 지목된 양 교생 15명은 송청, 투옥되었다. 이 당시 검거된 학생으로는 동래중의 김인규, 김영조, 김명수, 이달희, , 이도운, 이장원, 정두열, 추유복, 김재한 등 9명과 부산 제2상의 홍병희, 이병도, 이인희, 김선갑, 이세기, 김종배 등 6명이었는데, 당시 법률이 18세를 형사적 성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중 김재한, 이인희, 김종배 등 3명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감형되었다. 징역 8~10월형을 받은 12명은 대구형무소로 압송되었는데 모두 대구복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으면서 제2심을 받던 중 추유복은 유복자라는 처지가 참작되어 무죄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11명 모두는 2심에서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김인규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법정투쟁을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김인규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결국 11인 모두는 8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들 중 김선갑과 김명수 두 사람은 옥중생활의 후유증으로 출옥 후 2주일만에 순국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일제의 부산항일학생의거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 교는 일제관헌의 압력에 못이겨 자체적인 학생처벌을 감행했는데 퇴학 21명, 정학 44명, 견책 10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부산항일학생의거는 표면적으로는 일제의 전시체제하 군사집체 훈련과정인 제2회 경남학도전력증강 국방대회의 부정판결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거의 근저에는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항일의식과 그것을 조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운동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는 이 사건의 영향 하에 1943년과 44년 조선독립당과 순국당 결성, 추진 운동이 있었음을 돌이켜 보면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일제 말기에 전개된 최후의 대규모 학생투쟁으로 발생당시 일제의 보도통제로 말미암아 타지방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만약 보도만 될 수 있었다라면 광주학생운동 보다도 더한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 김선갑(金銑甲, 1921 ~ 1942)

김선갑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부산 제 2상업학교 4학년 재학시 부산항일학생의거에 주동자 15명 가운데 한사람으로, 당시 학생의거를 이끌다 일경에 체포되어 1941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하였다. 그러

나 김선갑은 감옥에서 당한 악형의 여독으로 감옥에서 나온 지 4개월만에 21세의 약관으로 순국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김선갑의 실천하는 항일운동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경성대학교 교수 강대민

▣ 종교·사회 활동

1. 경허(鏡虛)
2. 동산(東山)
3. 매견시
(Mackenzie Man of Mission)
4. 소재건
(Aloysius Schwartz)
5. 이종률(李鍾律)
6. 장기려(張起呂)
7. 한상동(韓尙東)

1. 경 허(鏡虛)

한국이 낳은 근대의 고승 가운데 경허(1849~1912)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경허가 생존했던 당시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민족적 시련이 밀어 닥치던 격동기인 동시에 과도기적 시대였다. 경허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승려에게 있어 출생지역이나 출가 본사가 어디냐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원래 승가의 가풍이란 것이 특별한 정주처(定住處)가 없



鏡虛堂 僧牛大輝師(1849~1912) 尊影

이 바람인 양 구름인 양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발길이 닿는 절에 주석하면서 인연있는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고 불사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경허가 부산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경허의 나이 50세가 되던 1898년부터이다. 경허는 시봉 만공(滿空)스님과 함께 영남 최초의 선원을 범어사에 개설하고 영남지방의 제방 납자를 모아 지도하며 결사운동(結社運動)을 전개하였다. 경허는 범어사 선원의 법주(法主)로 있으면서 대중들에게 수행과 수도에 눈을 뜨게 하는 한편 수선자(修禪者)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선문촬요(禪門撮要)』를 편찬하였다. 이에 따라 선풍이 크게 진작되면서 신라시대 의상(義湘)대사가 창건한 이대 화엄전교(華嚴傳敎) 십찰(十刹)의 하나였던 범어사가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으로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어떻소

경허는 19세기 중엽 전주에 사는 송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

났다. 경허는 호이며 출가 전 어렸을 적 이름은 동욱(東旭)이고 휘는 성우(惺牛)이다.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울지를 앓아 마을사람들은 그가 커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허의 나이 9세때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를 따라 시흥 청계사에 입산하여 계허(桂虛)대사의 법하에서 출가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청계사에서 어린 경허는 물김고 나무하고 밥짓는 일로 하루 해가 모자랄 정도로 고된 행자생활을 했다. 그의 나이 14세 때 박처사라는 선비가 청계사에 와서 한 여름을 지내게 되었는데 경허는 선비가 책 읽는 소리만 듣고도 그 뜻을 척척 풀어나가서 선비를 놀라게 하였다. 그 이후 경허는 매일 5·6장의 글을 능히 외워 재동(才童)으로서 칭송이 자자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룡산 동학사로 옮겨 만화강백(萬化講伯) 밑에서 처음으로 불경(佛經)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공부는 남이 한시간 하면 열시간을 계속하고, 남이 하루를 하면 열흘 노력하는 매진으로 불경은 물론 유전(儒典), 노장(老莊)까지 두루 섭렵했다. 경허는 23세때 동학사 강원 강사로 추대되었다. 천부의 소질을 가진 그의 강의는 모든 학인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의 이름을 듣고 운집한 수많은 학인들을 7·8년동안 가르쳤다.

경허의 나이 31세 되던 여름 옛 은사를 만나려고 상경하던 도중 천안 부근에서 모진 풍우를 만나 하룻밤 유숙할 민가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하고 가는 곳마다 문을 꼭꼭 닫아걸고 문전박대를 하였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보니 마침 그 때 전염성이 강한 콜레라가 만연해 사람들은 그 괴질에 감염될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었다. 경허는 남의 집 처마밑에서 밤새 떨며 들것에 실려나가는 주검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천하의 대강백으로서는 생각도 못했던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뒤 경허는 ‘삶과 죽음’의 근본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삶과 죽음이 일여(一如)하다는 구절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학인들

에게는 자신있게 가르쳐 주었으나 죽음을 눈 앞에 둔 순간 그 구절이 아무 힘도 없음을 알았다. 그는 동학사에 되돌아와 학인들을 해산하고 조사당(祖師堂) 문을 걸어 잠근 뒤 목숨을 건 용맹정진을 시작하였다. 창문 밑으로는 한 주먹의 밥이 들어 올만 큼만 구멍을 뚫어놓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목 밑에는 송곳을 꽂은 널판자를 대어놓은 채 생사(生死) 의문을 참구(參究)하기 시작했다. 잠이 와서 잠깐 졸았다가 칼이나 송곳 끝에 찢리기를 수십번씩 거듭하며 불퇴전(不退轉)의 정진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사중 스님으로부터 한 과객이 범담 가운데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어땡소’라고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 속에 얽혀있던 의단(疑團)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경허는 활연대오했다. 방문을 박차고 나와 손뼉치며 크게 웃었다. 눈앞을 가리고 있던 무명(無明)과 번뇌의 구름이 씻은 듯이 걷히면서 본래의 성품을 확연히 깨닫게 된 것이다.

이듬해 경허는 서산 천장사로 자리를 옮겨 보임(保任) 공부에 열중하였다. 보임 중 경허는 잠을 자기 위하여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이 없었다. ‘숨쉬는 등신불(等身佛)’처럼 앉아서 몇 달이 가도 한마디 말도 없고 몸도 씻지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누더기 옷은 땀에 찌들고 머리에는 싹락눈이 내린 것처럼 이와 서캐가 들끓었다. 그럼에도 경허는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았다. 즐겨 읽던 책조차도 모두 묶어 치워 버리고 고된 정진에만 몰두하였다. 3년에 걸친 보임을 끝낸 경허는 다음과 같이 오도가(悟道歌)를 읊었다.

忽聞人於無鼻孔
頓覺三千是我家
六月鷲巖山下路
野人無事太平歌

홀연히 고삐 쥔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으니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이네
6월 연암산 아랫 길에
야인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로부터 20여년간 경허는 천장사와 수덕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오가며 선납(禪納)을 지도하였다. 당시 불교교단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시작된 억불정책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다. 사원은 파괴하고 승려들은 앞을 다투어 산문을 등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수도량(修道場)의 개설이나 참되게 수행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경허가 주관하는 선 수행도량이 여기 저기 창설되면서 염불 주력(呪力) 위주였던 승려들의 고식적 수행방편이 크게 바뀌어 선풍이 중흥되었다. 한편 경허는 금강산 유점사·석왕사 등에 머물면서 후학을 지도하기도 하고 석왕사 오백라한(五百羅漢) 개금불사와 해인사 대장경 불사에 증사로 참여, 법문을 하였다. 경허의 선맥을 이어간 법제자 만공(滿空), 한암(漢巖), 혜월(慧月) 등은 이 무렵에 경허의 가르침을 받았다.

범어사 선원 개설

경허가 남행하여 범어사에 왔을 때는 이미 선사로서 명성이 널리 알려진 후였다. 범어사는 조선시대 왜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최전선 기지였던 금정산성에 위치한 관계로 전통적으로 대왜(對倭) 방비의 책무를 지고 있던 사찰이었다. 유사시엔 군막을 치고 승병을 양성하는 등 범어사가 병참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범어사는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먼저 왜군에게 함락 당한 동래부중에 있었고 동래성의 함락과 함께 밀어닥친 왜병들의 방화와 약탈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다. 그 결과 참다운 수행방법에 의한 선풍은 땅에 떨어지고 기복적(祈福的) 형태의 불교가 겨우 명맥을 잇고 있었다.

1898년 경허는 영남 최초로 범어사에 선원을 개설하고 “반야(般若) 위에 헛된 공부가 없다고 하였으니 만일 성불의 원이 있는 자는 마땅히 깊은 마음으로 큰 원을 발할 진저”라고 범어를 했다.

이어 1902년에는 참선하는 사람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선문촬요(禪門撮要)』를 편찬했다. 『선문촬요』에는 제1장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제21장 「오종가풍(五宗家風)」에 이르기까지 불교전반에 걸쳐 선수행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선사의 어록들을 총망라, 수록하였다. 같은 해 범어사 금



금어선원

영남에서 첫 선원을 개설하여 조실로 주석하던 곳

강암과 동래구 마하사 나한전 개분불사(改粉佛事)에 증명법사로 참석했다. 또한 계명암(鷄鳴庵) 창건과 함께 수선사를 개설하여 「방함청규문(芳岾淸規文)」을 발표하였다. 경허는 이 청규문에서 ‘선법(禪法)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방법’임을 제시하고 화두를 잡아 공부할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 선객과 제자들을 지도하는 여가에 우리말로 된 「중노릇 하는 법」과 「법문곡」 등을 지은 것을 비롯해서 「상당법어(上堂法語)」와 170여편의 「시송(詩頌)」을 남겼다. 이어 그는 수덕사, 송광사, 화엄사 등의 선방을 오가며 후학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행과 일화를 남겼다.

근대의 고승 가운데 경허만큼 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은 드물 것이다.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로서 광녀(狂女)와 동숙한 얘기, 물동이를 이고가는 처녀에게 입맞춤한 얘기, 소장했던 화엄경전을 뜯어 도배한 얘기 등 「경허법어」에 수록된 일화만도 38편이나 된다.

범어사에 주석할 때 일로서 두주(斗酒)를 마다 앓던 경허의 호탕함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날 경산(擎山)이란 걸승

과 함께 범어사에서 부산진을 거쳐 해운대를 돌아오게 되었다. 경산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로서 경허가 곡차를 즐긴다는 얘기를 여러사람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주량이 대체 얼마나 큰가 시험해 볼 요량으로 스님과의 동행을 자청했다. 그리고는 해운대를 돌아오는 길 곳곳에 자리잡은 주점이 나타날 때마다 경허스님을 안내해 곡차를 대접하였다. 경허는 나중엔 아예 곡차잔을 아주 큰 동이로 가져오라고 하여 단숨에 들이켰다. 경산은 경허가 오다가다 가끔씩 한 잔씩 권하는 것을 마지못하여 받아 마셨는데 그만 대취해 자기가 먼저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경허는 인사불성이 된 동행자를 번쩍 치켜들고 단숨에 범어사 금강암까지 데려다 놓았다. 그로부터 범어사 일대에 그 소문이 큰 화제가 되었다.

연제구 마하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경허가 마하사 개분불사에 증사로 초청받아 밤늦게 산길을 가는데 칠혹같은 어둠이 발걸음을 더디게 하였다. 전화나 다른 통신 수단이 없어 도착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았음에도 사찰로 가는 중간 지점 쯤에서 등불을 들고 마중 나온 그 절 대중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그 곳 주지가 잠깐 졸았는데 어떤 노승이 나타나서 “큰 스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고 하기에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더라고 했다. 주지는 필시 나한(羅漢)의 현몽이라고 여기고 대중들에게 알린 뒤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었다.

경허는 오대산 월정사 「대방광불화엄경」 법회에 참석, 범문한데 이어 안변 석왕사에서 오백나한 개금불사 증명을 끝으로 절에서 홀연히 모습을 감추어 버리고 만다. 그의 나이 56세때 유랑행각에 나선 경허는 북녘 땅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선비 차림을 한 채 강계(江界), 산수(山水), 갑산(甲山) 등 함북 일대를 떠돌며 훈장 노릇을 하는가 하면 선비와 처사들과 어울려 시정주화(詩情酒話)에 젖기도 하였다. 1912년 봄, 경허는 갑산 응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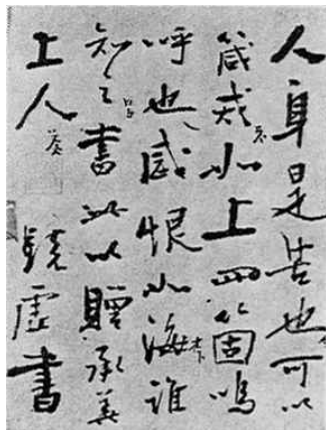
(熊耳坊) 도하동에서 64세를 일기로 열반에 든다. 이듬해 7월 혜월과 만공 두 제자가 스승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곳 동네 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허의 「임종계」를 받아온다.

心月孤圓 마음 달 홀로 둥글어
 光吞萬像 그 빛 만상을 삼켰구나.
 光境俱亡 빛과 경계 다 공하였거늘
 復是何物 다시 이 무슨 물건인고?

불교사에 끼친 영향

‘한국의 달마’라고 일컬어지는 경허, 그는 한국 근대 참선 수행의 중흥조, 더 나아가 근대불교 중흥조로 평가된다. 조선조 5백년 동안 산중에 움츠려 지냈던 불교를 때로는 법상(法床)에서, 때로는 시정의 마을에서, 몸으로 또는 행동으로 선을 고양, 불교 대중화, 선의 일상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자들과의 문답, 대화, 어느 한가지도 법담이 아닌 것이 없었다. 간혹 기이한 행동,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만행 등이 많았음에도 그것은 선을 위한 방편, 불교가 대중들의 피부 가까이 다가 가게하는 계기와 토양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불교사에 끼친 또 하나의 영향은 선풍의 진작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전통적 선수행은 화두를 참구(參究)하는 간화선(看話禪)이다. 간화선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고려의 지눌스님이나 보우, 나옹선사에 이어졌으며 조선시대 서산대사 등에까지 전해져 온



경허선사의 친필유묵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 경허 당시에는 선풍이 거의 끊어져서 선은 구두로만 전할 뿐 실참참구(實參參究)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경허는 범어사설선사계의서(梵魚寺設禪社契誼序), 계명암수선사방함청규문(鷄鳴庵修禪社芳啣淸規文), 정혜계사규례(定慧稷社規例) 등을 통해 정혜(定慧)결사의 취지를 밝혔다. 곧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승려 스스로가 얽매임에서 벗어나야만 남의 결박을 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이는 승과 속, 남녀노소, 현우(賢愚), 귀천(貴賤)을 묻지 않을 것이며 널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도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경허는 참선만을 주장하는 편협한 선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부처님이 말씀한 선(禪)과 교(敎)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놓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선과 교는 마치 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때 궁극적 경지의 증득(證得)은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선과 교의 겸수(兼修)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전통이기도 한데 경허는 그 점을 새로이 환기시키고 있다. 법을 이은 제자는 앞서 언급한 만공과 혜월, 한암 이외에도 수월(水月), 회광(晦光), 용성(龍城), 성월(惺月) 등 많은 선장(禪匠)이 배출되어 그의 문하들이 오늘날에도 한국불교계에 중심을 이루어 큰 맥을 잇고 있다. ■ 희곡작가·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숙현

2. 동 산(東 山)님

최근세 혼란기의 불교계를 이끌던 큰 스님으로써 효봉(曉峰), 청담(靑潭) 스님 등과 함께 동산(1890~1965) 스님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화불사(淨化佛事) 당시 조계종의 중정이었으며 뛰어난 지도력과 당대의 선지식(善知識)으로 명망을 드날렸다.

동산은 1890년에 충북 단양읍 상방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하성창(河性昌)이고 아명(兒名)은 봉규였다. 7세에 단양읍 향숙에 들어가 13세 때까지 한학(漢學)을 익혔다. 15세에 이르러 사서삼경 등을 모두 배우고 향리의 익명보통학교(益明普通學校)에 입학하여 이른 바 신학문에 접하게 되었다. 익명보통학교에서 동산을 가르친 선생님은 한글 보급에 평생을 바친 주시경(周時經)이었다. 주시경은 제자들에게 한글을 열심히 가르치는 한편 독립운동에도 헌신한 인물이다. 더욱이 서구의 신학문에도 조예가 깊어서 동산이 신사조(新思潮)에 눈을 뜨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서울의 중동학교(中東學校)를 졸업한 동산은 의학을 전공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미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 노골화하던 당시 한국의 지성을 자처하는 젊은이들로서는 가장 인기있는 과목이 법과(法科), 의과(醫科) 등이었다.



東山大師 眞影

출가와 수행

23세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동산은 의학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었다. 흥사단의 국어연구회에 나가기도 하고,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대각사(大覺寺)에 나가 용성(龍城)선사로부터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의전에 다니는 동안 동산은 언론인이며 서예가인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의 집에 머물렀는데 위창은 동산의 친고모부이자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이기도 했다. 위창선생과 용성선사는 1864년[甲子生] 동갑으로 자주 만나 국사를 걱정하며 동지의 정을 두텁게 한 사이였다. 동산이 대각사를 찾게 된 것도 위창의 영향이 컸다. 용성 선사는 일제(日帝)가 민족불교를 말살하고 일본식 불교를 이 땅에 심고자 획책할 때를 대비해 일찌감치 대각사를 창건했던 것이다. 과연 대각사가 창건되고 얼마 안되어 일제는 7개조로 된 「조선사찰령(朝鮮寺刹令)」을 반포, '31본산의 주지는 조선총독에서, 그 외의 사찰주지는 지방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용성 선사는 동산을 처음 만나자 “인간의 신병(身病)은 의술로 어느 정도 치료한다지만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다스리겠소?”하고 물었다. 이 물음에 동산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자주 대각사를 찾아 용성 선사로부터 “불교는 만법(萬法)의 근원이며 우주의 근본으로서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종교”라는 설법을 들었다. 불법에서 인생에 대한 의문을 하나씩 둘씩 풀어가면서 동산은 출가를 결심하고 1912년 범어사 금어선원(金魚禪院)에서 수계하니 범명은 혜일(慧日)이며 범호는 동산이었다. 이 때부터 범어사 강원에서 「능엄경」을 배운 것을 비롯하여 스승인 용성 선사에게는 「전등록(傳燈錄)」 「염송(拈頌)」 「법망경」 등을 수학하였다. 평남 맹산군의 우두암(牛頭庵)에 안거중이던 한암(漢巖)선사로부터는 「기신론(起信論)」과 「금강경」, 「원각경」, 「사교(四教)」를 배웠다. 삼장(三藏)을 두루 수학한 동산은 참선 공부를 위해 걸망 하나를 메고 운수객이 되어 전국의 제방선원을 돌며 3년간의 용맹정진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동산은 서울로 올라왔다. 용성 선사와 만해(萬海) 한용운 선사가 불교대표로 33인에 참가, 옥고를 치르게 되자 동산은 낮에는 용성 선사의 옥바라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밤에는 서울 도봉산 망월사에 올라가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정진하였다. 만해 선사의 옥바라지를 맡았던 도반(道伴) 춘성(春城;1891~1977) 수좌가 곁에서 동산의 건강을 염려하며 밤에는 좀 쉬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동산은 “우리 스님은 감옥에서 고생하시는데 내 어찌 편한 잠을 잘 수 있겠소?”하며 좌선 자세를 풀지 않았다. 3년동안 용성 선사의 옥바라지를 끝낸 동산은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 속리산 복천암, 태백산 각화사 등을 찾아다니며 정진하였다. 전국의 선원을 돌며 한철씩 정진하다가 1924년 4월부터는 김천 직지사에서 3년 결사(結社)를 시작하였다. 결사란 불도(佛道)수행의 큰 효과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수행하는데 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의식주(衣食住)를 특별히 제한하는 수행이다. 직지사에서 3년 결사를 마치고 1927년 부산 범어사 선원으로 돌아와 여름 안거에 들어갔다. 동산은 금어선원 동쪽에 있는 대나무 숲을 좋아하여 방선(放禪) 시간이면 자주 그곳을 거닐었다. 그 날도 대숲을 거니는데 바람에 부딪히는 댓잎소리가 유난히 청아했다. 그 순간 가슴 속의 어둠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수 천근(千斤)의 무게로 짓누르던 의심의 무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의사의 꿈을 버리고 출세간(出世間)의 장부로서 만중생(萬衆生)들을 건지겠다는 원력을 세워 참구한 지 15년만에 드디어 활연 대오한 것이다. 다음 계송은 그때의 소식(消息)을 표현한 내용이다.

畫來畫去幾多年 그리고 그린 것이 그 몇 해던가
 筆頭落處活貓兒 붓끝이 닿는 곳에 살아있는 고양이로다
 盡日窓前滿面睡 하루종일 창 앞에서 늘어지게 자고

夜來依舊捉老鼠 밤이 되면 예전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

이후 3년 동안 고된 보임공부를 마친 동산은 1930년 11월 드디어 용성 선사로부터 법인(法印)을 전수 받았다. 동산은 안으로 조실(祖室)로서 경향(京鄕) 각지의 납자들을 지도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1937년에는 서울 선학원(禪學院)에서 열렸던 전국선승유교법회(全國禪僧遺教法會)에 참석하여 불교의 앞날을 염려하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불교 정화운동(淨化運動)과 동산

근대 한국불교의 흐름에 있어 특기할 만한 일 가운데 하나로서 「정화운동」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직후 일본식의 불교를 신봉하도록 강요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사찰령」의 반포로 본사(本寺) 중심제의 불교운영이 이루어지게 됨과 동시에 그 주지직은 총독부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였다. 일제는 식민화 정책을 내세워 사찰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눈독을 들였다. 먼저 땅을 빼앗기 위해 사찰에 거주하던 승려들을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이와같은 외부적 모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승려의 대처(帶妻)제도이다. 이들 대처승 가운데 다수는 승려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뢰배의 집단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민족불교의 독자성을 말살하려는 일제 식민정책의 비호 아래 대처승들은 사원의 운영을 장악하고 교단의 종권까지 넘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뜻있는 비구승들은 최후의 보위책으로서 1926년 12월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朝鮮佛教禪理參究院)」, 곧 현재의 선학원을 설립하였다. 이곳은 비구들의 수행처였고 또한 이곳을 근거로 하여 종풍(宗風)의 증흥을 도모하게 되었다. 1941년 선학원에서 당대의 원로 대덕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구승대회」를 열고 불타의 선지(禪旨) 규명과 정법 수

호를 위해 승풍의 정화, 대처승의 비리 척결을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법상에 등단한 동산은 일제의 강압으로 인한 잘못된 불교를 바로잡고 조사(祖師)의 종풍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역설하였

선학원대중 80여명이 조계사로 향하는 모습
(왼쪽부터 청담스님, 효봉스님, 동산스님)

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종단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오히려 비구승대회가 비법임을 주장하며 선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구승 세력을 제거하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로 인해 일부 승려들은 산속으로 은신하거나 재가신도로 되돌아가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정쟁과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와 같은 정법수호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보다는 불교는 오히려 싸움만 하는 종교 정도로 생각하고 수수방관하는게 대부분이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드디어 해방을 맞았으나 불교 종단의 암운은 가시지 않았다. 각지의 뜻있는 승려들은 정법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절을 찾아 모여들었지만 해방 초기의 혼란을 틈탄 종권 다툼은 끊임 새가 없었다. 전국의 사찰에서는 비구니 대처니 해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절을 뺏고 뺏기는 싸움은 급기야 유혈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에는 피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범어사에도 피난 온 전국의 수행승들이 몰려 들어 금어선원은 결계 해제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당시 종무소를 관장하고 있던 대처승측 원주는 사중전답(寺中田畓)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고작 20명분을 선원에 대주고 있었으나 금어선원에는 1백여명의 납자가 운집했다. 동산은 평소에도 후학들을 사랑해 참선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면 누구라도 환영했다. 그래서 동래군청에서

배급한 국수와 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였지만 동산은 “오는 자 막지 말고 가는 자 붙들지 마라”며 원주의 불평을 무마했다. 비록 전쟁 중에 모인 대중이었지만 회하(會下)에 운집한 남자들로 인하여 범어사 금어선원은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재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진 수행 열기가 높았다. 1952년 6월6일 현충일에 동산을 범주로 전국군경합동위령제(全國軍警合同慰靈祭)가 범어사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의 기묘한 첫 만남은 뒷날 정화불사 추진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다. 합동위령제 참석 차 유엔 장성을 대동했던 이 대통령은 대웅전 단상의 삼존불(三尊佛)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석가모니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중이었다. 법당에 들어오다 이 모습을 본 동산은 대통령을 향해 불호령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부처님께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요?” 이에 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재빨리 모자를 벗고 합장하며 삼배를 올렸다. 그러자 주한 사절들도 모두 함께 따라서 참배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 대통령은 백성욱(白性郁) 전 내무 장관을 보내 국무총리가 되어 국사를 도와 달라고 세 번이나 요청을 했다. 그러나 동산은 “불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흥왕(興旺)할 수 있다”며 수도승들이 국가를 위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부탁했다.

1954년 8월 동산과 효봉(曉峰) 등 64명이 선학원에 모여 제1차 전국 비구승대회를 열고 불교정화방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9월에는 제1차 불교중앙총회를 개최하고 동산 등 300명이 단식(斷食)기도에 돌입하였다. 11월에는 새로운 종헌(宗憲) 아래 종정에 동산, 총무원 도총섭(都摠攝)에 청담(靑潭)이 각각 선출되었다. 그 후에도 술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55년 제5차 「불교정화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신종단 구성에 관한 제문제가 가결되었다. 이듬해 동산은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도대회에 참가했다. 효봉, 청담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하

여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의 불교학계에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연장대지는 일본 불교 전파를 위한 교량 정도로만 알려졌으나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참모습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62년 동산은 중정 특별조치를 통해 일부 정화반대자들에 대한 관용과 구제의 문을 열어 다시 종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른바 「통일종단」을 형성하였다. 동산을 비롯한 효봉, 청담 등의 법력과 성실성 있는 설득으로 50여년을 이끌어온 종단의 분규가 일단락되고 정법종단의 대업을 완수하게 된 것이다.



1956년 인도 순례 당시 케컬타시 마하보디 寺院을 참배하는 모습

1956년 인도 순례 당시 케컬타시 마하보디 寺院을 참배하는 모습

동산의 사상과 업적

동산의 사상과 업적은 대략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엄격한 수도자적 자세다. 동산은 계율을 비구의 생명으로 여겼다. 선(禪)과 교(敎)를 겸수함을 수행의 지표로 삼았으며 또 납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스님은 당시 혼란 속에서 파계(破戒)와 무애(無碍)가 혼동되는 현실을 몹시 우려하였다. 그래서 술선하여 수범을 보이고 후학들에게도 언제나 계행(戒行)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둘째는 보살행의 실천이다. 동산은 피나는 정진과 평등무차(平等無遮) 정신으로 자비행과 이타행을 실천하였다. 법(法)에 있어서는 어떤 편견이나 애착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추상같았으며

대중을 아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적자(嫡子)와 같이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동산 회상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는 조건없이 받아들였다. 정화불사는 결코 이론만의 논쟁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술한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딛고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한국 불교풍토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켰다. 동산은 특별히 달변이었다고 한다. 관찰하고 싶은 일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감화시켰는가 하면 평이한 말로 어려운 선지(禪旨)를 차근차근 설명하여 많은 이들의 감복을 받았다. 대소사암(大小寺庵)에서 법문을 청하면 언제나 응하였고, 안거 중에는 경허(鏡虛)선사의 「선문촬요(禪門撮要)」로서 대중의 심안(心眼)을 열어주는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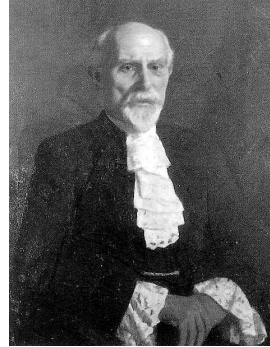
동산의 나이 76세 때인 1965년 4월 30일, 이날도 동산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대중과 함께 예불을 하고 정진과 도량 청소 작업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다음과 같은 열반송을 남기고 세속을 하직했다.

元來未曾轉 원래 일찍이 바꾼 적이 없거니
豈有第二身 어찌 두 번째의 몸이 있겠는가.
三萬六千朝 백년이라 3만 6천날이
反覆只這漢. 반복해도 다만 이놈 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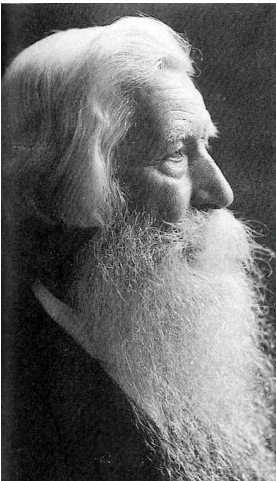
▣ 희곡작가 ·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숙현

3. 매건시(Mackenzie Man of Mission)

1894년 1월 14일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항구도시 글래스고우의 글래스고우대학 주일 오후 예배시간. 백발에 눈처럼 흰 턱수염과 백미의 노신사가 정열적인 간증을 하고 있었다. 그는 Dr. John G. Paton으로 호주 북동쪽 뉴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으로, 청중의 대부분은 장로교 신학대학 학생들과 이미 해외선교



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강의 내용은 타나섬에서 식인종 원주민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섬지역에 사는 그가 사랑했던 토인들의 암담한 생활을 놀랍게 변화시킨 복음의 강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래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사로서 도전해볼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다. 그 자리에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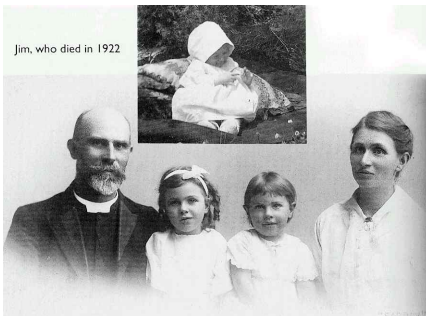
빛이 형형한 한 청년학도가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맥켄지목사(한국명 : 매건시)이다. 그는 그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행로가 바뀌게 되어 먼 한국땅까지 와서 수많은 나환자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되고, 대를 이어 그 딸들까지 한국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Mackenzie 목사는 그 해에 바로 호주 뉴헤브리디스에 선교사로 자원하여 봉사하였고, 한국에서는 1910년부터 매건시라는 한국명으로 선교와 교육·의료 등 봉

Dr. John Paton

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기독교 교회에는 한국인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매견시에게는 부산·경남지역의 52개 시골 교회를 방문하여 전도와 세례를 행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매견시는 때로는 수 주일간을 도보로, 자전거로 또는 배를 이용하여 여행하였다. 경상도 지역은 기후관계인지 한센씨병 환자들이 유독 많았으므로 매견시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일정한 주거나 진료시설도 없이 처절한 환경에서 떠도는 이들을 대하게 되면서, 예수께서 나환자들에게 보인 것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에 대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한센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계속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마침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어얼빈(魚乙彬 Dr. C. H. Irvin 만병수약창제자)이 1909년에 구라(救癩)사업을 시작하였다가 1911년에 은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업을 인계받아 본격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지역선교사업은 다행히 한국인 지도자들이 양성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지도하여 일을 맡기면서 매년 3주간은 성경학교에서 교회지도자들을 양성하였고, 그의 부인 켈리여사(Mary Kelly) 역시 부산진을 중심으로 여성을 위한 주일학교를 열고 2개월 기간의 성경학교들을 열어 교회 여성지도자들을 교육·훈련시키는 일에 내조를 다하였다. 1913년부터는 소녀들을

위한 야간교실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처녀들이 낮에 밖에 나다니는 것을 막는 엄격한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우 가난하였고 식모살이나 병간호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 메리여사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매견시 목사 해란·혜영, Mary여사
위사각안은 1922년에 사망한 Jim

...검게 그을린 얼굴, 갈라터진 손등 그리고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그들을 볼 때 연민의 정과 함께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일깨운다. 성경학교에서 그들은 우리를 에워싸고는 몇 밤을 자고
 다시 오느냐고 묻는다. 달력의 개념이 없어 그들에게는 며칠을
 자는 것을 날자 개념으로 잡고 있으며 학교에 오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아는 것 같다. ... 어떤 아이들은 징징거리는 애기를
 등에 업고 흔들며 달려며 공과를 낭독한다. 다들 읽기에 열심
 이며 특히 찬양과 교리문답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지.... 미쓰 무어 (Moore)와 내가 부산진 거리를 걷다보면 등에
 애기를 업거나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서도 인사를 하는 젊은
 아낙네들의 인사를 받느라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이 종종있다.....

매견시에 대한 한센환자들의 구전(口傳)에 따르면 매견시는 항
 상 인자한 성품과 사랑이 넘치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하여 그가 「상애원한센병원」의 병원장을 맡으면서 상애교회를
 이끌 당시에는 54명의 환자들이 같이 생활하였으나 얼마 후
 상애원이 6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되었다. 그
 후 시골의 환자를 합하여 90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
 소를 운영하면서 한센명환자의 사망률이 25%에서 2%로 감소하
 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1912년 어느 날 새로 온 어떤 선교사는
 첫 세례식을 이렇게 쓰고 있다.

...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세례를 받았다. 성수물병을
 드는 것조차 한없는 영광의 특전으로 느껴진다.... 장로로서
 성찬떡을 나눌 때 그들이 몇 남지 않은 손가락의 두 손으
 로 받을 수 있도록 일일이 집어주고 성찬포도주를 나눌
 때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 편편한 잔을 그들의
 입에 대줄 필요가 있다.



우리말을 배우는 Mary여사(右)
Alice Niven 여사와 교사 박선생

환자들에게는 평생 음식과 쉼터가 제공되었으므로 매견시의 집 주변에는 매일 이 나병원에 들어가려는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매견시는 전염의 위험이 사라진 음성환자들을 퇴원시키는 기쁨과 동시에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임종하는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것과 모여드는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시설부족을 늘 가슴아파 하였다. 당시의 한센병 치료약은 대풍자유(chaulmoogra의 씨에서 짠 기름으로 초기에 복용하면 병의 진전을 막을 수 있음) 뿐이었으며 이 약을 먹을 때에 심한 위장장애의 부작용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 매견시는 대풍자유를 주사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직접 실험하는 등의 노력으로 그 주2회의 대풍자유 주사로 치료효과가 극적으로 높혔다. 한편 경남지역에 산재한 환자들을 위해 전문간호원을 지도, 훈련하여 각 지방마다 보내어 환자진료를 도왔으며 이러한 효과적 활동으로 상애원은 후에 용호동 「국립나병원」의 전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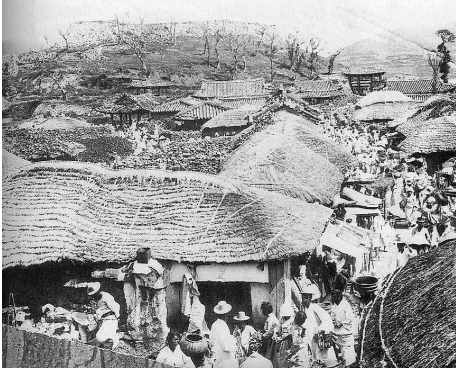
매견시의 또 하나 뛰어난 혜안은 그의 시대를 앞선 사회복지 시각에서 확인된다. 매견시는 비록 당시 한센씨병 환자들이 사회로 부터 터부시되고 냉대받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실용화시켜 음성으로 치료된 환자들에게 사회적역할을 부여하기에 힘썼다. 하나의 예로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금성중고등학교의 높은 축대는 이 음성환자들의 손으로 하나 하나 쌓여지고 대지가 조성된 것이다.

그는 또 한센병 환자자녀들을 위해 양육과 교육사업에도 정성을 쏟았다. 상애원 내에 명신학교를 설립하여 주간, 야간으로 운영하고, 범천동에 고아원을 설립 운영하여 여기에서 자란 이들 중에는 사회사업가, 실업인 등이 많이 배출되었다.



상애병원 입원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한센환자들

한편 일신여학교(현 동래학원)의 설립자 대표역을 맡아 부산여성들에게 신교육 보급과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그가 온갖 어려움과 환자들의 몰이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사랑 한 가지로서 참고 묵묵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상애원과 상애교회는 내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이방인의 사랑에 감화되어 믿음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열매를 맺었고, 밖으로는 양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1930년 6월 11일에는 맥켄지사역 20주년을 맞아 나환자관리협회의 주도로 현재의 동구 좌천동 정공단 옆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 공로를 인정한 일본정부에서도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 공로비는 1942년에서 1946년 사이에 분실되었으나 2001년에 처음 세워졌던 부근에 다시 세워졌다. 복원된 비석이 세워진 곳은 일신기독병원부지로서 일신기독병원은 매견시의 두딸(매혜란-梅蕙蘭, Dr. Helen Mackenzie/산부인과의사, 매혜영-梅惠英, Miss Catherine Mackenzie/간호조산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전쟁 중 한국여성을 위해 설립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봉사한 귀한 선교기관으로 산부인과전문화종합병원이다. 이 곳에 기념비가 복원되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대를 이은 호주선교사의 사랑이 묵묵히 우리에게 큰 감명을 던져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이 복원비 제막식에는 부산시 관계자와 주한호주대사, 많은



부산진시장 1910년대 모습

호주인들과 학계, 종교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매견시는 1938년 73세의 고령으로 안식을 위해 한국을 떠나 귀국하고 1939년에 은퇴하였다. 그는 1940년 호주에서 장로교 총회의 의장(The moderator of the Victorian Church)을 맡고 건강이 쇠약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때까지

항상 적극적인 삶을 살았으며, 교회의 일치와 인종차별을 추방하는데 앞장서다가 1956년 7월 2일 91년간의 값진 인생을 마감하고 멜보른에서 소천하였다.

▣ 재단법인 호주장로교선교회 사무국장 허 증

4. 소재건(Aloysius Schwartz)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2번지, 송도 바다가 아래로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소년의 집’이 있다. 이 집은 2003년 현재,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 1,314명이 살고 있다. 대지 6,509㎡ 철근 콘크리트 건물 연건평 8,119㎡인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였던 1957년 부산에 정착한 한 미국인 선교사가 남긴 사랑 실천의 흔적이다.



소재건(Aloysius Schwartz, 1930~1992) 몬시뇰 신부! 그는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살다갔고, 부산광역시의 명예시민이었으며, 세상의 가난한 이들과 불행한 청소년들의 친구였다. 일생을 청빈과 겸손으로 살았고, 세계 5개국 10개 도시에 있는 30,000여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이고, 누구보다도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던 가톨릭교회의 사제였다. 미국의 하원의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고, 5·16 민족상 교육 부문 본상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동백장을 수여 받았다.

성장과 수학 과정

알로이시오는 1930년 미국 워싱턴 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함께 화목한 성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부모는 영리한 둘째 아들을 매릴랜드주 케이톤스빌 소신학교에 보내 사제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을

겪게 하였다. 소신학교를 졸업한 해, 18살이 된 알로이시오는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며 일리노이즈주 글리 엘렌 메리놀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메리놀 대학은 지성을 추구하는 상류 미국 사회의 선교회였다. 그의 대학 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는 각종 스포츠에도 활동적이었고, 대학에 남아 교직을 맡게 될 정도로 공부도 잘했으며, 학생회장직과 대학 잡지 편집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상류 생활 방식은 가난과 고난을 헤쳐 나가야 할 해외 선교 사제의 길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알로이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선교 사제를 양성하는 단체를 찾던 중 유럽의 벨기에 벨지움의 루벵시에 있는 한 외방 선교회에 입회 신청서를 냈다.

1953년 1월 루벵대학에 입학한 알로이시오는 달라진 기후와 음식을 비롯한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루벵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던 신학생 알로이시오는 이곳에서 여러 명의 한국인과 사귀게 되었다. 한국의 신앙과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미지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6·25 한국전쟁 직후의 참상을 알게 된 후에는 한국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관심은 훗날 알로이시오가 한국에서 빈민 퇴치와 무료 의료 사업과 고아를 보살피는 일에 종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에 온 소재건

이윽고 1957년 6월 29일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던 청년 알로이시오는 워싱턴의 성 마틴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 되었다. 같은 해 12월, 그는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이루기 위해 선택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수십만 가정이 집을 잃고 수만의

아동이 고아가 되어, 한국의 어느 곳이나 오두막과 판잣집과 피난민들이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청년 알로이시오 신부는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는 밤 기차를 탔다. 기차가 한 간이역에 멈추어 섰을 때 그는 궁핍의 극적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기차가 역 구내에 정차하자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무리의 소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이들은 승객들의 다리 사이에 버려진 사이다 병, 빵 조각, 담배꽂초를 찾고 있었다. 주운 음식을 입 속에 넣고, 병 속에 남은 음료수를 마셨다. 그리고는 그 물건들을 바닥에 끌고가는 마대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차장이 나타나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잠시 악몽을 꾸 것 같았다. 바로 이 아이들이 장차 자신과 함께 생활하게 될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자신의 자녀들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이 때부터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로 일하게 된 알로이시오 신부는 다음해 간염이 발병하여 요양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부산교구장인 최재선 주교와 함께 구호금 모금을 위하여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세계 여러 곳을 돌며 한국의 어려움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호소했다. 그리고 선진국의 많은 은인들의 도움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워싱턴시에 ‘한국자선회(현재는 Asian Relief, Inc로 개칭)’를 설립하였다.

1961년 한국에 재입국한 알로이시오 신부는 1962년 6월 부산교구 송도본당 신부로 발령 받았다. 이 때 사제의 생활은 가난 그 자체였다. 사제관은 천장이 내려앉아 굵은 막대기로 지붕을 받쳐 놓고 비가 오면 군데군데 세숫대야를 동원해야 했다. 밤에는 쥐들이 사제관 천장을 시끄럽게 뛰어다녔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가난한 일반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수 자조 사업’을 먼저 시작하였다. 이 일은 그 당시 한국을 도와주던 세계 각지의 은인들에게 대한 사은품으로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자수 손수건을 선물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수용 바늘과 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손수건용 천에 간단하게 자수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었다. 자수를 놓아 알로이시오 신부에게 가져오면 그들에게 하루 분의 일당을 지급했다. 이 일은 6여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수많은 가정의 생계를 돕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수 손수건은 한국의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은인들에게 답례품으로 보냈다.

문을 연 부산 소년의 집

1964년에 알로이시오 신부는 송도성당 옆에 가족단위의 고아원을 만들고, ‘마리아 수녀회’를 창설했다. 1966년에 부산 아미동 빈민지역에 무료 진료소를 설치했다. 1969년에 부산시로부터 100명의 결핵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구호소를 인수받았다. 환자들은 전염병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제대로 먹지도 못해 너무 야위어 있었지만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주저할 때 알로이시오 신부가 이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전염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들을 씻기고 청소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1967년 알로이시오 신부는 송도본당 주임 신부직을 사임하고 3년 전부터 그가 창설하여 함께 일하던 ‘마리아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많은 은인들의 계속되는 후원을 받으며 두 곳의 탁아소, 세 곳의 무료 진료소를 설치했다. 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미동 빈민지역에 무료로 운영하는 아미고등공민학교를 설립했다.

1969년 10월 30일, 알로이시오 신부는 부산 암남동에 첫 번째

소년의 집을 건립하고, 다음해 부산시로부터 부랑아 300명을 인수받아 본격적인 소년의 집 사업을 시작하였다. 훗날 5개국 10개 도시로 확대된 이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어서 부산 암남동에 120명 병상의 무료병원 구호병원을 개원하



소년의 집 학생과 함께

였고, 1973년에 부산 소년의 집 국민학교를 개교하였으며, 1974년에는 부산 소년의 집 중학교를 개교하였다. 1975년에 서울 소년의 집을 개원하고, 같은 해 서울 소년의 집 국민학교를 개교하였다. 1976년에 부산에서 소년의 집 기계공업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무렵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과 5·16 민족상 교육 부문 분상을 받았다. 또 뉴욕 포담대학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와 같이 알로이시오 신부는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가난한 환자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는 두 개의 병원과 결핵환자를 위한 구호소, 가정파탄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 소년들을 위한 소년의 집, 그리고 모성원과 아기들을 위한 영아원을 만들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난하다 못해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식주는 물론 치료와 교육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며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알로이시오 신부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 소년의 집 학생들은 그의 구두가 자신이 소년의 집에 들어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졸업한 후에 살펴봐도 바뀌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알로이시오 신부는 구호사업을 시작한 이후엔, 평생을 단 한 켤레의 구두를 꿰매어 신고 다녔다.

그가 미국에 자선 모금을 하러 갈 때 자주 구두를 수선해 준 어느 수선공은 “신부님 제가 새 구두를 한 쥘레 사 드릴 테니 이젠 이 구두는 버리십시오.” 라고 적극 권했으나 알로이시오 신부는 아직도 신을 만하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한 평생을 한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던 그는 한국에서 그의 자선사업을 체계화시켜 놓았다. 이것은 청년 알로이시오 신부가 30여 년에 걸쳐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이룩해 낸 결실이었다. 그는 서울과 부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운영하며,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구호소를 운영하였다. 소년의 집과 소녀의 집을 지어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보금자리를 제공



영아원 어린이와 함께

해주고 초·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켜 사회에 진출켰다. 버려진 갓난아기들을 위해서 영아원을 만들었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모성원을 세웠다. 행려자들을 위한 시설인 갱생원을 서울시

로부터 인수받아 병들어 길거리로 쫓겨난 노인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모든 사업은 그의 제자이며 동시에 동료인 ‘마리아 수녀회’와 ‘그리스도회’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로이시오 신부의 자선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어, 한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필리핀, 멕시코, 과테말라, 과달라하라와 같은 가난한 이들이 아직도 많은 5개국 10개 도시까지 확대되어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소년의 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0년 2월 1일 알로이시오 신부가 필리핀에 진출하여 소년의 집을 짓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일한 지 5년이 되던 해, 필리

핀 하이메 신 추기경의 추천으로 몬시뇰에 추대되었다. 이 해는 알로이시오 신부가 60세가 되는 해이기도 했다. 몬시뇰이란 천주교회의 고위 성직자를 일컫는 말로서 통상 사제와 주교 사이의 위치를 말한다. 평소에 늘 겸손한 사제였던 알로이시오 신부는 이런 직위를 받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 하였다. 하지만 그가 몬시뇰 서임식 강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은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몬시뇰 서임식과 착복식은 필리핀 마닐라 대교구장인 하이메 신 추기경이 주례하는 축하 미사 중에 필리핀 주재 교황대사 브루노 토르피리글리아니 대주교가 집전하였다. 이 미사에는 시부 추기경 및 주교, 사제단 40여 명과 3,200명의 학생들과 국내외 축하객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소년의 집 자선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확대할 당시 알로이시오 신부는 ALS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길어야 3년 이상은 살지 못하리라는 의학적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병이 깊어가도 식을 줄 몰랐다. ALS병의 특성상 모든 신체가 조금씩 조금씩 마비되어 결국에는 겨우 어렵게 말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필리핀은 물론 멕시코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그곳의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소년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생명이 약속된 3년의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알로이시오 신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렵게 입을 움직여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평생 자신의 자선 사업을 도와준 세상의 모든 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마리아 수녀회를 통하여 세상의 가난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후원을 보내달라는 유언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와 그의 자서전인 ‘조용히 다가오는 나의 죽음’을 육성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녹음으로 남겼다. 임종의 순간에도 “천국에 가서도 아이들을 돕겠다.” 라며 성체 앞에서 기도 드린 후, 1992년 3월 16일 그가 사랑하는 아이들 곁을 떠났다. 지금도 알로이시오 신부의 위대한 사랑의 정신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세운 ‘마리아 수녀회’와 ‘그리스도회’ 회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 시인 ·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영일

5. 이종률(李鍾律)

성장과 학업

진정한 혁명가의 삶은 그가 살아온 자기 조국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하게 된다. 산수 이종률은 바로 일생을 항일민족독립운동과 민족자주통일운동이라는 역사의 한 가운데 서서 민족혁명운동을 전개해 온 혁명가였다. 그는 부산 민족민주화운동의 선각자이자 우리나라 민족혁명운동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인물이다.



이종률은 경주를 본관으로 1902년 6월 6일 경북 영일군 북면 동대산 밑 산촌 농가에서 아버지 퇴하(退下) 이규환(李圭煥, 1860~1925)과 어머니 벽진이씨 이점실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유년시절 그는 부친으로부터 유교 경전을 폭넓게 배우면서 나라의 일꾼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는 언제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는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爲天下者不顧家事]’와 성삼문처럼 별정계 달군 쇠로 고문하는 세조를 향하여 ‘이 쇠 차다 다시 구워 오라[此鐵冷 更煮來]’고 항거할 정도의 기개가 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모진 고문과 투옥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종률은 1920년 무렵 경북 의성의 점곡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면서 신식 교육을 처음으로 받게된다. 얼마 후 안동 동명학교로 옮겨 도목 이형국, 박곡 유동봉 등을 만나 민족독립투쟁의 정신을 배운다. 소학교 4학년 무렵 당시까지만 해도 존경받았던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을 배출한 배재중학에 진학한 이후 학업과

항일운동의 대열에 본격 참여하면서부터 그의 항일민족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항일민족운동의 전개

이종률은 배재중학 시절의 공학회(共學會)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일민족운동에 참여한다. 그는 1926년 6·10 만세 항쟁 후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에서 만난 만해 한용운으로부터 ‘애국자가 되려면 사형을 당하는 의기(義氣)보다도 고문을 견디는 각오를 다져야만 된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감화를 받는다. 이후 일본 와세다대학에 진학하면서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 결성에 참여하고, 국내에 수시로 드나들며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8년에는 ‘재일본조선학생스트라이크옹호동맹’을 조직하는 한편 서울로 와서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이해 와세다대학에서 ‘우리말연구회’ 사건으로 출학 당하게 된다. 1929년에는 학생 항일운동조직인 성진회(醒進會) 활동을 통하여 광주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듬해 충남 예산농고 독서회사건의 배후 인물에 연루되어 다시 구속되었다.

이종률은 민족혁명운동사에서 신간회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민족단일당으로서 신간회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총독부의 회유와 공작에 놀아난 사회주의 세력 등 여러 내외적 요인으로 ‘해체’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신간회 회원으로서 1931년 해체의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등 전후 속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위치에서 있었다. 그는 이 무렵 경성제대 미야게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교수의 경제학교실에서 세계정세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하였다. 신간회 해체가 민족혁명운동의 이론적·실천적 방향에서 명백한 오류라는 사실을 미야게 교수로부터도 다시 확인하게 된다.

1936년에는 천민들의 신분해방투쟁인 형평사운동 참여로 치안

유지법에 걸려 2년 6개월간 투옥되었다가 출감 후 수년간 서울 지역의 민족무산자 자녀들의 배움터인 ‘고학당’에서 강의를 하였다. 1938년에는 출판법과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공주형무소에 한 달여 복역하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석방되었다. 조선총독부의 발악적 탄압이 시작된 1940년 이후 경기도 가평에서 숲을 구워 판매하는 숲구이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정치세력으로 평가한 조선건국동맹과 협력하며 항일지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선건국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지는 않았다.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실천

1) 8·15 이후의 민족건양회 운동

이종률은 일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민족혁명운동의 실천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1946년 1월부터 민족건양회(民族建揚會)를 조직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8·15’라 불렀다. 그는 8·15 이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던 좌·우 진영 정치세력과 논쟁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실천노선을 ‘비좌비우(非左非右)’ 노선으로 표현하고, 백남운과 함께 조선학술원의 창립, 민족언론운동의 전개, 민주주의 독립전선 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조선학술원 창립에 깊숙이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백남운과 함께 근로대중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학과 노동문제를 강의하였다.



백범 김구 선생
묘소 참배

1995년 1월 서울 효창
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참배한 이종률,
왼쪽부터 김성숙, 박진,
신숙, 이종률, 김창숙

1946년 1월 5일 드디어 서울

가회동 박진(朴震)의 집에서 과학적 정치노선의 확립과 실천을 위해 김창숙을 수석의장으로 하는 민족전위당적 성격의 민족건양회를 창립한다. 민족건양회는 민족의 혁명적 건설을 보다 높은 역사의 차원으로 지양하는 서민성(庶民性) 자본민주주의 민족혁명과 민족자주강화에서 외세를 영어(領御)하는 통일건국 노선을 지향하였다. 또한 외압과 봉건제와 민족매관 및 자본 집중을 반대하는 민족화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 민족건양회의 외세에 대한 기본 입장은 1945년 12월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대한 대응에서 잘 드러났듯이, 민족자주는 결코 국제우호와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하였다. 민족건양회는 1960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민족건양회 노선에 바탕하여 1947년에 이르러 이극로, 정이형 등과 함께 ‘이균(李鈞)’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독립전선을 결성하였다. 여기서 조선독립은 미·소공위의 조속한 성공과 동시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무렵 김규식이 명예사장이며 신익희 등이 고문으로 있었던 『민주일보』(1946.6.1 창간) 편집국장과 주필 등을 역임하며 언론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종률은 6·25를 민족혁명운동 노선의 방향에서 ‘6·25동란’으로 표현한 이 전쟁을 민족의 참화로 인식하였다.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혁명운동으로서 통일운동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무렵 대구 청구대학 재직 중 6·25를 맞이하였던 이종률은 1951년 봄 경남 안의중학교 교감으로 잠시 봉직하였다. 그러다가 임시수도 부산에 있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의 부름으로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1961년 초까지 재직하였다.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족건양회의 화평통일론에 바탕한 비무력 정치협상 민족통일을 주장한 신익희 후보 진영에 참여하여

자신의 통일논책을 관철하려 하였으나, 신익희 후보가 유세 도중 급사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는 신익희를 대신하여 출마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민주사회주의 방향의 혁신계로 전향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1950년대 중반 무렵부터 부산대와 동아대의 제자들을 모아 민족건양회 방향의 민족문화협회를 결성하여 강연회 등의 활동을 하였고, 1957년에는 백산 안희제 선생 14주기 추모제 행사 등 반외세 민족자주사상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부산 경남 일원의 뜻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개해 나갔다. 여기에 참여한 그의 젊은 제자들은 이후 민자통운동의 근간이 되었던 민주민족청년동맹 결성의 중심 인물이 된다.

1956년 연말에는 당시 흥미하던 케인스 경제학 현상을 두고 학설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Keynes卿의 認識을 위한 一 試論」이라는 논문을 부산대 개교 10주년 기념 논문집에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서 1950년대 중반 후진성지역인 우리 나라에서의 케인스 경제학은 결코 과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부산에서 전개한 활동 중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언론을 통한 민족혁명운동이다. 그는 50년대 후반에 들어 『부산일보』와 『국제신보』의 논설고문을 역임하는 가운데, 여러 신문에 사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정력적인 논설을 펼쳤다. 그 가운데 195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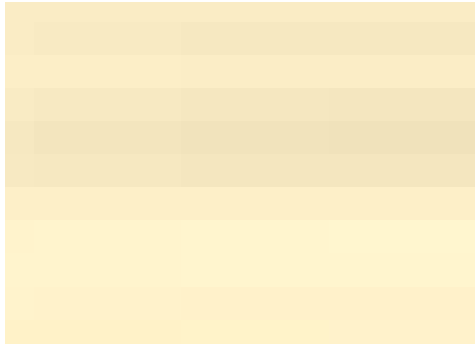
백만 독자의 정치학 1958년 말부터 국제신보에 연재한 「백만독자의 정치학」 기고문 중의 하나

말부터 국제신보에 41회에 걸쳐 연재한 「백만독자의 정치학」란 은 민족혁명론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려 한 대표적인 글이다.

한편 1958년 무렵 동래 명륜동의 수곡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남과 간첩 김창주를 신고하지 않아 불고지죄로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받는다. 사실 이종률의 관심은 신고 이전에 오히려 그의 사상을 민족혁명론 방향으로 지양시키는 데 있을 뿐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간첩인줄도 몰랐거니와 자신을 믿고 찾아온 친구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민족론 철학에 바탕한 인간론의 넓은 포용성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한 행위였다.

2) 민자통운동의 전개

1960년 3·4월 민족항쟁이 발생하자 이종률은 4월 21일 서울



에서 민족건양회 주최로 열린 ‘4월목요일’에서 역사의 효능적 전진을 위한 일원적인 당세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 기울인다. 이 회의에서 ‘민족자주통일중앙 및 각 지역협의회’라는 각급 대중운동 조직을 건립하여 민족건양회의 확대·강화된 민

가족사진 1958년에 찍은 가족사진. 맨 왼쪽 아기를 안은 사람이 미망인 민숙례씨

족당 안으로 해소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결의하였다.

5월에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민족청년동맹’을 창립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 박진(朴震), 박래원(朴來源), 문한영(文漢榮) 등의 동지들로 하여금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기하게 한 후, 1961년 2월 25일 민자통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자통운동의 노선을 사실상 제시하면서 민자통 중앙위원회 통일논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통일논책을 마련하였다. 그의 통일론은 남북이 함께 승리한다는 의미의 남북동경통일론(南北同慶統一論)으로 압축된다.

민자통운동의 전개와 함께 1961년 2월 12일 창간호를 낸 『민족일보』 창간작업도 사실상 주도하였다. 1960년 겨울 자신을 찾아 온 조용수(趙鏞秀)로부터 혁신계 방향이 아닌 민족적인 신문을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창간작업 부탁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편집국을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러 당초의 구상대로 가지 않게 되자 창간호를 기다려 민족일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조용수가 혁신계로 기울었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찰당국의 모략과 조종에 의한 결과였다. 특히 조용수가 상의 없이 정경부 차장으로 데려온 이명구라는 사람의 경우 뒤에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조용수는 감옥에서 자신의 오류를 이종률에게 직접 시인하였다.

5·16 쿠데타 세력은 특히 통일운동 세력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전개함으로써 4·19 이후 발전해온 민족혁명운동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절시킨다. 따라서 민족일보 창간과 민자통 운동의 중심에서 있었던 이종률의 투옥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민족일보 사건의 경우 5년 구형에 무죄 선고로 일단 석방된다. 그러나 민자통 운동의 핵심인 ‘민족자주통일방안심의위원회건’으로 검찰에 다시 구속되어 사형구형을 받게 되지만 재판부의 형량은 10년형으로 선고된다.

이종률은 안양교도소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원고를 집필하게 된다. 자신이 일생을 두고 실천해온 민족혁명론의 이론적 정립과 자신의 역사적 체험기, 옥중일기 등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집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집필은 말 그대로 난고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었다. 1965년 12월

25일 출옥 이후에도 집필은 계속되었다.

1969년 말에 이르러서는 경남 양산에 소재한 개운중학교를 인수하여 ‘민족사와 인간사의 대도에 입각한 생산자적 인지용(仁智勇) 영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민족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1971년에는 『祖國史의 分裂과 統一의 主潮』를 출간하여 ‘성리학은 반민특권의 철학’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1973년에는 이의 연장 집필물로서 최종 교정과 조판까지 마친 『옳은 史學과 그 嶺南 및 그 祖國의 認識을 위하여』(『山水李鍾律著作資料集』 제1집에 수록)를 발표하였으나, 인쇄 직전에 수사 기관에 의하여 압수당하게 된다.

1974년에는 경남 의령의 독립운동가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의 사적을 조사하고 인혁당 관련 사건으로 사형 당한 같은 마을의 이수병 본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16년간의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민족혁명운동의 전개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젊은 학도들을 교육함과 아울러 『己未를 알자』(1979)를 비롯한 많은 미발표 원고를 직접 집필 혹은 대필로써 남기게 된다.

이종률은 1989년 3월 13일 민족혁명과 인간혁명 방향의 역사발전 노선이라는 “민족건양사로(民族建揚史路)”와 이의 실천을 위한 전위당인 “사책당(史責黨)”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부산 동래 명륜동 수곡의 자택 수일원(秀一苑)에서 향년 87세의 일기로 운명하였다.

민족혁명론의 정립

이종률은 일생의 민족운동을 통하여 민족론 철학에 바탕한 민족혁명론을 정립하였다. 후진성지역에서 정치노선의 혁명적 세력화를 위한 기본 조직을 사책당(史責黨)이라 하였다. 민족혁명은 인간혁명의 정인간사(正人間史)적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하는 기

조성을 가지며, 인간혁명은 민족혁명의 단계를 거쳐 나오는 과정의 결실성을 갖는다. 민족혁명론은 뿌리와 동치인 민족혁명과 가지와 꽃인 인간혁명의 관계로서 유기적 일체성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민인혁명론(民人革命論)’으로 확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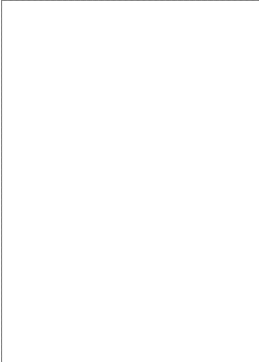


이종률의 묘소 기장군 백운공원묘지

민족혁명 노선은 오직 우리 역사의 구체적 사실에서만 도출되는 것으로 사회주의를 그 체질적 속성의 한 부분으로 내포하면서 주요 속성은 인간사 혁명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민족혁명운동은 반제(反帝)·반매관(反買辦)·반봉건(反封建) 운동으로 압축되며, ‘집중성 자본민주주의’가 아닌 ‘서민성 자본민주주의 민족혁명’의 성격을 갖는다. 그는 철학적 인식으로는 기존 유물론 인식의 차원을 넘어선 말뚝 그대로 능변유물론(能變唯物論) 혹은 활성유물론(活性唯物論)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종률은 세계 자본민주주의의 실체를 ‘집중성’ 자본주의와 ‘서민성’ 자본주의로 나누면서, 후진성 지역에서는 후자의 방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 영도자세력은 세계사적 노동자 철학을 자기 철학으로 하고, 거기서 노동자 중심의 노력성 민족대중 곧 노력성 인간대중이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민족혁명운동은 사유재산제 위의 계획적이며 서민적인 경제체제에 바탕하고, 통치체제는 주권재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통치를 수립하며, 사회체제는 신분·성별 등에 의한 차별이 없는 만인평등과 자유와 박애를 사회적 통념으로 한다고 하였다. ■ 밀양대학교 교수 장동표

6. 장기려(張起呂)



20세기 후반기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 있는 푸른 십자가’ ‘우리시대의 성자’로 일컬어진 장기려는 1911년 8월 14일(음력)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양하면(揚下面) 입암리(立岩里) 739번지에서 한학자 장운섭(張雲燮)과 어머니 최윤경(崔允卿) 사이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장기려는 입곱살 때인 1918년 부친이 설립한 의성학교(義聖學校)에 입학하여 5년간의 초등교육을 받고 1923년에 졸업하고는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5년간의 중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는 고등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나 졸업할 무렵은 가정사정이 어렵게 되어 모교인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려 했다가 그 뜻을 접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진학했다. 경성의전을 택한 것은 학비가 탄 사립대학에 비해 적게 들었다는 점과 의사가 되어 현대의료의 혜택도 받아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는 현대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 길을 열어보리란 생각이었다. 그것은 천부적인 생명은 존엄하다, 그 존엄은 빈부나 인위적 여건의 차이에서 올 수 없다는 젊은날의 철학적 사유였다. 경성의전에 입학한 그는 4년동안의 대학시절 대학생이라면 누구없이 가는 술집 한번 가보지 않았고 연애 한번 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학업성적은 언제나 1, 2등이었다. 1932년 3월 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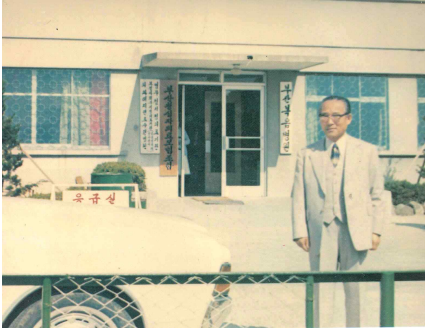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해 4월 9일 김봉숙(金鳳淑)과 결혼했다. 그때의 나이는 22세였다. 그는 외과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경성의과전문학교 조수로 있으면서 장인이 된 내과의 김하식(金夏植)교수의 권유로 백인제(白麟濟 : 당시 국내 刀圭界의 제일인자로 1936년 백병원을 개원)박사 문하가 되어 외과를 전공한 데 있었다. 그동안 그는 후복막봉과직염(後腹膜蜂窠織炎)과 패혈증(敗血症)에 관한 연구를 한 한편 1940년 9월에는 ‘충추염 및 충추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일본 나고야(名古屋)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경성의전외과에 근무하던 그는 1940년 3월 평양의 연합기독병원의 외과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두달 뒤는 병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병원 내부의 의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자, 두달만에 병원장 자리에서 다시 외과과장으로 내려 일하게 되었다. 그는 원장이나 과장 같은 직급에 구애없이 환자를 보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성심성의 진료와 시술에 전념하였다. 임상(臨床)에서 얻은 꾸준한 연구로 42년에는 후학인 민관식(閔琯植)과 함께 논문 ‘농흉(膿胸)에 관한 세균적 연구’를 조선의학회지에 발표하고 단독으로 연구한 ‘근염(筋炎)의 조직학적 소견’을 일본의 의과학회에 발표하고 43년에는 간상변부에 발생한 간암의 설상절제수술(楔狀切除手術)을 실시하고 그 수술결과를 조선의학지에 발표하여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45년 8월 해방을 맞은 그해 11월에는 평양도립병원장 겸 외과과장의 일을 보았다. 47년 1월에는 김일성대학의 외과대학 의학과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일했다. 이 대학병원으로 갈 때는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는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 그 승낙을 받았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먼저 하나님에 기도할 수 있는 행위의 허용을 받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자세와 신앙심을 지켰다.

오직 인술(仁術)을 베푸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장기려 박사도 이 나라가 겪어야 할 어려운 와중(渦中)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의 6.25한국전쟁으로 삶의 중심이었던 가족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였다. 그는 50년 12월 3일 차남 가용(家鏞 :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만 데리고 부인과 함께 가족을 평양에 남겨둔 채 남하했는데 그것이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다. 그 당시 그도 차마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데올로기의 갈등에서 오는 전쟁이 끝나면 어디에서건 만나서 단란한 가족으로 다시 결합하리란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후퇴하던 국군을 따라 나서느라 가족을 데리고 올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평양 종로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내와 다른 가족을 보고는 함께 남하하지 못한 것을 일생 동안의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50년 12월 18일이었다. 부산에 온 그는 곧 부산 제3육군병원(현, 광일초등학교에 있었음)에서 외과의로 근무하던 3일만인 12월 24일 초량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다가 기관원에 용공(容共)혐의로 잡혀 갔으나 미국인 목사의 증원으로 풀려났다. 제3육군병원에서는 약 6개월간 봉사를 했다. 51년 6월에는 경남구제위원회의 전영창(全永昌)선생과 한상동(韓尙東)목사의 요청으로 영도구 남향동에 있던 제3교회 창고에서 천막병원을 차려 무료의원을 열었다. 이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다. 이때 쓰던 약품은 유엔군 산하의 민사원조처의 구호약품을 썼는데 무료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4년째에는 어쩔 수 없이 1인당 백원의 치료비를 받게 되었다. 56년 10월에는 미국인 선교사 맥스웰의 도움으로 송도에 250평 규모의 복음병원을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고신의료원이다.

이같은 일은 그가 젊은날 의사가 되면 현대적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그날의

뜻을 펴는 일이었다. 그는 피난 온 다음해부터 76년 6월까지 25년간 그가 뜻하는 바 인술과 봉사와 박애의 소신을 복음병원에서 값지게 펼친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 복음병원에만 매여 있을 수도 없었다. 후진양성을 위한 요청도 저버릴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53. 3~56. 9)로 서울로 오르내려야 했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교수 및 학장(56. 9~61. 10)의 일을 보아야 했고, 65년에서 72년 사이는 서울의 카톨릭의과대학 외과교수로, 72년에서 79년까지는 부산복음간호전문대학 학장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야말로 인간생명을 위한 초인적인 봉사행위였다. 그가 경영하는 복음병원으로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기독교계열 구호가 답지한 것은 그가 가진 인품과 노력의 결과였고, 복음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외과를 창설하는데 기여한 일은 의학계를 위한 공헌이었다면, 59년 2월, 간의 대량절개수술을 성공한 일은 임상의료기술에의 혁신적 기여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간암에 대한 연구로 61년 대한의학협회의 학술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간암연구는 계속되면서 68년에는 한국간연구회가 창립되고 초대회장이 되었다. 그의 초인적 헌신은 의학계나 임상적 기술만이 아니었다. 기독교 교인으로서 선교와 실천으로서 인간정신의 순화에 기여함 또한 컸다. 56년 전도 및 성경공부를 위해 ‘부산모임’을 시작하여 88년까지 이어오면서 성경에 관한 정기간행물 ‘부산모임’ 124권을 출간했다. 59년에는 일신병원 설립자였던 매켄지와 내과의사이준철(李俊哲), 치과의사 유기형(劉基亨) 등과 함께 ‘부산기독교사회’를 조직하여 성실한 의료인이 가진 독실한 기독교정신을 심으려 애썼다. 그 기독교정신이 가진 박애를 실천한 실제적 행위는 그의 발의와 실천으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개설한 일이었다. 이는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소중한 생명은 빈부에 관계없이 현대의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 생각의 실천이었다. 그것은 68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복음병원 분원에서 채규철(蔡奎哲), 조광제(趙光濟), 김서민(金瑞敏), 김영환(金永煥) 등과 함께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발족하



복음병원 내에서 업무를 보던 때 현판에 선 장기려 박사

여 대표이사로서 그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인 일이었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의 취지로 시작한 순수 민간단체인 의료보험조합은 영세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박애정신의 발로였다. 회원들은 아주 적은 액수



사무실 확장 이전 현판식(1987. 8. 18)

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험조합에 납부하면 그것이 적립되어 그 적립금으로 병이 났을 때 병원신세를 질 수 있게하는 방법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는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고생만 하고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았다. 쉬든아동보호재단에서 협조를 해 주어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뒤의 74년부터는 할 인율 50%를 올려도 운영이 되었고 75년에는 부산시에서 5천명 가량의 회원으로 500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의료보험제를 실시한 89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로써 의료혜택을 입지 못한 서민층에 큰 혜택을 주었다. 75년에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 직영의 청십자의원(86년 12월 병원으로 승격)의 개원을

보았고 그 이듬해는 한국청십자사 사회복지회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재임했다. 그는 그가 펼친 이 봉사활동으로 79년 8월 31일에는 막사이사이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 막사이사이상은 57년 비행기사고로 돌아간 필리핀의 전 대통령 R. 막사이사이의 품격과 공적을 추모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적인 상으로 58년 3월 1일 록펠러재단이 공여한 50만달러를 기금으로 막사



청십자병원

이사이재단을 설립한 상이었다. 그의 업적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기리는 바가 되었다. 그는 75년 부산복음병원 원장에서 퇴임하였으나 그냥 쉬지를 않았다. 76년에는 거제도 고현보건원에서 의사로서 봉사를 했고, 76년 11월에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청십자 사회복지회를 설립하여 부산시의 정책이주 지역 주민 중심의 후생복지를 추진하였다. 78년 12월에는 '부산생명의 전화'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하여 시민과의 상담활동을 했다. 85년에는 '장애자 재활협회 부산지부'를 창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의지를 고취시켰다. 이 이외 간질환자들의 모임인 장미회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했다. 이는 부산대 외과대학 신경정신과팀의 주축으로 69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모임은 간질환자의 치료는 물론 일반인에게 간질환을 이해시키는 일을 펼치고 있다. 여기 가입된 회원들은 약값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

그는 조국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가진 아픔을 몸소 겪은 대표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에 부인과 자녀를 남겨두고 45년간 외로이 살았다. 여러 친지들이 분단된 남북의 통일 또는 화합에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재혼을 권유한 바

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은 오직 한번 하는 것이라 하여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두고 온 고향과 가족 그리움이 어찌 없었겠는가. 1990년 6월 그가 남긴 글 망향편지는 읽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한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었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 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로 되어 있다. 얼마나 애절한 사연인가.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가족 그리움을 그는 불우한 이웃들에 기울이며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었다. 94년 제 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일원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기쁨은 한량없었으나 교환합의가 무산되었을 때의 그의 실망은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의 주위를 지켜본 이들의 말이다. 옷 두벌이면 한 벌은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평생을 집 한 채, 재산 하나 없이 무소유(無所有)를 실천해 온 그는 끝내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향년 85세로 95년 12월 25일 성탄절의 새벽중이 온 누리로 울릴 때 서울 백병원에서 소천하였다. 그는 그 이전에 아들 가용에게 그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 적어 달라는 유언까지 남겼다. 그의 소천 이후 그의 순결, 청빈, 박애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헌신과 연구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기념사업회 조직을 96년 부산에서 발기하여 여러차례 준비모임을 가졌고 97년에는 서울지역에서 준비모임이 있었다. 이 부산과 서울의 준비모임이 어우러져 97년 7월 12일 서울대학병원 A강당에서 ‘성산(聖山) 장기려선생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다. 이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뜻도 크지만 그가 남긴 삶의 길을 이어받자는 데 보다 큰 뜻이 있다고 하겠다. □ 소설가·향토사학자 최해군

7. 한상동(韓相東)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번지 고신대학교 교정에 오르면 부산 앞바다와 부산의 상징 오륙도가 내려다 보인다. 제 1 강의동 입구에 들어서면 이 대학교를 설립한 한상동 목사의 기념홀이 있다. 한상동(1901~1976)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강요하고 회유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종교적 진리와 민족적 양심을 지킨 몇 안 되는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일제하 6년



간의 옥중 투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목사였고, 해방 후에는 부산에서 신학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누구든 자기 몸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은 쉽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일제의 압제 하에서 양심과 정의, 신앙지조를 지켜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상동은 1901년 7월 30일 경남 김해군 명지면 명지에서 아버지 한치명과 어머니 배봉애 사이에서 8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한상동이 네 살 되던 해에 큰 해일이 일어 염전이 피해를 입는 바람에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했다. 그래서 그는 6살 때에 다대포에 살고 있는 오촌당숙 한금출의 양자가 되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다대포는 한말의 군항지로서 일본 군대의 왕래가 잦고 우리 해군의 군관청(軍官廳), 야망대(夜望臺), 군야문(軍夜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찍 개화된 곳이었다. 한상동은 이곳에서 서당 교육을 거쳐 사립 실용학교(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 해는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이 탈취된 해였다. 다대실용학교를 졸업한 한상동은 1916년 3월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얼마 후 그는 일본에 건너가 큰 꿈을 키우고 싶어 양부모 몰래 일본 유학을 위해 밀항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한상동이 동래고보를 마친 다음 해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 이 때는 한상동이 실용학교 교사로 막 들어갔을 때였다. 한상동은 만세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 한문 서당으로 쓰던 옛 군 관청에 숨어서 밤을 세워가며 수 천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 순사가 이를 알고 달려온다는 기별을 받고 천장을 뜯어서 태극기를 숨기고 피신했는데, 감시가 심해 결국은 다대포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스무 한살이 된 청년 한상동은 1921년 5월 31일 기장에 사는 김두경의 딸 김차숙과 결혼했다.

그 해 가을 한상동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결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후 실의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24년 2월 다대포에 교회가 세워졌다. 한상동은 전도사 박창근을 만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교회에 등록된 첫 교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상동의 믿음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마을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다고 했다. 그의 양부모는 예수쟁이가 된 아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양부모로부터 과양(破養) 선고를 받고 학교 교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1927년 다대포를 떠나 호주 선교사가 경영하는 기독교계 학교인 진주광림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이듬해인 1928년 한상동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피어선 고등성경학원에 입학하여 1년 정도 신학을 수학한 후, 1929년 3월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에서 개척 전도를 시작하여 삼랑진, 하동군 진교 등지에서 전도를 하였다.

1933년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3여 년 동안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 1936년 졸업과 동시에 주기철 목사가 시무하던 부산초량교회에 임시교역자로 청빙되어 1여 년간 시무하였고, 1937년에는 마산 문창교회의 청빙을 받아 경남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문창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문창교회는 한석진, 함태영, 주기철 등 유명한 목회자들이 시무한 전통 있는 교회였다.

이 무렵 일제는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1933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면서 일제하 문화정책은 그 정체를 드러내, 한국 민족의 넋을 빼으려고 들었다. 일제는 우리말 대신에 일본말을 상용하도록 했고, 한글 대신 일본글을 쓰게 했다. 또 천황의 궁성 쪽인 동쪽을 보고 절하는 동방요배와 천황의 선조라는 천조대신 및 일본의 천황, 충신들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계는 처음 이를 완강히 반대하였다. 하나님을 금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1938년 9월 31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 27회 총회에서 일본 경찰은 신사참배에 대한 의견을 가(可)만 물어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한 것처럼 꾸몄다.

한상동 목사가 문창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5개월만인 1938년 7월초, 일제는 마산경찰서 주최로 교회 목사, 장로와 각급 학교 교사들을 불러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요구했다.

마산중학교 교장인 일본인 하라를 시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닌 국가의식이라고 강조한 다음 경찰서장은 마산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인 한상동 목사에게 이의가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한상동 목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 신사참배는 십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자 서장은 “카사마 야메(이 새끼 집어치워)”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좌담회도 해산되어 버렸다.

이 일 이후 한상동 목사는 교회 일을 전폐하고 매일 마산경찰서에 출두해야 했다. 40일간 하는 일도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밤중에 귀가했고, 다시 아침에 경찰서로 가는 일만을 되풀이했다. 한상동 목사는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 1939년 3월 문창교회 목사직을 물러났다.

그해 4월 한상동 목사는 농우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주기철 목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채정민, 오윤선, 이광록, 방계성, 안이숙, 박의흠, 김의창, 최봉석 등 신사참배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만나게 되면서 조직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이인재, 주남선, 최상림, 손명복, 최덕지 등과 함께 경남 지역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주로 부산과 밀양지역에서 활약하였다. 1939년 10월경 밀양 마산교회에 시무하면서 본격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러던 중 1940년 7월 전국에 걸쳐 신사참배 반대운동자들이 검속을 당할 때 한상동 목사도 천황에 대한 불온분자로 몰려 검거되어 경상남도 경찰부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구금되어 일본 경찰의 잔혹한 고문을 받으면서 조금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그 후 1941년 평양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주기철 목사와 극적인 상봉을 하고 1개월 동안 심문과 고문을 당하다가 1941년 7월 10일 평양형무소로 이감되었다.

한상동 목사는 평양형무소에서 고문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굳게 믿음을 지켰다. 그는 일본 천황께 충성한다는 말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외에는 여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였다.

1943년 제 32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일제에 의해 해산이 되고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으로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1945년 7월 20일에는 장로교단이 없어지고 모든 교파가 하나로 통일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 되었다. 밖에서는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며 급진적으로 세속화되어가고 있을 때 투옥된 목사들은 사선을 넘고 있었다.

1944년 4월 21일 주기철 목사가 순교하였다. 나흘 후인 4월 25일 최봉석 목사가 순교하였다. 이 무렵 한상동 목사는 폐결핵이 재발되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다. 한상동 목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리던 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운을 차렸다. 옥중에서 해방 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계획했다. 그 일은 배교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수양관을 세우는 일과 순교적 정신을 가진 교회 지도자를 양성할 신학교의 설립이었다.

이보다 앞서 평양장로교 신학교는 1938년 제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여 폐교하였고, 그 해 10월에 조선신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조선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적 성향을 나타낸 신학교로서 신사참배문제에 대하여 별로 심각성을 갖지 않았다.

한상동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학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7일 한상동 목사는 6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이기선, 주남선 목사들과 함께 출감했다. 석방된 그는 출옥성도들과 함께 평양 산정현교회에 모여 교회재건을 외치는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산정현교회의 청빙을 받아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시무하게 되었다.

1946년 2월 중순경 조선공산당 북조선 본국 당원들이 한상동

목사를 찾아와 3·1절 기념행사 주역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상동 목사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교회가 정치에 가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공산당은 그를 감시하며 그의 목회활동을 방해했다. 그 무렵 모친상의 비보를 듣고 아내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다. 1주일 후 돌아갈 것을 약속하였지만 38선 경계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한상동 목사가 모친 별세 소식을 듣고 부산 신평 본가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나 있었다. 그는 부산에 머물면서 한국교회의 형편을 알아보았다.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회개 없이 교권을 거머쥐려 하고 있었다. 신학교는 조선신학교 뿐이었고 보수신학의 요람이 될 신학교가 없었다.

1946년 6월 12일 서울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승동교회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 총회는 38선으로 국토가 차단되어 전국적인 총회가 되지 못하고 남쪽만의 남부총회가 되었다. 중요 결의로는 1938년 제 27회 총회에서 결의했던 심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그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하지만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출옥성도들이 제시한 심사참배 참가자 자숙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신학교를 총회가 받아들여 직영하기로 가결하였다. 총회의 소식을 들은 한상동 목사는 더욱 보



출옥성도

수주의 신학교의 필요성을 느꼈다.

마침내 한상동 목사는 1946년 6월 23일 진해 하사관 훈련수양관에서 주남선, 박운선 목사 등과 함께 신학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1946년 9월

20일 부산일신여학교(현재 금성중·고교) 강당에서 신학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신학교 명칭은 《고려신학교》였다.

그러나 이때 경남노회 내에서 내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옥되었던 한상동, 주남선 등의 고려신학교 중심목회자들과 신사참배를 감수했던 대다수의 기존 교회지도자들 사이의 피할 수 없는 갈등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1945년 12월 47회 경남노회에서 교직자 자숙안이 통과될 때까지 해도 출옥성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6년 12월 48회 노회에서 일제하에 교단 경남교구장을 지냈던 목사가 노회장으로 피선되면서 사태는 역전되었고, 오히려 고려신학교 학생 추천을 취소하기로 가결함으로 고려신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상동 목사를 비롯한 고려신학교측 목사들(고려파 혹은 고신파)은 경남노회를 탈퇴하고 1951년 경남 범통노회를 조직하였고 195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노회를 결성함으로 세칭 고려파 예수교장로회총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51년 초량교회를 떠나 부산에 삼일교회를 개척한 그는 박윤선, 송상석 등과 함께 고려파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1954년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기독교연합회(I.C.C.C.) 제 2차 세계대회에 한상동 목사는 박윤선, 이약신, 박손혁 목사와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이 때에 그는 웨이스신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5년 3월 8일 부산 서구 암남동 34번지 대지 1만



초기 고려신학교 교수들과함께

4천평 위에 594평의 고려신학교 신 교사가 신축되었다. 1967년 고려신학교의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문교부의 인가를 받았고, 1969년 3월 27일 한상동 목사는 고려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70년 12월 30일 고려신학교가 고려신학대학의 인가를 받아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한상동 목사는 1973년 12월 삼일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1974년 1월에는 고려신학대학장직에서 은퇴하여 명예학장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그는 신학대학 건축모금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네덜란드까지 방문하여 건축비를 조달하는데 앞장섰다.

1975년 8월 15일 부산 송도에 신학대학 신축공사가 준공되어 감사예배를 드리는 날 한상동 목사는 감격적인 설교를 하였다. 그의 생애는 평양 형무소에서 끝날 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었고 살아서 출옥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구상했던 대로 신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1975년 말 병을 얻어 부산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6년 1월 6일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철마면 기독교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며 부인 김차숙과 사이에 후손은 없다.

고려신학교는 현재 고신대학교가 되었다. 고신대학교는 영도에 본부를, 송도에 의과대학, 간호대학과 복음병원을, 그리고 천안에 신학대학원을 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였다.

■ 시인 ·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영일

Ⅱ. 학술·언론·교육

1. 박원표(朴元杓)
2. 박필채(朴苾彩)
3. 손진태(孫晉泰)
4. 우장춘(禹長春)
5. 윤인구(尹仁駒)
6. 조명기(趙明基)
7. 정중환(丁仲煥)
8. 최한복(崔漢福)

1. 박원표(朴元杓)

생애

박원표(朴元杓)는 1910년 8월 25일 부산시 중구 영주동 30번지에서 박연익(朴淵益)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남양(南陽) 홍씨(洪氏)이다.

박원표는 1926년 4월에 부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3월에 부산제2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남원의 금융조합에 입사하였다. 그 후 1937년 8월에 경상합동은행(慶尙合同銀行) 부산지점에 근무하게 되었다. 1938년 10월에는 한성은행(漢城銀行) 북부산지점 지점장 대리로 승진되었다. 1942년 10월 조흥은행(朝興銀行) 북부산지점장 대리로 근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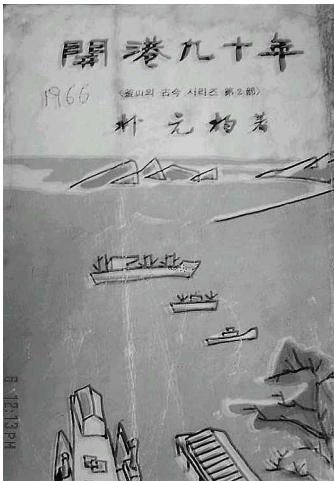
박원표는 금융계의 발전과 더불어 부산 금융계에 크게 공헌한 바 업적이 쌓여 사단법인 부산은행 집회소 사무국장에 취임한 후 25년간 근속하고 정년퇴임(停年退任)을 한 부산금융계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이 명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1945년 11월에는 부산매일신문 전무로 일년간 겸직발령을 받게 되고, 다시 그해에 부산·경남체육회 감사로 임명되어 10년간 활동했다.

1947년 8월 주식회사 고려흥신소(高麗興信所)를 개설하고 대표취체역사장(代表取締役社長)으로 부임하여 12년간 역임하고 다시 1948년 7월 부산경제구락부(釜山經濟俱樂部)를 조직하고 전무이사직을 3년간 겸직했다. 1951년 10월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부산경남지사를 조직하여 스스로 재정을 담당할 것을 자임

하고 재정감독(財政監督)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경력이 축적되어 국제적 모임에도 눈을 돌려 세계적 무대에 국력을 뽐내려고 부산 라이온스클럽을 창립하고 총무 겸 재무를 담당하여 부산 라이온스를 세계에 일원으로 동참케 하는데 기여했다. 이 모임은 그의 주선으로 확대되어 북부산, 남부산, 마산, 통영지역까지 조직이 확대되었다. 이 공적으로 1965년 5월에 국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이 되고 1966년 7월에는 부산 라이온스클럽의 회장이 되었다. 1967년 7월 국제라이온스 한국 308지구 부총재에 임명되어 부산지구 라이온스 운동의 국제적 선구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일찍부터 구상하고 있던 향토정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재건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1962년 3월 재건국민운동부산시위원회 향토개발분과위원장(再建國民運動釜山市委員會 郷土開發分科委員長)을 맡은 박원표는 이로부터 부산향토발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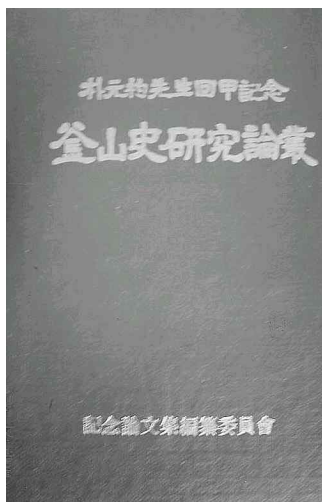
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여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이 운동을 지속하였다. 1963년 1월에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새벽회」를 조직하여 부산지역에 있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물심으로 공헌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박원표의 필생의 사업으로, 끝내는 「부산향우회」를 조직하고 1968년 10월 「부산향토문화연구회」를 만들어 향토사 발전의 선구자가 되었다.

향토사랑

박원표는 향토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발로서 직접 뛰고 한편으

로는 향토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저서 활동도 활발했다. 1964년에는 『부산금융계의 회고』, 1965년에는 『부산의 고금』, 1966년에는 『개항 90년』, 1967년에는 『향토부산』, 1968년에는 『부산금융사』, 1970년에는 <부산 변천사>를 출간했다. 이러한 공적은 향토의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더욱이 향토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朴元杓先生回甲記念論文集編纂委員會」를 결성하고 1970년 9월 5일에 그 봉정식을 가졌다. 이 기념 논문집 서문은 사학자 김의환(金義煥) 교수가 썼는데 그 곳의 몇 줄을 인용하면

오늘날 부산 연안의 각동에는 여러 곳에 사당(祠堂)이 있어, 그 곳 주민들은 자주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놓고 있거니와, 그 곳의 제사신(祭祠神)이 대부분 최영(崔瑩) 장군을 비롯한 무장신(武將神)이란 것을 볼 때, 연해민(沿海民)의 고뇌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외난(外難)에 시달려 온 연해민의 외세에 대한 불굴의 투지는 하나의 신앙으로까지 승화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부산지역의 지정학적 위치가 왜와 인접해 있고 옛날부터 왜라는 종족은 약탈과 침략을 좋아하여 언제나 부산해안에 침노하여 양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고려말에 와서 최영 장군이 왜구(倭寇)들을 격퇴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산 해안 마을에서는 최영 장군의 사당(祠堂)을 짓고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박원표 선생은 이러한 향토정신을 잘 알기 때문에 향토사랑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직접 향토사를 기술하여 시민들에게 나라 사

량과 고향 사랑운동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다시 서문에는

이러한 민족대중의 고뇌에 얽힌 주체적인 힘으로 자라 온 부산의 근대 개항을 계기로 하여 타율적인 일제침략의 강제로 왜색 일색으로 도색(塗色)되어 8·15 까지 이르게 되었다.

박원표는 해방된 조국에 민족정신 함양과 국가 융창의 길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그가 필생으로 이룬 향토사 관계의 책자는 한권한권이 모두 고향의 정신을 개발하여 국가의 장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념 뿐이었다. 이때 출간된 회갑(回甲) 기념 논총의 제목을 살펴보면 「釜山倭館의 職官考 …… (崔永植)」 「壬辰亂과 釜山事蹟 …… (丁仲煥)」 「釜山地方의 燧燧臺 및 位置考 …… (姜仁中)」 「釜山の 山名解考 …… (高斗東)」 「釜山市 形成의 歷史的 背景과 그 性格 …… (金義煥)」 「釜山 映畫銀行史 …… (張甲相)」

여기에서 당시 부산을 사랑하는 유지들의 향토애가 얼마나 컸는가를 헤아릴 수 있다. 이것은 모두 그의 향토애가 승화되어 회갑논문집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향토부산

이제 박원표가 발간한 향토사 자료집 내용을 연대별로 고찰해 보려 한다. 1966년에 나온 『開港 九十年』의 목차를 대충 살펴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부산의 고금」에는 부산에 처음 온 서양인, 러시아 군함 입항, 초량 명태 고방, 부산의 전차, 영도도선, 제2차대전 때 부산공습, 양춘바람, 판자집 잡기 등이고, 제2장 「흘러간 화제(話題)」에는 해방실격자 신용우(辛容宇), 권총마 임석봉(林錫奉), 살인귀 김선경(金善經) 등이고, 제3장 「잊지 못할 사람들」은 정경·교육계의 원로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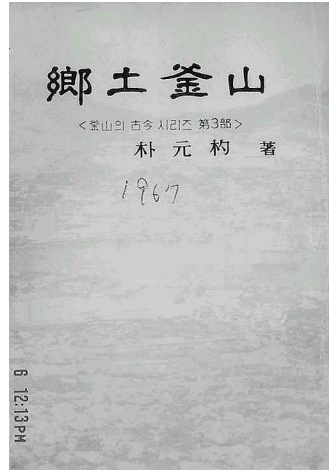
병규(金秉圭), 서민의 대변자 어대성(魚大成), 불굴의 사업가 이연재(李年宰), 국회의원 낙선의 비극 김환선(金煥善) 등이고, 제4장 「부산의 사적」에는 부산성, 자성대(子城臺), 금정산성(金井山城), 동래성(東萊城) 등 유적지 17개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박원표의 마음속엔 오로지 자신을 태어나게 해 준 고향 부산의 사랑이 몸 전체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이 책 뒷면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부산을 위해 살다간 사람들이다. 상고계 김응종(金應鍾), 수산계 이영길(李永吉), 금융계 박원표(朴元杓), 교육계 추월영(秋月映), 문학계 이주홍(李周洪), 미술계 김봉진(金奉鎭), 음악계 유신(劉信), 체육계 윤안두(尹顏斗), 언론계 강재은(姜在殷) 등을 소개하고 있다.

1967년에 출판된 『郷土釜山』은 제1장 「부산의 고금」, 제2장 「부산의 전설·민요」, 제3장 「부산을 살고 간 사람들」, 제4장 「흘러간 화제」, 부록으로 「부산 고인록」이 붙어 있다. 박원표는 이 책 서문에

필자는 만년에 이르러 비재(菲才)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釜山の古今』과 『開港九十年』의 두 책자를 만들었을 때 새삼 자신의 무능함을 느껴 아주 붓을 놓을 작정을 했으나 여기 다시 『郷土釜山』을 執筆하게 된 동기는 8·15 해방 전의 부산에 관한 사료 수집이 너무나 등한(等閑)되었음을 느낀 까닭이다.

박원표는 부산을 위해 살다 해방된 조국에 향토를 알리기 위



하여, 무엇을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 책자에 실은 몇 살피보면 모두가 정겨운 부산이 붙은 이야기들이다. 부산의 청관(淸館), 부산의 어시장, 부산의 음식, 부산의 풍속, 부산의 흥행가, 부산의 개항 전후, 부산의 문화재 등이 그것이다. 전설·민요편에서는 범어사의 매학 동자, 박권농(朴勸農)의 아들, 전생 모자, 태종대 앞 주전자 섬, 화지산(華池山)과 정씨 묘, 선암사(仙岩寺)의 꿈, 마하사(摩訶寺)의 십육나한(十六羅漢) 등인데 모두가 부산 정신을 담아 시간을 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이야기들이다.

박원표는 부산을 살고 간 우리들의 전범(典範)이 된 인물들도 잊지 않고 소개하고 있다. 안용복(安龍福), 박기중(朴琪琮), 이하영(李夏榮), 이백골(李白骨), 안희제(安熙濟), 문상우(文尙宇), 김석하(金錫夏), 박재혁(朴載赫)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부산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 준 부산 정신의 화신들이다. 그의 공적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들이 남겨 놓은 부산 정신을 우리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이 책 마지막엔 「釜山 故人錄」이 붙어 있는데 그 수가 무려 307명이 된다. 이들은 적고 크고 간에 부산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기고 부산을 떠난 사람들이다. 더욱이 그들의 주소, 사망연월일, 연령, 간단한 경력까지 소개해 놓아서 앞으로 향토인물연구 자료로서의 활용이 용이할 것 같다.

그 가운데 명인들의 면면을 몇 사람가려 본다. 김병규(金秉圭) 경상남도 지사, 김동현(金東炫) 대법관, 김말봉(金末峰) 소설가, 김성오(金聲五) 고무공업 창시자, 김성우(金成佑) 복본(福本) 양말 공장주, 이주경(李周璟) 부산최초영화배우, 이흥룡(李興龍) 협객(俠客) 일명 백골(白骨), 이종도(李鍾島) 미곡상 풍류인, 이형우(李馨雨) 서면면장·성지(聖知) 국민학교 창설자, 이유석(李有石) 풍류인 어시장 중매인, 이근창(李根昌) 민족운동가, 박영호(朴永

浩) 영신(永信) 양화점주·일인속의 유일한 한인, 박삼수(朴三守) 전부산군 야구투수, 박해룡(朴海龍) 의학박사·<나온다> 회충약 연구가, 강홍렬(姜弘烈) 독립투사·반민특위위원장, 권위상(權魏相) 부산경찰서장·피살, 배연준(裴連俊) 라이징구 석유회사 지배인, 변봉금(卞鳳今) 애국부인·독립운동 청년지도자, 서평서(徐平緒) 가야공원 창설자, 양재일(梁在日) 조선말 한학자·새칭 양박사, 어을빈(魚乙彬) 만병수본포주(萬病水本舖主)·의사(미국인), 오학이(吳學伊) 역사(力士), 윤덕영(尹德榮) 여성계몽운동가, 윤봉래(尹鳳來) 하이카라신사·건착어업(巾着漁業), 추정명(秋正明) 청년운동가·축구선수, 한신상(韓新相) 육상단거리기록자, 허원도(許元道) 미곡상·주선(酒仙), 황세학(黃世鶴) 활우수출업(活牛輸出業), 양모민(楊牟民) 중화요리·봉래각(蓬萊閣) 주인(중국인), 유경화 명기(名妓)·봉래기생조합장, 주서지(朱栖祉) 성대모사 일인자(동네답이 따라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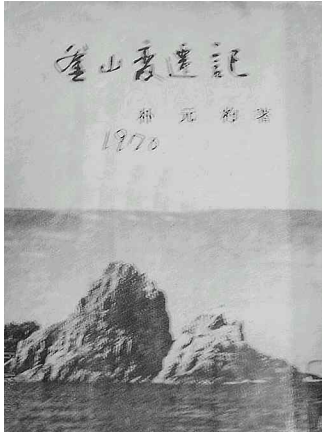
박원표는 고관대작이나 특권계층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명인·기인들을 뽑아 향토에 기여한 공적을 만대에 유전하려 한 것이다.

1970년 박원표는 『釜山 變遷記』을 간행하였다. 이 책의 서문은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윤인구(尹仁駒) 선생이 썼는데 그 앞머리에 이렇게 적고 있다.

임진란(壬辰亂)을 전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향 부산만큼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심한 변천을 겪어 온 곳은 드물 것이다. 부산은 한국의 최남단에 있어 이웃나라와도 접해 있으며 태평양 바다도 그 앞에 열려 있어 이곳에 부딪히고 이곳에서 일어나고 이곳을 스쳐지나간 그 많은 일들은 한국 근대사의 한 축소판이라고도 할 것이다.(중략)

선생은 이 지방의 숨은 역사에 뜻을 둔지 수십년으로 향토문화에 그 공적이 큰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이나 이제 그의

평소의 연찬(研鑽)은 이 기념할만한 서적에 망라되어 이 고장을 아끼고 장래의 한국을 우려하는 이의 계상(机上)에 오르게 되니 이 어찌 근래에 드문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있으랴



이 서문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개진하고 있다. 하나는 부산의 역사적 특수성이요, 또 하나는 박원표의 향토에 대한 애정이다. 박원표는 부산의 역사적 특수성이 한국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일찍부터 이 방면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釜山 變遷記』에는 제1장 「부산의 풍토」, 제2장 「부산의 변천」, 제3장 「흘러간 화제」, 제4장 「속부산의 고적」, 제5장 「연포(개항이후 부산을 중심으로)」로 짜여 있다. 제1장에는 임진왜란과 부산, 부산포대해전, 동평현성지, 초량왜관 200년, 분개염전, 아치섬 시말기 등 15편을 썼고, 제2장에는 부산 일본 거류지, 부산의 옛 박람회, 부산항의 매축, 향양원지(向陽園址), 일본인의 유물, 동래기생 권반 등 13편을 썼고, 제3장에는 주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은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 장남례(張南禮) 사건, 최 과장 피살사건, 어느 사업가의 기복(起伏), 청어 소동, 산성마을 탁주 등이 있는데 이런 비화는 이 책이 아니면 영원히 우리에게 회자(膾炙)될 수 없는 일이다. 이 고장에서 생긴 일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제4장에는 『개항 90년』에서 빠진 부산의 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은 연표를 부록으로 실고 있어 이 자료야 말로 부산 역사를 통시적(通時的)으로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1797년 9월 영국 탐험선이 용당포에 도착한 시기부터 1970년 6월 29일 제37차 국제 「펜」대회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막 될 때까지 무려 176년간의 일지를 적고 있다. 이 사항들은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뉴스거리를 모은 것이라서 더욱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일찍이 김의환은 「釜山郷土文化硏究會」를 조직하면서 그 감회의 일단을

부산은 그 역사적인 형성과정에 있어서나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 대중적인 성격이 짙은 고장으로, 자주적인 문화풍토를 이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격이 심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대중의 의욕을 북돋우어 이들이 민족적 긍지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새로운 자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고장을 사랑하고 이 고장을 건설할 수 있는 문화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원표는 「釜山郷土文化硏究會」를 조직하여 이 모임에 회장이 되어 부산이란 고장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 평생을 몸 바쳐 왔다. 그가 이룩한 향토의 역사는 통시적(通時的)으로 공시적(共時的)으로 살피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향토사학자가 줄을 이어 계승이 된다면 우리 부산은 지방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안겨 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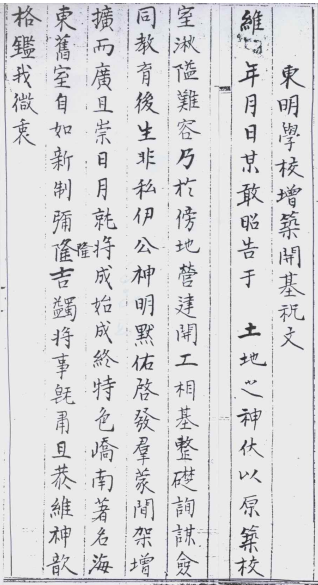
■ 파전 한국학당 원장 김무조

2. 박필채(朴苾彩)

동래부의 면훈장(面訓長)

추호(秋湖) 박필채(朴苾彩)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조선조의 전통 유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학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던 한학자이면서, 한편으로 개항 이후 부산항을 통해 외국의 새로운 문화와 물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던 시대에, 향도의 학도들에게 세계로 향한 새 시대의 웅대한 희망을 심고 길러준 교육자였다.

박필채는 1842년(조선, 헌종 8년) 2월 12일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친 괴산(槐山) 박기택(朴琦澤)은 본디 밀양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주에서 동래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였다. 동래로 온 박기택은 명륜동에 서당을 열고 동래지방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었기 때문에 추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또 아버지의 친구였던 해산(海山) 강필문(姜必文)에게 글을 배웠다. 그러다가 나이 19세가 되어서는 양산 법기촌에 와서 있었던 유명한 학자 입헌(立軒) 한운성(韓運聖)에게 찾아가 수학하였다. 이 시절 춘곡(春谷) 염휘(廉暉), 동화(東華) 이상흔(李相昕), 지전(芝田) 이광욱(李光昱), 해창(海蒼)

동명학교 증축 개기 축문 박필채 지음

김병훈(金秉勳) 등 동래지역의 명사들과 함께 교류하였다. 입헌이 세상을 떠난 뒤 1868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해소(海所) 정현덕(鄭顯德), 1876년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기수(金綺秀), 그 뒤 1880년 일본을 다녀온 시인 추금(秋琴)姜위(姜緯)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쌓았다.

동래지역 서당 훈장으로서 추호의 명성은 일찍부터 알려졌다. 그랬기 때문에 동래에 부임한 동래부사들도 추호에게 자제들의 교육을 부탁하는 이가 많았다. 그는 47세 때 지방유림의 추천을 받아 동래부의 면훈장(面訓長)의 직책을 맡았고, 58세 때 성균관 박사(博士)의 직함을 받았다. 당시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철폐됨으로써 한학(漢學)을 전수하던 유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명목으로 각 지방에서 명성이 높은 학자들에게 성균관 박사라는 직함을 주었다. 추호는 이미 예순을 앞두고 있는 나이로 실제로 부임하여 직책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평생 학문과 교육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영예로운 일이었다.

개항장의 교육자 - 천하만국과 나란히

동래·부산지역은 예로부터 바다 건너 일본과 마주하는 곳으로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한 곳이었다. 1876년 외국과의 교역을 위하여 항구가 개방되면서, 부산항을 통한 외국과의 교섭은 더욱 활발해졌다.

당시 유학자들 중에는 외국과의 문물교류와 통상을 극력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국가경제도 건실하지 못한 터에, 강력한 무력과 새로운 기술을 앞세우고 통상의 압력을 가해오는 외세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래·부산지방의 선비들은 일찍부터 왜관을 통하여 외국문화와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래문화에 대하여 매우 관대

하였다. 추호는 국가에서 이미 외국과의 통상을 허락하고 우수한 외국문화를 섭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상, 외래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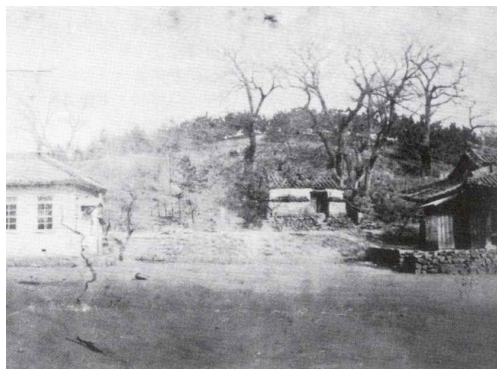
현금 경쟁시대를 당하여, 약한 자를 겸병하고 어두운 자를 공격하며,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고, 배와 차로 온 세계를 통행하는 형편에, 관문을 닫고 조약을 끊고 항구를 폐쇄하여 지키는 것보다는,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고 일에 따라 대응함이 옳다. 그러나 신학의 이용후생이 구학과 가깝지만, 기교가 지극히 교묘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놀랍게 하고 하늘의 조화까지 빼앗는 것들은 도리어 이용후생에 방해됨이 있으니, 잘 살펴서 다듬지 않아서는 안된다.

병자년 개항 이후 부산항을 거점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였다. 외국문물을 받아들이고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일체의 제도가 고쳐지는 와중에, 부산에서는 다른지역보다 앞서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속속 건립되었다. 1895년 부산 영주동에 박기종이 일본인들의 협조를 얻어 개설한 일어학교인 개성학교를 시작으로, 같은 해에 일신학교가 건립되었고, 1898년에는 동래부에서 공립동래부학교를 건립하였다. 이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와, 물리 화학 지리 등의 새로운 교과목을 채택하여 가르쳤는데, 이런 내용은 조선의 옛날 서당에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과목들이었다.

추호는 이러한 신학교의 건립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다. 추호는 굳이 구학문에 구속되어 신학문을 배척할 것도 아니고, 신학문을 따라 구학문을 버릴 것도 아니라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여 신구병진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신학문의 교육이 국가와 사회

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외국어학교의 하나로 개양학교(開揚學校)가 있었는데, 추호는 을사년(1905) 1월에 개양학교 생도들의 요청에 의하여 부교장(副校長)으로 초빙되었다. 이듬해 병오년(1906) 가을에는 동래사람들이 동명학교를 개설하였는데, 추호는 그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도 초빙되었다. 또한 이 무렵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각 지방관아 소속 군관인 무교(武校)를 폐지하는 법령을 내렸는데, 동래부의 무관들은 무관관청 소속의 공유 재산과 임야 등을 모두 모아 동명학교(東明學校)의 재원을 만들고, 그것으로 동래부에 설립된 네 곳의 신학교에 기금을 보조하는 학무회를 결성하였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동래기영회에서 삼락학교(三樂學校)를 설립하고, 또한 추호를 교장으로 초빙하였다. 그 이듬해에 정미년(1907) 12월에 삼락학교가 마침내 개양학교를 흡수하여 동명학교(東明學校)로 개편하자, 다시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그 해 12월달 동래향교에서 재원을 염출하여 건립한 명륜학교의 학감으로도 초빙되었다.

추호는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새로 건립된 신학교의 초창기 교육의 책임을 맡아 학도들에게 학문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추호는 학도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배척하지 말고 적극 배울 것을 권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문은 어디까지나 인간다운 도리를 밝히고 실천하는 데 근본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립 동래고등 보통학교의 교사 일부(1915년 경)

“동양의 옛 성인들은 오직 심성의 의리에 힘을 써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었기에, 공리에 대하여는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으나, 현금 서양 사람들은 물리의 학문을 끝까지 궁구하여 영롱하고 투철한 성과가 갈수록 기묘하여 국방이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민첩하면서도 공교한 바가 있다”

고 하면서, 공자 맹자의 도덕을 바탕으로 삼고 구미의 기술을 응용하여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고 국민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학도의 임무라고 격려하였다.

추호는 신학문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학문의 귀천이나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부산에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부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의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의생조합을 조직하였다.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보전하려는 의술은 소중한 학술의 하나였지만, 사대부 양반을 중시하는 조선조의 사회 기풍에는 의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접하였다. 추호는

“사람이 생긴 이래로 온갖 기술자가 기술과 재능을 발휘하는 일은 모두 이용후생을 위한 것인데, 의사 대우를 유학자보다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된 풍습이라”

고 하면서 의생들의 학업을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여학교 정정의숙의 건립되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적극 찬동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의 사람들을 회유하여 친일단체를 조직하고 선동하였다. 부산에서는 일본인 오오가키[大垣]가 그런 일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추호는 그에게 서찰을 보내어 “병든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산채로 삼키려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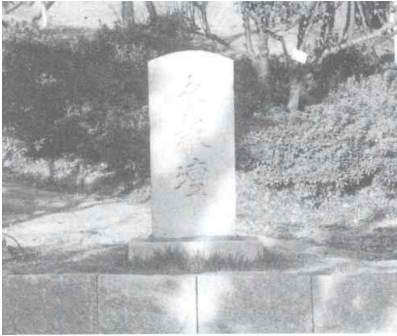
라고 꾸짖었다. 외세에 눌려 국가의 위세가 날로 위축되어 가는 시대를 당하여, 국가의 주권을 부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길은 젊은 세대를 각성시켜 신학문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고 추호는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보국단체가」라는 가사에 이르기를 “자주권리 금세계를 대한 신민 아시는가? 자주권리 하는 도리 신학문에 다 있나니, 우리 학도 일심하여 신학문을 공부하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추호의 신교육에 대한 권장은 시대의 대세에 따라 국권을 수호하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추호의 교육이념은 동래 유림이 건립한 육영학교의 설립을 당하여 추호가 작성한 「육영학교설립취지서」에 잘 나타나 있다.

무릇 학교를 진흥하는 것은 국가의 성대한 일이요, 동물을 교육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우리 동래는 태평양의 관문이 되는 중요한 곳에 위치하여 육대주의 배가 끊임없이 모여들어 일대 도회지를 이룬 곳이다. 현금의 시대를 전일과 견주어 옛 법규를 변통없이 지킨다면 이는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엿보는 좁은 소견이다.

무릇 이 학교에 들어오는 자는 처음에 소학의 과정에서 시작하여 중학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진학하여 부지런히 힘을 써서 실지의 과정을 밟아 그 능력을 배양하고 영재를 성취하고 한편으로 외국어학으로 운색하여 육대주의 사람들과 함께 달리며 천하 만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면, 국권과 민리가 멀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우리나라의 큰 기틀을 억만 년 펼칠 것이다.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시절, 추호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여 자주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외국문물을 받아들여 젊은 학도들을 교육하는 것이 급



영보단비 부산시 동래구 마안산 기슭

선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이미 예순이 넘도록 서당교육에 몸을 바쳐온 유학자가 신학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신학교의 운영·책임을 맡고 나선 일은 이 시대에 매우 드문 일이었다.

대한제국의 기울어져 가는 운명을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무렵, 추호는 나이 이미 일흔을 넘긴 노인이었다. 1909년 동래부의 옛 민적이 폐기되자 추호는 동래지방의 원로들과 더불어 옛 민적을 불태워 영보단에 묻고는 조상의 이름을 묻은 터를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비석을 남겨 두었다. 것처럼 국권을 회복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는 추호의 신학문 장려운동은 비록 당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그의 지도 아래 교육받은 후학들은 여러 방면에서 외세의 압제와 투쟁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

청빈한 생활

추호는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다. 추호의 장남 하성(夏成)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내고 함흥부 참서관과 합천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차남 하용(夏鏞)은 공립소학교 부교원이었다. 추호의 부인인 안인(安人) 손씨(孫氏) 또한 여학교 정정의숙이 설립되자 그곳의 국문교사로 취임하였다. 이처럼 추호의 부인과 두 아들 모두 교육자 또는 관리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그럼에도 추호의 생계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계묘년(1903) 여름 흉년으로 인하여 식량이 모자랄 지경이 되자, 추호는

늘 아끼던 정원의 수포석(水泡石)을 부산항에서 약포를 경영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내다 팔아 식량을 바꾸어 왔다. 어려운 사정을 짐작한 친구 지전 이광욱이 나락 몇 가마니를 보내 왔지만 추호는 정중히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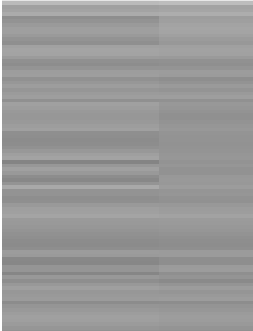
그러던 추호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된 이후 일체의 교육활동을 중단하였다. 만년에는 지병인 마비증으로 인하여 오래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을축년(1925년) 2월 3일에 문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였다.

추호는 5책의 문집을 남겼다. 이 문집에는 19세기 말 개항장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었던 부산·동래지역의 사회 문화의 여러 단면들이 여실하게 나타나 있다. 청빈하게 살다 간 추호의 흔적은 이 다섯 책의 문집을 통하여 지금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동서양 열강이 무력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20세기 초, 언젠가 만국의 평화가 도래하려면 기필코 공리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충실한 인륜이 밝혀져야 한다고 한 추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 경성대학교 교수 정경주

3. 손진태(孫晋泰)

손진태의 생애



남창(南滄) 손진태(1900-?)는 한국 민속학의 개척자요, 신민족주의 사관(新民族主義史觀)을 제창하여 유명한 부산이 낳은 역사가였다. 그는 1900년 12월에 당시 경남 동래군(東萊郡) 사하면(沙下面)의 낙동강 하구(河口)에 있는 외진 마을 하단리(下端里)에서 손수인씨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하단리는 현재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

동이다. 그의 선대는 원래 경남 합천군(陝川郡) 초계면(草溪面) 초계리(草溪里)에 살았으나, 그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주함에 따라 부산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출생 후 곧 아버지를 여의고, 이어 다섯 살 때는 해일(海溢)이 강가의 마을을 휩쓸 때 어머니마저 잃는 비운을 당하였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손진태는 할머니를 따라 당시 양산군 좌이면(左耳面) 구포리(龜浦里)로 옮겨와서 어린 시절을



가족사진

보내게 된 것이다. 구포리(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는 옛 지명이 남창리(南倉里)였다. 마을 앞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가에 정부의 세곡(稅穀)을 보관하던 창고인 남창(南倉)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

나 구포 사람들은 남창리의 한자 표기를 남창리(南滄里)라 하였다. 손진태가 뒷날 자신의 호를 남창(南滄)이라 한 것은 이 마을 이름을 따다 쓴 것이다.

구포리로 옮겨 온 남창은 아홉 살 때 사립 구명학교(私立龜明學校,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신교육을 받고, 열두 살에 구명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고 학구열이 남다른 바가 있었으므로, 구포 장터에서 영세 미곡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던 할머니는 마침내 손자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서울에 유학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학자금의 조달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불과 10여 세의 어린 소년의 몸으로 평양에 까지 내려가서 잡화상을 벌이는 등 학비를 모으는데 여러 해를 허비하였으며, 18세 때인 1919년에는 마침 구포에 왔다가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여기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주동자로 헌병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의 징역형을 언도 받고 부산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러다가 최규동(崔奎東)의 도움으로 중동학교(中東學校)에 들어가 2년 동안 공부하고 1921년에 졸업하였다. 그는 재학 중 장차 정치가가 되어 보겠다고 연설을 연습하기도 하고, 혹은 한일합병 후 비밀 결사로 조직된 한국사를 연구하는 모임에 관계하여 참으로 대담하게도 한국사의 편저(編著)를 구상한 바도 있었다 한다.

중동학교를 졸업한 남창은 경북 성주(星州)에 살고 있던 자산가 이모(李某)씨의 후원으로 일본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는 1921년에 와세다(早稻田) 제1고등학원에 들어가서 3년 과정을 이수하고 1924년에 와세다 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3년 동안 니시무라(西村眞次)교수의 지도아래 본격적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1927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가 일본에 건너간 이듬해인 1922년에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방정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환(方定煥)·마해송(馬海松)·윤극영(尹克榮) 등 도오쿄오 유학생들과 함께 색동회를 창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고, 대학졸업 후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해 오던 한국의 가요와 민담(民譚)·설화·민속 등을 열성적으로 수집·연구하는 한편 1932년에는 송석하(宋錫夏) 등과 함께 조선민속학회를 창립하였으며, 또 도오쿄오[東京] 문고(文庫)의 사서(司書)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1934년에 남창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교 전신)의 강사로 동양 문화사를 강의하면서

이병도(李丙燾)·조윤제(趙潤濟) 등과 함께 진단학회(震檀學會)를 창립하고, 곧 이어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전신)로 옮겨 도서관 사서로 있으면서 문명사를 강의하였다. 그 후 전임강사를 거쳐 1939년에는 마침내 교수로 승



보성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하여 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던 중 8·15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듬해에 남창은 서울대학교 사학과의 교수가 되었다. 그



1926년 4월 색동회 회원들과 함께
 뒷줄 왼쪽부터 마해송, 정인섭, 손진태,
 앞줄 왼쪽부터 조재호, 진장섭

는 지난 날 여러 학술지에 발표한 민속학에 관한 논문들을 연달아 책으로 엮어 출판하고, 또 한국사의 연구를 본격화하여 여태까지 자신의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던 이른바 신민족주의 사관을 여러 저술을 통해 새롭게 제창하였다.

그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의 요청으로 문교부 차관 겸 편수국장을 역임하고, 이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을 거쳐 문리과대학장 재임 중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그는 전란 중에 서울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삼각산에 은신하고 있던 중 발각되어 북으로 납치되고 말았다. 그 후 북한에서의 활동은 자세히 알려진 바 없고 다만 1950년대의 후반에 지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민속학의 개척자요, 신민족주의 사관이라는 독특한 사관으로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했던 훌륭한 역사가가 이토록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민속학의 개척

남창 손진태는 일본에 유학을 시작하던 1920년대 초부터 민속학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가 이때부터 민속학 연구를 시작한 것은 민속학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대학에서 일본사와 인류학을 전공하던 지도교수 니시무라(西村眞次)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민속학을 연구하려 한 것은 단순한 흥미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널리 전승되고 있는 민담(民譚)·설화 같은 구비(口碑)자료라든가, 민속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를 통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민중 생활사를 재구성하고 민족문화의 기원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열심히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 활동은 대체로 1923년부터 시작하여 1929년 단 1년만을 제외하고 1933년까지 9년간이나 계속 되었는데 주로 여름철을 이용하였다. 조사활동을 벌인 지역은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황해도, 경기도, 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이지만 이 지방을

빠짐없이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몇몇 곳을 골라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어떤 곳은 3, 4차에 걸쳐 조사하기도 하였다.

그의 조사 연구의 대상은 매우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이었다. 이것을 몇 개의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구비 전승과 민간신앙, 사회생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구비 전승에는 신화·전설·민담(民譚)·고가요(古歌謠)·무가(巫歌)·동요·우화(寓話)·소화(笑話)·욕설 등이 있고, 민간 신앙에는 서낭당·선돌〔立石〕·장승·숫대·산신·무당·맹격(盲覓, 소경박수)·복화무(腹話巫, 공정어)·삼신(三神) 등이 있으며, 사회생활 분야에는 민간의 주거 형식을 비롯하여 온돌·뒷간·석전(石戰)·줄다리기·세시풍속·데릴사위제·과부 약탈혼·근친혼속 외에 감자와 고구마의 전래라든가 고고학의 대상이 되는 고인돌(Dolmen)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민속자료는 반드시 기록을 뒤져서 얻은 문헌자료와 대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문헌자료를 통해 민속자료의 역사성을 밝히는 동시에 문헌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민속자료에서 찾아내고, 민속자료의 미비한 점을 문헌자료에서 발견하여 자료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서로 보완하려 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민속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생성되어 어떻게 행해져 왔는가를 역사적 시각에서 밝히려 하였다. 또 그는 설화나 민속을 연구하고 이해함에 있어 만주·몽고·중국·시베리아와 일본 등 한국과 가까운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도 이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의 설화나 민속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발생하여 어느 시대에 어떠한 까닭으로 어느 곳으로 전파되었는지 그 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이것을 문화사적 방법이라 하였다. 그가 한국의 설화를 조사 연구하여 「중국에 전한 조선 설화」, 「북방민족 영향

의 민족 설화」, 「일본에 전파된 조선 설화」, 「세계적으로 분포된 설화」로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문화사적 방법을 시도한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민속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온돌이 고구려에서 발생하여 발해와 요민(遼民)에 의해 만주에 전승되었다가 다시 금인(金人)에 의하여 북부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한국의 남부지방까지 널리 퍼져 보편화된 것을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라고 한 것이라든가, 한국의 서낭당을 몽고의 오보(Obo, 鄂博)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그 기원과 변천을 다룬 것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남창의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의 조사 연구를 통한 정열적인 학문 활동은 그 결과 『조선고가요집(朝鮮古歌謠集)』(1929. 일문),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1930. 한일문대역),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1930. 일문), 『명엽지해(冥葉志諧)』(1932)를 비롯하여 1927년에서 1929년까지 15회에 걸쳐 『신민(新民)』이라는 잡지에 연재한 것을 8·15 광복 후에 책으로 엮어 출판한 『조선 민족 설화의 연구』(1947)와 1923년 이래 『신민(新民)』, 『여시(如是)』, 『동광(東光)』, 『조선민속』, 『진단학보』 등 국내 잡지와 『민속학』, 『향토연구』, 『사관(史觀)』, 『나그네와 전설』 등 일본잡지에 발표한 논문 18편을 묶어서 출판한 『조선 민족 문화의 연구』(1948), 그리고 1926년에 쓴 원고로서 1981년에 간행된 『손진태선생 전집』(6)에 수록된 『조선 상고 문화의 연구(1)』 등 실로 엄청난 분량의 저술이 쏟아져 나왔다.

남창은 이들 저술을 통해 민족의 오랜 사상과 생활의 모습이 담겨 있는 설화와 민속을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새롭게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기록에 전해오지 않는 민족의 문화와 민중의 생활사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민속학은 단순한 일반적 개념인 “민속에 대한 과학”이 아니라, 이미 그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민족 문화학”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역사 민속

학”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민속학 연구에 역사학적 방법을 새롭게 붙여 넣어 한국 민속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새로운 민속학의 선구자요, 개척자였다. 그리고 그의 민속학 연구는 지난 날 완전히 문헌에만 의지하고 있던 한국사 연구가 빠지기 쉬운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의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다음 날 그 자신이 제창한 신민족주의 사관이 탄생할 수 있는 단단한 바탕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신민족주의 사관의 제창

남창 손진태는 1930년대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던 민속학에 대한 연구 활동을 갑자기 멈추어 버렸다. 그것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학문 활동을 심하게 탄압한 데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었겠지만, 실은 이 무렵부터 그의 학문상에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변화란 여태까지 쌓아온 역사 민속학의 토대 위에서 문헌 중심의 역사학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한국사를 이해하고 체계화 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신민족주의 사관은 이러한 가운데서 구상된 것이다.

남창이 구상한 신민족주의 사관은 1945년 8·15광복 이후 저술된 『조선 민족사 개론(상)』(1948)과 『국사대요』(1949)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조선민족사개론』은 원래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간행할 예정으로 있어 신라 통일기까지만 다루고 그 이후 것은 하권에서 다루기로 한 것인데, 하권을 내지 못하고 만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사대요』가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천명한 신민족주의 사관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

면 과거 왕실 중심적이고 귀족 지배계급 중심적인 역사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 비판하는 동시에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민족주의 사관은 고증을 통해 밝혀진 역사적 사실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만 그치는 실증 사학과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래 민족의 ‘혼’이나 민족의 ‘얼’, ‘낭가사상(郎家思想)’ 같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는 중심적 개념으로 삼았던 민족주의사학과도 다르고, 지나칠 정도로 피지배 계급 위주로 역사를 이해하려던 사회경제사학과도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남창의 신민족주의사학은 매우 독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독창적인 남창의 신민족주의사학은 민족 문제가 한국사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한국사에 나타나는 모든 민족투쟁과 계급투쟁, 그리고 정치·문화 등 역사적 사실은 모두 민족의 입장에서 비판되고 그 가치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란 왕족이나 귀족 등 민족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한국사를 이해하고 체계화함에 있어 얼마나 민족을 중요시 했던 가는 한국사의 시대구분을 민족의 성장 발전에 따라 민족 형성 배태기(씨족 공동사회), 민족형성 시초기(부족국가), 민족통일 추진기(삼국), 민족 결정기(통일신라), 민족의식 왕성기(고려), 민족의식 침체기(조선), 민족 운동 전개기(일제강점기)로 시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민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낮추어 평가하면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남창의 신민족주의는 민족 중에서 어느 특수계층이나 일부 특정계급이 아닌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그는 민족 전체가 정치·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균등한 지위와 생활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민족국가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고, 민족의 친화(親和)와 단결이 완성 될 것으로 보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신민족주의는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였다. 따라서 신민족주의 사관은 지난날의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단순한 하나의 사관이 아니라, 현재 한국 민족이 기필코 실현해야 할 이상과 목표로써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민족주의 사관은 현재적 관심을 바탕으로 형성된 매우 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국은 국토의 분단과 좌우 이념의 극심한 대립에서 야기된 계급투쟁 등 온갖 충돌과 투쟁이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던 남창은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쟁(內爭)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弱化)에 따르는 외민족으로부터의 수모(受侮)를 초래할 것이라 하면서 민족의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히 해소되는 문제라고 설파하였다. 그가 부르짖은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되면 망한다. 균등하면 단결하고 불균등하면 분열된다.”는 짤막한 한 마디 말은 실로 우연히 내 벨은 말이 아니었다.

또 그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되는 남북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생활과 감정을 같이 하는 혈족(血族)이 통일되는 것은 당연하되, 민족의 이상은 통일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요, 그 통일은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분단된 국토의 통일은 누구나 염원하는 바이지만 민족 전체의 진정한 행복 [자유·균등(평등)]을 가져다 주지 않는 통일은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오늘에 와서도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남창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관은 실증사학·민족주의 사학·사회경제사학 등 한국 근대사학의 반성과 비판 위에 이끌어낸 하나의 독창적인 역사 이해의 관점으로 그 가치가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역사학이 신민족주의 사관의 장점을 계승하고, 그 기반 위에 또다시 새롭고 독창적인 역사관을 도출할 때 한국사의 연구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이원균

4. 우장춘(禹長春)

출생과 수학과정



다윈(Darwin)의 진화론(進化論)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종(種)의 합성(合成)」으로 자연과학계의 새로운 안목(眼目)을 넓히는 한편 그 「종의 합성」으로 세계적 육종가(育種家)가 된 우장춘(禹長春)은 1898년 4월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아버지 우범선(禹範善)과 일본인 어머니 사까이나카(酒井仲)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국인명대사전』(신구문화사 1967년 刊)의 기록에 의하면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은 무관으로 농학자 장춘의 아버지라 했고, 1881년 별기군(別技軍)의 참령(參領)이 된 뒤 독립당에 가담하고 1895년 훈련대 대대장으로 휘하 장병을 이끌고 일본군 수비대와 함께 궁궐에 침입 민비(閔妃)의 시해(弑害)를 방조했다. 이듬해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신변이 위험해지자 일본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일본에 망명했다. 도쿄에 거주하며 일본여성 사카이(酒井)와 결혼, 재기를 꿈꾸던 중 본국에서 파견된 자객(刺客) 고영근(高永根)에게 암살당했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우장춘의 아버지는 을미사변(乙未事變) 당시의 민비시해사건에 관련되어 일본에 망명해 있었고, 망명해 있을 당시 일본여성과 결혼하여 그 일본여성 사이에서 우장춘이 태어난 것이 된다.

그런데 우장춘의 성장기록을 보면 아버지를 여윈 것은 4살때였고, 그때부터 삶의 길을 잃어 장춘은 사찰에서 경영하는 기시

보사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유복자가 된 동생 홍춘(洪春)을 낳고 청소부, 잡역부 등 닳치는 대로 굶은 일을 하며 삶의 길을 열어갔다.

1년만에 고아원을 나온 우장춘은 어머니를 따라 히로시마의 구레(呉)로 가서 그곳 소학교를 마치고 구레중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에 졸업을 했다. 졸업을 하고는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농학실과(農學實科)에 입학했다. 이렇게 대학에 들 수 있었던 것은 구레중학 졸업 당시의 담임선생이 우장춘이 조선사람이니 조선총독부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장학금이 나올 것이란 생각으로 신청한 그 장학금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일본 생활과 학문연구

1919년 농학실과를 졸업한 그는 일본 농림성(農林省)농사시험장 고원(雇員)으로 취직했다가 1년 뒤는 기수(技手)가 되었다. 기수가 되어 연구와 실험에 몰두한 1년만인 1921년 혼담이 들어왔다. 혼담 대상자는 일본인 소학교 여교사인 수나가고하루(須永小春)였다.

고하루와 결혼을 한 그는 생활의 안정을 얻으면서 연구·실험에 보다 더한 열정을 기울일 수 있었다. 마침내는 홉꽃인 페튜니아를 8겹의 겹꽃을 피울 씨를 합성(合成)할 수 있었다. 그동안 생물은 환경의 변화속에서 변이(變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변이가 생활에 적합한 것은 생존하고(適者生存), 부족한 것은 자연적도태(自然淘汰)가 이루어지는 생존경쟁이 진행되면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하였다는 다윈(1809~1882)의 ‘종(種)의 기원(起原)’이 진화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우장춘이 홉꽃인 페튜니아 겹꽃 페튜니아 육성교배 모습

니아를 8겹의 겹꽃을 피우는 종(種)의 합성(合成)을 이룬 그 위에 십자화과(十字花科) 식물(무우·배추·양배추 등)의 게놈(GENOM) 분석에 새로운 경지를 열어갔다. 그것은 유채(염색체수 10)와 양배추(염색체수 9)를 교잡(交雜)하여 지금의 조선유채(염색체수 19)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조선유채(염색체수 19)와 배추(염색체수 10)을 교잡하여 염색체수 29의 배추의 새 품종을 개발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한 학위논문으로 1936년 5월 4일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 논문이 발표되자 농학계 뿐 아니라 자연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다윈의 진화론을 추종해 온 학계에서 생물의 진화는 다윈이 말한 생존경쟁에서 온다는 사실에 회의를 가지면서 자연계에 있어서도 종의 합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종이 생겨나면서 진화를 거듭해 갔을 수도 있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우장춘은 그러한 생물학 중심의 학자라기보다 농학도이자 육종가(育種家)였다. 농작물의 새 품종 창조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시험장의 판 동료들은 기수(技手)에서 기사(技師)로 죄다 승진하였는데 그는 박사가 되어서도 16년 전의 기수였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強占)되어 있을 때였다. 우장춘의 이력서 본적은 조선이었고 그 조선으로 해서 조선인이 되어 홀대를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37년 6월 해외출장의 명을 받고 2개월간 중국을 다녀온 뒤인 8월 25일 농림성 기사(技師)의 사령장을 그제야 받았다. 그 사령장과 함께 우장춘을 중국에 세워질 면화시험장(棉花試驗場) 장장(場長)으로 상신했다. 그런데 농림성에서 상신했던 우장춘을 외무성에서 조선사람을 중국의 면화시험장 장장으로

발령하기는 곤란하다고 그 부당성을 제시했다. 그러자 농림성에서는 우장춘에게 창시개명을 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하라고 했다. 우장춘은 그동안의 울분이 치솟았다. 그동안이란 네살때 아버지가 암살된 뒤 고아원에서 조선인으로 천대받던 그 이후 계속된 천대에 대한 울분이었다. 그 울분으로 다음날인 8월 26일 19년간 재직했던 농사시험장에 사표를 내던졌다. 사표를 내던졌다 해도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9월 11일 일본의 교토(京都)에 있는 다끼이(瀧井)연구농장장으로 취임했다. 이 다끼이농장에서 우박사가 연구개발한 것이 십자화과식물(十字花科植物)은 제 꽃속에 함께 있는 수꽃가루가 암술머리로 가서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자가불화합성(自家不和合性)을 이용한 채종법(採種法)이었다. 이 채종법으로 인공수분(人工授粉)에 의한 무우·배추·양배추 씨앗을 개량해 갔다. 다끼이농장의 무·배추·양배추 씨는 지역의 풍토를 따라 그 우수품종을 달리하면서 명성이 올라갔다.

그렇게 다끼이농장에서 새로운 우량품종을 개발하기 8년뒤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벌인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자 조선독립이 보장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박사는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사실 그는 생각이 성숙되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회의가 짙어졌다. 그가 네살때 다같은 조선사람으로 해서 아버지가 죽음을 입었다면 그 죽음에는 심상치않은 이면적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그 이면적 이유를 어머니를 통해, 그 당시의 아버지 주위의 사실을 통해 더듬었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에 따라 아버지가 혁명가가 되기도 하고,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가 되기도 했다. 그 두갈래 갈등은 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어린날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해결할 수 없는 고뇌였다.

그런데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조선이 독립된다고 했다. 고뇌속의

아버지의 행위와 처신의 잘잘못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아들로서의 처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처신은 아버지가 저질은 일에 대한 속죄였다. 머뭇거릴 것도 아니었다. 조선인의 아버지여, 일본인의 어머니, 그 사이의 어머니의 고국인 일본에는 공헌을 다하다시피 했다.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에 공헌하는 일, 그것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속죄요, 조국에 바치는 도리였다.

우박사는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한다는 8월 15일에서 17일 뒤인 9월 2일 다끼이연구농장에 사표를 내었다. 일본은 패전으로 우왕좌왕의 혼돈속에 빠졌고, 한국 또한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우박사는 알음이 있는 한국인이 광복맞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에게는 나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도와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당시는 미군점령 아래 외지에 나가 있던 사람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제나라로 귀환하는 귀환선을 타고 오갈 때였다. 한·일간 국교(國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제각각의 환국은 미군정(美軍政)이 주선을 하고 있었다.

다끼이연구농장에 사표를 낸 우박사는 교토(京都) 근처의 조오호오지(長法寺)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아버지의 나라 한국으로 갈



가족 사진 1950년 우장춘이 한국에 귀국하기직전에 찍은 사진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는 한국으로 가는 인편으로 대한원예협회장 김태홍(金泰洪)에게 한국으로 가서 일하고 싶다는 편지도 보냈다.

환국 후 국내활동

그런데 우박사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가졌을 그

무렵 동래(부산)지역에서는 우장춘박사의 환국(還國)을 추진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는 부산이 경상남도 산하 행정기관에 들어 있었는데 우장춘박사환국추진은 광복후의 초대 경상남도지사 김병규(金秉圭), 경상남도 농무국장 김종(金鍾), 토지행정청의 진정기(陳正基), 부산원예고등학교장 김흥수(金興洙) 등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종전(終戰)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정치적 교류가 성립되지 못한 그때였다. 귀환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귀환절차를 밟는다 해도 세계적인 육종학자를 한국으로 가게 놓아줄 것 같지도 않았다.

우박사는 비상수단을 썼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서 온 밀항자와 불법체류자를 적발 수용해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수용소인 오호무라수용소(大村收容所)에 자진해 가서 그가 경성(京城 ; 현재 서울) 종로구 저동이 본적이 되어 있는 호적등본을 내밀고 한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사실이 현장의 실무진에 받아들여져 며칠을 수용소에서 지내는 사이 부산에 있는 우장춘박사 환국추진위원회에 연락이 되고 제일동포귀환선으로는 38회째인 38선(船) 신흥환(新興丸)으로 1950년 3월 7일 환국을 했다. 일본인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여섯 자녀들은 일본에 그대로 두고 오는 단신 환국이었다.

그의 환국 이전에 오늘날의 동래구 온천2동의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와 동래원예고등학교의 서쪽지역이자 온천초등학교의 북쪽 큰길 너머 지역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의 도리이농장(鳥井農場)의 경영인 도리이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의 넓은 농장에 사단법인 한국농업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단체로 우장춘박사환국추진위원회가 적산토지(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한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확보해 두려는 뜻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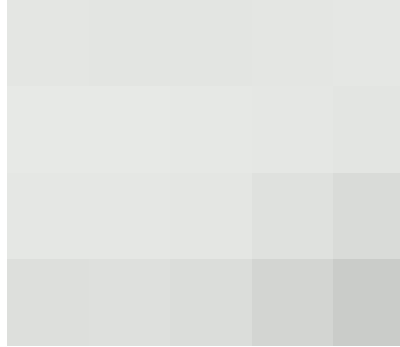
우박사는 이 온천2동 자리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쌓은 육종기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술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 그때의 그의 나이 52세였다.



귀국 환영모습(1950)



귀국인사 부산원예고에서(1950. 3. 8)

그는 먼저 영남과 호남 지방 농촌의 농작물 실태를 살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종자에 의존해 온 채소류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우리나라와의 국교단절로 일본에서 종자가 들어오지 못해 4~5년 동안 반복된 연작과 잡종 씨받이의 자식약세(自殖弱歲)현상으로 품질이 크게 퇴화되고 있었다.

우박사는 종자개량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란 생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구미에 맞는 무·배추의 우량종을 골라 연구소 포장(圃場)에 그물로 된 망실(網室) 50여채를 짓고 그 씨를 뿌렸다. 망실 안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이상한 꽃가루를 묻혀오는 벌과 나비의 침입을 막고 인공수분으로 뜻하는 바 씨받이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같은 망실속 인공교배라야 한무리는 내병성(耐病性)이 강하고 맛이 좋은 것을 교배하고 또 한무리는 품질이 좋은 것과 생산력이 있는 것을 교배하여 1차적인 씨받이를 하였다가 2차적으로 그 두무리를 교배하여 병에 이기고 맛이 좋고 품질과 생산력이 있는 새 품종을 생산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우박사 자신이 개발한 우량종 종자의 채종방법이었다.

이렇게 생산된 새 품종의 씨앗을 내륙의 육지에 뿌리면 온갖 꽃가루를 묻힌 벌·나비의 접근으로 원종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섬인 전라남도 진도에 뿌려 수백가마의 씨앗을 받아 농림부를 통해 전국의 농민들에 나누어 주었다. 전국의 채소품질 개량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박사의 감자종자의 개량이 있기 전에는 일본의 추운 지방 북해도(北海道) 감자를 수입해서 그것을 씨감자로 해서 눈을 잘라내어 심었다. 그렇게 북해도에서 씨감자를 한국까지 운반해 오려면 운송비가 크게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국교단절로 북해도에서 씨감자를 가져오지 못해 지방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쓰다보니 바이러스병 때문에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토질에 심어지는 연작으로 퇴화현상이 나타나 감자가 밤톨만큼 작아졌다.

이에 우박사는 씨감자를 일본 북해도에 버금가는 기후의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옛날의 축산시험장 주위의 넓은지역에 감자를 심어 씨감자를 생산하는 고령지 채소지를 조성하여 감자의 맛을 밤맛으로 닮아가게 개량했다.

우박사는 남해일대의 밀감재배에도 공헌한 바 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이외는 밀감이 재배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왔는데 그는 제주도는 물론 욕지도(欲知島), 납도(納島) 등이 밀감재배의 적지임을 지적, 그 재배를 권장해서 그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날 밀감생산이 국내수요를 넘어서서 외국수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우박사의 공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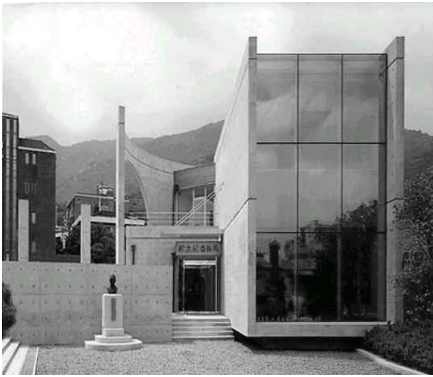
그는 일본의 종묘사(種苗社)에서 거액의 월급으로 초빙하려 했을 때나 이승만대통령시절 농림장관으로 기용하려 할 때면 거절하는 말이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기술은 육종(育種)이다. 이 육종으로 내 조국에 그 힘을 바칠뿐, 딴 생각은 없다”고.

그런데 우박사가 환국해서 농장을 개설했을 당시는 한국농업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과학연구소라는 이름이었으나 1953년 8월 1일에는 국립으로 바뀌어 중앙원예기술원이 되고 우박사가 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온천동에 있던 원예기술원 주위로 시가지가 밀려들어 원예시험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부적절한 애로가 많았다. 그래서 한국원예시험장을 1958년 경기도 수원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어 우박사는 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으로 간 지 2년이 못돼 서거(逝去)를 했다.

그는 1954년 4월 20일에는 대한민국학술원 추천회원이 되고, 57년 12월 23일에는 제1회 부산시문화상(과학상)을 받고, 58년 8



우장춘기념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월 9일에는 대한민국 문화표장을 받았다.

그러나 59년 8월 10일 새벽 3시 5분 향년 62세로 별세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유해는 경기도 수원시 서문동 농촌진흥원 뒤 여기산(麗岐山)에 묻혔다.

99년 10월 21일에는 우장춘 기념관이 온천2동의 옛 원예시험장 자유천(慈乳泉) 뒤에 세워졌다. 그리고 온천2동 옛 원예시험장 위쪽을 지나가는 산복도로를 ‘우장춘로’라 이름한 것은 그가 이곳에 남긴 공적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 소설가·향토사학자 최해군

5. 윤인구(尹仁駒)

학교 강의시간에 윤인구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아쉽게도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서글픈 마음과 안타까움만이 가슴속을 답답하게 했다. 한국의 역사, 부산의 역사를 강의하는 데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나의 역사, 우리결의 역사교육에는 소홀했다는 자책감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윤인구는 자신의 영달보다 우리 지역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필요한 대학 설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윤인구는 1903년 11월 부산 근대민족경제를 이끌었던 윤상은의 장남으로 구포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한말 동래부사와 사천군수를 지낸 윤홍석(尹弘錫 ; 1843~1902년)이었다. 백부로는 동래부사와 경상우도 관찰사, 동래부 감리를 지낸 필은과 고성군수, 울산군수를 지낸 명은이 있었다. 그리고 숙부는 1920년대 구포청년회를 조직해 구포에서 사회활동을 한 영은이 있었다. 사촌으로 필은의 아들이었던 현태와 현진이 있었다. 현태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경제·사회운동에 참여했고, 현진은 구포(경남)은행의 업무를 돕다가 1919년 3·1운동 뒤 상해임시정부 재무차장을 지냈다.

부친 윤상은은 부산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박기종의 막내사위이다. 그는 동래감리서 주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을사조약 이후 고향 구포로 돌아와 사회·경제활동에 주력했다. 1907년 구포구명학교를 설립하고, 1909년 지방에서 설립된 최초의

민족은행인 구포은행의 출발점인 구포저축주식회사를 세웠다. 윤상은은 구포은행을 통해 독립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열성적이었다.

인구의 형제는 아래로 연속, 연학, 현표, 학자, 현성이 있다. 동생 연속은 울산의 유력자 김홍조의 둘째아들 택진과 결혼하였다. 김홍조는 한말 경남일보를 창간하고 1919년 사촌인 현진과 함께 상해임시정부로 건너갔던 인물로, 울산과 경남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윤인구는 한말 관료·지식인, 일제 강점기 초 민족주의 사고를 지닌 집안 분위기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런 배경에서 자란 인구 또한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다. 인구는 구포구명학교에 입학했다가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14세되던 해 서울 제일고 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병으로 휴학하고 구포로 돌아왔다. 다음 해인 1917년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3.1운동이 일어나 만세운동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인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래시장 만세운동이 일어난 뒤 학교 선배인 매형 서진령(徐鎭冷)이 인구에게 독립선언서 50통을 주고 구포에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는 선언문을 뿌리면서 만덕고개를 넘어 구포에 이르렀다. 당숙인 윤정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선언문을 전달했다. 몇일 뒤 구포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당숙인 윤정은과 재종형 경봉은 검거되었고, 당숙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인구는 일본 경찰의 검색을 피해다녔다. 3.1운동 후 학교의 일본인 교감이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를 쫓아내기도 했다.

동래고보를 그만두고 1920년 1월 초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예비학교를 다녔다. 4월 부친 윤상은이 慶應大學에 입학하자, 인구도 名敎中學에 편입했다가, 기독교학교인 明治學院 중학부로 전학했다(1920년). 계속해서 고등학부 문예과로 진학하였다(1923년). 1926년 인구는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명치학원 신

학부 본과에 입학했다. 이 해 방학 때 부산으로 돌아와 초량 삼일교회를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여기서 장차 부인이 되는 방덕수여사를 만났다. 인구는 대학시절부터 선교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동경대지진이 일어나자 피난민구제사업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가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기독교 생활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대학 교수의 대부분은 미국 선교사였고, 이들의 영향과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다(1929년 26세). 1930년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고, 다음 해 대학원을 수료하고 귀국하였다.

유학생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인구는 1931년 주기철 목사의 주례로 방덕수여사와 결혼하였다. 결혼 직후 그는 1931년 9월 진주 옥봉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 옥봉교회는 부산의 초량교회, 마산의 문창교회와 더불어 당시 경남의 대표적인 교회였다. 인구는 설교준비에



복음농업학교 시절의 윤인구

앞줄 가운데가
윤인구 부부

열심이었고, 스스로 그의 설교를 실천적 애국적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교회의 활동을 선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봉사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차 몰락해 가던 조선의 농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농촌교회와 농촌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1935년 馬山福音農業實修學校 교장으로 부임했다. 학교 운동장을 개간하여 농장으로 만들고, 전답을 사들여 실습지로 삼았다. 1939년 이 학교를 김해군 대저면으로 옮겼다. 복음학교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인구는 1939년 3월 서울로 올라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朝鮮神學院’을 열었다. 유명한 목사들이 출강하였다. 1939년 9월말 형사들이 갑자기 가택을 수색하고 약 50일간 구금당하기도 했다. 조선인 교인들간의 갈등 때문이기도 했지만, 태평양전쟁기로 들어가면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에 위반하는 신학원의 종교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이 더욱 노골화되는 1944년 조선신학원 교장직을 사퇴하고 김해 대동의 산에서 별목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해방 후 인구는 그 해 11월 미군정 경상남도 내무부 학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 설립이었다. 대학 설립 기성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나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인구는 독립대학 설립계획을 추진하였다. 한편 윤인구의 부친 윤상은은 일본 유학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미군정청 학무부장 유억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국립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부친의 지원을 받은 윤인구는 국립대학 설립을 목표로 부산의 대학설립기성회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윤인구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 시설, 도서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사(校舍)확보였다. 다양하게 논의되던 결론은 부산수산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수산학부로, 신설된 학부를 인문학부로 하는 국립부산종합대학교 설립안을 1946년 5월 10일 경상남도 도지사 명의로 군정청 문교부장 유억겸에게 제출하였다. 이 설립안은 5월 15일자로 한미 양 문교부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 국립 부산종합대학교 설립이 확정되었다. 설립안 확정일자인 5월 15일은 부산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이다.

문교부는 1946년 8월 베커(Becker)박사를 총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기존 수산대학 학생들의 반발로 학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게다가 교직원들간의 알력과 갈등이 심각해져 1947년 베컴

총장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점차 종합대학의 기능이 약화되자 문교부도 후임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1947년 7월 16일부터 경상남도 학무국장(1947년 2월부터 학무국으로 승격) 윤인구를 부산대학교 인문과대학 학장 서리로 임명했다. 하지만 1948년 5월 수산과대학이 문교부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이양되면서 부산종합대학교는 해체되었다. 이때부터 인문과대학은 국립부산대학으로, 수산과대학은 국립 부산수산대학으로 교명을 따로따로 사용하게 되었다.

1948년 11월 윤인구는 경상남도 학무국장직을 사임하고 대학 재건에만 매진했다. 1949년 10월 종합대학교의 재구성을 추진할 부산대학 건설위원회를 도지사 중심으로 개편하여 윤인구가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부산대학교 재건에 전력했다. 이 해 11월 23일 윤인구는 학장서리에서 정식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 2월 윤인구는 부산시청 앞 영화관인 부민관에서 전시문화강좌, 전시과학강좌를 개설하여 피난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인재들을 다시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51년 5월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 즉 전시연합대학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고, 부학장을 맡았다. 동시에 윤인구는 전쟁 중 부산대학을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학생의 증원, 학과의 증설, 학부의 신설, 이에 필요한 교수의 증원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이 무렵 부산에는 국립경남종합대학교 신설운동이 대두하였다. 이 안은 부산에 법대, 상대, 문리대, 공대를 두고, 마산에 의대, 진주에 농대와 사대를 각각 설치하되 경남에 산재한 여러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를 완성하자는 안이었다. 이 안에 따르면 당시 단과대학이었던 부산대학도 이에 흡수되고 다만 법대, 상대, 문리대로 존속하게 될 뿐이었다. 윤인구는 경남종합대학교 안에 반대하고 부산대학을 모체로 하는 종합대학교 승격을

계속 추진하였다.

1953년 1월 초 윤인구는 부산대학의 각 학부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키고, 몇 개의 단과대학을 증설하여 부산종합대학교 안을 문교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문교부장관은 부산종합대학안을 결정하였다. 1953년 4월 1일 국립 부산대학교 설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4월 3일 대통령 재가가 내려졌다. 9월 15일 부산대학교 설치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으로써 부산대학교는 구 부산종합대학교의 해체에 따라 부산수산대학과 분리된 지 6년만에 다시 국립종합대학교로 재편성되었다. 총장서리에는 그동안 종합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오던 윤인구가 임명되었다. 윤인구는 11월 26일 부산대학교의 정식 총장으로 임명되고, 12월 10일 취임하였다.



부산대 장전동캠퍼스 부지
설정기념 사진

1954. 11. 23.

윤인구는 부산대학교의 성장과 발달에 혼신을 다했다. 서대신동 교사, 충무동 교사의 확보 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부산대학교의 새로운 부지를 찾아 나섰다. 동래유지와 장전동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금정산 기슭에 있던 전 일본인 高瀬政太郎의 소유 농장 약

50만평을 새 교지로 확정하였다. 1954년 12월 22일 효원 교사 신축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1955년부터 운동장, 공과대학, 대학원, 도서관, 박물관 등이 차례로 기공 및 준공되었다. 1957년에는 정문과 본관(현 인문관)을 착공하였다. 신축 시설이 완공되면서 단계적으로 대신동과 충무동의 시설이 장전동으로 이전하였다. 1957년 8월 약학과의 이전을 마지막으로 서대신동교사를 폐쇄하고 장전동 시대를 열었다.

윤인구는 1953년 11월 26일부터 만 6년이 되는 1959년 11월 25일 초대 총장의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차기 총장의 임명이 늦어지자 문교부는 윤인구를 다시 2대 총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전체 교수회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인구는 1960년 4.19 이후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4년간 재임한 후 교향으로 돌아왔다.

귀향 후 67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육을 위해 장로회 부산신학교를 설립해 교장을 맡았고, 말년까지 교육에 헌신했다.

부인 방덕수여사는 부산대학교 설립과 발전에 노력한 윤인구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동안 고인이 남겨둔 유고를 정리하여 『윤인구박사 그 참다운 삶과 정신』(1988년)을 출간하였고, 또 재산을 희사해 인덕관을 만들었다. 인덕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각종 연구발표와 학문정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윤인구는 종교인, 교육인이다. 무엇보다 부산 사람 윤인구는 부산에 국립 부산대학교를 설립하고 성장시킨 교육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 부산의 고등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해방과 동시에 인재양성에 필요한 대학 설립이 절실했으나,



인덕관 미망인 방덕수여사가 사재를 희사해 조성 (1991년 4월 개관)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 시설, 정치·행정적 지원 등이 전혀 없었다. 척박한 교육환경에서 부산에 국립대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교육열과 부산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차철욱

6. 조명기(趙明基)

성장과 수학과정



우리나라 불교사학의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조명기(趙明基) 선생은 1905년 음력 4월 17일 경상남도 동래읍 복천동(지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에서 아버지 조항영(趙恒榮)과 어머니 윤복영(尹福瑛)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평양이며, 호는 효성(曉城)이다.

그의 부친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나라를 잃게 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여 직장인 부산항 감리서(監理署) 일을 그만두고 동래에서 20여리 떨어진 한적한 선동(仙洞)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서당을 열고 인근의 자제들을 가르쳤다. 조명기도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아버지로부터 『동몽선습 童蒙先習』을 비롯, 『대학 大學』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문전적을 배우며 성장했다.

그러다가 시국이 어수선한 1917년, 13세 무렵 일가가 외가의 연고지인 양산 통도사 근처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조명기는 그곳에서 4년제 보통학교를 다녔으며, 통도사 경해당(鏡海堂) 스님과 각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물됨과 총명함을 일찍이 꿰뚫어 본 경해당 스님으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가르침을 받았다. 17세의 나이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조명기는 다시 부산으로 와서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졸업 후 22세엔 울산의 남목보통학교(南牧普通學校)의 교사로 2년 간 근무하기도 했다.

24세가 되던 1928년에 통도사 주지이며 은사인 경해당 스님에

게 득도(得度)하고, 은사의 뜻에 따라 서울로 올라가 불교전수학교(혜화전문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조명기는 박한영(朴漢永)·김포광(金包光) 스님의 높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당시 외래강사였던 민족 선각자 최남선, 정인보 등의 강의를 들으며 불교 뿐만 아니라 민족의 현실과 장래문제에도 깊이 사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무렵 중국의 북경을 비롯한 항주, 남경, 상해 등지를 여행하며 중국 고대 불교문화와 그 유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불교문화에 대한 안목도 넓히게 되었다. 졸업 후, 모교도서관 사서로 잠시 근무했으나 곧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대학 문학부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3년 간 수학하였다. 불교의 심오한 교학 이론과 사상에 깊이 빠진 그의 향학열은 그곳에서 이미 진가를 발휘하여 당시 졸업 논문이었던 「원효연구」는 그곳 교수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논문의 일부는 조선불교 동경유학생회에서 간행하는 『금강저 金剛杵』 제22호에 발표되어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시작된 원효연구는 훗날 그의 평생에 걸친 대과업이 되었다.

불교학연구와 후학교육

1937년, 귀국 후 그는 대학원 격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종교학 연구실 전공과에 또 입학하여 불교사 연구를 계속하였고, 졸업 후인 1939년에는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 재직하며 ‘불교개론’과 ‘불교사’를 강의하기도 하였으나, 일제의 부당한 탄압으로 곧 그만두고 오직 종교학 연구실에서 신라 불교연구에만 몰두하였다.

1941년 조명기는 법문학부 종교학 연구실의 교수직을 받아 본격적으로 불교학 연구에 전념하게 되자, 학자로서 그의 영역은 연구실의 사료나 이론에만 매이지 않았고, 국내외 사찰이나 불교

문화재의 발굴조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로 1942년 총독부 박물관의 위촉을 받아 해인사 잡판고(雜板庫)의 조사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원효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판목(板木) 수집장과 「백화도량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 판본 전질을 비롯한, 술한 불교경판본과 귀중한 자료를 찾아내고 그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밝혀 내었다. 또한 1943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직한 ‘만몽학술조사단(滿蒙學術調查團)’에 참가하여 멀리 몽고의 나마불교(喇嘛佛教) 실태까지 소개하게 되었다.

망국의 서러움 속에서도 오직 학문에 뜻을 두고 불교학 연구에 몰두해온 충실한 학자였던 그는 1945년 그 학덕과 덕망이 널리 알려져 현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의 교수직과 불교학 과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연구에 몰두함은 물론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다.

1946년 혜화전문학교에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른 동국대학교와 그와의 인연은 각별한 것이었는데, 1954년 교무처장, 1960년 부총장, 1964년 제5대 총장 취임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가로서 그의 면모는 오늘날 동국대학교의 위상과 발전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불교학과를 통해 한국 불교학 연구의 초석을 쌓는 한편, 그 학문적 계통과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술한 교학(敎學) 연구가들을 길러내어 오늘날 한국 불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민족의 암흑기에 태어나 일제강점의 치욕과 일제의 탄압 아래서 민족의 현실을 뼈아프게 성찰하며 살았던 그는 오직 ‘교육’하고 ‘배우는 일’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믿으며 한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육영대도(育英大道)의 길을 가고자 했다. 이에 그는 체계적인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1947년 이강혁(李康赫)과 함께 조양보육사범학교(朝陽保育師範學校)를 설립

하였는데, 이는 훗날 경기대학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평생 성실하고 치열한 학문연구를 자신의 소명으로 알았던 그는 1949년 박봉석(朴奉石)과 더불어 사재를 털어 『원효전집 元曉全集』 전 10권을 영인본으로 간행하는 업적을 남겼다. 학자로서 많은 노력과 사재까지 털어 마련된 『원효전집 元曉全集』의 간행은 그의 신라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원효 사상에 정통한 학자로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큰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찍이 일본의 동양대학 유학시절 원효연구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바 있는데, 그 인연으로 국내외의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던 원효의 방대한 저술들을 수집하여 전집을 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후학들의 원효 연구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 셈이 되었으며, 한국 불교사상사의 위대한 인물 원효의 진면목은 그의 이런 노력을 통해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그는 한국 불교사상사 정립에 큰 별로 칭송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학문세계와 업적

평생 위로는 진리를 구하며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승불교(大乘佛敎) 정신을 실천하며 살다가 원효대사(元曉大師). 원효는 다양한 고대 정신의 잔재로 사상의 혼미를 거듭했던 당시 신라사회에 수준 높은 불교사상을 전개하여 고대 지성의 문을 열었던 인물이다. 또한 혼돈과 갈등이 난무했던 당시 신라사회를 독특한 ‘화쟁(和諍)의 논리’로 극복하며 찬란한 불교국가로 발돋움하게 하는 사상적 초석이 된 인물이다. 그런 원효를 되살려냄으로써 그는 교육자이며 학자인 자신이 오늘날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며,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민족의 암흑기에 한 시대를 새로이 열었던 위대한 불교사상가인 원효를 조명해냄으로써 민족의 앞날에 한줄기 빛을 찾고

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학문적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학구열로 과소 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또 다른 업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평생 불교의 진흥과 대중화에 앞장선 실천적 지식인이며 탁월한 연구가였던 그는 1949년 『원효전집(元曉全集)』의 간행에 힘입어 1957년에는 동국대학교 백성욱(白性郁)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전질 40권의 영인본 간행을 계획·착수하여 1957년 9월 제1권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대사업을 완수하였다.

몽고의 침입으로 국운이 쇠퇴하고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기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외침을 막아보고자 발원하며 조성된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이는 오늘날 세계적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난을 이겨내려는 우리민족의 응집력, 정신적 자산의 하나이다. 그런 사정으로 보아 그의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의 출간은 불교에 대한 깊은 신심과 애정,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깊은 염원이 담긴 것이다.

또한 1962년 한국 불교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동국대학교 내에 ‘한국불교문화연구소’를 창설하여 숭한 학술적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고, 각종 불교문화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1962년 10월에 ‘한국불교문화연구소’에서 그가 기획한 제1회 ‘대장회(大藏會)’는 여러 수장가(收藏家)들의 도움으로 고려시대 각종 경전의 사경(寫經)을 전시한 것이었는데, 당시 불교경전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이미 수준 높은 불교학자이며 신심 깊은 불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그는 불교대중화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경전을 쉽게 풀이하여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동국역경원(東國譯經院)을 개원하여 어려운 불교 한문경전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경전을 널리 간행하여 불교경전의 현대화와 불교대중화에 널리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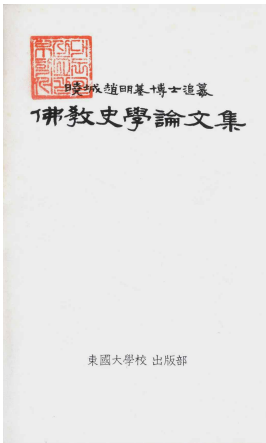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그는 경전의 훈고적 해독이나 교학의 이론연구에만 매달리는 나약한 학자가 아니라, 불교전적이나 문화재의 발굴과 정리에도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적극적인 학자였으며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 문화창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학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글과 생각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활달하면서도 치밀했던 불교학자로서 그의 면모는 광범위한 십 여권의 저서, 수십 편의 논문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먼저 그의 저서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원효전집(元曉全集)』 10권을 비롯, 『장외잡록(藏外雜錄)』 제1, 2집, 『불교문화사강의안(佛敎文化史講義案)』, 『신라불교(新羅佛敎)의 이념(理念)과 역사(歷史)』, 『고려(高麗) 대각국사(大覺國師)와 천태사상(天台思想)』, 『지혜(知慧)의 완성』, 『불교복지론』, 『법화경신초(法華經新抄)』, 『법화경(法華經)과 나』, 『신라불교 관계잡지논문목록』,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30권이 있으며, 국내외 여러 학술지나 잡지에 발표된 주요논문으로 “의상(義湘)의 전기(傳記)와 저서(著書)”, “원측(圓測)의 저서(著書)와 사상(思想)”, “고대(古代) 인도사상(印度思想)”, “선(禪)의 현대적(現代的) 성격(性格)”, “한국(韓國)의 고대(古代) 종교사상(宗教思想)”, “한국불교사상(韓國佛敎思想)의 특질(特質)”, “백제불교(百濟佛敎)와 일본(日本)”, “신라불교(新羅佛敎)의 교학(敎學), 통화이념(統和理念)의 존립(存立)”,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사상(思想), 선교합일정혜쌍수(禪敎合一 定慧雙修)”, “민족사상(民族思想)과 불교(佛敎)” 등 50여 편이 있다.

이 같은 저서와 수 십편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 그의 학문적 연구는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널리 동양철학 전반에서 사학(史學)에 이르기까지 실로 엄청났으며, 1957년에는 진단학회

(震檀學會) 이사로 취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말년에는 이러한 그의 업적과 폭넓은 학문적 역량,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1972년 ‘국민훈장 동백상’을 비롯, 1985년 일본 동경 19회 ‘불교전도문화상’, 1986년 제1회 ‘동국문화상’(건학이념부분) 등 숭한 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의 왕성한 활동 영역은 1988년 5월 23일 입적하기 전까지 왕성하게 이어져 1968년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연구원 원장, 1970년 사단법인 문화재보급협회 이사장, 1973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974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대우교수, 1977년 일본 경도불교대학 객원교수, 1981년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장, 1987년 한국불교대학장 등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명기 박사 추모 논문집 (1988)

20세기 초, 민족의 암흑기와 전후(戰後)의 혼란기에서부터 한 세기를 오로지 불교진흥과 교육구국(教育救國)의 일념만으로 성실히 살다간 불교학자이며 교육자였던 조명기는 높은 학덕과 경륜, 인품을 고루 갖춘 우리시대의 영원한 사표이며 스승이다. 따라서 오늘날 그의 삶을 재조명해 보는 일은 역사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 전 국제신문 논설주간 배승원

7. 정중환(丁仲煥)

성장과정과 생애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 일본에 유학했던 학생시절을 제외한다면 90년에 가까운 일생을 계속 부산에서만 살면서 오로지 한국사의 연구와 후진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한 학자가 바로 정중환(1914-2001)이었다. 정중환은 1914년 11월에 당시 경남 동래군 북면 노포리(東萊郡 北面 老圃里,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서 아버지 정상호(丁常昊)씨와 어머니 박 수(朴秀) 여사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뒷날 스스로 호를 우헌(又軒)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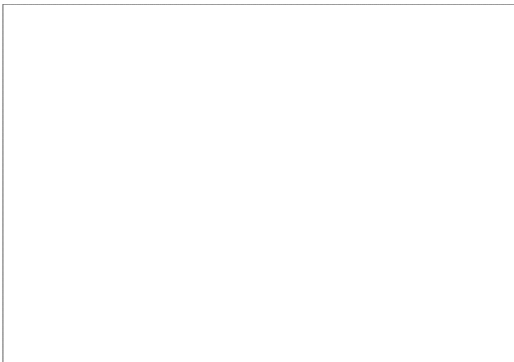
그는 1932년에 범어사 아랫마을 청룡동에 있던 명정보통학교(明正普通學校)를 졸업하자, 곧 일본에 건너가서 조오세이 중학교(城西中學校)에 입학하여 1937년에 졸업하고, 이어 다이쇼대학(大正大學)에 들어가서 예과(豫科)를 거쳐 문학부(文學部) 과정을 이수하고 1941년에 귀국하였다.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헌은 곧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의 전임강사가 되어 처음으로 교직에 몸을 담았으나 불과 2년여 만에 그만 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 8·15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해방이 되자, 그는 곧 동래 공립중학교(6년제) 교유(敎諭)에 이어 동래 여자중학교(6년제)의 교감을 역임하고, 부산에 대학이 세워지면서 부산대학과 동아대학에 강사로 출강하던 중 1948년에는 동아대학 사학과의 교수가 되고, 1952년에는 부산대학

사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로부터 10년 동안 부산대학에 있으면서 초창기 사학과 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학문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문화연구소장(韓日文化研究所長)과 도서관장의 보직을 맡아 학문연구와 대학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많았다. 1963년에 이르러 그는 과거에 몸담았던 동아 대학에 다시 돌아가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여기서도 박물관장, 고전연구소장을 거쳐 1968년에는 동 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어 이부대학장(二部大學長)과 교육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1980년에 정년을 맞았으나 학교 측의 배려로 역사문화연구소장과 대학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몇 년간을 계속하여 더 근무하다가 초빙교수에 이어 명예교수로 교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니 동아대학에 재직한 연수가 20여 년이 요, 총 교직연수가 40년이 넘었다. 그는 퇴임한 후에도 글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다가 2001년 11월에 노 환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87세였다.

학문연구와 지역사 정립 활동



부산대 사학과 재학생과 함께(1959년)

이제 우헌 정중환의 학문을 살펴보면, 그의 학문 연구의 범위는 가위 한국사 전 분야에 걸쳐 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는 고대

사였다. 그가 남긴 50편에 가까운 논문 가운데서 거의 30편이 고

대사 분야에 속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 중에는 위만조선(衛滿朝鮮)과 기자조선(箕子朝鮮) 문제를 다룬 것도 있고, 신라의 사로(斯盧) 6촌이라든가, 골품제와 불교전래 문제를 다룬 것도 있다.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가야사(加耶史)에 있었다.

그의 가야사 연구는 1956년에 발표한 「진국·삼한 급 가라 명칭고(辰國·三韓 及 加羅 名稱考)」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가야 제국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진국과 삼한 등 한족(韓族)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진국과 삼한의 실체 및 관계와 삼한·가라·임나(任那)의 명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8·15 광복 후 국내에서 발표된 가야사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여기에 이어 몇 년 후에는 다시 『가라사초(加羅史草)』(1962)를 내 놓았다. 이 책은 가야사의 전 분야를 쉽게 풀어 서술한 일종의 가야사 개설서로서 가야사와 고대 한일관계사연구의 초석이 될 만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그는 가야사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30여 년간에 걸쳐 가야사에 관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두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과 한국의 『삼국유사』, 그리고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본 가야의 역사를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었다. 이 가운데는 종래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던 변진(弁辰) 12국 중 독로국 가라사연구((2000. 6)

(瀆盧國)의 위치를 현재의 동래 지방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의 주목거리가 되었다. 뒷날 이 가운데서 9편의 논문을 골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놓은 것이 『가라사연구(加羅史研究)』(2000)였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가야사 연구서인 동시에 우헌의 학문 업적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는 중국 당대(唐代)까지의 정사(正史)에 실려 있는 「조선전(朝鮮傳)」과 「동이전(東夷傳)」을 번역하여 주석(註釋)을 달고 고설(考說)을 곁들인 『역주 고설 중국사료초(譯註 考說 中國史料抄)』(1980)를 발간하여 고대사 연구자에게 많은 편의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우헌은 부산대학 재임시인 1960년에는 한일문화연구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그는 연구소 사업의 핵심을 한일관계사의 연구에 기본 사료가 될 우리 고전의 번역과 보급에 두고, 번역할 서적들을 골라서 관계 학자들에게 위촉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불과 3년 사이에 류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 상·하권을 비롯하여 이로(李魯)의 『용사일기(龍蛇日記)』, 정탁(鄭琢)의 『용사일기(龍蛇日記)』,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김기수(金綺秀)의 『일동기유(日東記游)』 등 여러 고전이 차례로 쉽게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책들은 후일 이방면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다. 또 그는 이 무렵에 연구소의 논문집으로서 『한일문화(韓日文化)』(1962)를 제 1집 제 2권까지 간행하기도 하고,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쌓은 성곽으로 부산과 경남 연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왜성(倭城)을 실측 조사하여 『경남의 왜성지(倭城址)』(공저, 1961)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1962년에 그는 학문상의 공적을 인정받아 제 1회 경상남도 문화상을 받았다.

그 후 1963년에 우헌이 부산대학을 떠나 동아대학으로 자리를 옮겨가자 곧 고전연구소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소장직을 맡은 후

바로 내 놓은 계획이 저 야심 찬 『고려사(高麗史)』의 번역사업이었다. 고려사는 모두 139권에 달하는 실로 방대한 분량에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많아 그것을 번역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헌은 여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몇몇 학자들과 함께 이 일에 뛰어들어 9년 만에 『역주 고려사(譯註 高麗史)』(공역, 1963-1972) 전 11책의 거질(巨帙)을 완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작업은 당시 학계에서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뜬히 해 내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우헌은 부산·경남의 향토 문화에도 남 다른 관심을 보여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산시 문화재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협회 경남도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이 지방의 문화재 지정을 비롯하여 지정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또 그는 경남도지편찬위원으로서 『경상남도지(慶尙南道誌)』 상·중·하권(1958-1963)의 편찬에 참여하여 역사편(고대)과 인문과학·종교·인물편 등을 집필하였고,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는 『부산시지(釜山市誌)』(1974)의 역사편(고대)을 집필하고, 이어 『부산시사(釜山市史)』 제1권-제4권(1989-1991)에서는 제1권의 통사편

(고대)과 제4권의 종교·민속편(원시종교)을 집필하였으며, 한편 동래구지편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어서는 『동래구지(東萊區誌)』(1995)의 종교·민속편(종교)을 집필하는 동시에 구지의 부록권으



합천 창리 유적 발굴현장 개토제(1987)

로 낸 『동래부지(東萊府誌)』를 번역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우헌은 오랜 세월을 대학에 있으면서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은 결과 그 문하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모두 역사학 또는 그 인접학문인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자들로서 이미 학계의 중진이나 원로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 우헌의 학맥을 계승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우헌 정중환은 부산이 낳은 역사가로서 90평생을 오직 부산에만 살면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진력하였다. 그는 해방 후 학문의 불모지라 일컫던 부산에 최초로 한국사를 강의하고, 처음으로 한국사의 연구를 시작하여 이 고장 부산에 한국사 연구의 씨를 뿌리고 학문 풍토의 조성에 발 벗고 나선 제일인자였다. 또 그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한국고대사 중에서도 남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가야사 연구에 정성을 기울여 한국에서 최초로 『가라사연구』라는 대저(大著)를 내어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 한편 그는 향토의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부산시지』·『부산시사』·『동래구지』등 많은 서적의 편찬에 중심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모두 그가 가졌던 깊은 애향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요컨대 우헌은 부산이 낳은 역사학의 거벽(巨擘)으로서 이 방면의 학자들에게는 물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학자요, 교육자였다. 따라서 우헌은 부산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잊혀지지 않고 길이 기억될 인물임이 분명하다.

■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이원균

8. 최한복(崔漢福)

생애

최한복(1895~1968)은 수영(水營) 출신으로 교육자이자 지사(志士)이며 향토사학사였다. 일찍이 서울 보성(普成)학교를 졸업하고 평생토록 고향 수영을 사랑하며 살았다. 그 동안 약 40년 동안은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말년에 공민학교(公民學校)에서 불우한 학생들을 모아 야간에 가르쳤다. 이때 그의 교육관은 민족정신의 함양과 고향 사랑하기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한 정신은 그의 행적과 후대에 남긴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정사(丁巳, 1977년) 6월에 수영의 유지들이 동개발위원회를 만들어 그 창립을 기념하면서 제운(濟雲) 양명환(梁命煥) 선생이 최한복 선생의 수영팔경을 사기(寫記)하여 인쇄물로 만들어 수영 구민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 있었다. 그 인쇄물 인사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 옛날은 수사(水使)의 임지로 경상좌도 해안방어의 수군절도영이 설치되었던 군사요충지역이다. 수군의 충용호기(忠勇豪氣)는 충천하였고, 영기치(令旗幟)와 창검(槍劍)은 하늘을 황홀케 하였고 해상초계선(海上哨戒船) 백범(白帆)이 분주히 내왕하던 해면의 경관 삼각주 천일방(天一方) 정과정(鄭瓜亭)을 굽이쳐 흐르던 수영강의 청아(清雅)함, 강변의 갈대와 푸르던던 초원의 밤하늘에 수놓던 형화(螢火)의 찬란, 묵묵히 경전(耕田)하던 농부의 미소 등은 영상 조차 묘사할 수 없음은 변천무상의 소치이리라.

이 글은 약 30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때부터 수영지구의 유자들이 이 고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 글 마지막에

‘동개발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소감의 일단으로 고장의 노선비셨던 고 최한복 선생께서 생전에 정하신 《수영팔경》을 사기하여 이 고장의 옛 모습을 아련하게나마 생소한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라고 했다.

장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그 소중한 향토자료는 역사에 유실되고 말았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막바지로 치달고 있었다. 일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할수록 우국지사들은 숨어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해방될 기미를 감지하며 거짓 거동 속에 애국이란 ‘참’을 후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최한복도 그중 한사람이었다.

옛날 수영초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허술한 야간 예습학교가 하나 있었다. 그 당시 동래읍에는 동명(東明)학교가 있었다. 그곳으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은 밤에 이 예습학교로 모여 들었다. 매일 밤 거나하게 취한 두루막 신사 최한복 선생은 이 예습학교의 교사였다. 그는 일찍이 보성(普成)전문학교 출신으로 이승만 정권 때 국회부의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동래출신 곽상훈 선생과 동기였다. 그때 보성 출신이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도 있었는데 오로지 최 선생은 국권의 회복을 위하여 거짓으로 신분을 숨기고 가슴속에는 ‘애국’이란 비수를 품고 이 야간학교에서 민족의 2세들에게 이 나라의 소중함과 이 겨레의 자랑스러움을 가르친 것이다.

두루막 자락에 숨겨진 애국심

어느 날 밤늦게 수영시장 뒷골목은 떠들썩했다. 좌수영 뒷담을

끼고 늘어서 있는 주막들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자정이 다 되어 가는 이 시간에 느닷없이 닥친 노신사는 주막집을 가리지 않고 이집 저집 누비고 다녔다. 호주머니에는 한푼도 없었다. 예습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주재소 일경들이 예습학교를 급습하여 수색을 한 것이다. 먼저 최한복 선생의 서랍이 열렸다. 이 서랍에서 떨어진 종이쪽지들은 모두가 한글로 쓰여진 글들이었다. 「수영유사(水營遺史)」, 「선생안(先生案)」, 「수영팔경」 모두가 선생이 생명으로 아끼던 소중한 글들이었다. 이것을 모두 빼앗긴 것이다.

화가 하늘 끝까지 치밀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내가 본성을 다 드러내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도 길고 보니 이제 성격마저 변하여 술자리에 앉으면 언제나 혼자 독백을 했다. 매일같이 피를 토하는 오열(嗚咽)을 하면서도 인고의 시간을 보내왔다. 며칠 후에 원고는 돌아왔다. 그러나 언제나 ‘요 주의인물’로 낙인 찍혀 행지(行止)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호주머니가 비고 보니 어느 주막에도 받아줄 이가 없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는 주막이면 어느 주막인들 관계가 없었다. 이 주막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저 주막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대로 집에 간들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 주막 저 주막 시끄럽게 떠돌고 다녔던 것이다.

일제에 항거하던 울분을 술로써 달래 온 노신사, 두루막 선생은 내 고장의 역사와 정경을 기록으로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수영유사를 썼다. 수영유사는 수영중심의 부산 역사다. 이때 벌써 향토사에 깊이 눈뜬 선각자였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작업도 알고 보면 이러한 선현의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좌수영을 겪고 간 역대의 수사들의 방명록을 작성하여 <선생안>이라 하고 좌수영의 정신을 세상에 남기려 했다.

그리고 이 유사 끝에는 수영야유(水營冶遊)라 제호하고 전편 후편 나누어 수록하기도 했다.

수영야류



수영이나 동래지방 사람들은 탈놀음을 <야류>, 또는 <야루>라고 부른다. 이것은 원래 <들놀음·들놀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野遊>라고 적었는데 음운변화로 <야류>, <야루>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한복이 수영야류를 정리하면서 수영야유(水營冶遊)라 한 것은 <冶>자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

만약 최한복이 수영야류를 새로이 정리하여 수영 땅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수영에 <수영>이란 말이 붙은 <들놀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 수영야류는 1971년 2월 26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받게 되었다. 최한복은 수영야류에 대하여

水營遺史를 쓰고 本冶遊劇의 傳來의 意義를 抱棄할 수 없고, 或後人의 參考됨이 있을가하여 이에 數頁(수페이지)를 紹介한다. 本冶遊劇은 若二百年前 前後하여 草溪 田頭里로부터 傳來하였으며 平民大衆이 兩班의 酷待를 實質劇으로 反影시켜 諷刺한 것이다.

조선조 계층사회의 반상계급은 한말까지도 이어져서 수영지방에도 상하의 계급의식이 심했던 것이다. 최한복은 이것을 시정해 보려는 한 방편으로 이 극본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일제가 한 때 이 야류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그것은 ‘조선사람

과 일본사람들을 반상계급으로 갈라서 풍자한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최한복이 이 극본의 이름을 <冶遊>라 고집한 것은 ‘상층계급들의 인간상을 도야(陶冶)하여 새로운 인격체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이속에는 일본사람을 의식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최한복의 기록에 의하면 수영야류가 행해지는 날에는 일대장관을 연출한 것 같다. 지역은 수영이지만 동래지방은 말할 것 없고, 전국적인 광대패들이 모여들어 불야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면 理論은 顧辭[固辭]하고 극(劇)의 實質面에 入하여 說明하면 本劇은 便利上 前後兩論으로 分하여 間問히 所要의 歌詞를 插入하여 記하기로 한다. 前編 大衆劇・燃燈會 或은 農樂大會 每年 陰正月十五日 夜間 놀이인데 先히 劇場 廣場 中央에 大燈台를 초하여 大燈, 籠燈, 鳳燈, 龜船燈, 蓮花燈을 造懸하고 其下에 세끼로 蜘蛛燈(거미등)과 如히 製網하여 昇降을 自由로하여 釣懸되어 있다. 本場所에서 遙遠한 廣場에 設備하는 行列이 壯觀이다.

이것은 공연하는 무대 장치와 주위분위기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민속놀이인 것으로 알게 된다. 더욱이 무대는 농등, 봉등, 구선등, 연화등으로 장식을 했으니 신라 때 시작하여 고려 때 국중대회로 승화되고 조선조에 와서도 번창했던 연등회를 모방한 들놀이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연등회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벽사진경(辟邪進慶)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오로지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였기 때문에 수영 지역민에게는 더욱 호감이 가는 행사였을 것이다.

더욱이 입장하는 광경은 더욱 흥미롭다.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상)

세끼는 三·四間 可量마다 小竹竿으로 메어들고 세끼에 小燈을 보기 좋게 照明하여 前後에 羅列시키고 中央 先頭에 風樂隊가 奏樂行進하며 首兩班이 獅子·或 車馬에 乘하여 莫得이 下人이 물고 八仙女가 左右에 羅立 지화자를 부르며 그 次는 鎗 軍樂隊가 合唱行列하며 그 次에 南唄歌隊가 合唱行列하고 그 次에는 梁山도隊가 合唱行列하며 一大假裝 歌曲燃燈行列로 本場所에 入하는 小燈은 前置한 蜘蛛網에 懸昇하고 樂隊가 先頭에 圖形으로 宏壯한 器樂會가 성립된다.

수영야류의 개막행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장관이다. 가장 행렬, 희극패, 무용단, 풍악대들이 차례로 기능을 자랑하며 화려한 무대가 전개된다. 이 행사는 대보름날 10시까지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들놀이군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야류가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풍물패들은 한 곳에 모여 줄을 지어 선다.

이때 부른 행진곡 하나를 소개하면

산아 산아 水營山아
눈비 맞고 白頭山아
에-헤헤 에헤헤 에헤헤 어헤헤헤야
어-헤헤 이어도 산이로구나
兒童이 相見 不相識하고
笑問 客從 何從來오

자못 애국적인 노래다. 최한복은 이 노래도 풍자민요라 했다.

수영지방은 동래정신의 모태가 된다. 내산국(萊山國), 장산국(叢山國)의 정신을 이려 받아 영웅적 기질과 선비사상을 고루 간직한 것이 수영정신이다. 좌수영이 본거지가 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향적 기질은 어떤 지방보다도 드높다. 정서(鄭敍)의 <거츠르신> 사상에 최영 장군의 호국적 정신, 안용복의 향토적 사랑,

25의용의 희생적 신념이 복합된 것이 수영정신이라 할 수 있다.

최한복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시종일관 국가와 향토를 위해 이바지한 것이다.

수영팔경

원래 문학장르로서 팔경이란 중국의 소상팔경(瀟湘八景)을 모태로 한다. 이것을 원류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팔경이란 말이 널리 보급되어 방방곡곡 팔경이 있다. 우리 부산에도 해운대팔경, 금련팔경, 낙동팔경 등 많이 있다. 그러면 수영팔경은 ① 운대귀범(雲臺歸帆), ② 봉대월출(烽臺月出), ③ 진두어화(津頭漁火), ④ 남양낙안(南陽落雁), ⑤ 장산낙조(長山落照), ⑥ 백산만취(白山晚翠), ⑦ 재송직화(栽松織火), ⑧ 연산모종(蓮山暮鍾)이다. 서시를 살펴보면

水營八景(수영팔경)

기구(崎嶇)한 세상사를 부운(浮雲)에 부쳐두고,
호수서풍(皓首西風) 남래객(南來客)이
수북산남(水北山南) 지진두(地盡頭)에
일준주(一樽酒) 일표자(一瓢子)를
침이대상(岷夷臺上) 높이 앉아 현해탄(玄海灘)을 바라보니
불편한 강성(江聲)이요 호호(浩浩)한 창해(滄海)로다.
경개(景慨)도 좋거니와 수영팔경 기관(奇觀)이다.

첫 단락은 서시이다. 지금 옥련서원 서쪽에 높이 솟은 산이 백산이다. 이곳에 오르면 수영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온다. 현해탄을 바라본다는 것은 섬 오랑캐 왜를 의식하고 하는 말이다. 수영강은 임진왜란 때부터 왜의 침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의 강성(江聲)도 역시 원망에 찬 슬픔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1) 雲臺歸帆(운대귀범)

양운폭포(養雲瀑布) 가룬 구름 해운모아 돌아드니
온정리(溫井里) 명승지(名勝地)는 가인재가(佳人才家) 놀던데요.
동백섬 해운대는 고운(孤雲) 선생 과차지(過此地)라 선경으로 일러 있다.

서복(徐福)의 동남동녀(童男童女) 삼신산(三神山) 찾으려다 구름
깊어 못다 찾고
공행(空行)으로 가는 배나 운대(雲臺)의 어옹(漁翁)들이 백범(白帆)을 높이 달고
모운(暮雲)을 가득 실어 해운대로 돌아가니 운대귀범(雲臺歸帆)이 아니냐.

해질녘에 오류도 바깥에서 고기잡이 하던 배가 이제 만선이 되어 해운대 어항으로 순풍에 돛을 달고 귀향한다. 한가롭고 저물어 가는 수영만이 한 폭에 그림같이 선명하다. 조용한 바다 아련히 바라보이는 대마도 모두가 꿈같은 정경인데, 그러나 400여년전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다. 그것이 임진왜란이다.

2) 봉화월출(烽火月出)

장산(叢山) 최고봉은 흑운 찾아 솟아 있고,
가마산하 절영도(絶影島)는 창해파(滄海波)가 높았도다.
장국(叢國)은 천년이요, 봉화는 백년이라.
벽공(碧空)에 성희(星稀)하고 인영(人影)이 재지(在地)로다.
대자연의 불변색이 빈부귀천 구별 없이 집집마다 비쳐 있다.
잠두(岑頭)에 걸친 홍륜(紅輪) 봉화를 대신하니
봉화월출(烽火月出)이 여기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삼면이 산으로 쌓여 있고, 일면이 바다로 면해 있다. 수영강을 건너면 지나간 세월 속에 장산국의 흔적을 간직한 장산이 높이 솟아 있고, 수영강 앞쪽으로는 황령산이 금

련산 줄기를 타고 백산으로 이어져있다. 수영만을 바라보면 저 멀리 절영도 봉래산이 꽃송이 같이 돋아나서 아름답게 보인다. 자연이 생기고 그 속에 인간이 태어났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인간을 차별 있게 만들어 놓았는가. 그러나 자연이 만들어 낸 달은 옛날의 봉화같이 이 밤을 밝히고 있구나. 천고로 흘러온 그 시간 속에 변함없는 것은 자연이구나. 휘영청 밝은 달이 옛날의 봉화대 위에 떠오르니 이 어찌 회고에 잠기지 않겠는가. 무상한 것이 인사인지라. 향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3) 진두어화(津頭漁火)

감포진 최영묘(崔瑩廟)엔

해마다 봄이 오고,

포이만호(包伊萬戶)

전선터에 임자없는

빈배들이 달만 가득

실어 있다.

진두에 췌는 배를 몇 번이나

꺾었으며,

괘마교변(掛馬橋邊) 송객정

(送客亭)에 별루가 침록파(添綠波)라.

야색이 초경(初更)인데 불을

밝혀 오는 배야.

초강상 저문 날에 굴삼려(屈三閭)의 경도선가

한산(閑山)섬 다도해에 충무공(忠武公)의 초혼(招魂)배냐.

칠일불식(七日不食) 대마도의

면암(勉巖) 선생 혼을 신고 고국으로 오는 배냐.

덕본생민(德本生民) 백성들이 전조사(前朝事)를 잊었는지



진두어화

헌원씨(軒轅氏) 본을 받아 각기라 어업하여
한일자 두이자로 불야성(不夜城)을 이뤘으니
진두어화(津頭漁火)가 이 아니냐.

예로 수영만은 군사요새로서 그 역사가 깊다. 지금 백산 바닷가 둘레에는 옛날에 사진(四鎭)이 있었던 곳이다. 최한복 선생 시절에는 어항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감포(甘浦), 칠포(漆浦), 축산포(丑山浦), 포이포(包伊浦) 4진은 임진왜란 때에는 이 나라의 운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제 고기를 잡아 드나드는 배도 있고, 임을 보내는 이별의 장소로 변하기도 했다. 아니 굴원이 같이 뱃놀이 하던 배도 있고, 한산섬 같이 이순신 장군의 초혼하는 배도 있는 것 같고, 일본에 항거하다 대마도에서 세상을 하직하신 최익현 선생의 영구를 모시는 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곳은 옛날의 임진왜란을 치른 한 많은 부두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경계도 잊지 않고 있다. 어느 시대의 백성도 한 나라의 백성은 모두 성실하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학정에 의해 고통 받고, 예고 없는 외침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백성이다. 이제 그 백성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헌원씨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배를 이끌고 이 항구에 모여들고 있다. 반가운지라. 태평성대! 우리나라 만만세다.

4) 남양낙안(南陽落雁)

석양 비긴 양장로(羊腸路)로 신선대 찾아가니
신선(神仙)이 안재재(安在哉)오 빈 대 홀로 뿐이로다.
오육도(五六島) 곁에 두고 경치 쫓아 내려가니,
절벽 꺼꾸러진 곳이 창해(滄海)가 지척이라.
석벽에 새긴 글자 의기대(義妓臺) 여기로다.
의기의 천추원한(千秋怨恨)

만경대(萬景臺) 전
 백마탄(白馬灘)과
 박모(薄暮)에 울어 있다.
 새남(塞南) 깊은 밤에
 오는이 기러기나
 기다리어 반가운 소식 누구
 에게 전해주고 외로이 날아
 오나.



남양낙안

월백사백(月白沙白) 여역백(汝亦白)하니
 시비흑백(是非黑白)을 오부지(吾不知)라.
 삼경(三更)이 깊었는데 삼삼오오(三三五五) 짝을 지어
 행렬지어 날아드니 남양낙안(南陽落雁)이 여기로다.

부산의 누대는 바다를 끼고 해안선에 가로 놓여 있다. 우리 수영구에 인접해 있는 누각이 용당동에 신선대, 용호동에 의기대, 남천동에 만경대, 민락동에 침이대, 해운대에 해운대 등이 있는데 이 정자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모두 바다를 경비하는 초소가 된다. 저자는 이 역사적인 정자를 탐방하고 그 누대에 숨겨져 있는 내력을 탐색하고 회고에 잠긴다.

돌아오는 길에 백마탄을 바라보면 넓은 바다 흰모래, 이제 서녘에 해가 저물고 있는데 흰 갈매기가 삼삼오오 떼를 지어 내리고 있다. 배경에 비친 서녘하늘은 저물어 가는데 앞바다의 파도는 푸르기만 하도다. 그 속에 날고 있는 갈매기는 희기만한테 세상 살아가는 인간군상이 모두 희게 살아갔으면 하는 인간적인 교훈이 이 가사 속에 아련히 깔려 있다.

5) 장산낙조(襄山落照)

파만경(波萬頃) 사천리(沙千里)에 비거비래(飛去飛來) 놀던 백구,
 황혼전에 집을 찾아 민락교변



장산낙조

(民樂橋邊) 갈대밭에
한 빛으로 날라 들고
목장(牧場) 황초(黃草) 취연
(炊烟) 속에 어미찾는 황독
(黃犢)들은 어매어매 뛰어오고
풍림(楓林)의 한아(寒鴉)들은
백운간에 자질하여 흥엽으로

돌아가고

안적사(安寂寺)로 가는 중은 바람 위에 석양 싹고 짝지끝이 바깥
도다.

서산을 넘는 햇빛 홍조(紅潮)로 물들이어 일폭화병(一幅畫屏)을
이뤘으니

장산낙조(長山落照)가 이 아니냐.

지금 이 지대는 너무도 변했다. 50년 전만해도 이 노래에 등장
하는 장소는 모래밭이고 갈대밭이었다. 이 한가로운 시골마을엔
황소가 풀을 뜯고, 푸른 풀밭엔 조랑말이 뛰놀고 있었다. 그 건
너 길게 흐르는 장산에는 붉은 구름이 한폭의 그림처럼 길게 뻗
어 병풍을 이루었다. 한가로운 시골의 해질녘의 광경이 눈에 선
하다.



백산만취

6) 백산만취(白山晚翠)

청산을 하왈백(何曰白)하고
설리(雪裡)에 득명(得名)이나.
반락창해(半落滄海) 하였으니
초수어옹(樵叟漁翁)
상응호(相應乎)이나.
영침벽해(影浸碧海)
거꾸러져 잠두어약(峯頭漁躍)이

장관이라.

초원에 매인 호마(胡馬) 북풍에 울고 있고

황성의 제비들은 옛 집을 찾아온다.

소먹이는 아혜들이 버들피리 입에 물고 풀빛으로 돌아오니

백산만취(白山晚翠)가 이 아니냐.

백산은 지금 MBC가 있는 곳으로서 옥련선원의 배산이 된다. 백산은 큰 산과 작은 산이 있어 대백산, 소백산이라 한다. 이 산은 좌수영을 굽어보는 위치에 있으면서 둘레에는 사진(四鎭)이 있고, 선소(船所)까지 있어 지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대마도가 바다 건너 바라보이므로 정상에는 첨이대(峴夷臺)가 있어 군사적 요새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이 산은 수영고를 사람들이 나무하는 곳이기도 하고 가까이에서는 고기도 잡는 곳이기도 서로 소리 질러 부르면 지호(指呼)가 될 곳이다. 푸른 바다에는 고기가 뛰놀고, 푸른 초원에는 호마가 북쪽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데 빈터만 남은 좌수영 성터에는 제비가 봄이라고 또 찾아 왔구나. 백산 산언저리에서 소먹이는 아이들의 버들피리소리에 묻혀 오는 어두움에 푸른빛이 아련하게 깔려온다.

7) 재송직화(裁松織火)

일편서돈월(一片西頓月)에 요란한 도의성(搗衣聲)은 황성 적막을 뜨리고

규중(閩中)의 수탑소리 새벽을 보(報)하는데

서창하(西窓下)에 잔등(殘燈)이요, 북창외(北窓外)에 홍안(鴻雁)이라.

용사(龍祠) 소슬(簫瑟) 모강변(暮江邊)은 비뜻을 머금었고,

망미리(望美里) 천일방(天一方)에 정서(鄭絃)의 미귀혼(未歸魂)이 님을 그려 울어 있다.

재송동 추야장(秋夜長)에 간(관)솔불 밝혀놓고
실솔성(蟋蟀聲)도 베를 짜고 직여성(織女星)도 베를 짠다.
송림 뚫고 비친 직화 초원형화(草原螢火)
짙을 지어 청류강상(清流江上) 건너오니
재송직화(栽松織火)가 이 아니냐.

재송동은 수영강 건너 장산 밑에 있는 동네이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장산 중허리까지 집이 빼곡하게 차있다. 그러나 수영팔경이 써질 무렵에는 한가한 시골 마을이었다. 옛날 재송동은 아낙들이 밤을 새며 길쌈하던 마을이었다. 서녘에 달이 지면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가 수영강을 건너 수영까지 들리도록 조용했던 것 같다. 밤은 깊어 더욱 쓸쓸한데 어디에서 들리는가 오리떼 소리, 깊은 밤 등피불은 외로이 심지를 태우는데 수영강가에 있었던 정과정 선생의 유적지에서는 영혼이 한을 풀지 못해 오열(嗚咽)하고 있는 것 같구나.

가을 밤 깊어 가면 더욱이 베 짜는 베틀소리는 처량도 한데 베짖이(실솔)는 베를 짜는가. 베틀소리에 맞추어 베짖베짖 울며 밤을 지새는구나. 이 시각이 되면 관솔(간솔)불도 송림을 뚫고 희미하게 비치는데 푸른 숲에 반짝이는 반딧불이 맑은 수영강에 비추어 더욱 정서를 자내도다. 정녕코 아름다운 가을밤 풍경이랴오.

8) 연산모종(蓮山暮鍾)

금련산(金蓮山) 꽃봉 속에 마하반야(摩訶般若) 천년 고찰(古刹) 석가여래(釋迦如來) 자비심을 고금에 통하여라.

옥여봉(玉女峯) 탄금성(彈琴聲)에 배산(盃山)에 잔질하고
봉래현감(蓬萊縣監) 옛 성터에 보국조(報國鳥)만 울어 있다.

영주암(瀛州庵) 매장터에
여대의관(麗代衣冠)이

성고구(成古丘)라.
 홍안(紅顏)은 어데 두고
 백골만 누웠느냐.
 인생의 전후생(前後生)이
 무극(無極)으로 거래(去來)로다.
 의용단전(義勇壇前) 황혼로
 (黃昏路)에 은은(隱隱) 종성
 (鐘聲)이 전해오니
 연산모종(蓮山暮鍾)이
 여기로다.



연산모종

금련산에는 신라 고찰 마하사가 있어 더욱 유명하다. 해가 질 무렵 절의 종소리가 울리면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다시 구원을 청한다는 시간이다. 이 뿐 아니다. 금련산 옥녀봉에서 타는 탄금의 소리는 배산(盃山)에 부딪혀 고려 때 정서(鄭敍) 선생이 의종(毅宗)에게 올렸다는 술잔에 여운을 전하게 한다. 그 배산 밑은 고려 때부터 있어 온 공동묘지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영웅호걸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 이곳이 조선조에 와서 봉래현감이 있었던 자리인데 고금의 우국지사가 뼈꼭새(보국조)의 혼령이 되어 피나는 울음을 울고 있구나.

허망한지고! 또 좌수영 담벼락을 따라 서쪽길에 이르면 25의 용단이 있는데 이곳에 모셔진 임진왜란 공신들이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 멀리 서쪽 하늘로부터 은은히 들려오는 마하사의 종소리가 이 적막을 깨뜨리고 있도다. 아아! 고금에 실려 온 시간은 다르지 않으나 인결은 가고 이제 임이 남긴 작품 속에 내 고향의 잃어버린 향수를 찾고 싶어진다.

글 끝에

우리 부산에서 창작된 팔경으로는 그 제목만 있을 뿐 가사로 읊어진 것은 오로지 이 수영팔경 뿐이다. 수영팔경의 가사는 동래부사 정현덕(鄭顯德)의 봉래별곡(蓬萊別曲)과 더불어 우리 부산 고전문학의 백미편(白眉篇)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그 저 작품이기 전에 부산의 역사와 유적, 흘러간 시간 속에 묻힌 인물과 사건을 새로이 정리해 볼 수 있는 서사시(敍事詩)이다. 더욱이 수영팔경은 임진왜란의 쓰라린 과거를 다시 일깨워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작품이다.

만약 최한복이 이 작품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향문학이 얼마나 쓸쓸했겠는가.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날의 민속과 생활을 읽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

▣ 파전한국학당 원장 김무조

◆ 집필위원 명단

성명	소속	집필분야
강대민	경성대학교 교수	동래고보 항일학생운동, 부산진 일신여학교 항일학생운동, 부산항일학생의거, 김선갑, 박차정, 안희제, 장건상
강정원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한홍교
강창석	동의대학교 교수	구포지역 항일민족운동
김무조	파전한국학당 원장	박원표, 최한복
김선미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재혁, 양한나
김숙현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경 허, 동 산
김 승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명규, 이봉우, 최천택
박철규	동아대학교 전임연구원	한형석
배승원	전 국제신문 논설주간	조명기
이귀원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 갑, 김병태
이송희	신라대학교 교수	범어사 항일의거
이원균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손진태, 정중환
장동표	밀양대학교 교수	이종률
정경주	경성대학교 교수	박필채
정영일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소재건, 한상동
차철욱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윤인구, 윤현진
최경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기장지역 항일민족운동
최해균	소설가, 향토사학자	우장춘, 장기려
하유식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김범린, 박영출
허 종	재)호주장로선교회 사무국장	매견시

◆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위 원 장	김입식	동의대학교 이사장
부위원장	이원균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위 원	강대민	경성대학교 교수
"	김무조	과전한국학당 원장
"	김성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김숙현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	김희로	우리물산장려운동 이사장
"	성병두	전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송정재	부산환경운동연합 고문
"	이익주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장
"	이재현	한마음저축은행 회장
"	이태길	광복회 부산광역시지부장
"	임정덕	부산대학교 교수
"	임종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전상수	남구청장
"	정영일	시인,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	정진채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회장
"	최상윤	예총 부산지회 회장
"	최원규	부산대학교 교수
"	최해균	소설가, 향토사학자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

인 쇄 2004. 06. 20
발 간 2004. 06. 30
편 집 부산을빛낸인물선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발행처 부산광역시
인쇄소 성진종합인쇄사

<비매품>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 5동 1000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 051/888/3451